

내가 살아온 이야기



2024!

2024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 저항하고 인생의 짧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쳐 힘들게 성장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본 녹취록 작업은 인천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선배 동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과 인천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지난 시절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 기록을 공유하고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더 높이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4
내가 살아온 이야기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에 경청해야 할 말씀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가 최소한 나선형으로나마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었습니다. 부침과 굴절은 있을지언정 진전하는 민주주의여야 했습니다. 앞서가신 이들이 목숨을 내놓으며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제단에 바친 숭고한 피가 여전히 선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겨울에서 2025년 봄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큰 고비는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작동 원리를 점검하면서 후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지탱해야 겨우 제자리나마 지킬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일깨워 줍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는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데에 그 이상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말하고 쓰는 일은 많을수록 깊을수록 널리 퍼질수록 좋은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묵묵히 수행해 왔던 기록 작업들이 새로운 가치로 다가옵니다. 처절하지만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는 목소리들을 통해 지난 시절을 살펴보는 일만으로도 오늘의 민주주의가 힘을 얻습니다. 민주주의는 멈춰 있지 않고 성찰하며 운동할 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

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군들과 젊은 시위대 사이에 뛰어든 70대 시민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았으니 너희는 뒤로 가라!”,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우리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새로운 민주주의는 너희가 다시 꽃 피우라는 당부로 해석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기록자이기 이전에 민주화운동을 듣는 자로 산 역사들과 마주했습니다. 이형진 형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해고 노동자와 해직 교사로 만난 인연이 형이 들고 쓰던 민주화운동 기록 작업을 잇는 일로 이어졌지만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하시길 비는 마음만 앞섭니다. 잠시 대타로 활동한다고 여기면서도 뜻깊은 일이기에 한 분 한 분 찾아볼 때마다 제 삶도 숙연하게 깊어졌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이겨온 ‘시대정신’을 삶으로 구현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여전히 시대에 예민한 채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고 계셨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까지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시대정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실감에 스스로 감동했습니다. 제3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동해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만날수록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상시에 더 소중하게 모시고 남기고 널리 퍼뜨렸어야 오늘의 위기에 흔들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때 잘 해’란 말이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더 늦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을 도맡고 계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중 센터장님, 이은주 사무처장님, 촬영 과정과 기록 실무를 맡아 수고하신 정보라 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말

씀을 남겨주신 김영규 교수님, 김명숙 회장님, 홍미영 대표님, 윤인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민주화운동가 기록 작업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 함께 하실 분들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과 민주화운동 원로분들을 보살피시는 박원주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임병구

서문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형식상의 민주주의’ 제도는 완성되었고 내용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하나회 체결 후 비상계엄이나 쿠데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후진국에서나 있지, 한국에서는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 학자들의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격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복원력’을 이야기한다. 고맙긴 하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 역사 기록 「내가 살아온 이야기」에도 그간 없었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진행해온 이형진 위원장(일반노조 위원장)이 중한 질병으로 「내.살.이」 대담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임으로 인천에서 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신 임병구 선생께서 그 뒤를 이어주었습니다.

「내.살.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창수 선생, 서원경 선생 박영대 선생이 합류하여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가 기대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구술 채록은 지금까지 44분의 인물을 대상으로 47회에 걸쳐 진행했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몇몇 분을 빼고 60대 후반 이후 연령대의 분들은 거의 만나 뵈었다. 내년부터는 50대와 60대 초반 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대는 대량으로 유입(?) 된 시기라 인터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예상된다.

2024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구술 자료집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대담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진행자이신 이형진 위원장과 임병구 선생님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두현 센터장님과 최진석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술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마무리하느라 고생한 우리 센터 정보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힘들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오경중

차
레

유선희



11

송경평



75

김영규



157

김명숙



203

홍미영



245

윤인중



313

유선희



- 1984년 11월 대우자동차노동조합 대의원
- 1985년 5월 대우자동차 파업·농성투쟁 관련 구속
- 1986년 11월 해고자투쟁위원회 프락치사건 관련 구속
- 1991년 5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 관련 구속 및 해고
- 1997년 대우자동차 현장조직건설 추진위원회(대·현·추) 의장
-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해고
- 2008년 한국지엠지부 정치위원장

일 시 2024.3.27.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유선희

유선희 선생은 강원도 홍천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을 전전하는 등 험악한 신으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다. 야학에서 대학생 선생을 알게 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이후 사회에 눈을 뜨게 된 계기도 되었다.

이후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였고 여기서도 대학생 출신 노동자를 만나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대우자동차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두 번에 걸친 체포와 구속, 해고와 복직을 거듭하면서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을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바꾸었고 이를 통하여 금속 노동자들 중에서 자동차 노동자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바쳤다. 또 대의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85년 임금투쟁', '87년 노동자 대투쟁', '정리해고 투쟁', 'IMF 투쟁' 에서도 '현장의 힘과 현장 조직 건설'을 통하여 조직의 힘을 만들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형진 오늘 2024년 3월 27일입니다. 올해 첫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우자동차 지금은 GM이죠. 한국 지엠 자동차 회사에서 80년대부터 노동운동과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 오신 유선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선희 예. 반갑습니다.

이형진 몸도 좀 불편하실 텐데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포에서 멀리 오셨죠?

유선희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오긴 했습니다.

이형진 사실 유선희 선생님은 이전에 유경순 선생님이랑 인터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비교적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요하게 유선희 선생님의 인천에서 노동운동의 시작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치는 투옥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은 1957년 10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하셨어요. 아주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야학하시면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공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야학하게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선희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고아원에 들어갔었는데 고아원에서 내가 어렸을 때 뛰쳐나와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는 고아원에 있을 때 4학년까지 다니다가 뛰쳐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정규적인 학교에 다니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아는 형님을 통해서 야학을 소개받아 야학에서 공부하게 됐죠.

이형진 서울 어디였습니까?

유선희 그때가 75년도 4년도 요쯤이었으니까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청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파출소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개발되는 한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동네가 또 있었어요. 강남구 청담동 거기는 청담동의 언북국민학교 그 밑으로 개발되지 않은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저기 개포동

쪽에 있었던 주민들이 중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 야학을 열었다고.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야학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이형진 선생님들은 주로 대학생이었습니다.혹시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던가요?

유선희 글썽 그때는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보다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일정 정도 했었고 그나마 이름 날렸던 사람이 김태경 씨라고. 그때 선생이었고 김태경씨가 아마 최초로 자본론 번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선생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김선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미생물학과인데 서울대학교 지금은 아마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지내는 지. 그런 사람들이 운영했고 하여튼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선생들이 모여서.

이형진 김정고시 야학이었어요?

유선희 그렇죠, 김정고시하고.

이형진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서 노동야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됐던 건가요?

유선희 거기서 70년대 야학이 처음 열었던 게 72년도 3년도 이때였던 것 같아. 원래는 천막에서 시작하다가.

이형진 야학 이름은 영동 야학이었어요?

유선희 영동 중등교육원

이형진 공식적인 명칭을 썼네요.

유선희 근데 뭐 인가를 받은 건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79년도까지는

계속 졸업생을 배출했지. 거기에 다녔던 인원이 합하면 아마 한 5~60명 됐어! 1, 2, 3학년 다 합해. 그렇게 하다가 79년도부터 조금 야학이 변경되고 80년대 민주화의 봄인가 뭔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검정고시 야학에서 노동야학인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죠.

이형진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서 중등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셨나요?

유선희 거기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그다음에 중학교 검정고시 거기서 하고 졸업한 이후에 대우자동차 들어가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를 했지.

이형진 그러면 노동야학을 하던 70년대 말 80년대 당시에는 아직 스무 살이 채 안 됐을 때잖아요?

유선희 그렇죠. 10대에서 20대로 막 넘어가는 그 시기였죠.

이형진 그때 노동야학을 하면서 노동자로 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어요?

유선희 아니 노동자라는 개념 그 자체도 몰랐고 거기를 접했을 때가 언제였나면 잠실에서 서민 아파트 생기고 철거민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는 시기에 그 근처에서 내가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그랬었거든.

이형진 건설 현장에서요?

유선희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그 시멘트 포대 있잖아? 그거를 수거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형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너 공부할 생각 없냐? 그렇게 얘기를 들어 그때 처음으로 야학에 그 형 소개로 갔었죠. 아마 그 형이 야학에 잠깐 있었던 것 같

아. 그래서 내가 공부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뭐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이형진 80년대 서울의 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라도 하셨나요? 광주항쟁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어요?

유선희 그렇죠. 그때는 내가 졸업을 하고 김태경 선생이 운영하는 책방이 있었어요. 그게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쪽에.

이형진 논장 서적이죠.

유선희 광장서적인가? 논장인지 광장인지 맞아요. 거기 책방이 있었는데 그 책방에서 책 배달을 했어요. 책 배달을 가면 이제 서울대학교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배달을 하게 되고 학생회였나? 하여튼 서점도 있었고 학생회에도 책이 필요하면 몇 권 또 갖다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학가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막 데모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접하게 됐던 거지. 알고 접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대학생들의 데모하는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태경 선생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이형진 구체적으로 정수 직업훈련원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83년 정도 되셨을 때 아닌가요?

유선희 80년도에 서울의 봄, 그런 시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 그때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대학교에 가보면 완전히 군인 애들이 진을 치

게 되고,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막 잡혀가는 것도 보고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나는 그때 건설 현장으로 일도 다니고 또 정국이 이렇게 되면서 그 책방도 아마 문을 닫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일도 그만두고 또 이제 건설 현장으로 다니다가 야학에 있었던 선생하고 몇몇 사람하고 소모임 형태로다가 모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동 검정고시 야학에서 노동야학으로 변경할 때쯤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성수동 교회 쪽으로 야학을 옮겼어.

그리고 나서는 몇 번 그쪽에 찾아갔었는데 내가 거기서 특별하게 해야 할 일들을 잡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 이제는 내가 좀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때는 대학교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거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대학교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 종로에 있는 학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막상 대학교 시험을 치르려고 이것저것 호적 정리도 해야 하고 해서 봤더니 갑자기 내가 또 이름 때문에 신분이 여자가 돼 있었던 거야.

이형진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자로

유선희 그래서 이거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자. 그래서 소모임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직훈(직업 훈련원)이라도 일단은 좀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정수 직업훈련소에 들어가게 됐지.

이형진 정수 직업훈련원에 가시는 것은 82년경이었습니까? 선생님이 25살 정도 됐을 때네요.

유선희 그럴 즈 되겠죠.

이형진 직업훈련소는 1년 합숙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때

유선희 그때 밀링(머신)

이형진 밀링을 하셨어요? 용접 같은 건 안 하시고.

유선희 밀링 전공이었죠. 거기는 밀링반, 선반반, 그다음에 연삭반, 용접반 이렇게 다 나뉘져 있었으니까.

이형진 밀링을 전공하신 게 대우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네요. 그렇죠?

유선희 밀링머신 전공하고 그다음에 밀링머신 자격증을 딴 이후에 그걸 가지고 대우자동차에 입사하게 된 거죠.

이형진 입사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유선희 그렇죠. 그때는 호적도 고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이형진 그럼 83년 하반기 정도에 대우자동차에 입사하시는 건가요?

유선희 83년도, 직훈이 이제 8월이 만기거든. 82년도 7월부터 83년도 8월까지. 근데 대우차에 면접해서 취업한 거는 6월이라 그때부터 근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끝나기 전에 2개월 동안 실습 형식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죠.

이형진 그때 인천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혹시 연고나 인천에서 만날 만한, 알던 분들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혈혈단신으로 취업했다는 통지를 받고 출근을 하시기 시작한 거네요.

유선희 출근도 거기 직업훈련소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거기서 자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다가 취업 발령이 난 이후에 저기 부평에 방을 얻어 거기서 생활하게 됐죠.

이형진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 월급을 타셨겠습니까. 그렇죠, 좀 뿌듯하셨어요?

유선희 하여튼 첫 월급이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마 일당이 3,7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이형진 10만 원 남짓 벌었겠네요. 근데 대우자동차 기숙사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자취를 시작하셨어요?

유선희 혼자 살았지. 부평역 근처에 부평역 근처에 자그마한 방, 옛날 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닥다닥 방만 널려 있는, 부엌도 별로 없고 방만 얻어서.

이형진 문 열면 부엌 겸 바로 방으로 통하는

유선희 방으로 통하는 복도가 있고 그다음에 부엌은, 집에서 거의 안 해 먹었지 잠만 자는.

이형진 처음 회사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적응이 잘 되던가요?

유선희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 의식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뭐 좀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간섭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꿈쩍 못 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잔업이라든가 특근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그래서 어찌다가 내가 잔업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얘기하고 사정해서 빼야 하는 이런 정도였었죠.

이형진 84년 9월이 되면 소위 대우자동차의 투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한 1년 동안에 거기 현장에서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나요?

계기는 어땠습니까?

유선희 내가 처음 들어가서 1년 동안 그러니까 83년도 6월 이후로 84년도 2월인가 그때쯤 해서 처음으로다가 홍영표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것도 야학 그쪽에서 활동하던 사람하고 어떤 연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홍영표가 관계 맺는 몇몇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희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용규씨, 이렇게 지금은 많이 잊혀 있는 사람들인데 현장 출신들을 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형진 현장의 노동자들, 같이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었나요?

유선희 84년도 8월 15일이었나 그때 어느 성당이었는데 하여튼 모임이 있었어. 처음으로 그런 대중집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거기서 만나게 됐던 거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몇몇이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아마 이용규, 전희식, 김태석 그리고 나 그다음에 홍영표.

이형진 송경평은 참여하지 않았나요?

유선희 송경평이 그때는 없었어. 84년도 말쯤 신분이 노출되면서 식당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럴 때 그때 봤던 거고.

이형진 그 소모임에서는 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책을 같이 좀 보셨나요?

유선희 주로 그때는 단체협약을 어디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 자체를 어디서 복사를 해오면 다시 또 복사해서 나눠서 보고 그거 가지고 연구를 했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전태일 관련된 문서라든가 아니

면 그때는 소 pamphlet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런 거
를 주로 봤지. 그때 유행했던 게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 굉장
히 유행했던 거였지.

이형진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 유동우 선배님 애긴데 그게 또 부평 4
공단의 일이었던 말입니다.

유선희 원래는 그 4공단이었는데 바로 대우자동차 옆이잖아. 근데 거
기 다니면서도 이 공장이었다는 거를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
요.

이형진 소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대우자동차에서 뭔가를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겠네요.

유선희 아마 첫 소모임의 형태는 그 모임이었던 것 같아.

이형진 그런데 송경평의 투쟁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우발적으로 일단
일어나게 된 거죠?

유선희 내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소모임을 하고 있
는데 조만간에 아마 대학 출신 노동자가 공개되면서 신분이
노출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때가
아마 10월쯤 됐을 거야.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송경평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노출되고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회사 출입을
막고 뭐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떤 사건
이 있었냐면 군필 복직자들의 호봉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다
음에 또 예비군 훈련 문제가 있었어요. 예비군 훈련 문제가 이
게 유급이나 아니면 무급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노동부에 경
평씨가 정리해서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유인물로 공개적으로
뿌려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송경평을 중심으로 사내 투쟁이

진행됐어요.

이형진 송경평 씨는 당시에 신분이 확인되고 해고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경우에 미리 준비된 건 아니지만 본인은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식당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선동했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묘사를 한번 해보시죠. 대우자동차 식당이 꽤 크잖아요? 동시에 식사하는 인원이 거의 천 명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 식당의 탁자 위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보셨나요?

유선희 그때 보기는 봤는데, 아마 기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식당이 배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선다고. 그러면 줄이 보통 한 50m 가까이 이렇게 선다고. 그때 식당에서 유인물 쭉 나눠주고 식탁에 올라가서 그걸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동했던 것 같아.

이형진 사람들은 호응했나요?

유선희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신기하고, 이제 유인물도 챙기고 그러면서 밥 먹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거 읽잖아. 이런 걸 읽으면서 아! 이게 우리의 문제로구나 공감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호응이 들어갔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 그 주변으로다가 사람들이 같이 호응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죠.

이형진 박수도 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 투쟁은 그해 연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의원 선거까지.

유선희 그러다가 이제 송경평이 학생 신분이라는 걸 노출이 되고 그걸 사측이 기능직에서 사원으로다가 전환을 해. 그래서 사원

직으로 계속 근무하라고 그러면서 책상도 마련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출입이 좀 자유로웠었거든. 그렇게 해서 한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서도 선동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내가 송경평을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엔진부에 나와 이용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영표는 차체부에 있었고.

이형진 이용선 씨는 어디 있었나요?

유선희 이용선 씨는 그때 트럭이었나 정확하게 부서는 잘 모르겠네. 이용선 씨도 아마 같이 신분이 노출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홍영표하고 우리가 미리 사람들을 부서에서 모아서 어떤 날 언제 연설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선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을 같이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모으게 됐지.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핵심 노동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부서별로 경평이네 집 자취방에 가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각 부서별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이형진 유선희 선생님은 엔진부에 근무하셨죠? 엔진 밀링머신으로 이렇게 깎는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투쟁이 있을 때 현장에서 투쟁을 좀 더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태업을 한다든가 이런 양상이 좀 있었나요?

유선희 당시에는 없었고 이후에 대의원 선거가 있었거든.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투쟁 이후 노동조합에 가서 따지고 그랬었는

데 대의원 선거를 날짜를 잡고 그러고 나서 내가 출마를 했지.

이형진 대의원 선거가 미뤄져서 12월에 그때 출마를 하셨어요?

유선희 출마를 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내가 당선되고, 그리고 엔진부에서 3명의 대의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용규 나 그다음에 한비석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셋이 당선되고 전부 다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부서별로 대의원 그룹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가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의원 선거하기 이전에는 군필 복직자들 그쪽 친구들이 어쨌든 당사자의 문제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이 형성됐고, 그다음에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경평이네 집으로 데리고 가고 뭐 이랬던 거지.

이형진 송경평씨 집은 어디였나요?

유선희 지금 정비사업소 대각선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보면 거기가 뭐가 있어? 거기 무슨 찜질방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치야.

이형진 북개천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선희 북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슨 상가가 거기 있잖아? 그 안쪽 동네.

이형진 선생님은 그때 사실 2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유선희 예.

이형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신입 사원이잖아요? 막내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엔진 부서에서 대의원 나와서 바로 될 수 있었다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선희 내가 들어갔을 때 젊은 애들은 대부분이 군 특례자야. 그러니까 개들은 만약에 거기서 잘리면 군대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고 그다음에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장년층하고 청년층들하고 갭이 많았어요. 장년층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선배니까 감히 못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은 굳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어찌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뭐야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다음에 문제의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내가 원래 담배를 안 피웠는데 담배를 거기 들어가서 피우기 시작했다고. 담배를 얻어 피우고 또 나눠주고 하면서 또 애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적 의식적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 반이 그때 이제 38명이었나? 그리고 젊은 애들이 한 17~8명 됐어. 젊은 애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됐어. 소장과 모임이라고 그래서 깨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친목회를 만들었었지. 야외에도 같이 가고 뭐 그런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회장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 1년 가까이 했었죠. 그게 이제 밑바탕이 됐고 그러면서 여러 다른 라인하고도 또 친목도 도모하고 거기는 그때 축구하고 그러니까 점심때 그 짧은 시간에 축구하고 야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었거든. 그거 하면서 사람들 안면도 넓혀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형진 나름대로 조직 활동을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84년 말에 대의원이 되고, 12월 말 정도 되면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띄우고 또 근로자 함정이라는 소식지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 집행부하고는 무관하게 현장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유선희 그때는 노동조합이 완전히 자기 기능을 상실했던 상황이었죠. 군필 복직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상여금이 연체된 게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문가 그게 3년인가 그렇게 연체가 됐는데 장년층들은 그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지.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유예한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합의서가 발견됐어. 그 문제가 불거져 노동조합을 대차게 공격했거든. 노동조합에 가서 막 따지고 집단적으로다가 50명 100명씩 몰려가 따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었죠. 노동조합이 자기 기능을 못 하고 마비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노동조합을 갈아치우자고 하면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다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거죠.

이형진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아주 공개적인 조직은 아니었던 거죠?

유선희 그게 공식적인 조직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 모임에 구체적인 어떤 활동의 방향이라든가 구심, 임시 명칭 이런 식으로다가 붙었던 거고 그게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

이형진 이제 85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84년 말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름 현장 조직이 태동해서 85년에 ‘임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85년 4월에 투쟁으로 가는 과정을 좀 그려보시겠습니까?

유선희 정상화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현직 집행부하고 아주 심하게 대립하고 대의원대회를 대의원 선거를 어떻게 했든간에 개들이 계속 미루다가 현장의 여론이라든가 조합원들의 향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날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1년짜리 대의원이긴 하지만 선거를 12월에 해서 대의원을 선출했는데

그때는 집행부 파 민주당 이런 식으로다가 나뉘었으니까 집행부 파가 그때 우리 대의원 수가 22명인가 그래 22명이었는데 22명 중에서 18명이 민주당파가 됐어. 본조가 22명이고 그다음에 부산지부에서 한 20표가 넘을 것 같아. 그쪽이 합해서 그러니까 본조가 한 22표 그다음에 지부가 20표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대의원 선거했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하잖아? 대의원대회에서 1부는 행사 형식으로 초청해서 기념식 하는 거고 2부에서 본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 그때 불신임안을 제기하려고.

이형진 긴급동의로.

유선희 위원장을 끌어내고 새로 집행부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었다고. 그래서 대의원대회 하면 부산지부 대의원들이 다 올라오거든. 보통 집행부에서 차비도 대주고 숙박비도 제공하고 아마 술도 대접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불신임에 동참시키려고 엄청나게 찾아다녔어. 어디 여관에 있는 걸 알아서 거기 쫓아가서 우리 얘기 좀 들어보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이 노동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쫓아다녔거든. 여관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잡아놓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간부들이 쫓아와서 개들하고 또 싸움도 막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는데 3분의 2를 넘어야 통과가 되잖아. 근데 막상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위원장 불신임안은 부결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

서 그냥 이 집행부가 그대로 될 수는 없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차피 임투를 앞두고는 뭔가 회사하고 싸움을 하려면 현 집행부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임투 요구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 우리는 그때 요구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어. 자료 보면 알 텐데 집행부 안과 우리 안 그걸 가지고 싸움이 잦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집행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실신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식당에서도 싸우고 그다음에 식판 던지기 싸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박재석이 신분이 노출돼서 양평동으로 전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첩회 투쟁한다고 양평동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리저리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싸웠던 것 같아.

이형진 최종 요구는 18.7%로 일단 정리된 것인가요?

유선희 18.7%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이십몇 프로인데 18.7%가 집행부 안이었고 그때 임투 공동요구안을 작성하기로 했거든. 거기에 홍영표가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실무 관계로다가 집행부 안과 우리 안이 대립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그때 이용선이 출투(출근투쟁)인지 박재석의 출·투인지 몰라도 출·투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나하고 홍영표하고 몇몇 지도부급들이 경찰에 달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경찰에 감금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열을 받아서 식당에서 대업비슷한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용규라는 친구가 우리 때문이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내밀었던 거와 우리 거를 받아들여서 타협안으로 확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

를 해서 그 집회가 끝났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올 수 있었는지는 어쩐지 몰라.

이형진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과정이 아니었어도 점심시간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집단으로 그런 것들을 압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는 거네요.

유선희 그래서 그때 오늘은 만약에 임투 결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설 명회를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식당에 밥 먹고 나서 보통 한 15분에 20분이면 밥 먹잖아.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설 명회 쪽 하면서 보통 많을 때는 500명까지도 모여서 노조 집행부 사무실 가서 그냥 막 항의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저기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이형진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왔네요.

유선희 하여튼 조직력이 핵심 조합원이라 열성 조합원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 대오가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 모여 산에도 가고 그랬었거든. 거기 헬기장 있잖아 그 옆에 가서는 해방 춤도 추고 핵심적으로 같이 모이고 했던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40명에서 어떨 때는 80명 가까이 짜여 있었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면 그 모임 때문에 그 힘으로 그냥 몇백 명이 같이 달라붙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의 동력이 하여튼 간에 그 상황을 주도했으니까 일단.

이형진 점심시간을 이용한 집회 투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요구안을 18.7% 확정하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선희 18.7%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주파와 집행부가 힘을 합

해서 단일한 대오로 우리가 임투에 임하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한다고 결의를 했어. 집행부하고 교섭단을 같이 꾸렸거든. 그래서 교섭위원들도 뽑고 교섭위원 중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부장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정비 지부장, 부산 동래 지부장도 들어가고 본조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조에서 이제 대의원 대표로 홍영표하고 누군가가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거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거야. 같이 집행부 공동으로 들어가서 여러 차례 교섭했지. 교섭하는 것도 우리의 요구는 단일하다. 그냥 양보 없이 무조건 관철이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우리도 우리가 요구했던 애초의 안을 양보하고 집행부의 안을 받았으니까는 그거는 틀림없이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그래서 교섭을 몇 번 안 하고 교섭 들어가서 줄 거냐 말 거냐 이 답만 듣고 나와라. 구구절절하게 협상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시켜 교섭에 들어갔고 교섭 들어간 날은 그 교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조합에 와서 공청회 듣고 교섭 결과를 발표해라 그런 식으로 점심시간에 오전 교섭했으니까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것만 듣고 나오는 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오전 교섭하면 점심때 가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2차인가 그때 가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회사의 답변을 듣고 와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

그런데 파업이 공식적으로 됐던 거는 그 교섭 결과를 놓고 위원장이 교섭 결과를 발표하는데 아마 회사에서 제시한 내용

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파업할 건지 말 건지 이거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기물 파손도 있었고 완전히 점거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때 김영만 씨인데 김영만 씨한테 파업으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라 이렇게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형진 80여 명 정도가 공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위원장한테 압박하고 파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유선희 그때는 하여튼 80여 명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그 결과를 듣고 현장에서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던 것 같아.

이형진 그런 일은 또 처음이었죠.

유선희 그렇지. 부서별로다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뭐 하고 이랬는데 점심시간에 교섭 결과 보고를 받고 회사가 아무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원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태업을 해야 된다고 전부 다 장갑 벗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라인을 돌기 시작했지.

차체부 그다음에 프레스 그다음에 조립 도장 이렇게 쪽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지 사람들이. 근데 100명, 200명 이렇게 라인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엔진부 쪽으로 가니까 차체부 도장부 이렇게 돌아 엔진부 가니까 엔진부가 사실은 그때 사람이 제일 많았었거든. 그때는 엔진부만 하더라도 그 부평 인원이 약 2,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엔진부에만 400명 가까이 있어요. 그 인원이 거기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다

가 갔나 노동조합으로 갔나 했더니 한 곳에 다 몰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와 하고서는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해서 아주 그냥 최고조로 올라갔었지.

그 인원이 노동조합으로 가서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가 종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원장을 그냥 단상에다 올려놓고 계속 압박했던 거지. 나중에 위원장에게 그때 심정을 물어봤을 때 이대로 놔두면 폭동 날 것 같다, 그래서 폭동 나면 대책이 안 서니까, 그렇게 격해졌던 분위기에 자기도 공포에 질려 처음 겪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파업이 선언되고 파업에 들어갔던 게 처음이었어

이형진 역사적으로도 처음이고 법에도 없던 일이에요. 교섭 몇 번 하다가 파업을 해버린 건데 대우자동차 역사로도 처음이지만 80년대 이후에 대공장에서 처음 투쟁이었죠. 우발적이라기보다는 84년 말부터 쪽 경험이 쌓였고, 그날은 몇십 명이 현장을 돌았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현장 동력으로 수백 명 이상을 모아낼 수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대단한 성과죠.

유선희 그때의 핵심 대오가 이후 부서에서 쫓겨나 그다음에 계열사 배치받고 그랬던 인원이 아마 따지면 한 80명 가까이 될 거야. 파업이 선언된 다음에 쟁의 대책위원회라고 공동으로 같이 꾸렸다고, 그때 이제 아마 협상 내용이 아니라 다른 외적 분위기가 좀 있었어. 파업 한 5일쯤 됐을까, 갑자기 예비군 동원 훈련이

없었던 게 막 생겨나고 그다음에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생전 하지도 않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잡히고, 예비군 연대가 따로 있거든. 자기네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고 싶으면 자네 마음대로 일정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외곽 돌아가는 분위기가 경찰들의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형진 강제로 진압할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유선희 그리고 나서 또 송경평이 그때는 현장 출입을 못 했었거든. 근데 그때 현장에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조짐이 안 좋으면서 현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소스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때 긴급회의를 한 거야. 부서별로 이런 상황이 예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전부 퇴근한 이후에 공장을 봉쇄하고 현장에 못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끝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현장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농성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를 부서별로 했어요.

이형진 그래서 기술실 점거를 하는 건가요?

유선희 그때는 기술연구소를 점거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 어떻게든 현장에 남아서 공장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점거 농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철야농성이예요. 철야농성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서별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회가 꽤 진행됐죠. 그리고 엔진부 그다음에 프레스 부서별로다가 모이면 보통 그때 인원들이 적어도 100여 명 가까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부서별로 발표를 하니까 전부 농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

정을 해서 처음에는 식당에서 농성하는 걸로 했었다고. 근데 식당에 있으면 공장을 다 사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효과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접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고민을 찾다가 보니까 기술연구소를 누가 제안을 해서 거기 올라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기술연구소를 목적 의식적으로 접거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형진 선생님은 그때 계속 농성 파업 현장을 지키셨어요. 집에 퇴근하지 않은 거죠?

유선희 뭐 퇴근할 일이 없었지요.

이형진 저녁에 농성할 때 보통 몇 분 정도가 남았을까요? 한 500명 이상 인원이 확보됐나요?

유선희 식당에 모였을 때가 한 600~700명 가까이 됐어요. 거기 농성하겠다고 남아 있었던 인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술연구소로 딱 정해서 올라가 인원을 확인하니까 그때 한 380명인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딱 찼었지. 그래서 이제 자리 깔고서 계속 농성하고, 자고 먹는 거는 배식도 끊고 그랬었거든. 우리는 굶으면서 농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배식은 안 하고 밥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주더라고요.

이형진 외부에서 밥을 해서 지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선희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배식을 끊으니까 외부에서 아줌마들이 금방 결혼한 신랑하고 그다음에 총각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몰려 자기 신랑이 거기 있으니까 와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모여서 아마 지역 단체나 정연실씨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해서 반입

을 했다고.

이형진 예, 청천동 쪽에서 그런 걸 했다고 해요.

유선희 그랬던 것 같아요. 외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김밥이 막 들어 오기도 하고, 김밥 속에 편지가 말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아마 그래서인지 외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밥은 게네들이 해서 우리한테 갖다주기 시작했지,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갖다주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쪽 둘러앉아서 밥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면 갖다 버리고.

이형진 기술연구소를 접거하여 농성한 것이 투쟁의 막바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섭이 급진전 되는데 노동조합 집행부가 아닌 투쟁 지도부 홍영표를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됐어요.

유선희 거기서 농성 들어온 사람 중에서 협상 대표가 별도로 뽑혔어. 그때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홍영표하고 열성 조합원들 몇몇하고 근데 거기 농성에 들어왔던 대의원이 별로 없었어. 대의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깥에 나간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나하고 홍영표 한00, 엔진부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던 것 같더라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대의원은 4명이었었죠. 그래서 4명이 어떻게 보면 그 농성장 투쟁 지도부였고 그다음에 협상단이 따로 있었고.

이형진 어쨌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협상이 이루어지고 신분 보장까지도 합의는 했어요. 그걸 김우중 회장이 지켜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80년대 분위기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대우자동차의

85년 4월 투쟁이 마무리되는데 구속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은 혹시 하셨나요?

유선희 그때는 구속자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거의 못 했어요.

이형진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주겠다고 한 거 믿은 거죠.

유선희 그렇지 믿은 거지. 그러니까 협상 끝나고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김우중이 그때는 기무사였나 하여튼 그쪽 핵심 라인들하고 신변 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잠시 피해 있어라. 지도부로 그때 지목했던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됐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경찰서에 가지 말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때 대의원이었던 몇몇 사람들하고 전부 다 담 넘어서 도피하고 농성을 풀고 그러니까 협상 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할 때 지도부들은 외곽으로다가 그냥 튕 거지.

이형진 해산할 때는 현장에서는 만세를 부르는 분위기였나요?

유선희 이젠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느낌이었었죠. 이제 현장에 복귀하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형진 유 선생님도 그랬나요? (그랬지) 이제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며칠간 잠적해 있는데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유선희 신문을 보니까 송경평이 구속이 됐고 다른 사람은 수배가 떨어졌 거야. 수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형사들이 추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그냥 도망가는 이런 상태로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현장에 들어

가서 다시 투쟁을 조직하자.

이형진 수배 명단을 확인한 건가요?

유선희 아니 그런 건 없지. 홍영표 박재석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은 수배 떨어지는 걸로 언론상으로 접했고 그다음에 아마 알게 모르게 김우중 쪽인지 어쩐지 그쪽 라인이 있었겠죠. 아마 그쪽에서 정보를 준 것 같은데 난 홍영표가 그때 같이 들어갔나 하여튼 현장으로 치고 들어가기로 했어.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유인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차로다가 회사 들어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마 거기에 먼저 들어가기로 한 사람과 만남이 잘 안되어 나는 빠졌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숨어있다가 들켰어. 조합원들한테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는 것도 못 하고 보고도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프레스 거기 숨어있다가 발각돼 잡혀 연행됐어. 나는 그다음 날 개천을 통해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유인물 나눠주고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잘못된 게 없으니까 뭐 합의를 한 신병 처리라든가 이런 약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조사받고 나오겠다, 하기로 했으니까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경찰들한테 잡혀 들어간 거지 식당에서.

이형진 선동을 하셨네요. 조합원들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유선희 그때는 아마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했고 형사들이 그냥 짝 갈러 있었어요. 형사들이 식당 안에, 식당뿐만이 아니라 현장에도 상주해 있었으니까. 파업 농성 이후로도 그런 상황에서 식당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 날지 몰라 확 덮치지는 못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내가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연행을 하게 된 거죠.

이형진 8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 경찰들이 상주한 거는 뭐 있었던 일인데 공장에 경찰들이 상주하면서.

유선희 거기는 상주하면서 아예 일하는 그곳을 순찰했어.

이형진 선생님의 1차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시작함)

이형진 선생님이 직접 겪은 84년 하반기부터 85년 투쟁까지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유선희 선생님은 회사에서 근무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예요. 57년생이니까 스물일곱 정도죠. 사실 87년에 현대자동차 투쟁 이전에는 이런 투쟁은 없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을 만들 때 이런 대중 투쟁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노조가 어용화됐기 때문에 현장의 대중 투쟁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자면 그때 뭐 경제투쟁이었다든가 이런 종류의 평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운 거 말고는 없는데 그걸 경제투쟁이라 그러면 물론 임금인상 투쟁을 한 건 맞죠. 근데 비교해 보면 아마 87년 이후에 현장의 역동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 상황이 많이 열렸을 때는 또 좋은 때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찼을 거란 말입

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면 솔직히 잘했던 지점과 본인이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선희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왕성하고 혈기가 넘쳤을 때의 그 시기 인데 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에너지라고 그럴까 어떤 그 충만감 이런 것들을 난 거기서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흑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 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승리감에 도취한 놈들은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나에게 승리감과 어떤 보람 그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함께 맛봤던 하여튼 젊은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쉬웠던 거는 왜 지속적으로 할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근거지를 만들고 어떻게 됐든 간에 탄압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나면 거기가 공동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징역에 들어갔을 때 많이 고민했던 게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걸 피하지는 않을 거고,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좀 든든하고 버틸 수 있는 이런 지구력 있는 운동 역량을 키워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게 딱 어떤 형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이 현장 조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활동하는 데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형진 구속된 사람들은 물론 학생 출신들도 있었을 거고 노동자 출

신들도 있었습니다. 인천구치소였잖아요. 근데 85년 5월부터 86년 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여기 계셨거든요. 첫 구속이었고 사실 뭐 교도소 처음 가보는 거였잖아요? 좀 황당했을 텐데 처음에 심정은 좀 어땠던가요?

유선희 처음 들어갈 때의 심정은 그전에도 경찰서는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잡혀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과에 들어가 어떨 땐 차 마시고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형사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 번 접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어요. 저놈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그냥 골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가서도 어차피 구속된 거 그냥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사실 비굴해지니까 그냥 당당하게 임하자 뭐 이런 심정으로다가 저기 교도관이나 아니면 형사들에게 당당하게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런 심정으로 했어요.

이형진 그 첫 구속 기간 중에 교도소 생활에서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면회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유선희 저는 없었죠. 우리 형하고 형수가 가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오셨던 것 같고 뭐 거의 없었죠. 첫 번째 구속 때는 그랬고 그때는 독방에 있었는데 독방에 있었는데 독방에는 처음에 가서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막 옷 벗고 그다음에 뭐 신체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점까지도 다 기록을 하더라고. 그런데 하라는 대로 그냥 했고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갈 때 별도로 묶고 가더라고. 아마 언론을 많이 타서였던지 어쨌는지.

독방에서 지내면서 처음에 왔는데 교도소 처음에 오면 일어나 '갱생'하고서는 이제 그거 해야 하거든. 가만히 봤더니 교도관이 와서 '갱생'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살아야 하는 거라고 내가 다시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거기서 몇거리를 좀 했더니 귀찮은지 그냥 가더라고 그다음부터 '갱생' 안 하죠. 그냥 누워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싸우기 귀찮았는지 그냥 가더라.

이형진 책도 좀 보셨어요?

유선희 내 앞으로 들어온 건 없고 옆에 경평이하고 같이 생활했거든. 독방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거기 경평이 한비석, 김남원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개들한테 들어온 책들을 빌려서 봤고 관에서 빌려주는 책이 있었어. 그때 그거 좀 봤었죠. 사실은 85년도에 그때는 책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없었어.

이형진 86년 2월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또 농성 투쟁을 하러 가세요. 전태일 기념관 농성을 했더라고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선희 그때 인천에서 해고가 됐고 그다음에 복직 투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인천 사람들하고 같이해야 하는데 그때 한참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렇게 물색하는 차에 박영진 열사가 분신하셨고 그걸로 왜 전태일 기념관으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가서 추모 집회를 하게 된 건지, 거기서 우연히 농성하게 되었지. 근데 거기가 경찰들한테 둘러싸였어. 나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나가면 잡힐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날 때까지 농성하고 위에 올라가서

글 써서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대치하고 있었어.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형진 청계피복노조 복구 투쟁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태일 기념관 그러니까 청계천 가서 투쟁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인노련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유선희 그러니까 1차 구속돼서 석방된 이후에 박영진 열사 추모 집회로 전태일 기념관 농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구류를 살았지. 구류를 한 10일인가 이렇게 수유리 경찰서에서 살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사람들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인천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지. 그건 복직 투쟁 중심이라기보다는 지역 활동가들의 투쟁이었다고.

이형진 활동가들이 모여서 지역 정치투쟁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5.3 투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해투위’ 활동가들하고 숙식을 같이하셨나요?

유선희 그때 ‘해투위’라고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해고자 투쟁위원회였어요. 내 기억으로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한 7~80명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구별로다가 주안5공단, 부평4공단 중심으로 하여튼 주안 동인천 지역하고 그다음에 부평 그다음에 부천 이쪽으로 해서 아마 3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모임들이 있는데 투쟁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투쟁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형진 동보산업 출신 정동근 선생이 대표였나요?

유선희 정동근 씨도 그때 내가 먼저 징역에서 나와서 해투위 활동을 하다가 정동근 씨 나오길래 거기 같이하자고 내가 끌어들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사자이기도 하죠.

이형진 그런데 그때 숙식을 같이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방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투쟁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랬다는 건가요?

유선희 우리 조가 부평 쪽 사람들인데 몇 개 팀으로 나뉘어. 그래서 5명이나 6명씩 한 팀이 돼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을 했지.

이형진 혹시 합숙을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선희 송내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십정동이었나? 십정동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있었고 하여튼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모임을 했어요.

이형진 혹시 그때 5.3 전후로 기억나는 투쟁이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선희 그때 5.3 투쟁 전에는 3월 10일 전등사 투쟁.

(기침으로 잠시 쉬고 다시 시작함)

이형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구속 후 석방돼서 3월 10일, 인노련이 주관했던 인천지역 임금인상 투쟁 전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많이 알려진 게 아니어서 선생님께서 보고 겪으신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희 내가 2월 15일 날 석방을 했으니까 석방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었죠. 뭐 그래서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주로 어디 있었냐면 저기 부평 노동사목인가? 백마장에 있었던 거기서 주로 신세도 졌고 그다음에 경평이네 마누라 집에서 신세 좀 지고 그러면서 인천지역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만

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월 10일 이때쯤에 임투 전진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게 어떤 모임인지 몰랐는데 가보고 그래서 그냥 갔던 거거든.

이형진 원래 계양산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유선희 계양산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기 홍진 아파트 앞에 일단은 모였어. 그래서 계양산 앞으로 갔는데 봉쇄가 됐다고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버스 타고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 가 아마 강화 어디였던 것 같아.

이형진 전등사

유선희 전등사 주차장이었는지 어쨌는지 주차장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했어요.

이형진 한 100여 명 됐습니까?

유선희 꽤 됐지. 100여 명 넘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전등사 들어가는 길로 행진할 때는 길이가 꽤 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회하고 행진을 하는데 경찰들이 막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구호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러면서 데모 비슷한 형태로 됐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들이닥치면서 연행을 하려고 그랬어. 결국은 투석전도 하고 몸싸움도 하면서 연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몰려가고 전등사로 최루탄도 터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전등사로 피신해서 거기서 사람들은 최루탄 마셨으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널브러져 있었어. 그게 어떤 형태의 투쟁이었는데 어쨌다가 그 투쟁이 벌어졌는지 나도 처음 경험한 거라 왜 거기서 투쟁했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이형진 절에서도 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유선희 그래서 어떡해? 피신을 한 거니까 거기서 아마 한 100에서 200명 가까이 계속 항의 했던 것 같아, 자유롭게 보내 달라고. 계속 대치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도 못하게 생긴 거야. 버스도 없잖아. 결국 전등사 사찰 측에서 아마 항의가 들어갔던 것 같아. 여기 국보급 보물들이 있는 곳인데 계속 이렇게 대치하다 그거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마 절에서 민원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안기부인지 어쩐지 하여튼 대표가 와서 농성장 사람들하고 협상해서 차를 대절해 주는 걸로 해서 거기서 해산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나도 이게 무슨 경우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임투 전진 대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봉쇄됐다고 전등사로 수정이 되었던 것 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형진 그때 전등사 사건으로 구속자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유선희 그 상황에서 거기서는 구속자, 연행자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기화 씨와 몇몇 사람들이 그 수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랬겠죠. 당시에 집시법도 별로 적용이 될 때가 아니니까 뭐 임의로 봐줬는데 몇 명은 수배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인노련 활동은 인천에서 5.3 투쟁에서 최고조에 이르거든요. 5.3 투쟁 준비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유선희 그때 해투위가 결성이 되어 활동했는데 주로 유인물 만들어서 뿌리고 그다음에 인 노련 활동이 그때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죠. 인노련 서노련 주로 집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서 같이

집회하고 그다음에 집회한 사람들 퇴로를 확보하는 투쟁을 했어요. 집회가 있으면 투석전이라든가 그때는 일상적이었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었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선봉에 나가서 투석전하고 그다음에 빠지는 사람들 보호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거기서 주로 담당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해고자들이 발생하면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생활을 했던 숙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개적으로 나온 숫자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 팀에서만 3개 정도 한 5~6명씩 흩어져 생활했으니까 그러면 주안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천 쪽에서도 그렇고 그 팀들도 대부분 그 정도 규모로 각각 흩어져서 합숙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부에 프락치가 있어서 경찰들한테 제보하고 그래서 방이 들통이 나고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형진 연행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유선희 그렇지. 방을 습격당하고 유인물 빼기고, 신분이 드러나 군대 끌려가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었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프락치 색출해야 한다면서 팀 내 구성원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지목되어 그 사람을 처단한다고 신문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사건이 되었어. 나랑 같이 합숙했던 사람이야. 방을 같이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는 데리고 나와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고 나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를 데리다 어떤 내용을 제보했는지 뭐 이런 과정을 신문한다고 산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일이 터진 거지. 그 과정에서 방법이었던지 순찰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발견

되어 그들과 싸움이 붙었던 것 같아. 나는 뭐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싸움이 나고 서로 두들겨 패고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났던 것 같더라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또 수배되었죠.

이형진 수배돼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건가요?

유선희 글썄 그게 특수 폭력인지 어쩐지 하여튼 사람 잡아다가 패고 한 거니까 그때는 구속 사유가 뭐였는지 난 모르겠어.

이형진 다시 구속되는 것은 86년 11월.

유선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마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5.3 투쟁 끝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수배가 많이 떨어졌잖아?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또 상황도 좀 악화됐고 그런데 모임의 형태들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중에서도 또 재취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지. 7월 이후로 수배가 돼요.

이형진 선생님은 86년 5.3 투쟁 당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선희 글썄 내가 생각나는 거는 하여튼 그 집회, 시민회관 자리에서 경찰들하고 주안역 쪽으로 대치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쪽으로 대치하면서 각 조별로 대치선을 치고 거기서 경찰들하고 투석전 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최종까지 밀려 들어왔던 게 주안역 쪽에서 시민회관 여기까지 와서 그냥 투석전을 아주 격렬하게 하고, 화염병 집어 던지고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해고자 투쟁위원회에서 야산에 올라가 투석전 연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염병 만드는 거 뭐 이런 것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형진 진짜 과격하셨네요.

유선희 그때는 하여튼 싸우는 게 주 업무였으니까

이형진 2차 구속은 86년 11월인데 수배된 상황에서 연행이 됐나요?

유선희 잡혔어요, 잡혔어. 무슨 얘기냐면 우체국 앞이었나 대한극장 앞에 집회가 있었거든. 유인물 뿌리고 그다음에 선동 뜨는 집회였는데, 그때 우체국 공사 중이었나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주동 뜨는 집회 시위가 있었어. 그때 거기 참여해서 진압되고 끝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뒤로 빠져 부개동 사거리 굴다리 밑에 거기서 버스 타려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형사한테 어떻게 재수 없게 걸려서 파출소로 끌려 들어갔지, 그렇게 잡혔지.

이형진 두 번째 구속이거든요. 그때는 면회 오신 분이 있었죠? 지금 결혼하신 부인.

유선희 있었죠. 그때는 지금 집사람이 '대한마이크로' 출신이었는데 '마이크로' 사건으로 구속되고 그랬는데, 꼭히 같이 결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형진 마이크로 노동조합이 85년에 만들어졌다가 그때 탄압받아서 깨지죠.

유선희 84년도에 만들어졌다? 84년에 만들어졌다가 85년도에 한국노총 점거 농성하고 구속되고 해고됐죠. 우리 집사람은 구속됐다 풀려난 다음에 아마 운동을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남이라기보다 후배를 운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네가 계속 만나봐라 이래서 만나게 됐던 거거든. 나는 그때는 내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었고 그

릴 자신도 없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번 만났어. 몇 번 정도 서울에서도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저기 부천에서, 인천에서는 내가 너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주로 서울이나 부천 송내 이런 데서 네다섯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한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잡힌 거지.

이형진 면회를 오셨어요?

유선희 구속된 이후에도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면회를 못했지. 가끔 우리 형수한테 전화해서 면회 갈 때 되면 자기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왔던 것 같아.

이형진 이제 87년 7~8월 투쟁이 지나고 9월에 대우자동차 투쟁도 마무리됐을 즈음에 석방되거든요. 선생님이 2차 구속되고 나서 86년 11월부터 87년 9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구속 생활을 하고 징역 사는 동안에 6월 항쟁 그리고 87년 7~8월 투쟁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우자동차 투쟁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들어올 무렵에 석방되어요. 감옥에서 나와 복직 투쟁을 하든 아니면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당장 복직 투쟁보다는 지역 활동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선희 구속이 되고 나서 그때가 11월이지 않습니까? 건대 사건이 터진 그때였어. 바깥에도 그렇지만 징역에서도 칼바람이 부는 그런 시기였었거든. 구속돼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묶여 있더라고.

이형진 대낮에 독방에서도 그냥 묶어봤어요?

유선희 그랬지. 나도 독방에 들어갔어. 어차피 85년 구속됐을 때 워낙 내가 깡판을 쳤었는지 꼴통으로다가 취급해서 나는 일반 사

동에 안 넣고 그냥 바로 독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독방에서 보니까 그때 김창환하고 몇몇 애들이 묶여 있더라고. 칼바람이 불면서 아마 기선 제압하려고 싸움을 교도소에서 걸어서 일부러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 단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단식부터 시작했단니까. 그때는 남들 밥을 안 먹는데 나도 밥 먹을 수 없잖아. 같이 단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단식 풀면서 감방 생활이 조금 편해졌지. 집회 시위로 구속된 사람을 다 공안 사범이라고 그랬잖아. 단식 끝나니까 우리는 5~6명이 사용하던 감방을 전부 한 사람씩 배치하고 감방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내가 그전까지는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주위들은 내용 가지고 그냥 이게 옳다는 생각으로 싸웠는데 그때부터 다양한 책들을 접하게 됐어. 2차 구속됐을 때 옆방 애들하고 통방을 하면서 내용 있는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때는 책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면서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사회의식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어떻게든 옥중 투쟁이라고 그럴까? 거기서 대표도 뽑고 교도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구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는 기술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의식이 그나마 거기서 갖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제 징역을 마치고 바깥에 나가 다시 또 구속되면 그나마 뭔가를 책이나 무슨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결혼부터 좀 해야겠다. 그래야지. 뭐 다시 들어와도 누군가 뒷바라지가 있어야

지, 혼자서는 진짜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 그때 박종철 열사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87년 하여튼 사건들이 아주 많았어요. 하여튼 징역 기간에 3분의 1은 단식을 했던 것 같아.

이형진 6월 항쟁까지는 바깥에서도 계속 투쟁이 진행되었어요.

유선희 6월 항쟁도 그랬고, 4.13인가 호헌 조치 때문에 그때도 또 단식하고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점거 농성 그때 경찰 투입해서 사람들 그냥 연행해서 구속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 그때 부상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이은구 씨를 비롯해서 김계수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다쳐서 불구가 된 거거든.

이형진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었죠.

유선희 그것 때문에 또 단식했지 하여튼 그때는 10개월 동안에 단식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생각나는 건 진짜 단식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진절머리까지 치면서 징역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만기가 되어 석방된 거죠.

이형진 교도소 나와서 지역에서 상담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나요? 현장은 당시에 대우자동차에서 최초로 위원장 선거를 직선으로 하게 돼요. 그게 88년이죠.

유선희 내가 나오니까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리저리 갈려지는 게 보이더라고. 그때 위원장 선거는 원용복 씨하고 다른 사람하고 붙었는데 원용복씨를 지지해야 되느냐 문제로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석탑과하고 그다음에 홍영표 쪽으로는 한노련 쪽인가 입장이 갈리더라고. 내가 나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은 석탑 쪽 사

람들이었거든. 왜냐하면 이용규도 같은 엔진부고 그다음에 이용규는 나보다 먼저 같이 나왔지만, 나는 구속 전에 바깥에서 계속 활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우자동차 87투쟁이 8월 투쟁인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홍영표, 이성재 이렇게 한노련 쪽과 그다음에 석탑 쪽 중심으로 해서 박재석하고 이용규하고 활동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선거를 놓고 석탑 쪽에서는 원용복, 저쪽에서는 누구를 그때 내밀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 선거를 막상 치르고 나니까 원용복이 된 거거든.

직선제로 원용복이 위원장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을 맺을 때 또 갈라지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왜 갈라져 활동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거든. 일단은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모색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기화형을 만나서 상담소를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활동비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서 일단은 같이 하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하고는 9월에 나와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데 원래 집사람이 결혼 안 한다고 서울에 가서 봉제공장에 처박혀서 일만 하고 그랬었거든. 내가 연락해서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냐? 주변 사람들이 맺어준 건데 그게 다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던 거지 다음 해 4월에 이형진 88년 4월에 결혼하십니다. 상담소는 처음에 송림동에서 있었

던 거죠?

유선희 송림동, 86년도 석방되고 기화 형 만나서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결혼까지 같이했던 거지.

이형진 그때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하셨어요? 뭐 활동비랄 게 별로 없었을 텐데.

유선희 내가 86년도에 해고가 됐잖아요.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구속되었는데 바로 해고가 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서 해고가 됐거든.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받은 돈이 조금 됐던 것 같아. 징역 나와서 그걸로 생활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우유 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활동 비용이라고 얼마씩 나오던 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그때 그 뭘 했냐면 택시 노조에서 실무 간사, 경리였는지 몰라도 그런 일을 했어요.

이형진 당시 해고된 여성 활동가들이 택시 노조에서 간사 일을 했어요.

유선희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생활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이렇게 생활했죠.

이형진 상담소 활동하시면서 대우자동차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을 좀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선희 대기업 노동자들하고 일반 노동자들하고 다른 점이 꽤 있더라고. 내가 한일불단 하고 영창악기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지원했었는데 노동조합 만드는 거, 노동조합 만든 다음에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교섭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도와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노동조합에
갔다가 강제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

이형진 한일불단 거기가 중소기업이었죠.

유선희 중소기업이었는데 인원이 한 8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불단
이 목재로 불상 등을 만드는 공장이었던 것 같아.

이형진 그러다가 복직 투쟁으로 집중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는
데 이게 8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88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복직 투쟁을 하셨던 것인가요?

유선희 88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해 말쯤 돼서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
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계열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서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이형진 몇 명쯤 됐죠?

유선희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부평에 있었던 핵심 노동자들이 계열
사, 정비 지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한 300
명 가까이 돼. 그중에서 지부로 강제 발령 당한 사람들, 그다
음에 대우전자나 계열사에 들어가 있던 사람, 전직됐던 사람
들 쪽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복
직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약 178명 정도 됐어
요. 그리고 해고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대오로 복직
투쟁을 시작했던 거죠. 노조 집행부에 해고자들 복직시키겠
다는 약속 받아내고 그러면서 노조 교섭 요구안에 해고자 복
직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단체 협약할 때 올리는 걸
로 했지.

이형진 현장 출근 투쟁도 하셨나요?

유선희 출근 투쟁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연락해서 모이게 하고, 임단투 때 어떻게 됐든 간에 대중 투쟁을 같이해야 하나 까 주된 거는 현장 내에 임단투 투쟁을 중심으로 현장 사람들 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때 유인물 만들어서 해고자 복직 투쟁의 당위성 이런 것들과 해고자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해고자 소식지에는 해고자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의 얘기라든가,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계속 발행했지.

해고자 복직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원이 공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임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대중적 요구안으로 89년도에 핵심적인 요구로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원용복 집행부와 또 갈등이 있어서 임단투를 끝내면서 추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야. 잠정 합의안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해고자 문제는 단체 협약에서 약속을 못 받아냈어. 그래서 해고자들 가족들하고 추석 전후로 농성 투쟁에 들어갔어.

추석 연휴 때도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장에서 귀성 버스가 운행됐거든. 그러면 귀성 차량이 한 50대 가까이 들어왔어. 버스에 가족들하고 그 애들까지 손잡고 버스에 타고서는 귀성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버스 지나가는 그 앞에서 농성하고 있었던 거야. 가족하고 조합원들에게 해고자들의 복직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어떤 열망들이 현장으로 전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월엔가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라고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

특별위원회인가 아니면 하여튼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결성됐어.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해서 교섭위원들이 구성되고 회사에서도 교섭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교섭을 해서 아마 그해에 복직 합의를 했던 것 같아.

이형진 복직 합의가 되는 거는 10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선희 10월에 합의하고 11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됐었으니까

이형진 선생님 입장에서는 85년 5월에 해고돼서 89년이니까 5년은 채 안 되지만 4년 6개월 이상 해고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감회가 새로 왔을 것 같은데요.

유선희 그때는 뭐 아주 하늘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었지. 현장 복귀라는 게 진짜 그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자신감도 새롭게 생기고.

이형진 그때 투쟁했던 분들이 다 복직은 안 됐죠?

유선희 그때는 주로 노동자 출신, 그러니까 학생 출신들은 안 되는 걸로 해서 그게 올바른 합의였는지 그 합의안 가지고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내부에 당시만 해도 학생 출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요구안을 채택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송경평의 경우에 요구를 안 한다는 이유, 정치권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이유로.

이형진 홍영표, 박재석, 유길중 그리고 전희식 이렇게 몇몇은 복직이 안 됐죠.

유선희 그때 안 된 이유가 목적 의식적인 운동하는 것 아니냐? 그들은 직업적인 운동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못하

겠다고 이랬는데 거기에 중심으로 했던 게 박재석이었거든. 박재석의 생각은 일단은 이 사람들을 다 들여보낸다는 물론 자기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영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의 가능한 복직자들이 1차적으로다가 먼저 들어가서 길을 뚫는 게 중요하다. 현장에서 싸우다가 해고되어 법에 따른 투쟁으로 복직하는 것 말고 힘으로 복직한다는 건 아직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대중적 힘을 통해서 복직의 길을 우리가 개척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그건 나를 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게 학출(대학생 출신) 아니면 노출(노동자 출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를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아마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그래 대중적 역량이 그 정도라면 이 정도에서 일단 타협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받아들였던 것 같아.

이형진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해고자들의 복직이라는 과제를 안고 일단은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현장 활동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89년 말에 복직하고 90년에 위원장 선거가 있고 또 연대회의 관련으로 탄압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원용복 집행부였잖아요.

유선희 원용복 집행부 때 복직을 한 거죠. 원용복이 복직 합의를 한 거니까 복직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려 했는데 나는 메인라인이 아니었어. 해고됐을 당시에 내가 담당했던 거는 밀링

작업을 하긴 하는데 불량이 나면 불량 난 제품을 갖다가 되살리는 수정 작업이었거든. 그거는 라인하고 떨어져 있는데 거기로 복직했죠. 원직 복직을 한 거야. 원직 복직한 그 자리가 내가 가서 보니까 라인이 그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 4년 사이에 공장도 배로 커졌고, 인원도 그때 우리가 2,300명 뒤 기껏 해봐야 그 정도였는데 내가 복직했을 때 당시에는 부평공장만 7~8천 명, 생산직만 사무직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복직한 게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이 라인에서 저 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는 게 자유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든 간에 노동조합의 교육 시스템을 탄탄하게 꾸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선전부 요원으로 내가 집행부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자원을 해서 같이 이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활동했어요.

원용복 집행부에서 이은구 집행부로 바뀌는 선거 과정에서 이은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했던 그 진영은 한노련 쪽이 중심인데 석탑이 아닌 쪽들이 이은구 쪽 진영으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은구가 위원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첨예하게 갈등이 현장에서 노정되기 시작했어. 파벌로 나뉘지면서 이용규라든가 복직했던 사람들은 박재석의 운동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조직을 운영하는 게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집단으로 조직을 중심으로다가 하지 않고 개별 중심으로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들이 들면서 석탑

쪽하고 갈라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활동을 그쪽은 박재석 쪽으로 가고 우리는 다른 형태로 운동을 해 왔지.

나는 이은구 집행부 교선실장 하면서 조합원 교육에 집중했죠. 그래서 조합원 교육을 임투까지 각 부서별로 쪽 진행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강사들 조직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조합 간부들이 사회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조합원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에서 그렇게 하다가 91년도에 임단투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대회의 사건이 그때 터졌지. 그때 이제 아마 연대회의 사건이 홍영표가 주도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홍영표와 이목희씨 등이 주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공동 투쟁을 위해, 공동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일화해서 대기업 연대 회의를 조직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이 과정에서 다락원 연행 사건이 발생하지. 위원장이 다락원에서 회의하다 연행돼서 갔다고 하는 소식이 퍼지니까 현장 정서가 위원장 잡혀가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요. 조합원들이 위원장 구하러 가야 한다며 버스 대절해 가는 길에 경찰들한테 막히고, 막힌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 들어와서 사람들 조직해서 바깥으로 시위하러 나가서 경찰들하고 투석전하고 그런 상황이었어. 나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날이 조합원 교육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교육 끝나고 전체 평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노조 사무실을 침탈당했던 겁니다.

다락원 연행으로 이은구가 잡혀 들어가고 수석부위원장 최용주 체제로 운영을 했던 말이야. 그때 아마 홍영표, 박재석도

잡혀 들어갔지. 그 상황에서 시위 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거든. 아마 대우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 울타리 바깥으로 시위가 확산된 날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연대회의 사건으로 경찰서 쪽으로 경찰서까지 가겠다고 노동조합에서 나와서 그쪽 도로에서 투석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대우자동차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었지.

이형진 투석전 하니까 공권력이 아예 대우자동차로 치고 들어왔나요?

유선희 그런 게 아니라 최용주 수석이 수배 중이었거든. 다락원 사건으로 수배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조합에서 지냈던 것 같아. 그날 이제 조합원 교육을 다 끝내고 평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최 수석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같이했거든. 그때 노동조합에 최 수석을 잡겠다고 경찰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순순히 잡혀갔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겠지. 거기서 경찰들하고 그냥 대판 싸움이 붙은 거지. 몸싸움하면서 일부는 현장에 가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며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고 현장 사람들이 대거 몰려 나와서 거기서 엄청난 혈투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인가 공장이 완전히 봉쇄되고 밤에 사람들 보초까지 세워가면서 대치하는 투쟁이 있었죠.

이형진 공권력을 일단 몰아내고 버틴 건가요?

유선희 그렇지, 그때 그게 아마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을 텐데 한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그 봉쇄가 됐었다고. 경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조합원들이 번갈아 보초도 서고 그랬거든.

이형진 그게 91년 일이네요.

유선희 그게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연대회의 사건으로 수배가 떨어
지자 노조에서 계속 이걸 사수할 수 없다. 그래서 지도부를 피
신시켜야 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철수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그
지도부에서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집행부 성원이 아니
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또 나도 수배를 같이 당
했어요. 그때 나는 교육위원이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큰 역
할은 없었고 간부는 아니었거든. 근데 공권력 투쟁 들어온 이
후에 그 집회 주도했다고 수배를 때렸어요.

전과도 있었고 인천 정비사업소 갔을 때 집회를 내가 주도를
했거든, 그다음에 또 이제 회사에서 부평경찰서 뒤쪽으로 시
위하러 가서 경찰서 기물을 파손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수배당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이형진 외부로 나가서 어디 계셨나요?

유선희 주로 학교를 돌아다니요. 대학교 학생회관, 거기 가서 쪼그려서
잠도 자고 학교별로 돌아다니면서 학생회관에서 회의했어요.

이형진 규탄 집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겠네요. 다시 구속되는 것
은 91년 5월이거든요. 수배돼서 도망을 다니다 연행이 됐나요?

유선희 아니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수배 중에
현장에서 싸움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도부가 이
렇게 계속 숨어 피해 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떻게 됐
든 간에 현장 동력을 다시 끌어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책임 있
는 집행부들이 다시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
거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뭐 정의부장이라든가 수배가 안 떨어진 간부들이 있

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한 번 동력을 모아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 언제까지 도망 다니다 말 거냐 이렇게 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때 사무국장이던 간부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변 정리하겠다고. 그래서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개가 아마 경찰서 정보과 쪽으로 연락이 됐나 봐. 그래서 난 집에 가서 나올 테니까 그때 만나서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수 형태로 다가가 간 거지.

이형진 91년 5월에 구속돼서 92년 5월까지 또 1년을 징역 살고 석방 후에는 곧바로 복직 투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열사 근무 조건으로 복직 합의를 했거든요. 이 과정은 세 번째 구속인데 노조 집행부의 투쟁과 공권력에 의한 파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그걸 지켜내고 버틸 정도의 집행력을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유선희 하여튼 그때는 대중적 역량들이 꽤 있긴 있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근데 집행부가 대중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노동조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행부가 대중과 결합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물론 물론 대기업 연대 회의라든가 이런 확장성이 있는 것들은 좋지만 그걸 무분별하게 했을 때 결국은 피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문제의식은 있긴 있었어요.

이형진 선생님은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나중에 최 수석과 남은 집행부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유선희 그때는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다 잡혀들어갔던 것 같아요.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이어가죠.

이형진 이게 참 어려웠던 국면입니다.

유선희 직무대행 체제로다가 계속 굴러가면서 양보할 거는 다 양보하고 얻어낸 거는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역량들은 쉽게 가라앉아 죽지는 않았어요.

이형진 분명히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 밀릴 때도 있었고 전진할 때도 있었는데 아주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이걸 계속 이어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유선희 그때 현장의 활동가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중심으로 거덜이 난 거지만 집행 간부들을 덜어낸 거고 그들과 다른 활동을 했던 석탑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간부로 올라갔던 사람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 속에서는 역량이 꽤 남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은 계속 이어져 갔던 거죠.

이형진 여타 조직은 살아있었던 거죠. 사실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가 세 번의 구속 과정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시작)

이형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5년의 투쟁 이후에 1, 2, 3차 세 차례에 걸친 구속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91년 5월 이후에 2년 계열사 근무 후에 회사로 원직복직 하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복직인 셈이죠. 그런데 93년부터 2년간 대우인력개발원에서 근무하시고 95년 11월에 현장으로 다시 오시게 되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변화된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우자동차에서 현장 조직이 재건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희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고민했던 게 현장 노동자들의 열기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앞에서 이끄는 간부 역량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대중적 역량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집행 체계를 갖추면 결국은 간부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상태가 굉장히 왜곡되고, 조직되지 않는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집행부의 권력이 물론 회사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만큼 대중적 역량이 성숙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과연 운동 역량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간부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서 그때 나더러 계열사로 가라고 설득을 할 때도 연수원을 선택했었거든요. 연수원에 간 것도 재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양성하는지 한

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형진 연수원은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인가요?

유선희 그게 대우 기조실인데, 기조실 산하에 연수원이 들어가 있어요. 연수원이 물론 따로 용인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연관이 돼서 관리하죠. 그래서 연수원에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 근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별다르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오히려 연수원 지어놓고 사람들 가끔 와서 이게 TPS라든가 도요타 생산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그다음에 단합대회를 중심으로다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큰 배울 거리는 없었어요.내가 파악을 못 해서인지 몰라도 그러다가 한 번 거기서 의미 있었던 거는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그래서 가끔 일본에 연수를 보내는 게 있어요. 거기 한 2주 정도 연수 갔다가 온 게 계열사 근무했던 거의 전부였는데 맨날 아침에 출근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자료 있으면 이것 저것 뒤적이다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라 이런 식이었었지.그 과정에서 나 같은 경우는 복직할 몇 사람이 모여서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은구하고 그다음에 임동수도 있고 그 사람들과 앞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조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11월에 복직했죠. 복직하고 보니 조직되어 있는 인원들이 없었어요.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노동자들의 어떤 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승하고 유지되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들어가서 해

고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자들이 복직하면 현장에서 조직화를 통하여 해고자 그룹하고 그다음에 대의원 그룹, 민주적인 대의원 그룹을 조직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안배를 했는데 대의원 그룹으로다가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남권이나 저기 진상선 이쪽으로 민주적 대의원들의 그룹을 만들어 계속 모이게끔 했고 그다음에 해고자 그룹은 따로 또 모임을 진행했어요. 해고자들도 1년 만에 복직한 사람이 있고, 계열사 1년 근무 그다음에 1년 반 근무, 그다음에 2년 근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갔거든. 1년 근무하고 복직했던 친구들 중에서 계열사에 계속 남아 있었던 친구들이 좀 많았고, 1년 근무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1년 반 근무한 다음에 현장 복귀한 사람들도 간부들 중심으로 좀 있었고, 그다음에 2년 근무하고 복귀했던 사람들은 나하고 이은구하고 서희택, 최용주하고 이런 간부급들은 2년 근무하고서 복귀를 하는 거지. 이은구, 나, 서희택과 최용주하고 이렇게 2년짜리들이 근무하고 들어가면서 조직화가 시작됐는데 그때 나하고 이은구하고 그다음에 최용주하고 서희택이하고 이렇게 좀 갈라졌지. 원래는 나는 ‘하나로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쪽 친구들은 따로 모임이 또 있었던 것 같아. 성재나 홍영표나 어떻게 해서 한노련 쪽에 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그쪽으로 같이 모이고 해고자들의 모임에는 별도로 결합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조직하는데 해고자가 단일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은 놔두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다수였죠.

복직한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 내에 이래저래 소모임을 하던 그룹이 있었어. 이렇게 세 단위가 각자 존재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조직을 건설해요. 최초의 현장 조직, 의무와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지는, 회비도 걷고 부서 활동도 하는 조직 형태가 갖춰져 대우 자동차 현장 조직 건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처음으로 초대 의장을 이은구가 맡고 38명이 처음 발기인으로 처음 결성했거든. 그 이후로 조직을 키워나가는 데 굉장히 많이 커나갔죠. 최초로 회원제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서 단위로 분회라고 칭했는데 부서 단위로 모임을 짜서 구체적으로 조직 관리 형태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형진 이은구 위원장은 그 이후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죠.

유선희 그렇죠, 그 조직으로 그때가 15대인가?

이형진 아마 96년 위원장 선거일 겁니다. 15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유선희 96년도, 내가 95년도 복직을 했으니까 96년도 위원장 선거에서 이은구가 당선되죠. 그 조직이 기반이 압도적이었지. 그리고 상대편 진영이 그때 원용복이 나왔나 모르겠네. 한노련 쪽에서 서희택인가 최용주가 나왔나? 굉장히 압도적으로다가 이겼어. 또 하나 있었구나. 백마장 그룹이라고 그래서 4파전이었어. 그때도 원용복과 이은구 싸움이 있었지. 이은구가 위원장이 되고 내가 현장 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의장을 맡게 돼요.

이형진 이제 현장 조직들이 그 시점부터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대우자동차 대공장의 현장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은 대체로 민주파들이 쪽 장악해오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른 계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유선희 선생님은 대현추(대우자동차 현장조직건설 추진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현장 조직 건설까지 해내고 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결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선희 그렇죠, 그때 현장 조직 건설 추진위원회가 현장 내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장 내의 권력관계, 그러니까 힘의 관계를 조합원들이 끌어와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87년도 이후 작업장의 권력이 현장으로 확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91년도 투쟁 이후에 새롭게 위기가 닥쳐왔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측이 이대로는 안 된다, 작업장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작업장을 조이기 시작하거든. 우리가 해고되고 나서 그사이에 작업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간 그 기간이 있어요. 신노사 문화인지 어떤지 하여튼 그러면서 작업 시스템이 회사 쪽으로 확 넘어가고 노동자들의 현장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죠. 무너진 상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복원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장 권력을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 그걸 기치로 내걸고 조직을 했거든. 일차적인 것이 현장 권력을 쟁취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에 얽매이고 또 라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노동이 거기서 확보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노동화, 그다음에 하여튼 좀 추상적이었지만 그런 현장 권

력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현장에서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현장 조직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는 현장에 가장 밀접한 부서 단위의 부서별 내지는 직장별 조직화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분회를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성과가 나왔던 느낌이 있었어요. 97년도 98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대의원 되고 노동법 개정 투쟁, IMF 상황에 인천에서 최초로 동인천에서 한 번 큰 집회도 있었죠. 그때는 현장 통제력이 대의원들한테 다 있었거든, 그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작업 끝’ 하면 전부 끝내고 서울로 집회하러 가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작업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저기서 발각해서 그냥 막 무안 주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 그때는 완전히 대의원이 현장의 왕이었었지. 사실 그런 상황까지 갔던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현장 조직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성과였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과정이 선거 때문인 것과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정리해고, 정리해고가 그때 다시 몰아쳤잖아요. 여기 대우 자동차가 그 위기로 몰리면서 그때 무너졌지. 그때 정리해고가 시작되던 당시에 ‘대현추’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은 뿌리가 뽑힐 정도로까지 이렇게 걸쳐 나왔으니까 엔진부에서 조직원이 한 20~30명 됐었거든. 엔진부에서만 정리해고 이후 남아 있는 사람이 3명인가 그랬었어. 다 뿌리째 뽑혀 나온 거야. 이제 거덜이 날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까지 정리해고가 불어닥칠

줄 몰랐지. 거기에 버터넬 조직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

다행히 그 조직이 어디 가지 않고 정리하고 반대 투쟁의 핵심 대오가 되더라고 그래서 정리하고 진행하면서 이은구 집행부가 지난 다음에 추영호 집행부가 들어서고 다시 김일섭이 그때 됐을 때 이제 정리하고는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장 조직은 조직별로다가 조직 간 싸움, 특히 한노련 그쪽하고 우리하고 그런 마찰이 엄청났었다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진짜 못 살 정도로다가 그냥 아웅다웅하는 정도로 조직 갈등이 심했었으니까.

이형진 일단 97년 이후의 정리하고 문제나 IMF 투쟁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자동차 현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몇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 약간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 그러니까 85년 투쟁과 87년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의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제적인 지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올렸죠. 금속 노동자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확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금속 노동자 중에도 일반 금속 노동자들의 두 배 정도가 됐거든요.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세요?

유선희 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현장 역량이 밑받침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만큼 경제적 성과를 쟁취해낼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이형진 선생님이 87년 전후로 남한의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

어나는 것들을 징역 살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현장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구속과 투쟁 이렇게 반복하는데,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던 선후배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부평으로 얘기하면 뭐 박남수 선생님이나 김명중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추억이나 소회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선희 글썄요, 남수 형님은 코리아 스파이서 위원장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명했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오가면서 훌륭한 분이니까 예의도 좀 갖춰야 하고, 우리가 존경스러운 표정으로다가 대하는 관계였는지 특별하게 이야깃거리는 별로 없었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오순부 선배를 비롯해서 박남수 선배, 양재덕 선배, 이충각 선배라든가 유동우 선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존경의 의미로 모시고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러면 진짜 감격스러운 거죠. 양승조 선배는 예전에 한 번 내가 수배당하고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론 공부를 몇 차례에 한 기억이 나요. 그때 하여튼 양승조 선배가 중심이 돼서 몇 번 참여했던 것 생각이 나요. 유순조 선배와 김명중도 그때 본 것 같은데. 양재덕 선배는 내가 이제 구속되고 나와서 생활이 어렵고 애가 어려서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생활비 하라고 몇 차례 좀 도와주셨던 기억이 좀 있고, 그리고 집사람이 양재덕 선배랑 자활사업 할 때 거기 참여하고 그랬었죠.

이형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한 40년 정도 됐어요. 젊어서 인천에 내려와 대우자동차를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거죠.

유선희 활동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지. 나는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야. 어찌면 이게 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나마 좀 ‘운 좋은 활동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다른 사람들은 조직 활동을 하다가 경찰서든 아니면 이보안사든 이런 수사기관에 끌려가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죠. 고문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이겨서 배신에 가까운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좌절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 한번 내가 그런 물리력에 못 이겨서 신념을 포기한다면 그거는 두고두고 진짜 후회스러운 일이거든. 그게 아마 인생에 엄청난 상처이자 자기 좌절일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나마 그런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다행이었는지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게 가장 좀 다행스럽고 어찌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신념에 가까운 것들을 저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나름의 어떤 그 보람을 그나마 느끼는 사람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형진 선생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선희 우리 집사람. 딸 둘이에요. 큰 애는 어려서 중학교 때 뇌출혈이 있어서 뇌 수술을 했거든. 행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어디 취직해서 직장생활하고 이런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물론 가끔 알바도 나가서 용돈도 벌어서 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남들과 다르고, 그다음에 딸내미는 예전에 중앙대 연극영화과 무대 설치 쪽으로 졸업한 이후에 그걸 하다가 때려치웠어. 그거는 밤에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 이거 하다가는 진짜 제명에 못 죽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때려치우고 지금은 저기 세월호 4.16연대 거기 실무진으로다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유현아라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엄청 바쁘게 지금 돌아다니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무대 설치하는 일 같은 것 하는 것 같은데.

이형진 선생님 요새 이제 좀 힘드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건강하게 또 부인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유선희 이게 오늘 한 얘기가 생각도 별로 안 나고 두서도 없고 그래서 별 도움이 되었는데.

이형진 오늘 장시간 대공장의 조합 활동과 현장 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유선희 고맙습니다.

송경평



- 1957년 4월 전남고흥 출생
- 1976년 3월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입학.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 1984년 3월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입사
- 1984년 12월 대우자동차 근로조건개선 및 노조민주화운동으로 해고
- 1985년 4월 대우자동차파업농성 관련 구속
- 1987년 2월 박종철 고문살인정권 규탄시위로 구속
-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민중의당)
- 199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민중당)
- 2010년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장학사업 운영위원장 역임
- 2017년 5.3합창단 단장 역임
- 2020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부이사장 역임
- 2020년 4월 정치개혁연합 인천시당위원장 역임

일 시 2024.4.26.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이형진

대 담 자 송경평

1985년, 송경평 등 총 8명이 구속된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은 대한민국 노동 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주류는 여성 중심의 섬유 등 경공업 분야에서 전개되었으나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의 중심은 남성 사업장이고 또한 대규모의 중공업 분야였다. 이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개될 향후 노동운동의 성격을 제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은,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노동 현장에 투입한 학생운동권 출신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한 주역으로 등장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학생 운동 출신들이 노동 현장으로 몰밀듯 들어갔고, 노동자들도 이제 그들을 남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대우자동차 파업의 주역인 송경평은 본인의 젊은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 천국같이 행복한 시절, 대학교 때는 고민의 시절, 위장 취업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 민중당 활동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 회고하고 있다. 이젠 인천에서의 노동운동과 정치활동 그리고 시민 사회 운동을 접고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려고 이번에도 봄동 재배하고 상추 재배하고 나물 뜯고 주변에 정을 주고받았던 사람들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이형진 오늘 2024년 4월 26일 주안영상 미디어 센터입니다. 오늘은 80년대 대우자동차의 노동자 투쟁을 열어젖힌 84년 투쟁의 주역 중에 한 분인 송경평 선생님을 모시고 당시의 노동운동 현장 상황들을 재현해 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평 선생님 반갑습니다.

송경평 반갑습니다.

이형진 괴산에서 올라오셨죠? 네 요새 괴산 내려가셔서 좀 어떠십니까?

송경평 인천 사람들한테 서운할지 모르지만, 인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형진 인천에 계신 게 40년 정도 되셨죠? 40년 딱 채우고 가셨나요?

송경평 부천까지 합치면, 83년에 내려와서 지금이 2024년이니까, 인천에 온 거는 딱 40년이네.

이형진 사실 인천이 고향이 될 뻔하다가.

송경평 제2의 고향이고 괴산은 이제 제3의 고향이겠지.

이형진 선생님은 오십칠 년 사월에 전남 고흥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추억거리가 있으면.

송경평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가 제일 행복한 시절인데 그걸 빼버리면 내가 살아온 얘기가 재미가 없을 텐데

이형진 일단 대학 들어가서요. 76년에 서울대 이공계열로 입학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긴급조치(약칭: 긴조) 9호 위반으로 구속되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쯤일 것 같은데요.

송경평 4학년 때

이형진 4학년 때요. 긴조 9호가 79년이니까 그 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경평 그냥 천진난만한 소년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푸른 꿈을 안고서 올라왔다가 선배 꼬임에 넘어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언더서클에 들어가서, 겁이 나서 도망

나오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경동교회에서 야학을 하면서 또 그때 구류도 살고 했어요. 그때 초점이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개혁은 노동자, 농민들이 앞장서는 민중 주체의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맥락 아래에서 졸업하고 신분의 하자 없이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시간이었죠.

이형진 선생님 혹시 76년이었으면 당시에는 서울대 공대가 관악 캠퍼스였나요?

송경평 1학년 때 교양과정은 관악, 2학년 때부터는 공릉동

이형진 공릉동에서 그럼 4학년까지 다니는 거죠?

송경평 군대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복학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다시 관악산으로 이전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공장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데모를 주동하면 안 된다. 신분의 하자 없이 군대까지 마치고 공장에 들어간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당시에 와이에이치(YH)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YH 여공들이 신민당사에 가서 농성하다가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김경숙 양이 추락사하게 된 거죠. 그게 밀렸는지 아니면 어떤지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대 4학년생 4명하고 2, 3학년생 4명하고 이렇게 해서 4인조가 10월 5일 그때 추석이었는데 추석 극장가에 유인물을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극장에서 YH사건의 본질을 밝힌다. 그래서 추석날 밤에 객지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시골 못 내려가는 사람들이 공장에 영화 보러 많이 온다 해서 영등포 연흥극장, 뚝섬에 뚝도극장 등등 네 군데 극장에 2인 1조로 유

인물을 살포했는데 어떤 한쪽에서 잡혀서 줄줄이 엮여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들어갔더니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들어간 지 한 4~5일 만에 10.26이 터진 거예요. 그때는 신분예 하자 없이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려고 그랬는데 다 쫓겼다. 포기하고 1년 6개월 살 각오를 하고 있는데 10.26이 터지면서 석방시켜줘서 나왔고요. 그때 공범이었던 사람들은 먼저 들어와서 20일간의 검찰 수사 기간을 넘기고 그래서 기소가 된 상태이고, 10.26이 터져, 나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30일 정도 경찰서 구경을 했죠. 유치장 왔다 갔다 해봤지 말이죠. 석방되니 학년말 고사 졸업시험을 보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 안 나왔는데 혼자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그냥 무단 결사하면 학사 제적이요 그래서 휴학을 해놓고 군대를 3월에 간 거예요. 다음 해 3월에.

이형진 그럼 4학년 2학기를 못 마치고 휴학해 놓고 군대 갔다 왔군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네요.

송경평 제대하고 나서 한 학기를 다니고 그래서 졸업한 상태에서 다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형진 제대는 몇 년이었습니까? 82년

송경평 82년 6월경인가 했어요.

이형진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송경평 동해안 경비사령부 방공 포병 부대.

이형진 혹시 군대 생활하시면서는 뭐 데모하다 왔다고 이렇게 고생은 안 하셨는지?

송경평 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교육을 받는데 80년 3월에

군대에 입대해서 대구 방공포병 학교서 훈련 중에 광주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눈물로 세우면서 조금이라고 언론을 접하려고, 메스컴에서는 전부 다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시민들이 뭐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정반의 식사 당번을 지원해서 밥 갖다주면서 휴지통에 있는 신문 쪼가리 꺼내 보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 제대 후 2학기 복학을 해서 이제 취업해야 하니까 신분에 하자가 없어졌으니까 열관리, 냉동 그런 것만 공부했지. 현장에 가서 필요할까 해서, 냉동 기능사 1급 시험에 합격했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그때 석탑 거기서는 용접도 가르치고 현장 취업 준비시킨다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한 학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런 준비 하고 있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취업하려고 부천에 있는 경원세기 직업훈련소.

이형진 83년이었네요. 경원세기에 직업훈련소가 있었나요?

송경평 40명씩 3개 반, 20명씩 6개 반을 모집했는데 6개월 과정이었어요. 목적 의식적으로 하려고 반장을 지원해서 반장을 하고 그랬는데, 4개월 만에 현장 실습을 보내서 가니까 현장 실습은 커녕 맨날 이것 가져다 달라 저것 가져다 달라 뭐 잡일만 시켜서 총무과에 한 번 건의하러 찾아 올라갔죠. 제대로 된 실습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해에 사내 직업훈련소는 보통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취업시키는데 한 명도 취업을 안 시켜버렸어요. 그때 훈련생들 반장 잘못 만나서 취업도 못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 겨우내 여기저기 마찌꼬바(영세

공장) 다니면서 용접하고 그랬어요.

이형진 경원세기 직업훈련소를 마쳤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차일
피일 시간 보내면서 대우 자동차는 어떻게 취업하셨어요?

송경평 마찌꼬바 다니고 그러다가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 이진
우 동생 이철우 씨를 만났어요. 누군가가 소개시켰어. 그래서
만나서 김영만 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취업했어요.

이형진 당시 노조위원장이죠.

송경평 공개 채용, 그러니까 공채인데 추천서를 첨부해서 시험을 봤는
데 합격했어요. 내가 용접 기능도 있고 해서 실기시험을 봤는
지 다른 사람보다 3호봉이 높게 들어갔어.

이형진 성적이 좋았네요.

송경평 아~ 기술이 좋은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배은망덕하게 김영만
위원장하고 맨날 싸우게 되지.

이형진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대우자동차의 입사는
83년 말경이었나요?

송경평 3월 3월

이형진 83년 3월에 용접공으로 입사를 하셔서 일하는 데는 어디였나
요?

송경평 차체 1과인데 내가 담당하는 파트는 차체에 문짝 같은 걸 달
고 나오면 문짝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럼 고무망치로 두드
려 펴는 거요. 여기 나와서 이거 두드려 펴고 그다음에 약간
흠집 난 거 뺄질 조금 하고 그러면서 뭐 1분 만에가 몇 분 만
에 한 대씩 차가 지나가면 또 두드려 펴고 이런 일을 하죠.

이형진 당시 8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천에 거주하셨을 거 아닙니

까? 처음 정착했던 데는 어디였습니까?

송경평 처음에 경원세기 직훈을 다닐 때 3명이 자취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고 둘이서 했어요. 송태규라는 친구하고 살았는데 그때 대우자동차에 입사해서 부친의 괴안동의 2층 옥탑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송경평이 혼자 공장에 가면 여자도 못 만날 거라 그래서 누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송태규라는 친구가 짝이 없어서 친구 하나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 친구를 기관에서 뒷조사하면서 제가 신분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뽀록(속셈)의 전남지역의 방언) 나자마자 바로 '대우자동차 앞으로 큰 방으로 이사 가자' 해서 84년 4월경에 대우자동차 앞에다가 방 하나 잡고 그리로 이사했어요.

이형진 그럼 청천동 쪽이었나요?

송경평 거기가 산곡동, 지금 산곡역에서 석남동 넘어가는 길이 있죠. 지하차도 왼쪽 그쯤이에요.

이형진 거기서 자취하면서 회사를 다녔던 건가요?

송경평 그런 거죠. 그런데 부친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데이트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연실 후배를 통해서 뽀록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연실씨 집안에 연락을 했어. 졸업식에도 안 가고 1년 동안 구로공단에서 미싱사 시다 일하고 있어서 이제 막 미싱사 된 친구였는데, 어른들이 올라와서 짐 다 철거하고 데리고 갔지. 그랬는데 3일 만에 도망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바로 같이 살기로 하고

이형진 산곡동 집에서요.

송경평 그러니까 부친 괴안동에 살다가 바로 이사하자 그러면서 합쳐서 살게 됐죠.

이형진 그런데 신분이 탄로가 났다는 게 정연실 씨와 그 후배 그 부분이 탄로가 난 거고 당시에는 송경평 선생은 아직 드러난 상태가 아닌 거죠?

송경평 탄로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면 83년 상반기에 대우어패럴이니 뭐니 나중에 구로 연투의 주체 세력에 의한 노조들이 짝 만들어져요. 그런데 정연실이 다니던 협진양행은 아직 노조를 만들기 전이야. 근데 하반기에 짝 조사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정연실 옆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뭔가 하여튼 취조를 해서 부친에 어떤 언니를 따라가서 김민기, 양희은 노래도 하고 뭐 노동운동 얘기도 듣고 이랬다는 얘기를 회사 측에 했던 거고, 회사 측은 기관에 알린 거고, 그래서 송태규가 성원제강 전기과에 있었는데 관리직하고 좀 가까웠어요. 엇그저께 경찰이 당신 내사하고 갔어.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송태규는 대우자동차에도 연락 갔겠네 하면서 아! 탄로가 났구나 감지를 한 거죠.

이형진 그러면 송경평 선생님은 84년 입사해서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이미 신분을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다?

송경평 두 달 만에 뽀록 났다고 판단했고 송태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이거 노조 운동하려고 하는데 바로 들통나고 쫓겨나고 이게 뭐냐? 그동안에 대학 4년, 군대 생활 다 이거 하려고 왔는데 직훈까지 다 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리 저렇게 만나다 보니까 박남수 선배를 만나게 됐고 박남수 선배님이 노

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노조 활동의 근거들을 쌓아봐라.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이형진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최대한 노조 활동 실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송경평 그렇지. 그러면 해고하기가 힘들 거고 추후에 싸우는 데도 유리하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회사에다 청원하지 않고 노조에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노조 활동이 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형진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내놓고 송경평 선생을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건가? 회사는 전혀 모른 척했어요?

송경평 그때까지 회사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이형진 그래서 이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과정이었나요?

송경평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내가 홍영표도 만나게 되고, 들어간 지 얼마 만에 또 이용선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홍영표 이용선 유선희 전희식 등,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송경평은 따로 논의하고 송경평하고는 이용선이나 홍영표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달리했어요.

이형진 그럼 송선생님은 현장에 다른 분들하고 모임 같은 것들을 만 들어 냈나요?

송경평 나는 이제 들어간 지 한 2~3개월 만에 뽀록이 났으니까 그때 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나에게 걸린 문제 그게 상여금 문제 였는데 원래 분기마다 100%씩 1년에 400%를 주게 되어 있는

데 9월에 추석 상여금을 준다면 9월 10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원래 그 분기 말일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당겨지면서 내가 6개월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75%를 주게 돼 있어요. 상여금을 근데 당겨서 주니까 만 6개월이 안 되니까 50%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러면서 내 입사 동기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형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송경평 같은 부서에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입사 동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들이 맨 처음에 노조에 집단으로 찾아가서 상여금을 원래 9월 30일에 줘야 하는데 회사 편의상 추석에 인심 쓴다고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위반이지 않냐? 회사에서 인심 쓰느라 당겨 줬으면 원래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75%를 줘야지 날짜 계산해서 6개월 안 됐다고 50%밖에 안 주지 않냐 25%를 왜 안 주냐 약간의 분쟁 소지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런 명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때 134명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형진 6개월 안 된 신참들 인데 모으는 방식은 어떤 거였나요? 혹시 서명 같은 걸 받았나요?

송경평 그땐 서명 안 받았어요. 동기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런 거 있는데 어떡하냐? 우리 노조에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 좀 하자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한 거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학습조직이다 소그룹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입사 동기들하고 어울리면서 현안을 놓고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형진 이게 84년이었으면 입사하신 지 진짜 6개월이 안 됐을 때 한 3
개월쯤 되었을 텐데.

송경평 한 4개월

이형진 현장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입사해서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
았나요?

송경평 뭐 현장 일하는 거야 그냥 무거운 짐 지는 것도 아니고, 차가
오면 망치 몇 번 두드리고 이거 뭐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
할 때 반장들이 뭐 얘기하면 아이디어도 내고, 아, 이거 어떻
게 하면 좋지 않아요? 재밌게 했어요.

이형진 기본 조립공 같은 거였네요.

송경평 칸베이어 벨트로 돌아가는 거지

이형진 그렇죠, 선반이나 기계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송경평 그건 아니었고 라인에 배치돼 있었던 거죠.

이형진 그러면 부서에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관계는 좀 어땠던 것 같
습니까?

송경평 나중에 선배들 얘기로는 조금 이상화된 측면도 있는지 모르겠
지만 당시에 직장 반장들이 위에 고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놈이 하는 얘기는 뭔가 좀 의미가 있었고 뭐 해법도 자기들
이 못한 것도 아이디어 내고 푹푹하다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
라고요. 하여튼 일하는 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
가 빨감을 하든 물고기를 잡든 성질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다
른 사람보다 한 1.5배나 향상 했어요.

이형진 9월에 상여금 요구를 하시면서 점점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데

거의 12월까지 일련의 투쟁이 촉발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분도 드러나게 되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송경평 상여금 투쟁을 쫓 하는 과정에 그때 간접적으로 이쪽 팀들과 계속 논의하는 거예요. 모임에는 참여를 안 하고 현장에 있는 문제점을 쫓 취합해요. 그래서 전희식의 얘기를 통해서 군필 복직자 투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천공장 저쪽에 주물공장으로 쫓겨가서 있고.

이형진 군필 복직자라 함은 그러니까 그전에 근무하던?

송경평 젊었을 때 근무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당시 군대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임금은 안 주더라도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으로 인정했다고 치면 예를 들면 2년 갔다 왔으면 1년에 호봉이 2호봉씩 오르면 그 2년이니까 4~5 호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해주고 뭐 그런 게 법에 위반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전희식이 3년 전에 했고 그다음에 안진호라는 친구가 또 1년 전에 했고 그런 맥락이 쫓 있었어요. 그게 수렴이 되고 그다음에 상여금 미지급 건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잠재되어 있었지, 공론화는 안 시켰어요. 그냥 상여금 문제는 내 개인에 해당되는 것부터 가장 가볍게 시작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필 복직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군필 복직자들이 다 같이 결합해서 또 이제 노조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해당되는 상여금 소급 지급하는 문제를 제기하다가 군필자복지 문제로 확대되고 그게 이제 이슈가 더 켜졌어요. 군필 복직자 문제는 너무 당연하고 법에도 보장되고 인원

수도 많고 과거의 역사적으로 경험도 축적됐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결합해서 군필 복직자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팀들하고 전면 결합을 했지. 처음에는 한두 달 동안 따로 있다가 같이 계속 논의하고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 방, 바로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우리 자취방이 완전히 합숙 공간이 되었어요. 합숙 공간에 여자는 딱 한 명, 정연실은 나 때문에 회사에 뿔뿔 났다고 죄의식 속에서 군소리 안 하고 엄청난 인원들 모든 서비스를 다 해 준 거지. 처음에는 대여섯 명 칠팔 명 하다가 나중에는 하룻밤에 한 삼십 명도 거기서 막 얘기하고 나누고 뭐 하다가 한 이십 명 들어가고 돌아가고 한열 명은 또 거기서 자고.

이형진 밥해 대는 게 일어났겠네요. 그런데 단독 가옥이었나요?

송경평 아니에요.

이형진 근데 큰 방이 있었어요?

송경평 그러니까 딱 그 한 채를 세 들어 살던 작은 방인데 이거 지금 보이는 공간에 한 4분의 1쯤 될 것 같아요. 방 하나가 그 부엌은 조그마하게 달렸고 근데 거기에 비키니 옷장 딱 하나.

이형진 근데 10명 정도 앉으면 더 이상 못 앉을 텐데?

송경평 아이고 그냥 봐봐요. 여기 4분의 1이면 거기에 10명이 못 앉아? 15명 왔고 또 어찌다가 이제 또 한 30명 올 때는 와서 서 있기도 하다가 여기 한 2~30분 회의하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보면 군필 복직자 대책 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움직였던 우리 입사 동기들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은 남고 나머지는 또 압력에 의해서

관망하고.

또 군필 복직자 대책위를 막 하다가 직접적인 압력이 가니까 주춤하는데, 대우자동차가 그래도 큰 회사라 이런저런 인연 가지고 취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 처음에 그냥 그런 거 없을 때는 딱 용기를 가지고 했다가 압력이 들어오는 순간 또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이게 처음에 어떤 동인으로서 나섰던 사람 중에서 대부분 한 7~80%는 빠지고 한 2~30% 남아서 다음 투쟁으로 연결되고 이런 과정이 쭉 지속되더라고요.

이형진 동력은 계속 이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송경평 그래서 군필 복직자 문제 가지고 노조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날 불렀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대졸자인 거 안다. 근데 왜 현장에서 일하느냐? 나는 노동조합 활동이 하고 싶어서 그 생각하고 와서 했다. 대학 출신인 거 맞다. 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뭐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대학에서 배운 거 안 써먹고 용접 기능사 따가지고 회사의 여건에 맞게끔, 조건 하나도 위배됨이 없이 이렇게 입사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냥 나는 4급으로 안 가고 조합원 자격 있는 현장에서 일하겠습니다. 4급 사원으로 가면 조합원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교 때 꿈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근로자들 근로조건 개선하고 이런 것을 해보고 싶은 게 내 꿈이 있었습니다. 내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버텼지.

이형진 그 장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송경평 전무이사 이해범이라고.

이형진 그러면 회사 사무실로 불러 들어가서 둘이 독대를 한 건가요?
당신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달리 처우를 하겠다는 제안이었나
요?

송경평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졸 4급 사원, 기술직 사원으로 가라. 그
래서 막판에 약간 뺑끼도 쳤지. 계속 안 된다는데 표현을 하고
나서 그래도 설득하니까 아, 그럼 얼마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
다. 해놓고 또 다른 일로 노조 찾아가서 문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르다가 안 되니까 그때마다 조용해지면 이걸 어떻게 처
리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합을 쫓아다니고 이
런 분위기에서 격리해놓으면 격화될까 봐 지켜보다가 제가 보
기에는 계속 회사가 선수를 당했던 것 같아요.

이형진 그러면 84년 투쟁이 군필자들 내지는 상여금 쟁취 투쟁이 대
중적으로 비화하면서 파업까지는 아니어도 현장 투쟁이 고조
되지 않습니까?

송경평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나를 불러서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
는 동안에 이제 올 때가 왔어.

이형진 그 시점은 11월경이었나요?

송경평 아니요. 그게 8월? 9월인가?

이형진 추석 지나고 였나요? 추석 전이었나요?

송경평 하여튼 8월 하순부터 상여금 문제, 군필 복직자 문제가 되다
가 9월 하순쯤에 이제 회사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을 짝 모은 게 한 5, 6가지가 돼요. 그거를 작성해서 그때 전
회식, 유선희, 이용규, 홍영표, 이용선 등등 다 우리 집에 집단
합숙하면서 그걸 작성해서 각 부서에 돌리면서 서명을 받았어

요.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송경평 대표 명의로 회사의 참여인들을 모아서 근로조건 위반 사항들을 개선해 달라 처음부터 서명을 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이걸 식당에서 배포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명받아서 그때 100여 명 서명을 받았는데 서명하고 그다음 날 식당에서 유인물로 배포하면서 주동을 뺐지.

이형진 노동부예다가 진정서도 본인이 가서 제출했나요? 혼자 가셨어요?

송경평 응, 혼자 갔어요.

이형진 그때 노동부로 가니까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송경평 그 기억은 특별하게 없는 거 보니까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보냈어.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

이형진 서명받은 수십 장 종이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고, 그다음 날 그 결과를 현장에 배포했다는 거죠. 첫 유인물이었나요?

송경평 그렇지 첫 유인물이지.

이형진 아마 10월 말 정도 됐던 건가요?

송경평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니다. 8월 말쯤 됐겠다. 8월 말, 왜냐면 내가 9월 초에 4급 사원으로 부서 이동이 돼요. 그일 있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4급 사원으로 발령 났으니까.

이형진 그럼 8월 말에 유인물을 배포하던 첫 싸움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송경평 큰 식당이 있는데 밥 먹고 줄 서서 그때가 식사 시간이 4~50분 됐는데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한 20분 시간 남았잖아요.

끝나갈 때쯤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면서 몇 사람들이 같이 이쪽저쪽에서 유인물 쪽쪽쪽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 공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형진 본인이 직접 선동하고 나머지 동지들이 주변에서 분위기를 잡고 유인물을 돌렸다는 거죠. 순식간에 수백 명이 집중되었겠네요. 그렇죠.

송경평 기억이 긴가민가한데 그전에 상여금 문제나 군필자 문제 때문에 집회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계속 점심 먹고 한 2~30명이 찾아가고 이런 작업을 계속했거든요. 왜 회사 쪽에다가 요구 안 하느냐? 빨리 이거 개선하도록 해달라 언제까지 답변 달라 계속 이러는데 회사, 노조에서는 밉그적거리고 안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은 단결도 되고 또 압박도 받았다가 축소됐다가 짹 축소되려 그럴 때 진정서 건으로 해서 분위기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형진 송경평 선생님은 이미 얼굴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는 순간 한 몇 분쯤 선동 과정은 유지했습니까?

송경평 아마도 그날 내가 선동할 때 이용선도 같이 뒀던 것 같아요. 이용선도 이번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나선다고 하면서 쪽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요. 우리는 그때 역할 분담 비슷한 걸 했는데 홍영표는 우리보다 입사를 먼저 해서 11월에 대의원 선거를 하는데 1년이 넘어서 대의원 출마 자격이 있고, 우리는 3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11월 되면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의원 출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장

서서 싸우고 죽는다, 홍영표는 좀 기다렸다가 추후를 대비해
라 그러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용선이 같이 앞장서는 걸로
방향을 정리했죠.

이형진 당일 둘이 주동을 한 거네요.

송경평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뜨고 이용선이 보조하면서 같이.

이형진 식당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한번 느낌을 회상해 보시겠습니까?

송경평 그러니까 상여금 문제, 군필 복직자 문제 때문에 군필 복직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사 조직 분위
기가 뒤숭숭하고 회사에서는 위장 취업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야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유인물도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진정서도 올리고 막 에스칼레
이트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심이 쏙 집중돼 있
어서 박수치고 난리였죠. 군필 복직자들도 부서에서 그 문제로
싸우러 간다고 그러면 점심시간만 되면 나와서 어떨 때는 논의
하고 어떨 때는 노조에 찾아갔다가 5분 전에 3분 전에 뛰어가
서 또 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으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
고 그래서 띄우니까 쏙 보면서 그냥 열화같은 환호를 받았죠.

이형진 거기 관리자들도 밥을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송경평 점심시간이 따로 있긴 했어요. 근데 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지. 그리고 하여튼 현대자동차나 노무 관계가 극악했던
곳 같으면 단칼에 그냥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구사대를
동원한다든가. 대우자동차는 문화가 하여튼 그 신진자동차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마 작용했겠지.

이형진 노조도 이미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송경평 그전에도 싸운 경험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84, 5년 전에는 이성균 위원장이 좀 위축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김용만은 완전히 관료적인 스타일로 변해 있었고, 하지만 김우중 회장이 사장한 적도 있었잖아요? 노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고 세상을 돌아다보면서 앞으로 노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활동 공간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거죠.

이형진 그날 점심시간 선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송경평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인지 그다음인지 식당에서부터 스크럼을 짜고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조합에 가요. 임금인상 투쟁할 때 막 소리치면서 공청회 하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부터 공장 입구를 돌아와서 집회를 마무리하는데 그때 한 4~500명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내일 봅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전혀 안 했어요. 뒤에서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구는 어제 참석했던데 ‘저놈은 누가 가서 설득해라 못하게 해라’ 이렇게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앞에서 대치한다거나 이런 거 없고.

이형진 송선생님은 현장으로 복귀하면 현장에서 반장이 불러서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송경평 아유 내가 앞장서서 선동하는데 말이 먹히나요? 반장들이 피곤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니 꼭 지켜보면서 야 저 새끼 제법인데 하고 있는 거지.

이형진 12월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투쟁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송경평 그래서 9월 초에 4급 사원으로 부서 이동시키는데 마침 내가 일하던 장소에 4급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로 부서 이동시켜놨어. 장소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출근해서 올라갔어. 나 부서 이동 거부한다고 그러면서 내 라인 내 자리에서 일을 해. 같이 배치된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직공장이 와가지고 “제발, 송경평씨 위에서 뭐라 그래요. 좀 비켜주세요” 한 3~4일 버티다가 더이상 못 버티고 새로운 사람이 일하고 그럼 나는 그냥 있다가 이 공장 저 공장 돌아다니.

이형진 4급 사원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직급이 제일 높지 않나요?

송경평 직장, 공장보다 상급인 거야. 아니 지휘라인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고 직·공장들이 아유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발 안 보이는데 어디든지 가 계시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다른 공장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11월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22개 선거구인데 정말로 아무리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성숙되고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조직적인 힘으로 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때 1년만 넘은 사람이면 송경평으로 대표되는 팀에서 이 부서에 누구를 지원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당첨이야. 김대중 선생님이 전라도에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듯이 똑같은 분위기야. 모여서 이 부서는 누구 하자 이 부서 누구 하자 그거 90% 다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하기 전에 이성균 집행부에서 야당을 했던 사람들 원용복이나

전울진, 박덕재, 문영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 원용복은 너희들이 대학 출신이든 아니든 정직하게 열심히 하니까 좋다며 맛있는 것도 사 오고 또 그러면서 응원도 하고 전 역사도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추천해서 우리가 대의원 후보로 선정을 했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했던 각 부서의 사람들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누구 추천하자 누구 추천하자 그 사람들 거의 100% 다 당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이 어디 보니까 분류가 나오던데 한 12명 정도는 민주파 중간파 몇 명 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자원이 없어서 당선을 못 시킨 거고 그만큼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이었고 그 분위기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부평 대의원 22명 중에서 21명, 그리고 전희식이 있던 하인천 주물공장 거기 1명 해서 22명 중에서 19명이 불신임에 서명하잖아요. 인천의 부평만 있으면 무조건 불신임은 성공인데 부산에 일곱 명, (부산)전포동에 일곱 명, 또 (부산)동래에 네 명 등등 스무 명이 되는데 거기는 접근이 잘 안 된 거예요.

이형진 일단 11월 대의원 선거에 부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측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좀 정리가 됐다. 그런 거죠. 그때까지도 송경평 선생님은 회사 출입 문제나 이런 것들로 제지를 받지 않은 건가요?

송경평 나는 3개월 동안 4급 사원이야.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 비슷했어.

이형진 이용선 씨는 어떻게 됐나요?

송경평 이용선 씨는 바로 다음 날 양평동 정비사업소로 부서 이동시켜버려. 그러니까 용선이는 양평동으로 부서 이동되고 이제 나는 하루 늦게 부서 이동시키는데 나는 출근 투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현장에 들어가서 4급 사원이니까 용선이 출근 투쟁지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용선이 출근 투쟁하는 과정에서 같이 싸우고 막 이리다가 이제 경비들한테 같이 끌려 나오는 과정에 겨울에 그냥 하도 막 난리를 치고 자꾸 끌고 나오니까 누군가 물었거든, 어디 상처도 안 났을 거야. 근데 그걸 핑계 대고 전치 2주 폭력으로 고소하고 용선이는 또 누구 넘어뜨려 발로 찼다고 고소하고 그래서 폭행범으로 우리가 고소되어요. 용선이 지원하고 그러면서 용선이는 출근 투쟁하며 밖에서 계속 유인물 작업하고 지역 활동에 관여하고 ‘근로자 함성’은 조금 늦게 정착되는데 그전에 유인물 계속 만들어내요. 그 작업을 현장 분위기 파악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용선이도 또 글로 쓰고 정연실도 글로 보태기도 하고 타자로 쳐서 제물포역 ‘뚝이복사’ 거기 가서 복사해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매일 일어나는 거죠.

이형진 신났겠어요. 좀 정신없이 바빴지만.

송경평 그래서 한 번 워크숍을 갔는데 원적산으로

이형진 당시에 원적산으로요. 여기 원적산 바로 그 동네 앞산으로?

송경평 막걸리 들고 그때 한 40명 갔나 한 40~50명이 갔는데 막걸리 먹고 노래 부르고 그때 마침 또 노동의 새벽 박노해의 시가 나왔어. 그런데 이름도 안 밝혀졌지만 ‘아! 이거 박기평이가 썼구나’ 알았어요. 대학교 때 이 친구랑 맨날 농담하고 놀고 얘기

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그 시에 나와 있으니깐. 하여튼 원적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노래도 부르고 특히 아는 노래도 별로 없으니깐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제일 많이 했지. 그다음에 김민기 노래, 양희은 노래 부르면서 엠티를 하는데 딱 한 잔 먹다가 달이 환하게 떴는데 나와서 달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일지 몰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때가 기억하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형진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투쟁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홍영표 전희식 이용선 박재석 그리고 유선희씨 이 정도인데.

송경평 한비석, 이용규 등

이형진 그 면면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송경평 홍영표는 동국대를 나와서 대우자동차 직훈을 다녔고 개도 위장 취업하고 대우자동차 직훈에 들어온 거고 근데 우리보다 먼저 입사했어.

이형진 11월에 대의원 된 거죠.

송경평 그렇지 그래서 투쟁할 때 대의원 되기 위해서 조금 뒤에 있어라고 역할 분담을 한 거고 그다음에 박재석은 대의원이 안 될 거야. 아마 개도 그렇게 1년 이상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선희 이용규 한비석 다 대의원이 돼. 그다음에 전희식씨는 3년 전에 싸우다가 하인친 주물공장에서.

이형진 대우중공업이 있는데 그쪽 주물공장 말씀이죠.

송경평 부서 이동돼서 항상 퇴근하면 쫓아와서 허준이 형하고 같이 와서 부평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지.

이형진 전희식 씨는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사실 82년 정도였잖아요.

송경평 81년에 군대 갔다 와서 군필 복직자 처우 개선을 노조에, 위원장 이성균한테 이거 처리해달라고 민원을 내. 그런데 이성균하고 회사하고 찼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성균은 겉모습과 다른데, 다 잘 피해 가고. 초창기에는 열심히 노총 민주화 활동하고 했지만, 이성균이 나중에는 대중 활동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시절에 인천주물공장으로 쫓겨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김근태 선배가 했던 산선(산업선교회) 중심 노동자 그룹 멤버 중 한 사람인 거예요. 전희식 그다음에 이용규 등이 모여 있었고 그 팀하고 홍영표 이용선 박재석 등이 결합을 한 거지. 그래서 노동자 출신 대여섯 명과 학생 출신들, 나는 조금 늦게 결합했지만, 홍영표 이용선이 결합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특성을 보면 박재석이 제일 문제였어. 박재석이는 노선은 온건한데 투쟁은 선도투(선도 투쟁)야. 과격분자들 그게 민중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옹호해. 그중에 송덕선이니 김남훈이니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냥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와요. 그런 걸 옹호해 그게 민중성이라고 그거 제지하느라고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기본 틀은 그렇게 얘기했지. 전체에 피라미드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3분의 1선의 기준에 맞춘다. 맨 위에 꼭대기 몇 사람한테 기준을 맞추면 어떻게 그게 대중운동이 되느냐 중간도 아니고 위에 3분의 1선에 맞추자. 그 관점에서 이제 전략도 짠다. 근데 얘는 맨날 꼭대기에 있는 몇몇 행동대원들, 나중에 도망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소위 말

하는 불평분자 비슷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 그게 대중성이 라고 해서 그걸 제지하느라고 맨날 힘들었고 그 지점에 있어서 홍영표나 이용선이나 나나 같은 관점에서 맨날 박재석이 외톨이였어.

이형진 그런 점이 있었군요.

송경평 그리고 박재석은 연대를 나와서 석탑, 장명국 라인 그다음에 홍영표는 이목희 라인, 나는 인노련 사노맹 라인, 이용선은 삼민 라인. 라인들이 다양했네.

이형진 그건 당시에는 확실치는 않았던 거죠.

송경평 삼민, 인노련, 사노맹도 나중 얘기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이목희하고 홍영표가 친했고 그 정도야. 장명국하고 박재석도 친했고 그건 있었어.

이형진 예, 그 정도 요약해보면 84년 3월에 입사해서 그해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이제 투쟁을 시작하자.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는 일정한 대중 투쟁을 경험했고 그 동력으로 대의원 선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본격적인 85년 투쟁을 준비할 근거가 생긴 셈이죠.

송경평 한마디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대의원 선거를 나름대로 부평에서 잘했는데 노조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대의원이 중심이 돼서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불신임을 대의원대회에서 한 거예요.

이형진 그 부분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만 집행부는 어떤 정도였나요?

송경평 그러니까 김영만 집행부는 내가 입사하기 6개월 전인가 7~8개월 전에 노조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균 집행부가 한 7년 동안 계속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정권의 탄압 등으로 위축되고 대중적인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복지 사업, 소비조합 그다음에 또 뭐 했느냐 하여튼 그런 복지 측면만 하고 실질적으로 대중운동 차원에서 전혀 안 하고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살짝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무마시키고 그런 상태였어.

이형진 사실 8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 사업장 주요 노조들은 다 파괴됐고 대우자동차 노조는 무력화되는데 현대제철 예전에는 이제 인천제철이죠, 그런 경우하고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내에 금속사업장으로 약간 개혁적인 성향은 있지만, 저항성은 포기한 거죠.

송경평 그런 상태였는데 김영만 집행부는 이성균처럼 정치적인 술수나 능력도 없고 아예 무기력했어요. 그냥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거지. 배포도 없고, 조합원들이 10월 11월에 몰려가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그냥 무마하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얼버무리다가 도망가버리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약속도 했다가 그다음에는 자리 비워버리고 뭐 이런 식이지. 자기는 사무국장하고 얘기하라고 도망가고 한번은 군필자 문제 때문에 전무 밑에 문병택이라는 노무과장을 한 번 불러와서 우리하고 면담을 시켜줬어요. 그때 상여금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변형 근무 그 문제는 바로 해결해 줬어. 딱 한번 맨 초창기에 진정서 건으로 나왔던 것 중에 예비군 훈련을 토요일에 해놓고는 그건 안 한 것처럼 해놓고 다음 평일에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해결해 줬지.

이형진 일단 이제 84년 투쟁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85년으로 넘어갈까요?

송경평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시 시점이 83년 하반기에 위장 취업과 관련해서 야연 사건이 터져요. 야학연합회 사건.

이형진 야연사건이 83년 하반기 팜플렛이 돌았죠.

송경평 그래서 현장에 위장 취업자들 대학 출신 노동자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와요. 거기서 치안본부와 안기부에서 다 불러서 취조를 했어. 경원세기에 있던 김명원 그 형님도 야연 사건으로 갔다 오고 그다음에 내가 84년에 들어갔더니 83년에 서울공대 78학번인 누군가가 간첩처럼 왔다가 사라졌데. 야연 사건 때문에 겁나 가지고 그만뒀버린 거야. 그런 걸 쪽 보면서 나는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이제 뽀록이 났어 어떡하지 하다가, 죽더라도 껍 소리하고 죽자, 여태까지 대학교 군대 갔다 온 게 아깝다, 내가 대학 4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냐 그런 각오를 하면서 살았어요. 어려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집안도 못 살리고 이거 운동에 뛰어들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대학교 2학년 때는 아버님이 경찰한테 그 좌파로 아들이 빠졌다고 그래서 용산시장에서 리어카 끌던 사람이 니랑 나랑 철도 변에서 같이 죽자고 그러고. 하여튼 학교 때 이 운동을 계속하느

나 마느냐 때문에 내내 고민하면서 살아서 학생 운동이 지지리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죽더라도 껌소리하고 죽자고 결의가 되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관점이 있어서 선제 공격하게 되고 그 박남수 형 같은 훌륭한 선배를 만나서 지원, 지도도 받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형진 자 이제 84년 말까지 대의원 선거를 마쳤고요. 곧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했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은 지난번 유선희 선생님께서 좀 해주셨기 때문에 또 본인은 직접 대의원은 아니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년이 됐어요. 85년은 유화 국면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풀리던 때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총선도 있었죠. 그래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으로서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을 건데 대공장의 노동 투쟁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 70년대 중반에 노조 만들면서 집단적인 투쟁을 했었어요. 그게 80년대에 가라앉았던 거고 조직을 활용한 투쟁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잖아요. 본인들은 물론 그걸 의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합 활동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니까. 그런데 이제 대의원이 되고 대의원 지위를 활용하면서 회사에서 투쟁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럼 작전을 새로 짜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년 1월부터 아마 노조 조직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

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주요하게 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시죠.

송경평 84년 12월 27일인가 이용선이 해고되고 송경평은 28일 날 해고되어요. 해고되기 전에 대의원대회가 있었네요. 유선희 씨 인터뷰에서 쪽 나오던데 그때 같이 활동을 했어요. 나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있고 대의원들은 들어가서 회의하고 그러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했던 거는 부산 사람들 동래나 전포 이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불신임에 동의하게 만드는 그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차단되고 한 번은 찾아갔는데 어떻게 알아서 여관까지 찾아갔는데 계속 안 만나주고 한참 기다렸다가 10분 동안 따발총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피곤하다고 알겠다고 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서 불신임이 무산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전부터 불신임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대의원이 그만큼 있고 3분의2를 넘어야 하니까 절반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투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추후 투쟁을 계획하면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앞장서지 않고 그러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앞장서서 싸웠고 추후에 대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조직을 재건시켜 계속해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이형진 선생님은 12월에 그러니까 이용선 씨가 먼저 해고되고 그리고 12월 28일에 해고가 되거든요. 징계위원회를 거쳤나요? 아니면 해고 통지를 그냥 받았나요?

송경평 통지받았죠. 불러가서 질의응답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냥 통보, 인사 명령 불복종및 업무 지시 불이행그걸로 해서 통보만 받았어요.

이형진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송경평 당연히 올 건데 그 올 건 온 거지 당연히 그건 예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부에 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심사를 하는 걸 그때 보니까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무 관리기관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아무튼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임투 준비도 같이 했어요. 계속 근거지가 우리 집이니까 조사도 같이하고 뭐도 하고 쪽 밖에 있으면서 계속 같이했지.

그다음에 대의원들이 활동하면서 같이 지원하다가 경인 지역 해고 노동자 감시대상명단 문제(노동계 블랙리스트)로 3월 초에 민한당사 농성을 들어가요. 해고된 이용선 송경평 서기화 그다음에 김진태 김건호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열 명이었는데 학출(대학생 출신) 다섯 명 노출(노동자 출신) 다섯 명이었어요.

이형진 다른 분들은 여타 사업장에서 해고되신 분들이죠. 김건호 씨는 진도였고 서기화는 삼익가구.

송경평 그다음에 김진태가 어디였나? 하여튼 인천이었는데 그래서 남자 5명, 여자 5명이고 성별로 따지면 그렇고 그다음에 출신으로 치면 학출 5명 노동자 출신 5명이 민한당사 점거 농성으로 들어가지.

이형진 여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송경평 송태규 처 조분순, 돌아가신 동일방직 출신 이옥순, 그다음에

농성하면서 만난 이용선의 처 현윤실 그때는 같이 처녀고 총각이었는데 거기서 만나 결혼까지 갔어. 그다음에 저기 청계피복 노조 위원장 출신 민중덕의 처 박애숙 그리고 이봉우 등 경인 지역 해고 노동자들이 민한당사 점거 농성을 하러 가요. 근데 우리는 노동계 현안을 위해 싸우러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농성할 줄 알았는데 단식 농성까지하고.

이형진 그게 언제였습니까? 85년

송경평 85년 1월말에서 2.12총선이 있었던 2월 내내 한 달 동안을 처음에 가서 농성하다, 단식하다가 구류 10일씩 살고 나왔지. 그때 시민사회에서 지원을 왔어. 장기표 계훈제 선생하고 우리 여동생도 와서 붙잡혀서 구류 살고 장기표 선생님도 구류 살았는데, 민한당사 노동계 블랙리스트 투쟁 거기 갔다 구류까지 살고 나오니까 현장 파업이 거의 막바지에 딱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이형진 4월이 됐네요.

송경평 일주일 쯤 지켜보고 있는데 파업에 딱 들어갔어. 이제 대의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 집에서 논의하고 그러다가 파업에 딱 들어갔어. 3일째 되던 날 휴무 토요일이야. 그날이 4월 19일인데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는 거야. 공장 폐쇄. 그래서 내가 정문을 타고 뛰어넘어 들어갔지. 4월 19일 점심때 그랬더니 밖에서 경찰에서 잡지 안에서 조합원들이 끌어올리더라고요.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이겨서 지금 서문이라고 하는 정문 반대쪽 그 문을 타고 넘어 들어갔어. 여기 공식 기록에는 거의 안 나와, 잠깐씩 나오는데 송경평이 와서 이런 문제를 제

기했다 하는 건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공장 폐쇄 조짐이 여기저기 감지된다. 휴무 토요일을 기해서 공장 폐쇄하고 노조 집행부 명의로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출근 안 하면 파업도 없는 거 아니에요? 파업이면 공장에 와서 모여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근거지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휴무 토요일을 기해서 공장 폐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붙인 거예요.

이형진 그때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송경평 그때 한 천 명정도 있었지. 사실 그 전날 김우중 회장을 만났어요. 박일성 목사가 나를 보자 그래서 나갔어.

이형진 박일성 목사는 당시에 백마교회에 있지 않았나요?

송경평 산선에 계셨을 거예요

이형진 식사를 같이 하시지는 않았나요?

송경평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조용했는데 어디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이형진 호텔 같은 데였어요?

송경평 커피를 마셨나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김회장님은 나더러 송형이라고 하더라고. 너무나 어색했지. 결론은 하나야 도와달라고 그리고 추후 같이 일하자고. 현장에 투쟁 지도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해야지 제가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끝냈지. 그리고 거부하고 다음 날 뛰어 들어가 어제 김우중 회장이 날 만나서 매수하려고 그러더라.

이형진 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송경평 담을 넘어 들어가서 서문 앞 바로 광장에 거기서 전부 다 떠들었지. 약간씩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중

에 논의를 한 거였지.

이형진 그 판단을 하게 된 거는 그 주말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대오가 흐트러진다.

송경평 그런 거지. 공장에서 파업해서 농성해야 하는데 다 뿔뿔이 집 안에 흩어져 있어 봐. 그러면 이제 일하는 기간은 되지만 투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농성 들어가자 그거를 제안했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간 게 350명이 농성으로 들어간 거지.

이형진 기술연구소로 350명이 같이 들어갔습니까?

송경평 들어가서 농성준비가 다 마무리 되고 밤늦은 시각이야.

부평서 정보과장이 날 보잔다는거야. 잠깐만 보고 싶다고 난 리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났는데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야. 당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파업만 하던 사람들이 기술연구소를 점거 농성한 것은 당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따라서 우리 경찰도 어떻게 이걸 좌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상부에서 어떤 명령이 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가주면 그래도 상부에 잘 보고하고 아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그 만난 결과를 보고했지. 투쟁 지도부한테. 그랬더니 나가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형진 그때 투쟁 지도부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송경평 그러니까 이제 그때 투쟁 지도부가 누구였어? 조합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파업의 리더들은 전부 다 민주파 대의원들이었고 홍영표를 중심으로 한 홍영표, 유선희, 이용규, 한비석 등등 그 팀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

를 한 결과 그래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약속을 했지. 그놈들이 나가면 어디에다가 그냥 차에서 내보내 줄 테니까 그때 어디로 가버려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새끼들이 나갔는데 안 보내주고 여관에 억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나중에 지랄 난리를 치다가 기진맥진했는데 3~4일 있다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김우중이 잠깐 피신해 있어라. 이래서 도망가게 만들잖아. 정권한테는 신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놓고는 나를 바로 전격 구속 시켰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속되는 거야.

이형진 여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송경평 여관에서 바로 유치장으로 간 거지.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

이형진 기술실 점거하는 과정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정리됐다는 거죠?

송경평 응 그런 거지. 나는 어찌 됐든 간에 농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 거고.

이형진 근데 장소까지 확정하지는 못했어요.

송경평 그렇지. 근데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좋다 해서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간 거지. 그때 밖에서 고민한 팀이 김문수 박노해 등

이형진 그럼 밖에서 그분들과 좀 상의를 했었어요?

송경평 상황 판단 같이하고서 이번에 나 죽으러 들어간다고 하고 뛰어 들어간 거지. 그때 용선이는 그런 연결이 없고 그래서 나 혼자 뛰어 들어갔으니까 나는 제삼자 개입으로 바로 구속되고

용선이는 임투 과정에서는 구속은 안 되고 해고만 되었지. 그러니까 용선이가 맨 앞장서서 같이 싸웠고 다만 다른 거는 내가 신분이 드러났던 것 때문에 포커스가 나한테 맞춰졌고 마지막에 공장에 뛰어 들어가고 철야농성 들어가게 만들었고 용선이는 마지막 과정에 안 왔기 때문에 구속 안 된 거지.

이형진 그 장면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에서 이제 서문 철문을 넘어가요. 이쪽에서는 경찰들이 붙잡고 조합원들이 또 당겨서 결국 내부에 들어왔는데 거기 이미 현장에 천여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송경평 지켜보고 있고 한 십여 명이 와서 나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신발 벗겨지고 뒤에서는 잡아 내리니까 신발이 벗겨지고 안으로 들어왔지.

이형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선동하셨어요?

송경평 그런 거지 하여튼 그게 대우자동차의 마지막 대중 투쟁이 됐지.

이형진 부서별로 논의하고 의견이 수렴돼서 정리된 게 기술실로 가서 농성을 하자, 기술실 농성까지는 같이 가셨나요?

송경평 가서 12시가 다 돼서 그놈 와서 그래도 한번 봐라. 그래서 봤는데, 나는 절대 안 본다고 그랬거든. 봤는데 그런 제안을 해서 있는 그대로 지도부에 얘기했더니 고민한 결과 그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접거 농성을 하더라도 경찰들이 강제 진압하는 건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등등하니까 그런 요소 저런 요소 고민하면서 같이 판단해서 정리한 것이죠.

이형진 기술실을 접거했던 그 인원들은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요? 하

룻저녁은 같이 계셨던 거잖아요.

송경평 이것저것 그냥 대비하느라고 이거 설치한다, 저거 설치한다 바리케이드 설치한다. 뭐 한다. 정신없이 바빴지 뭐. 작전회의도 하고 그런데 투쟁 지도부들 회의하는 데는 안 들어갔고 나는 그냥 가서 충격을 던져서 이거는 대오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만 던진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아쉬운 게 18.7%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해고자 문제는 쟁점도 아닌데 왜 그걸 집어 넣는 거예요. 그건 버텨야 되는데 그걸 합의해 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형진 혹시 그 대목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송경평 합의서 1번, 임금인상 호봉승급 얼마 기본급 인상 얼마 장려금 등등 얼마 복지후생, 2번 1번 임금인상 이번이 복지후생 몇 프로, 3번이 타사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개선해 나간다. 4번이 식사는 정상 조업과 동시에 즉각 개선한다. 5번이 기해고된 송경평, 이용선, 박재석 및 다른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월 25일 농성자 대표 홍영표, 김우중

이형진 다른 해고자는 그 3인 외에 또 있었나요? 전희식 씨도 그때 같이 끼었나요?

송경평 전희식은 그때 해고가 안 됐을 거야 그때는 해고가 안 되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해고됐을 거야. 아마 나중에 홍영표 지도부가 김우중과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아마 해고됐을 것 같은데.

이형진 송선생님은 그러면 투쟁이 끝나고 여관방에서 바로 부평경찰

서로 인계되어 인천구치소로 이송된 건가요? 그리고 구속될 때 죄명은 제삼자 개입이었나요?

송경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다음에 제삼자 개입,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선 출근 투쟁할 때 경찰에 고소했던 거 그거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병합을 했고, 재밋는 게 이놈들이 6개월 구형을 했어. 그런데 최종 판단은 그거에 대해서 벌금 20만 원을 때렸어요. 감옥은 안 살리고 벌금 20만 원 안 내면 하루에 천 원씩 해서 200일을 강제 노역해야 돼. 200일이면 6개월이 넘어 판사들이 구형보다 판결량을 더 많이 때리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철희 장영자 사건은 벌금을 안 내면 하루 2억인가 까웠거든. 나는 하루에 천 원 짜리 인생이었어.

이형진 이게 송 선생님께서 두 번째 구속이었습니다. 사실 학생 시절 긴급조치 위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속이었는데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첫 번째 구속과 비교하신다면.

송경평 첫 번째 구속은 완전히 목표 상실이었지. 신분 보장해 위장 취업하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끝났다. 그렇게 4년 동안 고민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10.26 때문에 없어져 버렸지. 대우차 동차 때 구속은 이용선처럼 구속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쟁 속에서 구속된 거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즐거웠어요. 유선희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독방이 6개가 있는 중에서 내가 2번이라면 유선이야 5번이야. 거기서 바둑도 두고 독방에 갇혀서 어떻게 두는 줄 알아요? A13그러면 저쪽에서 A14이런 식으로 인천 소년교도소에서는 배드민턴 테니스

안 했나, 원주교도소에서 테니스 안 했나, 하여튼 교도소에서 테니스를 했어.

이형진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어떻게 됐죠? 한 1년 정도 됐나요?

송경평 나는 1년 반, 그다음에 홍영표가 1년, 유선희가 8개월 그다음에 6개월 뭐 이런 식이었어.

이형진 1년 반이면 85년 5월부터 쳐서 1년 반이면 87년 1월까지네요. 인천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는 원주로 갔나요? 당시에 시국 사건 사람들이 꽤 많았을 때죠.

송경평 그래서 원주에 가서는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독방에 앉혀놓고, 막 그냥 경색됐다가 또 싸우고 나면 어느 시점에 풀렸고, 그래서 원주교도소에서는 언제 풀렸을 때는 어느 방에 모여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놀고 그랬지. 그때 함운경이도 같이 있었어요.

이형진 86년 9월까지니까 그 시점에 서울에서 구로 동맹파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송경평 책을 통해서 ‘두 개의 평가’도 봤어요. 현장 6집에 나오는.

이형진 감옥 안에서요.

송경평 나는 100번을 읽어봤어.

이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송경평 ‘두 개의 평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우자동차 투쟁은 경제주의자의 최후 발악이고 구로 연투는 정치투쟁의 모범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로연대 투쟁처럼 정치투쟁으로 나아가 된다 이거지 내용이.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경제주의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경제주의자의

발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되새겨 봐도 내가 정치주의자였으면 이렇게 했을 걸 이런 것이 없었어. 경제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어.

그 상황에서 그만큼 섬세하게 철저하게 그 뭐야 생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대중언론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같이 교육하고 그러면서 투쟁이 썩 단계별로 올라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내가 봐도 완전히 신기했거든. 투쟁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이 3주 4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뭐 나왔냐고 보면서 신기해하고 작업장에 갖다주고 막 그냥 신기해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나중에 ‘두 개의 평가’를 보면서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얘기한 그 ‘두 개의 평가’를 쓴 저자가 얘기한 경제주의라고 할 때 딱 하나 걸리는 게 지도자를 팔아먹었구나. 임투에만 매몰됐구나, 임투까지 매몰되는 거 좋아. 거기 목표로 해서 싸우는 거 좋아. 근데 왜 5번 항을 집어넣었을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했구나. 우리가 비록 나는 맡겨놓고 나왔지만, 그 지점에 대한 인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직 투쟁에서도 배제하고 그러면서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 분열하고 이러면서 서로 찍고 말리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나는 지도자 팔아먹는 그때부터 실마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량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복직되면서 전희식 동지가 자기들 복직되면 5천만 원 받고 홍영표도 영국으로 가기로 하고 5천만 원을 받고 다 5천만 원을 받는데 이용선 송경평은 생활도

어려우니까 100만 원씩이라도 내서 생활비 지원해주자고 그랬는데 각자 하기로 하자, 그래서 무산시켜 버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동지애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여튼 지도자를 지키지 못하는 조직은, 정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힘에 부쳐 못 지키는 것과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의식 자체가 그때 너무 취약했었다. 그때가 노선 분열하기 직전이었지. 복직하고 그럴 때가 감옥 갔다 나왔던 89년 이럴 때란 말이에요.

이형진 나오신 거는 86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87년 직전이었는데.

송경평 아니 출소는 86년 연말일거요. 87년 2.7집회로 다시 구속되어 87년 7월에 다시 만기출소해요. 그러니까 87년 이때가 복직 투쟁하고 이런 시점인데 그때가 주사파도 등장하고 사노맹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노선 투쟁하고 그다음에 독자 후보냐 시기 상조론이다 비판적 지지,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는 시기 그런 거랑 맞물려 있으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그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투쟁을 대중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형진 아니 저도 그 점은 동감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남성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인데 그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구로동맹 파업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투쟁하면 노동조합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87년의 경험을 딛고 그다음에는 성공적이지만 당시에는 연대 투쟁을 통해서 지켜낸 게 아니라 연대 투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됐거든요. 그것도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

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이후 서노련 인노련 이런 과정들이 한동안 정치주의로 경도된 부분들 문제가 그때 그 논란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건 87년 7월에 석방돼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옥바라지는 정연실선생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 역할을 하신 건가요?

송경평 가족 외에는 면회를 안 시키니까 그냥 자기가 호적 때다가 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결혼 신고해 버려서 면회 다 했어요. 나 그래서 결혼이 언제 됐는지 몰라. 집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 갔는지 행방 불명했던 여자가 우리 장인어른이 신동아 월간조선 을 맨날 보는데 거기에 대우자동차 투쟁르보 기사 떴는데, 기사에 송경평의 처 정연실이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정연실이 내 딸 연실이나 누구 딸이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형진 그때 실명이 등장했나 보죠?

송경평 나도 본명이고 정연실도 본명이고 다 본명 썼지. 가명 썼으면 그 활동도 못 해보고 그냥 깨갱했을 거예요. 근데 본명 썼고 고등학교도 그대로 사실이고 뭐 등등 했으니까.

이형진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등장해서 옥바라지를 했군요.

송경평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에피소드가 딱 감옥에 가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 매일 치다꺼리하고 유인물 만들고 뭐 하고 아무 정신없이 살다가 징역 딱 가고 나니까 면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한가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완전히 신랑한테 해방됐대. 그때가 해방된 기간이었던대. 대우자동차 때는 너무 힘들고 열심히 해서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형진 이 얘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자동차 투쟁 당시 4월에 외부의 지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대우자동차 앞에 가서 시위했다는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요 하계는 아마 백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주민들도 일정하게 우호적이었고 그런데 송 선생님은 4월 투쟁 때는 내부에 있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런 투쟁을 같이 지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바깥에 지도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경평 밖에서 일부 지원을 하다가 대의원 중심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투쟁하고 이럴 때는 경인 지역 해고 노동자들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하러 거기 한 달 동안 갔다 오니까 일주일 만에 파업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달이 비어요. 그리고 내가 뛰어 들어가서 구속되고, 가족들이나 지역에서 지원하고 이럴 때 또 정연실이 앞장서서 열심히 밥해놓고 뭐 이런 근거지가 우리 집이기도 했지. 백마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투쟁에 처음부터 그 85년까지 그때는 여자임에도 정연실이 진짜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구속자 가족협의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형진 김문수 선생이나 박노해 씨도 그때 내려와서 부평에서 같이 논의했나요?

송경평 계속 있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죠. 박노해 씨는 내가 대학교 때 친하고 잘 알았어요. 김진주 누나를 경동교회에서 만나고 그래서 선배 중에 한 분이 김진주하고 박노해 연결하고, 내가 대학교 때 고민할 때 박노해와 김진주가 저기 (서울시 성동구)화양리에 있는 제약회사 거기에 있는 중졸 아가

씨를 소개해서 처음에 중학교 때 여자친구와 학벌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졌는데 또 중졸을 만나서 학벌 문제 생기면 싫다고 했는데, 본질적인 여자라고 해서 만났어. 그 여자를 만나면서 가난하게 같이 살자, 노동도 하면서 그래서 여자가 있어서 안도하면서 군대도 편안하게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었지. 그때부터 같이 만나서 놀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내용이 '노동의 새벽' 분위기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딱 대우차 투쟁하고 있는 도중에 '노동의 새벽'이 나와서 봤는데 그때 투쟁할 때 박기평이 썼구나! 그랬지.

그때 박노해라는 이름 몰랐어. 박기평이 썼다고 해서 투쟁하고 이럴 때 계속 그 시 한 편씩 낭독하고 읽고 그랬어. 그런 인연이 있어서 감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박기평은 서노투위(서울노동자투쟁위원회) 나중에 사노맹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주사 문건이 나와서 양쪽에서 이거 보여주고 같이 끌어드리려고 하는데 박기평 그쪽 서노투위 쪽에 내가 소그룹에도 참여했어요. 거기서 하부 조직에 나중에 이름을 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은수미도 그때 있었고 염만숙 송경평 등 대여섯 명이 했는데 나는 거기서 문제 제기하고 끝까지 안 했어. 뭘 했느냐 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선동 팸플렛 중에서 해고자들과 관련된 지침이 하나 나와요. 내용이 뭐냐? 전국의 해고 노동자들은 즉각 출근하여 근무해 버릴 것.

이형진 무슨 말씀이죠, 그런 지침이 나온다고요?

송경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침을 내리는데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전국의 해고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출근을 해서 근무해 버릴

것이라는 표현까지, 내가 얼마나 그것 가지고 싸우고 했는지 그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야. 표현이 딱 그대로야.

이형진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송경평 그러니까 주관주의지. 즉각 출근이 아니라 즉각 출근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 그래야지 행동 지침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정문에서 막는데 어떻게 근무해 버리냐고? 그래서 이 건 주관주의다. 표현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전국 해고 노동자들은 가열찬 출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끝까지 우겨서 “에이,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사노맹에 안 간 거야. 주사파는 왜 안 간 줄 알아요? 품성론 뭐든 다 좋더구먼, 그런데 수령론에서 신격화돼 있는 거, 무소불위 아니 뭐야? 아무것도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신격화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사파도 안 가고 사노맹도 안 간 거지.

이형진 일단 86년 연말에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5.3 투쟁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노련 활동은 있었을 거예요. 87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던 기존의 조직이나 이런 관계들이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송 선생님은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송경평 87년 그러니까 뭐냐면 대우자동차 투쟁으로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이리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여기저기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2.7 집회에 참석하고 거리에서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를 하도 해서 감옥 갔다 오고 그래서 겁 없이 마누라랑 같이 다니며 서울 남대문 그쪽에서 구호 외치고 선동

하다가 돌이 또 손잡고 경찰들 앞에 딱 지나가 흠어지는 척해 놓고 몇 번씩 시위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복 입은 놈이 경찰들 정복 앞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해서 잡혀버렸어. 거리에서 그냥 허무하게 잡힌 거지 뭐. 87년 2월 7일, 그래서 마누라랑 같이 들어갔는데 마누라는 혼방하고 나는 전과가 있다고 4개월 또 살아요. 그래서 원주교도소로 다시 보냈는데 작년 9월에 나와서 2월이니까 6개월 만에 다시 가니까 “형, 면회 왔어?” 그러더라고. 애들하고 아주 잘 놀았어. 거기서 사개월 살고 석방될 때가 6월 10일에서 3일인가 지났을 때야.

이형진 유월항쟁기가 됐네요.

송경평 6월 11일 어느 놈이 면회 갔다 오더니, 형님 어젯밤에 부평역에 갔다 왔어? 뭔 소리야 했더니 “아, 신문에 났는데 어젯밤 형님이 부평역에서 데모 선동하고 그냥 바람같이 사라졌다며 흥길동이야?” 이러더라고. 그때 6월 10일 전국 스케치하는데 서울 중심으로 하다가 지역별로 인천은 어떨고 광주 어떨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부평도 두 줄인가 나오는데 누군가 집회 시위에 유능한 송경평이 나타나서 데모를 주도하고 바람같이 사라졌다고 이게 부평 스케치 기사였어요. 기사가 대충 그냥 저거 누구지 했더니 송경평인가 뭐 하면서 그냥 대충 갈겨 쓴 거야. 그래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형진 그러면 6월 항쟁을 겪고 나서 징역에서 나온 거죠.

송경평 인천5.3항쟁 때는 대우자동차 건으로 참석을 못 했었고, 6월 항쟁 때는 2.7 집회로 감옥에 가는데 그때 거리에서 한 40명이 잡혔는데 기사는 송경평 등 40명으로 나왔어.

이형진 86년에 지역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투쟁 이런 부분들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었네요. 87년 6월 항쟁 직후면 대우자동차의 8월 투쟁 직전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번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송경평 87년 8월 투쟁은 복직 요구하고 막 이럴 때요. 그다음에 독자 후보 논의하고 민중후보, 민중의 당 이런 거 논의할 때고, 그래서 해고자 내부에서 모임을 하는데 해고자 복직 요구자 명단에도 애네들이 안 넣어주니까 그건 논쟁하다가 너네끼리 해라 그리고 나는 관여 안 했지.

이형진 그때부터 현장 대우자동차 현장 투쟁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나요?

송경평 관여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관여를 안 했어.

이형진 대신에 민중의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후보론으로 87년 하반기 투쟁은 대통령 선거까지 쭉 가는 건가요?

송경평 그때 독자후보론 하면서 87년 지역 투쟁할 때 후보 차원에서 방문해서 경찰들 막으면 난리법석치고 그냥 휩쓸고 다녀요. 그때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노조들이 많았어요. 그때 세창 물산 지지도 다섯 번 가고 또 여기 부평공단에 마이크로, 어디 한독금속에 투쟁 지원 다니고 당직자들과 지구당 위원장이었는데 88년 국회의원 후보로 되면서 대우자동차 투쟁에 선봉이었다. 감옥 나온 사람이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경찰도 다 알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고 대접을 해줘야지.

이형진 민중의 당이 87년 말에 결성이 됐습니다.

송경평 그렇죠. 그래서 88년 총선을 준비하는 거지. 대선 때 민중의당으로 백기완 선생 추대하고 그때 인민노련하고 사노맹이 두 축이 돼서 지지했어.

이형진 송 선생님은 그때 적을 어디 두셨어요?

송경평 나는 인민노련도 아니고 사노맹도 아니고.

이형진 개인이었어요?

송경평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노맹은 박노해하고 엄청 친하고 그 하부 조직에서 공부도 했지만, 전국 해고자 즉각 출근해서 근무하라는 방침과 싸워서 안 하고, 주사 쪽은 이견 주관주의 그래서 안 했고.

이형진 사노맹은 그때 당시는 사노맹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때죠.

송경평 그렇지 그때는 서노투위, 서울노동자투쟁위원회 그게 박노해가 있던 조직이었지. 그게 나중에 사노맹으로 발전하는데, 87년 6월 항쟁 지나고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거제인가 이석규 열사 분신 사망 직전에 연세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게 며칠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집회 와중에 이석규 열사 분신 소식이 들려와서 한쪽에서 총파업으로, 살인정권 몰아내자 한쪽에서 막 난리고 그냥 집회가 아비규환이 돼버렸어.

이형진 7,8월 투쟁에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을 서울에서 모아내는 집회를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거죠?

송경평 감옥에서 나온 나보고 사회 보라고 해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석규 열사 분신 후 사망 소식이 전달돼서 집회 현장에서 ‘투쟁하러 나가자 하는 쪽’하고 ‘집회를 하자는 쪽’으로 나뉘셨는

데 그걸 통제를 못해서 집회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보내면서 민중당 준비하고 이랬죠. 민중당 준비는 처음에 노선은 난 옳다고 봤는데 나는 정치에는 안 맞다. 박노해 당신이 해라 그랬는데 자기는 비합법 운동하니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당신이 해야된다면서 계속 꼬시고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어. 하여튼 박노해 동지의 코에 끼어서 내가 ‘민중의당’ 정치운동을 나서고 그다음에 해산되고, 민중당하고 그때가 그냥 소선거구 하에서 진보정당을 한다는 게 너무나 척박해서.

이형진 그 시점 전에 87년 2.7 투쟁으로 구속됐다가 나오는 시점은 87년 7월이었지 않습니까? 7월에 7~8월 투쟁을 보게 되죠. 물론 대우자동차 투쟁도 옆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하셨지만 흐름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대우자동차만이 아닌 부평4공단과 전국적인 노동자 투쟁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송경평 이거 자만일지 아니면 자기 위안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지도 못한 잠깐만요.미안합니다.

(기침으로 한동안 대화 멈춤)

이형진 6월 항쟁은 원주 교도소에서 봤고 7~8월 투쟁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겪게 됩니다.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 투쟁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노동운동가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송경평 선생님은 그때 상황

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송경평 당시에 감옥에 가서 몰랐는데 대우차 투쟁의 여파가 당시의 경총 임금 가이드라인 5.2%인가를 돌파하고서 18.7%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잖아요. 어찌 됐든 희생자는 발생했지만 그러면서 분위기들이 여기저기 파업만 하려고 하면 그냥 회사에서 손들고 빨리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임금인상이 부평공장 주변에서 다 15% 16%로 막 이렇게 나오더구면.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만인지 자부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우자동차 투쟁이 보여준 대중의 역동성 자신감 이런 것들이 꼭 바탕에 깔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되고 같이 결합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으로 확 가열차게 열린 공간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죠.

이형진 현대중공업이나 거제 대우조선 투쟁 현장에 다녀보지 않았나요?

송경평 거기는 가보지 않았고 88년 민중의당 선거 때 김진국 씨가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거기에 권인숙 양하고 같이 생전 처음 비행기 타고 출마한 사람 지원 유세를 한번 갔어.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형진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송경평 그럼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하여튼 민중당 활동을 쫓으면서 노동자 투쟁 현장은 조직적으로 투쟁이 있으면 개입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저는 여기저기 문어발식 성품이 아니니까

그냥 민중당 준비하고 그 내부에서 뭐 하고 이러느라 바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투쟁하고 있구나, 그런 나름의 분위기가 민주화운동과 연결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정도였지 직접 개입해서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형진 그러면 민중당 준비는 87년 7~8월 투쟁이 마무리되는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송경평 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88년 4월에 있었으니까 대선 한 3~4개월 전부터 독자 후보 백기완 후보 만들기 작업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민중당 준비한 거죠.

이형진 그때 백마장 입구에서 사무실을 내신 건가요? 그런 거죠.

송경평 그전에는 다른 쪽에 있다가 백마장 입구로 옮겨서 활동은 시작했어요. 그때 활동은 ‘민중의 당’이라는 새로운 남한 사회의 자생적인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과 정치투쟁 영역이 따로 구별될 수 있다. 대중적인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진보정당 운동, 그것에 대해 동의해서 시작했는데 너무 열악했어요.

이형진 그 대의에 동의하셨어요?

송경평 다 동의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치 성향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지만 할 사람이 없다. 당신은 대우차 투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됐고 당신이 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정치적으로도 내가 굳이 대중성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어.

이형진 정연실 선생은 동의하셨나요?

송경평 같이 동의했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시기상 조론의 포위 속에서 독자 후보가 조그마하게 시작하는데 내부의 분파 투쟁이 너무 싫었어요.

이형진 어떤 양상이었나요?

송경평 사노맹 팀하고 인민노련 팀이 예를 들면, 지역 연대 테이블에 대표를 서로 나가겠다고 싸워. 그 조그마한 연대 테이블에 선 동해서 선을 만들어서 자기 조직 확장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야 네가 이 상황에서 너의 안이 90점짜리라 그러고 너의 안이 70점짜리라 그러자, 90점짜리에 여기가 동의하면 95점짜리가 되고 70점짜리가 여기서 동의해주면 85점 88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 싸우다 보니까 이것도 70점 짜리 50점짜리 되는 거 아니냐? 제발 회의끝나고 술이라도 같이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민중당을 준비했어요. 그때부터 노선 분열 속에서 나오는 조직 이기주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민중의 당은 쪽 그렇게 해서 이끌어 왔고, 그러다가 사노맹 쪽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인민노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내부의 조직 갈등은 이제 없어지면서 살 만했지.

이형진 대선을 겪으면서였나요?

송경평 아니 총선을 겪으면서. 대선 때는 이제 민중의 당 내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독자 후보 노선에 다 동의하면서 나름대로 열기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형진 그 이후 다음 해 4월까지는 약 4~5개월 정도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당 조직이 급조됐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역에 공식적으로 후보는 두 군데 내지 않았습니까?

송경평 그때는 민중당은 나 혼자고 한겨레민주당으로 오순부 선배, 부천 쪽으로 원혜영, 제정구 선배 등등이었죠.

이형진 인천에서는 송경평 후보 사무실로 집중이 됐겠네요.

송경평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민노련에 양창욱 씨 같은 경우는 인민노련 지도부에서 송경평을 잡아라. 그래서 파견을 보냈다는 거지.

이형진 당시 국회의원 출마에 다른 민중당 후보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득표력을 과시했거든요. 몇 프로였죠?

송경평 15% 정도 됐고요.

이형진 그러면 약간 돌려받았나요?

송경평 공탁금 1천만 원 돌려받았죠. 그리고 그때 선거운동이 재미있었던 게 목마 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작전시장, 계산시장 다 휩쓸고 다니면서 앞에는 팽과리치고 후보는 목마에 태우고 뒤에는 운동원들 선전물 나눠주고 한 백여 명씩 돌았어요. 그때 선본 상근자가 열다섯 명인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 노동자 당원들 노동조합 활동하던 사람들과 선거운동 하다가 파업 현장 가서 또 한 번 분위기 잡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긴 했어요. 그때 1, 2위가 민주당하고 민정당이었는데 그때였나 다음 선거였나 하여튼 천 원씩 모금 운동하는데 거기에 못쫓듯이 3천만 원이 들어왔어. 어디서 보냈는지 몰라. 내가 보기엔 안기부 자금인지 이승윤이 자금인지 그걸 쓰기는 썼어요.

이형진 이승윤?

송경평 이승윤이 그때 민정당으로 나왔거든. 재무부 무슨 장관 출신 이고 그다음에 이병현 지영길 등.

이형진 88년 4월이었으면 87년 투쟁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이었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송경평 하여튼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가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관원들도 이전에는 탄압하다가 후보로, 합법적으로 가면 주춤주춤하면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면 맨날 싸우다가 가서 응원하면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힘내고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지원을 와주셔서 그때 너무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재미있게 돌아다녔어요. 세창물산 같은데 열심히 돌아다녔지. 그런데 그때 동지들이 한 10여 명은 요즘에도 1년에 두 번씩 만납니다.

이형진 송 선생님은 88년 이후에 92년까지는 당 활동을 끌고 가시죠. 그러면 민중의 당에서 민중당으로 변화 발전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92년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송경평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88년에 해산되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 전민련의 독자 후보 파가 나오면서 이 재오, 장기표, 이우재 등 선배들이 민중당으로 결합을 해요.

이형진 그랬죠.

송경평 거기에 기대하는 거고 인천에서도 인민노련이 대거 비합조직에서 합법적으로 인자를 많이 배치해요.

이형진 선생님은 인민노련이 그때까지 해산되지 않고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경평 그때가 언제냐면 인민노련이 한국노동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때 황선진을 대표로 보내고 한국노동당 준비위원회 그때 거기서 주장하는 게 장기표 선생, 그때 당 대표가 이우재였는데 장기표 당이라고 하면서 장기표 선생하고 주대환을 공동대표로 하자 그랬어. 인민노련이 사회주의자 사건으로 다 감옥에 가 있었거든 주대환도

이형진 송 선생님은 인민노련에 적을 두고 계셨어요?

송경평 막판에 하부 조직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민중의 당 당직자들도 인민노련 출신이 많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김창한인가? 하여튼 그때 인민노련이 사회주의자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었는데 주대환을 공동대표로 하자, 한국노동당 준비위를 띄우면서 민중당 개량주의다 하고 치고 나왔어요. 이미 와 있는 인민노련 출신의 민중의 당 사람들도 있는데 지하에서 세상모르면서 말이야.

대중운동을 하고 열심히 감각을 익힐 생각은 안하고 계량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주도권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인민노련을 탈퇴하기도 하고 그래요. 몇 사람들이 그러면서 황선진이 대표로 나와요. 한국노동당 준비위원회, 그러면서 그때 민중당은 5명인가 출마하는데 송경평, 전희식, 황선진 그다음에 이원주, 박귀현 5명, 아마 처음에는 서기화 씨가 동구 쪽에서 준비했는데 이원주가 출마하고, 대표로 인천시당위원장을 황선진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정파주의야. 예를 들면 당시에 민중당은 한 사람이라도 당선돼야 당이 유지된다, 그래서 장기표 이우재, 이재오, 송경평, 태백의 배진 다섯 명을 뽑았거든. 그런

데 인천에서 5명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황선진 시당위원장으로
서 질문에 답하는데 기자의 질문이 인천에서 누가 당선된다고
보느냐고 묻는데 전희식이라고 그러면서 전희식이 당선될 거
고 가장 득표를 많이 할 거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정파적 관점
이구나. 근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한 번도 반성 안 하더라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
고 넘어가버렸지.

이형진 92년에 민중당으로 출마 과정, 그러니까 그때는 88년 민중당
이후 인민노련의 비공개 부분들까지 같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노동당 준비위, 이 부분과 충돌이 있었던 건가요?

송경평 한국노동당 준비위원회 거기가 한노당이었고 충돌이라기보다
거기가 기존의 민중당을 개량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통합 요
구를 했지

이형진 노회찬 선생님도 그때 참여했나요?

송경평 전면으로 나서는 않았어요. 노회찬은 그때 중앙당의 중앙
집행위원으로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 서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거의 잠 못 자고 “아니 대중정당인데 어
떻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공
동대표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런 판단하고 그거 말
리느라고 한노당 준비위원회 멤버들과 인민노련 그래서 2박 3
일 있다가 논의하고 내려와서 소위 인민노련 지도자한테 보고
를 해. 백마장 쪽에서 김창한 등 한 세 명 앞에서 그랬더니 얘
네들이 비웃더라고 그래서 그때 또 마음 많이 상했죠.

이형진 인민노련 조직과는 실제로 굉장히 가까웠는데 약화되네요.

송경평 대중운동을 모르면서 지하에서 있다가 자기네들이 옛날에 비
합 조직일 때, 어디가 전략 지도부 지침을 때리면 다른 데는
다 따르고 뭐 이런 관점에서 대중운동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냥 조직 이기주의, 헤게모니 가지고 그냥 눌러대는 거 보면서
아유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실망을 많이 했죠.

이형진 92년 출마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송경평 92년 출마는 2만 2천 표인가 얻어서 20%가 넘었지

이형진 지난번보다 상당히 더 상승하긴 했네요.

송경평 그전에는 6천표 얻었고 92년에 2만 표 넘게 얻었지

이형진 민주당 여타 후보들보다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송경평 2만 표 넘는 데가 아까 얘기한 그 다섯 군데예요. 전희식, 황선
진은 5천 표 안 됐을걸. 뭐 그런 거고 그전에 민중의 당 시절
에 원혜영은 한겨레민주당으로 부천에 나왔고 나는 민중의 당
으로 나왔는데 한 5천 표씩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꼬
마민주당으로 원혜영이 전국 최다 득표를 해요. 그러면서 국회
의원 당선되는 거지.

이형진 본인 스스로는 좀 아쉬웠겠습니다. 잘 쪼으면 될 수도 있었겠
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송경평 그전까지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분위기는 좋았
고 돌아다니면서 뽕가리치고 재밌고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선거 후 상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산
결정을 하면서 상집위원들이 나뉘대로 의견을 모은 내용을 얘
기하는데 비판적 지지는 민주당으로 가고 우리는 당 해산됐
으니까 한나라당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때 한나라당 아니었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디도 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지역에
서 틀을 잡고 있어라. 우리는 한나라당 가고 비판적 지지는 민
주당 가고 나중에 전체가 힘을 합쳐서 민중당을 재창당할 거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갔어요. 나 그걸 믿었어. 92년 4월 선
거 이후에 김낙중 간첩단 사건도 있고 하면서 당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중앙집행부 결정 사항이 그거였어요.

이형진 그게 사실이었던군요. 결정이 있었네.

송경평 있었어요. 그런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소사로 오
니까 나는 지원하러 갔고 그랬더니 송경평도 한나라당 갔다는
소문이 한두 번 들었고 그랬는데 김문수가 거기 투쟁위원장
뒤 하면서 싸우는 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저
기서 힘들게 싸우는 척하면서 리더십도 확보하고 힘을 키워야
되겠지 그래서 김문수 같은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변질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계속 믿었어. 나중
에 보니까 진짜 변절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민중당 해산되
고 20년 만에 민중당 연찬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김낙중 대표
도 오시고 이우재 대표도 오시고 이재오 장기표 다 왔어. 거기
에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김문수도 국회의원에 있고 한
나라당 또 민주당 누구도 등등해서 오늘이 실력을 양성해서
민중당 재창당하는 날인가 보죠? 그럼 민중당 재창당 오늘 아
니면 언제 합니까? 장기표 위원장님, 이우재 대표님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우재 대표 나오라는데 장기표 막 뛰어나오고 변
명하고, 그때 한 번 쓴소리 했지. 그때 그러니까 사기 아니었느
냐? 이런 기조로 쓴소리 한 번 했지. 나중에 보니까 그때 상집

결정이 한나라당 가기 위해서 실력 양성론 거꾸로 띄워놓고 전부 그리로 간 거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해서 김문수가 민중당 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해산되기 6개월 전에 와서 노동당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한나라당 가자고 선동하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야. 인민노련 본대가 한노당 준비 위원회로 나왔고, 민중당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공동대표 제도 제안했고, 그래서 내 느낌에는 나중에 이 선배들이 갈 때는 후배들로부터 개량주의자라고 욕먹고 당은 간첩단 사건으로 또 휘말렸지, 또 신자유주의 노선에 어느 정도 경도돼 있었지, 그런 과정에서 그냥 청산하고 한나라당으로 간 것 같아요.

이형진 청산하기 위한 변명이었네요. 송선생님은 92년 4월 출마해서 이제 2만 표 정도를 얻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송경평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분열 속에 숨어 있는 이기주의와 욕심, 정말로 진지하게 이 노선이 옳다 저 노선이 옳다는 차원에서 진지한 노선 투쟁이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그냥 순수하지 않고 욕심도 부렸으면 나도 그냥 좀 뻘뻘하게 출신이 호남이니까 민주당 갔으면 계속 국회의원 많이 해 먹었을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정치 속에서 해마다 보면 또 나는 망가졌을 거고.

어느 날 안영근 씨가 한나라당 갔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도 했

어요. 그때 인천에 29개 지방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연합공천을 성사시켜 왔어요. 내가 대표로 나가서 29개 선거구 중 27대 2로 연합공천으로 확인을 받아왔어. 거기에 이제 내부에서 서로 시의원 후보 하겠다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안영근도 시의원 나오고 그랬는데 한나라당 가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열심히 정치를 했어.

한때 독수리 오 형제가 한나라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해요. 그때 안영근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는 독수리 오 형제가 아니여. 거기는 완전히 변질되었고 이 독수리 오 형제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잖아요. 술 한잔 먹고 돌아와서 정연실에게 “여보 내가 정치했으면 안영근만큼은 했겠지?” 그랬더니 정연실 씨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보, 당신은 집요함이 없잖아 뭐 소리야?”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형진 그때쯤 정치활동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송경평 바로 했지. 근데 한참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고 정치 안 한다, 너무 잘 했다 그런 얘기했고 지금도 미련 비슷한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 아니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미련이 좀 있기도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큰 맥락에서 보면 정치활동 계속했으면 엄청 더 힘들었을 거야.

이형진 그럼 92년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송경평 92년 이후에는 당이 해산되고 뭘 할지 모르고 방향을 설정을 못 했어요. 그런 실망 속에서 그다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세할지도 몰랐는데 뭐 했던 거 그러니까 실망만이 아니라 꿈이 망가지는 것도 있었겠죠. 같이 섞여 있었

을 거야. 근데 걸으로는 분열 속에 있는 실망이 훨씬 컸고 그런 속에서 꿈을 잃고서 그냥 학원만 하고 특기적성교육 학원, 시간 나면 바둑두고 이렇게 세월을 낚았죠. 배드민턴도 좀 치고, 맞아 그러면서 김영철 윤인중 목사들하고 바둑 두면서 시민사회가 돌아가는 얘기도 조금씩 듣고 그렇게 십여 년 동안 생활하다가 계승사업회의 장학사업 이런 걸 조금씩 시작한 거지. 그걸 쪽 해가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이러다가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 엄청 열심히 뛰고 이제 시민사회, 노동포럼이다. 뭐 시민의 힘이다. 그다음에 동근이 형이 하는 초심모임의 후원회원이다. 시민연대 후원회장도 했었지.

이형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탄핵 투쟁이 또 송 선생님을 불러내게 된 계기네요.

송경평 그전부터 나왔다가 탄핵 정국 맞으면서 그냥 신나게 돌아다녔어. 더구나 봉고차가 있어서 만재가 그냥 혼자서 손수 가지고 다녔던 거 봉고차로 짹짹하니까 효율성도 있지. 세월호 투쟁할 때 남영신을 도와가면서 부평역 지하광장에 리본 만들기 공작소 거리에 차려놓고 재밌게 했어요.

이형진 92년 이후 2천 년 대 초반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쉬었다가 앞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송경평 아니 아까 민중당 마무리를 할 때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민중당이 해산되고 난 이후에 멀리 지켜보기만 했고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나름대로 분열

을 잉태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후에 민주노동당이 1인 2 투표 제로 12석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행이다 박수쳤는데 그래도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형진 그때 노회찬 의원도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죠.

송경평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 해산 과정을 보면서 소수 정치단체에 대한 원내 진출 기회를 1인 2 투표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실패했지만, 위안을 했던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활동했지만, 또 새로운 흐름이 와서 당을 장악하고 분열되고 이런 과정 속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4년 전에 정치개혁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에 대해 희망을 걸고서 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정개련인천시당위원장을 처음으로 해봤고 그랬는데 그때 정의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걸 아니다. 그때 이미 열 몇 석이었는데 그때 정의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수용했으면 민주당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고 선거연합정당이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 이거 망가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당 해산까지 가는 걸 보면서 그래 망가질 건 망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 조국 신당이 나오면서 바로 정당 가입했어요. 처음 정개련 한번 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느냐 연동형 하느냐 하다가 병립형 안 돌아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로 기존의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나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투쟁의 선봉이 된 쇄빙선 역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같은 우당으로서 앞으로 치고 나오고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의 답답함에 그냥 속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걸고 지금 기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당원입니다.

이형진 이진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소회인데 40년간을 이렇게 투쟁 해온 과정에서 또 한편의 소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76년에 대학에 전학하세요. 그러니까 공학도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공대에서 학업을 시작하면서 점차로 사회의식에 눈 뜨게 됩니다. 아까는 좀 바빠서 그 얘기를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초기에 운동에 접하게 되는 계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경평 그럼 아예 그냥 어렸을 때 얘기도 잠깐 하면서 넘어갈까요?
(예, 괜찮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할머님은 36세에 젊어 과부가 되셨고 작은아버지하고 아버님은 초등학교 문턱도 못 밟았고 작은아버지는 중학교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공사관 현장에서 노가다하다가 폐병에 걸려 내려오셨고 그때가 중 2학년이었는데 가정불화를 보면서 가출하냐 마냐 하다가 공부를 해서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뒷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결심을 해요. 그전까지는 완전히 개구쟁이로서 세상 물정 모르고 행복한 시절을 지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 그런데 그때 남녀공

학인데 미인가 학교라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가가 안 난 시골의 학교인데 3년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대안학교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원래 2월 말에 졸업을 시키는데 십이월 하순에 졸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까지 3개월이 남으니까 친구 송태규랑 또 두살 위인 학생회장 이렇게 셋이서 우리 골방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송태규와 광주고 시험 봤는데 나만 합격하고 광주일고 시험 본 그 회장 출신은 평소에 평균 점수가 나보다 10점 이상 높고 엄청나게 잘했어. 근데 광주일고 떨어지고 그래서 둘 다 광주에 있는 농공직업훈련소 전기공과를 갔어. 재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기공과 직업훈련소를 다닌 거야. 광주고등학교 그때가 광주 제일고는 주로 광주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가고 광고는 시골 출신 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큐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큐가 두 자릿수가 나와서, 수학은 어느 정도 돼서 방학 때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만 집중적으로 했더니 1학년 때 119등을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간 거는 그냥 당연시되어 광고 들어간 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요. 그렇게 재수 안 하고 들어갔던 거고 그때 열심히 공부하게 된 배경은 그 어렸을 때 그 결심이었지. 그다음에 다른 애들이 사춘기 때 여자 꼬시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시골에 있었어요.

육 개월 만에 내려가면 집에 가서 아버님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 친구들과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5km를 걸어가서 뒷문으로 들어서 불러내 가지고 데이트하고 돌아오고 6개월 만에 한번씩 그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권 고민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개가 우체국에서 전화 교환원을 했는데 또 좋아하는 애들이 생겨 짹짹거리고 해서 누구랑 어떻게 눈이 맞았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식이 끊기고 끝났는데 사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대학을 제대로 간 거야. 집안을 키워야 한다는 것하고 여자가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대학은 그렇게 왔어. 그야말로 소박한 시골 출신이지. 그런데 이제 신입생 환영에 갔더니 광주고 선배들이 운동권에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대학은 낭만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서클에 한번 가입해라. 그래서 간 게 한국사회연구회, 지하 언더 서클이었어. 한 5~6개월 다니면서 이제 ‘전환 시대 논리’도 읽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의식이 눈이 뜨게 되는 거야.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긴조 5호인가 뭘로 해서 1년 반 전에 감옥 갔다가 나온 누굽니까. 송영인 송병춘 둘 다 송씨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날 밤에 어, 나도 조금 더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겠는데 나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을 나와 버렸어. 한 두어 달 지나가고 다시 이 서클에는 쪽팔려서 못 가고 딱 데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간 거였고요. 그때 공릉동의 공대로 다니지 않았고 교양과정은 일학년 때 관악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관악에 있는 서클하고 같이

했어.

이형진 교회도 다녔나요?

송경평 그건 2학년 때부터 야학하러 다녔어요. 임국진 선배가 소개 해서 그때 청계 피복노조가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노동 교실이 폐쇄돼서 경동교회가 근거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문성현 선배, 선배 돌아가셨는데 최한배 선배 그다음에 김진주 누나 등등 팀이 있었어. 대우어페럴의 김준용은 청계피복 노동자 출신이고 그랬죠. 박노해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경동교회 야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일년 반 동안 교회에 다녀봐도 못 믿겠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주체사상도 못 믿게 됐지.

이형진 근데 야학은 재미있었습니까? 실제로 노동자들하고 접했나요?

송경평 아, 그럼요. 그래서 그때 전태삼 선배도 알게 되고 전순옥이도 알고.

이형진 주로 청계 피복 노동자들하고 교류했나요?

송경평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 야학 대상이 청계피복노조였으니까

이형진 그럼 선생님은 강학도 하셨나요?

송경평 그렇죠. 그것도 하고 그런데 농촌 활동도 하고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과인데 사회과학 서적 읽기도 어려운 데다 심각할 때는 아 우리 가정사는 어떻게 하면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되냐 해서 그것도 또 괴롭히고 학교 시험 볼 때는 운동권 그거 해야 하는데 하면서 시험공부도 싫고 그러면서 그때도 바둑만 뒀어.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학사 경고를 맞았는데 1.23이야 에이플러

스가 하나 있었는데 전부 다 디제로 디마이너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에서 활동도 하면서 그냥 똑똑한 사람이 못 됐어.

이형진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 눈을 좀 뜨게 됐네요.

송경평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전환시대 논리’ 이영희 교수의 책과 유동우 선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내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공장에 다녔거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간 건 나밖에는 거의 없어.

이형진 광주의 친구들은 다 그랬겠네요.

송경평 광주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많이 대학교에 가고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만나보면 전부 다 공장에 가고 이런 거야. 그런 속에서 정말 나는 대학교 때 후배를 서클로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송태규가 나와 같이 살다가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내가 하는 걸 옆에서 듣고 하면서 운동권으로 왔어요. 친구였던 송태규도 중졸 출신 위장 취업자야. 왜냐하면 전기 자격증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대학 그만두고 운동한다고 하니까 본인도 운동한다고 전기 쪽으로 안 가고 영창악기에 최저임금으로 직장을 옮겼어. 그러니까 송태규도 위장 취업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버티고 우리 아버님은 내가 고등학교 가니까 둘 다 못 가르친다면서 중학교 여동생은 고등학교 안 보내버리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 2학년 때 자취방을 얻어서 동생하고 같이 자취하면서 검정고시 시켜서 1년 반 만에 검정고시 합격해서 서울에서 동덕여고를 나와서 간호원이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처음

에 돈 벌어서 공부해서 학교 간다고 망우리에 있는 친척이 운영하는 가방공장에서 한 3개월 하고 있는데 자취방을 얻어서 검정고시 공부하러 해서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태규가 와서 우리 집에서 한 3개월 살았고 또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대학을 떨어진 놈이 있어. 계속해서 형편이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데 불러들여서 또 여동생하고 둘이 자취하는 자취방에서도 두 달인가 석 달 같이 생활했네. 방 한 칸에서 하여튼 두 사람을 그렇게 건사했어. 개가 다음 해에 서울대 떨어지고 한양대 법대를 가고 또 고시 세 번인가 떨어지고 지금 민변으로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놈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친구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운동권으로 사람들 끌어들이지 못하고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공릉동에서 동생하고 자취하는데 아버님이 용산시장에서 리어카 끈을 하는데 새벽에 배추나 무 이런 거 도매로 경매를 하면 입찰 된 사람이 그거를 자기 가게로 가져가야 돼. 그걸 리어카로 싣고 나르는 게 우리 아버님 일이야.

이형진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송경평 동생이랑 나랑 둘이 자취하고 있는 방에 오기도 하고 어떨 땐 리어카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어디 데모하다 구류를 살았어. 그랬더니 형사가 아버지한테 일러바친 거야. 당신 아들이 좌익에 빠졌다고. 근데 그쪽 지방은 여수 반란 사건 때문에 밤사람 낮사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런 걸 겪었는데 좌익에 빠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대했던 자식이 그렇다 하니까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

아지고, 나보고 공릉역 앞에 바로 우리 집 옆에 철길이 있었
거든 철길에 가서 “너랑 나랑 죽어버리자. 나와라 이 새끼야,
니랑 나랑 돼지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
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진정한 효도는 우리 집안만 건사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진 모든 집안을 해결하는
게 진정한 효도다 하면서 또 이제 자기 최면 걸고 이렇게 논리
를 폈다가 또 어느 때는 아니다가, 이런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활
동을 했는데 좀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학 기간에 여
러 가지 추억도 있지만, 그때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박노해를 만
난 게 나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이형진 박노해 선생을 만난 거는 70년대 후반이었나요?

송경평 3학년 때부터 경동교회 거기서부터 그러면 78년 9년 그쯤.

이형진 그때도 시를 썼나요?

송경평 시는 안 썼어. 그때그때 투쟁 일지를 기록하는데 엄청나게 정
리를 잘했어. 일지를 쓰는데 그러면서 재기발랄하고 그랬는데,
내가 중학교 그 여자하고 헤어진 줄 알고 여자를 소개시켜주
는데 삼성제약 아가씨를 그쪽으로 좀 지도하라면서 소개해준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사귀 여자가 학벌 때문에 헤어졌는데
또 학벌 문제 생길까 봐 싫다고 그랬더니 본질적인 여자래. 자
기가 진주 누나가 없었으면 사귀고 싶은 여자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은 여자라고 해서 그럼 사귀 보자 해서 사귀
는데 그 여자가 또 이제 같이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운동권에서 안 도망가고 기사 시험 안 보고 끝까지
위장 취업하는 걸 준비를 했던 거예요. 나는 대학교 때 초심이

평생 가난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서울공대 가서 집안도 살릴 수 있지만, 그거하고 양자택일 중에 너 평생 가난하게 살 각오가 되냐?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 쟁취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을 한 거였고 사회주의적인 지향이 또 생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고등학교, 대학교는 중학교 때의 여친 송점순이 보내줬고, 다음에 노동현장 취업은 조양옥이가 시켜준 거야.

이형진 중요한 대목마다 여성 동지가 등장하네요, 하하.

송경평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에 갔어. 같이 살기로 하고 그런데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두 달 남겨놓고 그 사람이나 운동하는 거 너무 겁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면서 고무신 거꾸로 신은 거지. 군대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인사도 했거든. 송 서방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하루 얘기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 더 이상 계속 힘들다 뭐 이 얘기만 반복돼. 그러면서 밤 10시에 보내드리고 아침 10시에 또 만나자고 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어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부모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다음 날 나오고 그렇게 20일 동안 매일 만나서 매일 얘기했던 것만 기억나. 그래놓고 탈영하나 마냐 해놓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딱 제대를 했더니 종적을 감췄어. 그리고 30년 만에 나중에 만나요.

그것이 두 번째고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적극적인 활동가가 못 되면서 정말 운동권에서 버티내서 마지막까지 운동권에 살아남고 같이 공장에 가기로 했던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

과정이 엄청 깊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대우자동차 갔는데 이렇게 운 좋게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죽더라도 객 소리 해서 했으니까, 가난하게 살 각오도 됐지 감옥에 갈 각오도 됐지. 그러니까 거칠 것 없이 팍팍 치고 나갔던 거지. 대우자동차 일도, 노동하는 건 나는 그렇게 겁나지 않거든. 뭐 세미나 주도해서 말로 썰푸는 거는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우자동차 때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일들이 잘 풀리고 사방에서 우와 신기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그렇게 신났던 거지.

이형진 송 선생님을 둘러싸고 주변에 이미 있었던 활동가들과 함께 잘 어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에 84, 85년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송경평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학생 운동할 때는 후배들하고도 같이 토론하고 그럴 때 박성현이 후배였어요. 조선대 총장 아들, 그리고 김성식 나중에 국회의원 되는데, 개네들 똑똑해서 말 잘해. 나는 그냥 어리버리해서 그런가 하면서 재네들 저렇게 똑똑할까? 뭐 이려고 그랬는데 고민의 깊이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송경평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면서 박노해 만나고 조양옥이라는 여자 친구 만나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몇 사람들이 위장 취업을 위한 팀을 만들었어. 거기에 김두희 이호추 등이 있는데 그 팀 들하고 취업 쪽 준비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만 남았지

이형진 그게 82년 3년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정리가 되는 거죠?

송경평 친구 송태규도 노동 현장 가겠다고 같이 하면서 나중에 송태규가 김문수도 만나고 박노해도 만나고 이러면서 운동권으로 쪽 쪽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용선이는 83년 겨울방학 때 송년회

때 만났는데 내년에 큰 공장 좀 도전해 볼 거야 그러더라. 나도 그럴 거야 했는데 내가 3월에 입사해서 한 보름 됐는데 대우차에 이용선이 식당 저쪽에서 식판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형진 들어갈 때까지는 또 몰랐네요.

송경평 서로 큰 공장 가본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만났어.

이형진 선생님 만약에 84년 투쟁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걸까요?

송경평 식당에 진정서 뿌리던 장면, 그다음에 엠티가서 원적산 꼭대기에서 달을 쳐다보면서.

이형진 수십 명이 밤을 같이 섰던.

송경평 사오십 명이 밤을 새우진 않고 한 서너 시간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그러던 중에 저쪽에 잠깐 혼자 가서 달을 쳐다보면서, 와!, 이런 게 가능한가? 오늘 하루가 아니길. 그렇게 대중운동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고, 목적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나도 신기했지. 우리도 신기했지

이형진 만약에 선생님께서 84, 85년 그 투쟁과 87년의 대우자동차 투쟁을 비교한다면?

송경평 87년 투쟁은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쟁, 6월 항쟁 이후니까 그리고 85년 투쟁의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거고 구로 연투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 공장에서는 대우자동차 투쟁이 경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린 공간 속에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시대적 분위기다. 그런데 84년 투쟁은 정말로 이거는 죽더라도 객소리하고 죽자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운이 결합된 거고 87

년 투쟁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투쟁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너무 내 투쟁만 그냥 높이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형진 선생님 87년에 구속됐다가 나오고 그때 87년 12월 대선까지 과정에서 인민노련은 6월 항쟁 과정에 이제 공개적으로 출범 하거든요. 인민노련의 조직 활동을 같이하셨어요?

송경평 아니요. 안 했고 그냥 백기완 추대위원회 운동, 독자 후보 하나 까 거기에 인민노련과 사노맹이 여기에 모여면서 송경평을 대표로 영입을 한 거지. 내가 독자 후보 지지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결됐고 그때까지 나는 사노맹도 인민노련도 아니었어요.

이형진 약간씩은 다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송경평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노투위가 '전국 해고 노동자들은 즉각 출근해 근무 버릴 것' 그것 때문에 관계를 끊었고 인민노련는 특별하게 누구도 만났지만 거기 꼭 가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해서 안 했고 나중에는 이제 주사 흐름이 왔는데 수령론에서 이건 아니야 하고 이제 끊었고.

이형진 그러면 89년이 지나고 90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동구의 사회주의권 몰락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9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민노련 조직이 깨지고 또 지역 내에서는 그동안 인천에 있었던 많은 활동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송경평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 그럴 수 있다. 단지 남아있는 활동가들이 너무 정파적이고 이기적인 그 지점에 있어서 그냥 실망하고 이런 게 컸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야 그전부터도 개인의 문제라고 봤고, 그런데 같이 활동하는 속에서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게 정말 싫었어요. 난 기본적으로 통합론자인가 봐.

이형진 그러니까 내부에 분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군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억에 남는 활동가들이나 친구들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회고를 해 주시겠어요?

송경평 멋진 이용선. 엄청 멋져요. 정연실이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용선을 엄청나게 좋아했어. 우리 마누라가 멋진 이용선이래. 이용선이 대우자동차 투쟁 끝나고 경실련 활동을 해요. 집행위원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하며 북한을 왔다 갔다 옥수수 지원하고 계속 북한 돕기 운동을 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 술 시합하고, 술이 고래야.

이형진 송태규 선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송 선생을 옆에서 지켜보고 케어를 했네요.

송경평 그런 거지. 하여튼 나는 세상에 남자로부터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소리를 맨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우재하고 송태규로부터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소를 듣고 삽니다.

이형진 현장에서 사귀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우자동차 노동자 동지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당시에는 학

출, 노출 구분도 심했을 텐데.

송경평 근데 그거 거의 없었고, 유선희하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홍영표가 영국을 갔다 와서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떨어졌어. 그때 유선희랑 홍영표랑 나랑 셋이서 술 한잔 먹는데 홍영표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한답시고 “영표야 너 이 새끼야, 너랑 그때 84, 5년 투쟁하면서 세상에 날리고 이미 출세하고 한세상 살았잖아? 국회의원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 유선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빼졌어. 저놈들은 힘든 84, 5년 투쟁을 출세한 걸로 쓰고 있구나! 그 이후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이형진 유선희 선생은 건강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희식은 어땠습니까?

송경평 정말 능력 있고, 멋지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항상 형 노릇을 해. 처음 접하면 나는 애교 부리는데 개는 딱 무게 잡고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동거했어. 가좌동에서 교회 옆집에서 살 때 ‘지인이’하고 ‘새날이’가 태어나서 하나씩 데리고 살았어. 근데 여기서 너무 좁다 고 백마장 입구 산곡동 부성아파트에서 또 방을 얻어서 거실이 있는 곳인데 조금 넓었어. 거기서 사는데 우리 아들하고, 새날이 동생이 태어나는 거야. 각각 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좌동에 주공 아파트를 전세 얻으러 다니다 천만 원만 더 마련해서 그냥 사요. 거기도 따라와 주공 아파트 같이 왔어. 그래서 앞

뒤집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같이 애들 키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희식이 농촌으로 귀촌을 했어. 전희식이네 부부를 통해 내가 동사섭에 가게 돼. 불교에 법륜스님이 하는 ‘깨달음의 장’ 같은 그런 게 ‘동사섭’이라고 비슷한데, 법륜 스님은 대중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걸 하고 용타 스님이라는 분은 대중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승불교처럼 자기 구원, 해탈 이런 쪽에 목표가 있어. 좀 깊이 한다는 거지. 어찌 됐든 추천과 반강제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 스님하고 타협을 봤는데 그 스님이 고등학교 선배더라고. 전남대 국문과 선생하다가 가출해 스님이 된 거야. 그런데 바둑을 또 엄청 좋아했어. 나도 바둑에 미쳐있는데 도시에 가기만 하면 ‘기원’ 두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온다 말이지. 기원 그것만 꽂히면 그냥 미쳐버려 이런 농담 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서 배우고 이런 게 내가 여유를 갖게 됐어. 마음이 열린 거야. 불교에서 해탈, 무 이런 거 공부하면서 해탈이란 경계 주변 사물이나 모든 것에 걸림과 막힘이 없는 상태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무까지 난 모르겠고 해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네. 알았습니다. 그럼 난 해탈된 거예요. 알았네. 그 스님이 출랑거리의 미덕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우리 휴강, 전희식의 호가 휴강이야, ‘아 휴강이 무게 잡는 것도 좋지만 출랑거리는 자네가 더 좋네’ 했어.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무게잡지 않고 애교 피고 막 출랑거리고 이런 게 조금 습관화된 요소가 있었어. 그 이전에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문이 트면서 뒤풀이 가거나 어디 갈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기가 났어.

일주일 동안 거기 갔다 오면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나는 어찌 났든 유물론을 믿는 입장이잖아요. 물질이 우선이다. 물질에서 파생되는 게 정신이다. 이런 관점인데 관념론은 그중에서 특히 절대적 관념론, 기독교의 유일신론 이런 배타적인 관점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불교는 관념론이기는 하되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념론의 긍정적인 역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먹으면 자기 마음도 기뻐지면 일도 더 잘 되고 이런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한 번 갔다 오고 관념론의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어요. 칩거하던 마지막에 그걸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다시 시민사회에 나오게 됐어.

이형진 2천년대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정리가 잘 되셨나요?

송경평 정리될 것도 없고 좋지. 감옥에 갔을 때 면회 왔는데 아버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감옥 간 거 잘했냐? 너는 편안하지” 그 말이 사연이 있어요. 아버님이 경운기를 몰다가 정신이 조금 박약한 사람을 썰가마니하고 같이 태우고 가다가 썰가마니하고 같이 떨어져 그 사람이 돌아 가버렸어. 그래서 과실치사로 구치소에 있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뭐 탄원해서 한 달 만에 그냥 풀려났어.

시골에서 맨날 일하고 고생하고 애들 가르치려고 그냥 엄청 열심히 일하고 리어카 끌다가 경운기로 배달하면서 또 샅 받아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가니까 용산시장에서 리어카 끌며

뒤틀려지하던 분인데 하여튼 구치소를 가본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치소는 편안하다. 밥 주지 그래서 너는 편안하지? “이제 안 올란다”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그게 면회의 끝이야. 둘째 동생이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애학투 사건으로 건국대에 들어가 구속이 되는데 그때가 내가 원주교도소에서 1년 살고 출소하던 날이야. 어머님이 아들 감옥에서 나오니까 기쁘다는 표현은 안 하고 둘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행방불명 됐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머느리하고 같이 걱정하는데 나는 감옥에서 애학투 사건을 알고 있어서 개가 건대에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야. 감옥에서 나오던 날 어머님이 저런 고생을 하는 거 보고 가슴이 찢어졌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실어증에 걸려버렸어. 감옥에 석방되자마자 한마디도 말이 안 나와버렸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이 여린 사람이야.

이형진 예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평생의 동반자이신 정연실 선생님은 초기에 조직이 탄로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송경평 그때 83년 겨울에 경원세기 직업훈련이 끝나고 송태규는 영창악기 가게로 하고 나는 대우자동차를 다니는 중이에요. 84년 한 3월이나 4월쯤 됐겠다. 그런데 송태규가 혼자야. 개는 구로공단 닭장집에 살면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송태규가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놀고 얘기하다가 가고 그때는 구로공단에 다니고 있었어. 어느 날은 정연실에게 퐁퐁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개가 한 서너 번 왔어. 그때가 팔십

삼 년 하반기야. 구로 연투 때 투쟁하게 되는 노조들이 83년 상반기에 만들어지고 하반기에 쫓 검색에 들어가는 거야. 정연실은 협진양행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정연실이 포착되고 그 주변을 뒤져 회사 여자들을 죽치다 보니까 애 중에 하나가 정연실 언니 집에 따라갔다. 연실 언니가 가는 부친의 어디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김민기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을 하고 노동운동이 어떻고 노조가 어떻고 얘기를 들었다 해서 회사가 기관에 고발하고 그게 성원제강 전기실에 다니던 송태규를내사한거야. 우리도 들통났구나 감을 잡았지. 그 무렵 정연실의 부모님은 삼척에서 올라와서 딸아이 졸업식장에 갔는데 위장취업해서 졸업식장도 안 나타나고 부모님들은 딸내미를 못 봤어. 그리고 경찰한테서 구로공단에 지금 시다로 취직해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보과에서 알려준 대로 찾아가 끌고 내려갔어. 정연실이 3일 만에 도망 나와서 나에게 와서 같이 바로 동거에 들어가고.

정연실씨는 어렸을 때 조금 유복하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건설업을 하고 그 시절에 경희대를 나온 거야. 그러면서 개인 집 안이야. 얼마나 강직한지 친구들이 다 삼척 시장일 때도 절대로 청탁을 안 하는 사람이야. 옛날에 삼척 지역 수해 났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한 다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데는 다 망가졌다는 그런 분이셨어. 거기에서 나온 정연실은 거침이 별로 없어. 운동하면서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쭉 고민을 별로 안 하더라고. 뭘 결정할 때 그 이후로도 이게 맞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추진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나와서 통금이 있었던

데 우리 집에서 잤거든. 셋이서 송태규는 맨 문 앞에, 내가 가운데 정연실은 맨 안쪽. 그날 팔베개했는데 그 이후에 회의가 생길 때 “팔베개까지 한 사람과 어떻게 헤어져?” 그래서 안 헤어졌다. 하여튼 거침이 별로 없어요. 뭘 결정을 하고 판단하면 착착하고 지금도 역시 그렇고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이형진 그때 이후로 이제 평생을 지켜주신 분이네.

송경평 그리고 얼마나 시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중간에 내가 너무 헤맬 때 정연실씨가 도망가 버릴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피눈물 흘릴까 봐서 못 버렸다든 거잖아

이형진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84, 85년 투쟁을 집중적으로 짚어봤고요. 그 이후에 송경평 선생님의 정치활동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사까지 많이 털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평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조금 과장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천국같이 행복한 시절, 대학교 때는 고민의 시절, 위장 취업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 민중당 활동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이 좀 길게 가요. 그리고 다시 시민사회에 나오면서 천국 같은 생활, 마음이 개이고 아까 그 동사섭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활동하는데 별로 집착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한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인천에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임하고 사회 활동하는 건 하지만, 시간만 나면 기원에 가서 아침에는 갈 때 흥분돼서 딱 오늘은 이겨야지 갔다가 저녁에 틀리고, 또 뭐 하

고 그러면 쓸쓸해 돌아오고 꿈이 없었는데 지금 괴산에서는 작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이거 같이 나눠 가지고 싶은 그런 조그마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행이고 총괄적으로 보면 인생이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도 미물로 태어나지 않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구나 다이내믹한 코리아에 태어나서 다이내믹한 과정에 많은 걸 겪고 살아온 송경평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 지금 뭐를 이루었다가 다 떠나서 처음에 고통스러울 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최악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어떨 때는 잘 나간다고 학원도 몇 개씩 한다고 재벌이 됐다는 얘기도 듣다가 또 사기당해서 망가지기도 요즘에는 또 어디 담보 잘못해서 쫓딱 망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목에 그물 칠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다냐? 그래도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려고 이번에도 봄똥배추 재배하고 상추 재배하고 뭐 나물 뜯어서 열 군데 택배 보냈어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활동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주변에 정을 주고받았던 사람들하고 나누는 삶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형진 괴산에서 자주 인천 올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 1985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1년 사회당 대표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출마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 2003년~2007년 한국사회당 고문

일 시 2024.08.21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임병구

대 담 자 김영규

주요 약력

- 1946년 9월 3일 경상북도 김천시 출생 (현재 79세)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69년~1981년 한국은행 부장대리/군복무
- 1985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공공경제학석사·정치경제학 박사
- 1985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부임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인천본부 공동대표
- 1988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인천지부 공동대표
- 1992년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운동본부 운영위원, 비서실장
- 1995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1997년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 1998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지도자문위원
- 2000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와 완전고용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장
- 2000년 덕성여자대학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2001년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장으로 총장 퇴진 운동 전개, 강제 해직 당함
- 2003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복직

- 2001년 사회당 대표
-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출마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 2003년~2007년 한국사회당 고문

주요 저서

- 《말 같지 않은 세상에 말 같은 말》(1996년, 우등불)
- 《IMF 공황, 개혁과 개방》(1998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2000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 《체 계바라가 살아 한국에 온다면》(2001년, 이화문화출판사)
- 《자본주의 경제학》(2004년, 학영사)
- 《정치경제학 1·II》(2005, 2006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 《이명박 정부 비판》(2008년, 박종철출판사)

김영규 교수는 인하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사학 비리 척결 등 교육 민주화 운동은 물론 인천지역 사회 민중들과 연대하는 노동, 빈민 운동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대학재단에 의해 파면되었다가 동료 교수 및 지역 시민사회의 복직 투쟁에 이은 대법원 판결로 학교로 복귀하였다. 인천민중연합 대표로 지역 운동을 펼쳐왔고 인천시민연대 대표로 시민운동에 함께 하였다. 정치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백기완 선대본부에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결성한 사회당의 인천시장 후보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노동자·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인하대에서 정년퇴직 하였고 현재 강화도 민해당(민중해방을 염원하는 집)에 머물고 있다.

임병규 오늘은 2024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김영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화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뚫고 스튜디오 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처음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에 대구 경북고등학교에 들어가셨죠?

김영규 예 그랬었죠. 경북고등학교.

임병규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셨고, 경북고등학교 입학하시기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고

등학교를 거쳐 서울대에 입학하셨는데 고등학생때부터 서울대에 입학하시기까지 과정, 그리고 서울대 입학 전후의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예 반갑습니다. 김영규라고 합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요,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가 받은 영향력을 중심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잡으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봤던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좀 개인적인 관계이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 또 국가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 바로 순수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가장 순수하게, 어떤 면으로는 가장 순수하게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가장 복잡한 구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중고등학교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어린애들 이래 가만히 보면은요, 애들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받은 애들을 보면 뭔가 문제인 걸 딱 따져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 그게 가장 기본적인거죠. 아버지 어머니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중고등학교 때 되면은 그냥 서로 모여 가지고 서로 놓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개인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거, 또는 혐오 같은 거,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얽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는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관계, 즉 군대 생활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바로 그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딴 걸 생각 못 합니다. 대충 참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아침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그 다음 또 자고, 그 다음 날 또 그래서 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서 중년이 되고 이제 점점 오히려 생각들이 좁혀지는, 자기 삶에 대한 걸로 좁혀져 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했었고요. 그때부터도 남달리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저 나름대로는 뭐 목적을 이뤘죠. 저는 그때부터 전체 톱으로 천재 소년 소리 들을 정도로 쭉 공부를 해 왔으니까요. 경북고 졸업할 때까지 항상 톱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저한테 걸었고요. 그 기대 못지않게 할 일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김천에 사시다가, 같이 살다가 6.25 사변 끝나면서 53년도에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대구로 이사 오면서 아버님 생각은 그랬었어요. 우리가 식구가 많고, 그때 7명이었죠. 7명 그러니까 7명 이제 식구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각자가 살 길을 챙겨라, 물론 아버님이 뒤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각자 할 일을 챙겨라, 우리는 저 학교 때부터 자기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님

이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었고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난히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셨잖아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하셨을 때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속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첫째는 군부독재, 우리 당시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군인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 군인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그걸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국민들 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이미 60년대 들어서면서 군부독재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군부독재라고 딱 못을 박고 반정부 사회 활동도 그렇게 우리가 했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지만, 주로 대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멀리 구경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좀 정치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독재라고 딱 규정을 지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일관계입니다. 그때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자, 일본하고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3억 달러라는 돈을 일본으로부터 얻어가

지고 당시 경제개발기금으로 쓰기 시작했죠. 당연히 뭐 큰 돈이었지요. 그래서 군부독재 타도와 한일회담 반대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학생들의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1학년 입학이 65년도입니다. 입학하자마자 그때 이미 대학 분위기는 경찰하고 맨날 싸우는 대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한테 두들겨 맞는 놈도 있고 휴학하는 놈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 대학이 개판이었습니다. 서울 법대가 그 당시 운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학교 근처에 학교 직원들, 맨날 경찰들이 와서 살았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교문에서 경찰이 딱 보고, 괜찮으면 그냥 보내주고, 그 정도로 학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게 65년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되면서 그때 저는 투쟁도 해야 되겠다 내 공부하는 길도 찾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연히 서울대 문과대에 가게 되었지요. 신문 광고하는 데 가 보니까 미국의 타임즈가 있더라구요. 그 때가 5월이라 타임즈 표지에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만 그 당시 유명했던 체 게바라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싸우던 게 나와요. 그때부터 체 게바라라는 사람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투쟁도 하면서 밤에는 체 게바라를 읽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세계도 이미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그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른바 반정부 인사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조영래라고 변호사

있습니다. 그 양반은 너무 일찍 죽었지만 아까운 사람인데, 그와 내가 가장 친했습니다. 개는 경기고 출신으로서 서울대 톱으로 들어왔고 내가 경북고등학교 톱으로 나왔는데 입학 때는 차석으로 밀렸죠. 내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겨우 학교가 정상화됐어요. 왜냐하면, 한일회담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했으니까 그때부터 대학과 사회는 조용해졌죠. 그때부터 저는 법학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로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서열은 서울법대 입학 인원수로 결정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서울법대에 몇 명 들어갔느냐 경기고등학교에서 몇 명 등, 그 당시에는 경북고가 2등이었죠. 경기고등학교 1등 우리가 2등 그 다음에 3등 경남고등학교. 하여튼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에서 법대에 25명 들어왔고, 경북고는 17명 들어갔고, 그래서 뭐 비슷비슷했지만, 1등 2등으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로 인정받게 됐지요. 다만 조영래 변호사하고는 그 후에 3학년 때 저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당시 민족해방이나 민중해방이나 이른바 NLPD라고 하는 분화는 없었지만 조영래는 그쪽으로 민족해방 쪽을 강조를 했죠. 그러나 나는 민중해방이다 노동 해방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라고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때 마침 독일에서 공부했던 선생인데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이예요. 그 선생님이 날 불러가지고 김영규 니가 이 책을 읽어봐라 이 책 금서니까 함부로 들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그래 가지고 마르크스, 독일어 원어로 된 자본 1권을 그 교수로부터 빌렸어요.

임병구 그럼 그 교수님께서 경제학 교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학과 학생을 일부러 불러서 맑스 원전을 주셨다면 법학 학부에 다니시면서 경제학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김영규 예. 물론 법과대학에도 경제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2명 있었어요. 내가 자본1권을 읽어보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쇼크를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착취에 대한 문제, 소외에 대한 문제, 아주 철저하게 잘 분석이 되어있죠. 그때부터 저는 한 달 가까이 그 책을 읽고는 교수한테 돌려주고 마르크스 연구지만,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일단 경제학 쪽으로 연구한다, 경제학으로 먹고 산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마르크스를 연구하고 경제학 연구를 하고 이러다가 4학년 때, 그 당시에는 군대 가는 것도 대학 졸업하고 갔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학 공부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재정부 지금은 기획재정부 택이죠. 기획재정부 아니면 한국은행 두 군데가 경제학 공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부서로 여겨졌죠.

임병구 자연스럽게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경제학 연장선상에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직장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곧장 대학 졸업하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갔지요.

임병구 입사시험 같은 게 치열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시험 같은

것도 아주 치열했을텐데 입사하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규 한국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서울대 졸업생들은 상대하고 법대하고 약 20~30명 가까이 됐고요. 저는 법대 졸업생이었고, 한국은행에서 뽑을 때, 법학은 법학대로, 경제학은 경제학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학 지식부터 있어야 되고요, 경제학 지식 그 다음에 법학 지식 뭐 이런 거죠. 제가 한국은행에 처음 발령받은 데가 국고부였죠. 국가재정 문제를 다루는 국가재정부든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재정부,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였죠. 거기서 있다가 금방 한 6개월 후에 금융감독원으로 발령을 내더군요. 당시는 은행감독원이죠. 그때부터 한국은행 직원이면서 은행감독원 직원으로 4년 가까이 쪽 근무했죠.

임병구 파견 근무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김영규 파견 근무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행감독원에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하고 관계됐습니다. 은행감독원은 그 당시 재벌들의 금융감독 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은행감독원은 아주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제가 기획관리부에서 일하면서 재벌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당시에 제가 계장을 하고 나서 곧 대리로 승진을 했어요. 김우중 등 재벌들이 우리 감독원장한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우리 사무실 들러 가지고 인사하고 가고 했습니다. 나는 직접 만나질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만났지요. 그래서 우리 업무가 가장 핵심 업무로 재벌

들에 대한 은행 채부 문제, 이에 따른 부정부패 문제를 다뤘어요. 나로서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은행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가 내기도 했고, 청와대에 파견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두환이 때인데, 전두환이 베트남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임병구 예. 아웅산 사고.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가까이 모셨던 청와대 경제특보 김재익 박사가 그 사고로 죽었어요. 김박사가 내보고 너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 나중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말입니다. 김박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보다는 분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탄력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배 문제, 개인 간 소득이 평등해야 된다. 라는 이론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아주 좋아했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거니까.

그 후 전두환이 국보위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쫓아 냈죠. 우리 은행감독원 직원들 도 많이 쫓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죠. 저는 부정 같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감독원장이 저보고 김영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과도 대부분 다 쫓렸거든요.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기획재정부에. 그래서 감독원장에게 저는 지금 근무하고 싶지 않다 했어요, 동료들이 다 나갔는데, 그래서 감독원장이 저모고 그럼 미국에 갔다 오나라 해서 미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게 1980년입니다. 광주항쟁이 일어났던 5월입니다.

6월 달 돼 가지고 원장이 너 미국 빨리 가거라 그래서, 미국 뉴욕 한국 지사로 발령 내면서 1년간 만기 갔다 오너라 그 대신 니가 다녀오면은 우리 과의 과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냥 대리로 나이가 젊었는데, 과장 직책은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갔다 오너라.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었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죠. 6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죠. 미국에 있으면서 대학을 딱 짚어 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한 군데서 오라고, 거기가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미국 남가주 대학이라고 부르는 거기로 가게 됐죠. 거기 박사 과정으로 채택이 되었고.

임병구 교수님 미국 출장 중에, 1980년에 미국 출장 가셨을 때 반전두환 운동을 미국에서 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김영규 사실 반전두환 운동은 군부독재정권 타도입니다. 국내에서 엄청 탄압이 심했는데 반전두환 운동은 하나의 꿈이죠 꿈! 미국의 뉴욕 지부에 근무하는 선배들이 모두 하지 마라, 그러다가 니 목 날라 간다. 고 충고를 많이 했죠. 그러면 좋다. 공부하고 난 뒤에 독재정권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죠.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겠고, 마르크스 공부를 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결국 대학으로 가게 돼 거기서 사회과학인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병구 그러면 경제학 분야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낯설었던 정치경제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

고 이어서 미국 유학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제가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니까 역시 그 교수들이 아주 실리적이예요. 이상적이 아니라, 즉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다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알아야지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수들을 믿고, 그 당시 정치경제학이, 우리 USC 국제정책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치경제학이 아주 상당히 셧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그곳의 교수들하고 많이 교류했구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교수들이 몇 사람 있긴 하는데, 일일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어떤 한 교수는 네가 만약에 한국 돌아가서 교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마르크스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수는 유럽의 사민주의 경향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교수를 하게 되면, 사민주의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도, 즉 유럽식 공산주의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가 전통 공산주의 입장이면 한국에서 교수가 안 된다. 사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상의 교수가 되어라 했었죠. 내가 그 교수 참 존경하는 이유는, 그 양반 실용적인 현실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해라,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라, 그걸 배웠죠. 이게 바로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의 정신은 현실을 알아야 되고 현실에서 출발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지 미래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

누가 싫어하겠나 그렇지만 자본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교수가 기억이 나고요.

그 후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올 때 그 당시 인하대에서 교수를 뽑고 있는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서울이나 한국 어느 대학도 갈 수 있었어요. 제 실력이나 제 학력 같은 거 봤을 때 갈 수 있었지요. 서울대학교가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서울대학교는 내가 좋아하는 후배가 막 공부해 가지고 들어갈라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가거라. 양보하고, 대학들 예컨대 국민대학교하고 한양대학 우리 인하 대학,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인하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인천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인천은 노동조합운동의 출발지다, 노동운동의 출발지가 인천이다. 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시작하자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자. 라는 생각에서 인하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임병구 교수님,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전두환 독재 치하였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든가 정치경제학 교수로 아무 데나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김영규 그 당시 제 박사과정 논문이 마르크스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사민주의 비슷한 논문입니다. 즉 올라간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물가정책, 금융정책을 믹스한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케인즈주의 정책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케인즈주의란 잘 아시겠지만, 시장경제주의자들

이 싫어하는 거죠.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자본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렇게 신자유주의까지 와있지만, 그 당시 케인즈주의는 이른바 반자유주의 개념이었죠. 그 당시 공부를 할 때, 반자유주의 그래 좋다, 케인즈주의 이론, 물가정책, 금융정책, 그걸 주제로 잡아 가지고 논문을 썼죠. 논문을 딱 보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니까 통과됐고 국내 대학에서도 통과가 됐죠. 더군다나 내가 인하대 간다고 하니까 마침 아는 선배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더니만 어서 오라고 해서 졸업도 못하고, 논문을 마친 3월 달에 한국으로 왔고, 미국에선 5월 달에 졸업을 하니까, 졸업하기 2개월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 교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임병구 학위 받기 전에 이미 인하대학교에 부임을 하신 거네요. 그전에는 인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하지 않으신 거네요.

김영규 예 없었습니다.

임병구 인천과 인연은 인하대 인연으로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럼 인하대 교수로 부임하신 이후 활동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예, 그 당시 인하대 이경은 교수의 소개로 법정대 학장을 만났는데, 학장이 배교수인데, 저의 서울 법대 선배입니다.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다 도와주겠다 하셨죠.

임병구 그 교수님이 배경자 교수님이신가요?

김영규 맞습니다. 아시는군요. 그 양반이 그래요. 하여튼 성질을 죽여라. 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던거죠. 성질 죽여라 그래야지만 교수 생활이 편안할 거다. 그 말이 진짜 진실이야. 허

히.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했더니만 그때는 가라고 그래 가지고 첫 면회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교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 당시 교수협의회는 그저 어용노조와 같은 수준입니다. 어용노조 식으로 재단과 만나고, 총장 만나서 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교협을, 저걸 바꿔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당시 12명 가까이 되는 교수들이 민교협에 가입을 했죠. 교수들이 나와 만났죠. 교수들이 무조건 김교수가 회장해라, 내보고 무조건 민교협 회장 하라, 김교수가 처음 부담했고 신선했어서, 제일 낫다. 리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금방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잘 배우겠다고 하면서 교협 활동을 시작했죠. 그때 교수들이 느꼈는가 봐요. 김영규 저 친구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학장이니 뭐니 보직교수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수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모범이 되고 가르치고 하는 데 이런 입장에서 있어야 되겠느냐 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서 어떤 교수들 퇴직도 하고, 막 내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교수들하고 내하교의 관계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그 어느 해는 한 30~40명으로 늘어났다가 50명, 그리고는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른바 개혁주의자, 대학을 개혁하자 할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정도로 만족을 하고 교협 생활하면서 제가 교협 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인하대는 완전히 재단과 싸우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

의 대학 개혁투쟁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말리고 했었는데 내가 일하는 대학부터 바뀌야, 내가 있는 대학부터 바뀌어야 안 그러면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사회 개혁 운동, 인하대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의 모든 사립대가 민교협에 가입을 했습니다. 나는 전국교수회 공동대표를 맡는 등 모든 교수협 활동에 참여를 했죠.

임병규 1985년 인하대에 부임하셨고, 부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막바로 교협 회장을 맡으신 거네요.

김영규 예, 그때부터 인하대는 물론이고 인천민중연합으로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잠시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목이 좀 불편해서요.

(잠시 휴식)

임병규 교수님, 이번에는 인하대 민주교수협의회 활동 중에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김영규 제가 인하대에 부임해 가지고 한 몇 년간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교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데 학생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교수들 모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깐 교수회에서 어용 노릇했던 교수들이 그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학과장을 맡고 있던 저를 비판하고, 재단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저를 대학에서 퇴출시키는 압박을 가하

기 시작했죠. 거기 내가 쉽게 굴복 할 사람이 아니죠. 인천은 대우가 먹여 실린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대우중공업이 파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어 대우자동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제가 개입했거든요. 이를 알게 된 대학 재단은 당시 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했어요. 우리 인하대 재단에서 경찰들과 유학해 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던거죠. 그게 저에 대한 징계를 때리는 서류를 보면, 다 나옵니다.

임병구 교수님의 징계와 관련된 말씀은 2000년대 이후에 그때 한 번 더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 이전에 민교협 초창기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그 당시에 저는 인하대에서 교협 활동을 하면서 바깥쪽으로는 인천지역의 대우차노동운동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민교협(민주교수협의회)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교협 회장을 저 보고 계속하라 그래서 교협 회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교수들과 의견차이로 많이 싸우기는 했지만, 교수들은 저를 싫어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김영규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옳은 소리 하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그런 인기도 갖고 있었지만 물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이 두 개의 모순이 저로 인해 확대되고 화해할 수 없는 분위기로 내달았습니다. 교수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우선 교수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노동조합이 있으며, 세 번째 총학생회가 있고

이 3자가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였습니다. 투쟁 주체였고 재단과 맞닥뜨린, 총장과 맞닥뜨리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걸 제가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사실 3개 단체 대표들이 처음부터 나를 좋아해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직원노조도 대우가 형편없었어요. 인하대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교수는 다른 대학에 비해 월급은 조금 더 주지만 직원들의 급여가 형편없었죠. 그래서 내가 제안했더니만 직원들이 교수님이 앞장서십시오, 같이 합시다, 했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내 의견을 따랐으니까 직원 노조와 비상대책위를 정말 무난히 꾸렸습니다. 그때부터 인하대 교육도 바뀌기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재단도 정신 차리게 됐고,

임병구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당시 인하대학교 내 민주화 운동이셨잖아요. 근데 교협 회장 하실 때 86년 5.3항쟁도 있었고, 87년 민중항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혹시 교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김영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85년도 1학기에 인하대에 부임한 만큼 국내 민주화운동에는 그렇게 참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인천민중연합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어느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인천민중연합은 황선진씨가 맡아서 했었는데, 제가 학교 일도 하면서 인천민중연합의 지도위원으로 교육팀을 짜 가지고, 민주 인사들 부르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맡았었어요. 그 당시에 이부영씨 까지 왔었어요. 당시 민주당 출신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인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87년도 88년도 거 치면서, 당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로 모시는 등의 일

을 제가 했습니다.

임병구 그건 민중연합에서 했던 민중대학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김영규 제가 맡으면서 대학이란 말을 썼습니다. 당시 교장을 내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준 것은 대우중공업 노동운동을 제가 전적으로 맡게되면서 인천민중연합에서 같이 가 가지고 데모도 같이 하고 했었죠. 그때 인천민중연합은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주 잘 정리를 했더군요.

임병구 민중연합 공동대표를 맡으셨잖아요.

김영규 예, 그때 황의장이 그만 두는 바람에 제가 잠시 맡았지요.

임병구 민중연합 활동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제가 민중대학에 적극 참여 할 때인 86~88년 까지가 저에게는 최고의 활동기였습니다. 1988년도에 인천시민공동회로 인천지역 운동권이 뭉치면서 민중연합의 위상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많이 실었고요. 그 당시 89년도로 넘어가면서 민중연합이 마침내 정당으로 참여하는 문제로 분화가 됐지요. 이때부터 저는 학교문제로 시민공동회에 자주 얼굴을 내밀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대표 이름은 그대로 두었어요.

임병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김영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효과가 전노협을 중심으로 인천민중연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천 지역사회 정치논쟁의 핵심은 대선 후보 전술논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기완 선생이 뜨고 했을 때, 우리가 백기완 진영과 같이 결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민중연합은 가입을 안 했고, 내가 백선본에 가입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백

기완 선대본에 참여하려다가 백선본의 사정으로 일단 멈추었습니다. 인천민중연합이 주축이었던 인천 백선본은 1992년 백기완이 종래의 민중후보 추천에서 사퇴하기로 결정남으로써 인천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천에서 대회를 개최하려다 취소했으니까요. 나와 인천민중연합은 당연히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와 보니까 백기완은 그 당시 자기가 나설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는 단일후보 등에 동의한 셈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걸로 끝났고. 민중당하고 국민승리21, 이런 시민단체 하기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말았지요. 국민승리 21은 우리를 포함해 인천지역에선 참여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 활동은 제가 직접 했으며, 황선진과 거의 모든 노동자 민중진영이 연대했죠. 이때 불거진 인천민중연합의 문제는 노동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황선진 동지가 빠져 나간 인천민중연합 제2기에 노동자들을 개혁적인 노동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그 당시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 그 때 황선진씨가 그만두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친구가 인천민중연합 대표가 됐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파업전야 영화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 인천민중연합 대표한 친구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인천민중연합은 노동운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그러면서 대우차하고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죠.

임병구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중연합 당시 대표가 혹시 손명구?

김영규 누구요? 손명구, 예, 손명구, 맞습니다.

임병구 김남수, 이런 분들이 대표를 하셨다는 거죠.

김영규 제2기부터는 노동운동 중심으로 가자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 외에는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가자는 부르주아 분위기가 돌면서 시민운동으로 가게 된 사람들도 있죠.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시민운동하고 정치 운동하고 차이가 뭐냐, 시민운동은 어떤 사상이나 정치에 대한 이념이 없이 기본적으로 사상운동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한 인간관계,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시민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념이 개입되면 이미 노동정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정치운동이지 시민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 제가 생각하고 있었구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노동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라고, 그런 사고방식이 저에게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민운동도 바로 정치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나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운동도 권력과 정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그냥 순수하게 정치를 배제한 그런 게 아니라 시민운동이 정치 운동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운동, 사회운동 그걸 시민운동으로 보고요. 그리고 노동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이지 뭐, 우리 노동운동도 국민운동, 시민운동을 확장하고 노동자들을 우리와 같은 세력으로, 회원으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운동 자체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정치운동도 살게 되고, 시민운동은 기본 틀이고 정치운동은 바로 그 기본 틀에다가 노동운동

이 결합돼 가지고 이념 논쟁이라던가.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임병구 그 당시에 인천 지역의 민족 민주 민중운동 단체들 사이에서 정치활동,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김영규 그 당시 야당과 멀리 하고 있었고 학교일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86년 민주당이 주도했던 인천 운동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임병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 속에서 시민 활동 중심으로 가면서 정치 의식화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김영규 그때 그랬지요. 저도 그런 의미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이 주체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 틀 속에서 정치운동이, 정당이 배출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당들 보세요. 두 개 정당들, 양대 정당, 시민운동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운동 쪽이 전부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지지를 받기 힘들어요.

임병구 그러면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대표로 활동하셨던 민중연합에서 시민들 정치의식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민중학교를 1기부터 주욱 십 몇 기까지 운영했잖아요. 민중학교와 관련해서 교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민중학교와 관련해서 기억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민중학교 교장으로서는 노동자·민중의 기본적인 운동에 관해 제

가 가르쳤어요. 사실 아쉬웠던 거는 책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책자를 못 만들었어요. 일부 실무자들이 아이구 돈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마련해 볼까 했는데 못 이루었어요. 어쨌든 저는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사람들이 습득을 해야지만 국가가 잘 될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든 전문화, 전문가가 되면 좋지만 전문가보다는 일반 상식인, 그게 오히려 시민의 기본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의 상식 중심으로, 양심 중심으로 그런 운동을 해야겠다. 했죠.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인천민중학교의 이상이라고 그럴까, 꿈이 뭔가,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준비해 가지고 돌리고 했었지요. 아쉬운 것은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운동, 글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정당 활동에 매달리면서 그걸 못 했죠.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병구 민중연합 활동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연대 공동대표 활동도 하셨잖아요.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그게 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자고 만든 조직이었거든요. 그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구 예, 제가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의 대표도 맡고 이러면서 그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서울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죠. 그당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 반대. 그해 12월이던가.

임병구 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김영규 그래 되면서 전국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죠.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시작되면서 명동성당 중심으로, 그 당시 지역의 어른들인 단체의 대표들, 한 20명 정도가 긴급하게 회원이 되었어요. 그 때 제가 알던 서울대 교수도 참가했어요.

임병구 김세균 교수님이요?

김영규 네. 전국의 곳곳에서 모여 지역의 대표들이 거의 다 참여했어요.

김영규 그래서 확대된 전국 대표들 모임에서 결정이 나면 곧장 집행이 되었고, 상당히 중요한 개혁 부분들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우리 이쪽을 주목해서, 우리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운동으로 정부를 이긴 게 그 당시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부를 이겼죠.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민주노총이 그대로 권리를 획득을 했죠. 권리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도 인제 2월 말쯤에 정부 측과 회의도 하고, 결국 3월 달 쯤에 운동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그 당시 김영삼이 명동성당에 와 가지고 우리하고 면담했으니까, 우리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게 2월 달에 마지막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97년 2월~3월 달입니다.

임병구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의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인천시 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교수님께서 또 공동 대표를 수락하셨잖아요.

김영규 예, 맞습니다.

임병구 시민단체들과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인천지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예. 1997년 당시 제가 백기완 선생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백기완 선생 쪽하고 우리 인천 지역 시민단체하고 결합 관계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죠. 백기완 선생이 그 당시에 상당히, 반정부 단체로서는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었고, 우리가 존경했었는데, 그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 앞쪽에 내가 쓴 건데, 민중학교 10년사. 그때 노무현과 백기완선생을 초청 강의했잖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임병구 그거는 80년대, 88년에...

김영규 맞습니다. 88년도 그 당시...

임병구 88년 12월에 백기완 선생이 다녀가시고 89년 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빠트린 부분들을 보니까 인천민중연합이 총선에도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부와 같은 노동자를 정치 일선에 띄우고 했죠. 오순부선생을 노동자 후보로 띄웠고, 그 당시 노회찬이도 참여했었고. 그런 운동이 사실 시민운동 중심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은 시민들이 모일만한 입장이 안 된 거지요. ‘노동자 후보’라는 건 생각도 못 하는 형편이었는데 우리가 최초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노동자가 어디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분위기였으니까,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병구 80년대 후반에는 그렇게 활동하셨고 90년대 초중반의 기록을 보면 교수님께서 쌀개방 반대운동이라든가, 당시에 영창악기 폭행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진상규

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걸로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제가 이름만 달아놓고 그런 운동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많거든요. 내가 무조건 내 이름 달아라. 했는데 쌀 개방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 직접 참여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획단 사람들은 저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농업 농민 문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은 물론, 집회에 참여도 했습니다. 97년 안기부 업, 노동법 개악 등 투쟁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청년진보당 쪽하고 새로운 정당 건설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때가 98년, 99년.

임병구 그럼 교수님, 정당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인하대 교수직에서 파면되셨잖아요. 그리고 파면에 반대하기 위한 인천 지역 활동도 있었고, 전국적인 활동도 있었고, 그 얘기가 지 나누고 잠깐 쉴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하시겠어요.

김영규 그 문제는 인하대에서 제 목을 찢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투쟁을 시작했고 그게 바로 정당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인하대 교협 등 대학 3개 단체들의 비대위원회가 구성된 걸 이야기했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수들이 저를 교협 회장으로 띄워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전체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됩니다. 재가 교수협 회장이 되면서 인하대 재단 문제를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당시 교수들의 요구였습니다. 당시 인하대가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 짓는 데 대략 2천억원이 들었다, 그건 또 누가 대느냐 인하대가 대야 된다는 거

지. 물론 병원 짓는 거는 당연히 대야 되겠지만, 2천억 원 이라는 돈이, 어떻게 인하대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느냐, 교육비도 없는데 학생들 가르칠 비용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싸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재단에서는 저를 쳐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99년도에 돼 가지고 총장 선출이 있었는데, 총장 선출을 우리 교수들 투표로 뽑도록 하자, 교수 직선제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당시 건설부 장관을 지냈던 노건일을 총장으로 임명했어요.

임병구 당시 총장?

김영규 인하대 재단은 새로운 총장으로 노건일 총장을 지명했죠. 그게 바로 99년도로서, 2000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노건일 총장하고 저하고 싸움 붙기 시작했죠. 노건일 총장, 이 사람은 건설부 장관인가 했던 모양인데 인하대 재단인 대한항공은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 뺀이 없이는 안 되니까. 몽땅 정부 쪽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인하대 총장도 정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드디어 교수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병구 당시에 주장하셨던 게, 신임총장에 대해서 교수들이 중간 평가를 하자 주장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맞습니다. 당시 우리 교협이 주장했던 중간평가 결과 노건일이 가 17점 받았습시다. 통상 60점이 기본인데 이걸 낙제점인 17점 받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노건일 물러나라’, 재단도 물러가라. 라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저를 기본으로 세워 가지고 싸움이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알려

진 사건이 됐어요. 인하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이 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인하대 민주화 투쟁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2001년도 신년이 열리자마자 1월 3일 학교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영규 교수 파면, 모가지 떼는 거죠. 그때부터 싸움이, 진짜 싸움이 시작됐죠. 제가 2001년부터 해서 2003년도, 3년 후에, 그러니까 만으로 2년 인데, 3년 후에 다시 복직을 했죠. 잘 아시겠지만,

임병구 대법원 판결서에…

김영규 네 투쟁이 대단했죠.

임병구 당시 재단의 조양호 이사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받았으니까 당시 재단이 얼마나 비리에 휩싸여 있었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당시 분위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다른 일들을 알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재단에서 학교 일을 처리하는데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사인 조양호의 새파랗게 젊은 딸내미가 와 가지고 총장 뺨을 때릴 정도로, 욕 짓거리도 했으니까…

임병구 아!

김영규 뺨보다는 걷어차기 까지 했습니다. 총장이라는 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총장이 부 다 공대 출신 교수들이지요. 재단이 인하대를 사유화해서 학교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 사회화 개념 공유화 개념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단의 이런 행태를 전면으로 내세웠죠. 사학재단 사유화 반대, 총

장 직선제 해라, 이거 우리 비대위가 하겠다. 이래서 전개된 게 대학민주화 투쟁이었구요. 그때 학생들뿐만 아니고 직원들 교수들, 그 당시 교수들이 총 420명 정도였는데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볼 때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총장이 나한테 두 번이나 전화해서 만났지요.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재단이 있는데, 말을 들어야 학교에 돈도 나오고 등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당장 총장 그만두라고 그게 낫지. 점수 17점 받은 사람이 총장 자리에 있겠느냐 그만두라. 그래서 곧장 내한테, 나의 모가지를 뺐죠. 물론 총장하고 재단하고 딱 짜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임병구 당시에 직위해제 통보받으시고 난 다음에 천막 농성을 하셨던 거, 교수님 그때 어떻게 투쟁하셨는지 그 말씀도 좀 들려주세요.

김영규 인천 지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왔으니까, 그때 천막 같이 치고 다 같이 했었죠. 그때 동지들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운전해 온 동지가 누구지요?

임병구 박원주 의장. (당시에는 인천주거운동연합 의장)

김영규 천막 농성 하는 사람 가운데는 대구 노동자도 왔어요. 운동권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왔을 거예요.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서도 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국회 근처에서 교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를 알아 보고는, 학교 지금 어떻게 됐나 묻더라고요. 지금 싸우고 있다고 했더

니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육부에 전화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 그 국회의원이 알아본 결과 1심에서 재단이 졌으니까 2심부터 교육부는 당장 빠져라, 재단만 남겨 놓아라. 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조치를 건의한 그 국회의원이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와서, 이제 교육부는 김영규 교수 건에서 빠진다고 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덕분에, 재단과 공동으로 저하고 대적인 교육부를 중립화시켜 놔죠. 제가 국회에 가 가지고 우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뭐 괜찮다. 라고 봤고, 근데 그 후에 곧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임병구 2003년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영규 2002년 12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근데 그때 재단에서 나온 인사가 나를 사회주의자로 몰기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12월이 2002년에 진행된 대선 아십니까? 그때에 애들이 재단에서 걸고 나온 게 뭐냐 하니까 바로 내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업적을비판하자는 것이었어요. 당에서 만드는 우편물을 가져와서, 그 홍보용 우편물에는 ‘김영규 사회주의 대통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딱 펼쳐 들고, 허허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김영규가 저 완전 공산주의자라고, 공산 빨갱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뭇니까.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김영규라는 사람을 사회주의자로 안다면 왜 진작부터 채용해 가지고 이 난리냐. 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하더라구요. 신문까지 들고 와 가지고 난리를 피웠지만 대법원 마지막 판결도 내가 이겼죠. 전부 내가 이겼으니까 첫째, 둘째, 세째 마

지막 판결도 이겼으니까. 내가 재판에 이김으로써 그다음 해 2003년도 3월 달에 내가 복귀를 했죠. 그때는 총장 등 전부 다 내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총장은 물러나고 재단의 조양호도 물러나야 된다. 그랬더니만 연락이 왔어요. 당시 부총장 왈 그들은 그냥 형식상 있는 거니까 봐 주라고,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는가 봐요.

임병규 법리, 법적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하셨지만, 그전에 인천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대 교수님 350분 정도가 탄원서에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시 교수님이 야전사령관으로 불리셨다는데 기억나세요.

김영규 하하 그런 소리를 할 필요 없는데...

임병규 학생들도 지지를 많이 하니깐 그 힘이 복직을 이루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찾아왔던 사연이라든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규 글썽 학생들은, 감옥에 들어간 놈은 내가 구제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재판에는 풀어주라고 호소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있는 친구들, 그 당시엔 많이 다쳤거든요. 병원에 있는 친구들 찾아가 만나고, 시험 못 보면 시험 문제를 쥐 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게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학점을 줬어요. 근거 없이는 안 되니까요. B학점이나 C학점을 주고 그랬는데, 나는 학생들을 자식들처럼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 하나하나.

임병규 당시 교수님 복직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 대책위 활동도 기억나시죠. 인천지역 대책위원회 활동, 당시 56개 단체가 결합을 해

서 대책 회의 활동을 굉장히 가열차게 했던 걸로 기록들에 나와 있어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당시 전국적으로 교수님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복직을 원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들려주시죠.

김영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름이? 나의 투쟁과 관련해서 하도 대책위가 많아 가지고,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무슨 대책 위?

임병구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경인여대 학원 민주화 정착과 인하대 교협회장 김영규 선생님...처럼.

김영규 아 경인여대 투쟁! 중요한 투쟁이었죠. 그때도 이겨 가지고 학장이 물러났죠. 그때 투쟁했던 친구들이 사회당의 멤버였던 친구들이죠. 그때 투쟁했던 여학생하고 남학생들이, 지금도 인천 사람연대 멤버들이죠. 그 멤버들이 그 당시 경인여대 학생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대책위가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개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몇십 개 될 겁니다. 최소한 몇십 개 될 것 같고, 대책위를 꾸려 가지고 싸울 때 보면 항상 이겼으니까요. 저는 싸움을 할 때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 상대방도 존경해 주면서 우리 입장을 앞세우는 거 그걸 투쟁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조직의 약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는 언론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연락해 가지고 기자한테 야 누구누구 조사 해봐라 아는 기자도 있으니까, 애는 지난번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놈이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완전히 죽어버리죠, 어떻게 내보고 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쪽 가면은 상대방이 대부분 죽습디다. 두 번째까지만 가도 죽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되면 일이 안 되니까. 어 됐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 없는 걸로 하자, 우리 해고 무효다 복직하게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 나름대로 전술을 잘 쓴 거지요. 투쟁하기 직전에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하고, 그런 경우가 남동공단, 부평공단 등 중소기업체에 많이 있었고, 일일이 모든 사건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네요.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임병구 교수님, 복직투쟁 관련해서 하나만 더, 당시 징계 사유 중에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짧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내용 중에서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싸움이 2000년에 인천에서 치열했거든요.

김영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임병구 그 자료에 6번까지 하신 거고요. 인하대, 교수님 해직과 복직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2쪽에 6번, 아, 7번까지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어요. 계속하실까요?

김영규 시장 후보하고 대선 후보 출마 이건 뭐 대충 아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됐어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

(잠시 휴식)

임병구 교수님께서 정치활동을 활발하고 왕성하게 하셨어요. 인천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셨고 직접 대선에 뛰어들기도 하셨고, 정

치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김영규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더라, 폴리페서, 아, 폴리페서입니다. 예컨대 누굽니까, 서울대에 그 누구죠? 그 친구 서울대, 교수만 되면 정치하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후보하고 대통령 후보 나설 때가 2002년, 해고당할 때입니다. 해고당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선거에 참여했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정치교수라는 말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를 비판하지 못해요. 나는 교수라는 직업을 제 아버지의 예 따라 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 해고당했을 때 정치하는 거, 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 합니다 내 보고 니는 정치교수다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해고당했을 때 그 여유 가지고 선거 출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 나가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청년진보당이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대단했었죠. 괜찮은 친구들이었지요, 그라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금민 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병구 예, 사회당 대표도 하셨던.

김영규 기본소득당으로 지금 가 있는 친구들이지요. 이 친구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정당의 대표로서 누구나 오세철하고 김영규 두 사람이다, 라고 생입니다.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세철 교수는 진작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러면 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가 연락을 받고는 오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 교수님 먼저 나가십시오. 그다음에 내가 나가겠다고. 그때 오 교수는 내가 나서기는 어렵다. 고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된 겁니다. 제가 당지도부에 요청을 했지요. 나한테 일단 권한을 하나 줘라, 그것은 바로 당명은 내가 정한다. 사회당으로 해라, 미국에서의 사회당의 역사,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사회당의 전통에 관해 제 입장을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회당이라는 당명은 선거용으로 딱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당으로 인천 시장 선거에 나가고 이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군소정당이 제대로 할라카면 공산당이 돼야 선전이 됩니다, 공산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와 같은 성격의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뒀을 때는 우리 당이 경쟁하는 것처럼 나르면 안 됩니다. 공산당 선언에 보면 그런 취지의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공산당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알고는 우리가 민주노동당과 연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제시 했더니만 우리 동지들은 누구도 연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라 그냥 사회당으로 나서니까 공산당 선언 하기의 관계에서 걱정할 필요 없이 나설 수 있다. 사회당이 당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당으로 당명을 확정했지요. 동료들하고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당이 지켜야 될 5대 강령을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새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

산당 비슷한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게 결국 먹히지가 않았어요. 선거 결과 2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그전에 출마했던 누굽니까, 백기완 선생은 30만 표 가까이 얻었고, 나는 2만 5천, 그 차이를 볼 때, 아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들 아직도 멀었다 안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된다, 나는 물론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선거를 끝냈었죠.

여러 곳에서 연설도 많이 하고 동지들과 같이 많이 노래하고 춤도 추고 했지만,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수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어떤 무용하는 교수는 와서 살풀이 춤도 추고,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죠.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할 부분은 민주교수협의회, 민교협 교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은 민주당 쪽이니까. 그게 바로 김삼곤 교협회장이 나중에 문재인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했지요. 그때부터 민교협이 우리 노동자 민중 진영은 아니다. 너희들은 정치꾼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사회당 이걸로 우리는 나간다. 선언했죠. 선언하고 다음부터는 민교협하고는 딱 끊어버렸죠

두 번째 또 끊은 사람이 저 백기완 선생, 백기완 선생은 맨 처음에는 내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 나가지 마라는 거야. 이에 저는 선생님이 나가시면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도와줄 수 있다. 그랬는데 백선생님은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지. 백선생은 정당설립도 거부했고, 그 후에 정당에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저쪽에서는 이미 장기표가 딱 막아섰으니까! 당시 나는 오세철 교수와 함께 백기완 선생을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하다

가 그 당 참여를 우리가 그만뒀죠. 결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 이제 저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말리겠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 봤자 자기 이름 내고 돈 들고 이거뿐만 아니고 현 체제를 그냥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나간다는 것은. 선거 제도 자체를 지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선거에 나서서 내가 후보로 나선다는 거 자체는 현 체제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나가는 걸 말려야 되겠구나. 오히려 뭐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밖에 없었죠.

임병구 2002년에 시장 후보로도 한 번 출마하시고 같은 해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하신 거잖아요. 시장 선거는 지역선거니까 규모가 작고 대선 후보는 전국 선거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선거인데 한 해에 두 번 치르셨는데 무슨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셨어요.

김영규 시장선거를 치루고 그 다음에 곧이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 나는 어렵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으로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만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 나가서 연설하고 말만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괜찮았습니다. 아주 즐겁게 잘했어요. 나름대로 잘 했어요. 당시 해고를 당해 강의나 연구 부담도 없었으니까.

임병구 선거하는 과정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두 번의 선거에 대한 교수님 나름대로 평가는 어떠셨어요.

김영규 선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선거 후보로의 참여

는 선거가 참 하기 힘든 입장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 관점은 선거라는 자체가 그게 참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등등. 선거는 그래도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선거 보이콧 이러는데, 선거는 보이콧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선거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계속 대중들에게 우릴 알려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사람이 많아지지요. 선거에 참여를 안 하면은요, 사람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중의 어떤 심리라고 그럴까, 대중들의 생각을 보면은요, 사고 같은 거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를 지도하는 사람들과 대중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대중들하고 분명 다릅니다. 대중 중에서 정치가가 나온다, 난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조직인 정당이 정치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지금의 양대 정당처럼 권력을 갖게 되지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요 정말 선거 나간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큰 고충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여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끊임없이 투쟁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선거에 대한 평가 마치고겠습니다.

임병구 대선 포스터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대선 포스터, 거기 구호가 '돈 세상을 뒤엎어라' 그 구호가 굉장히 강렬하고 재미있잖아요. 그거 교수님이 정하셨어요.

김영규 아닙니다. 당에서 공모한 겁니다. 그거 괜찮지요.

김영규 그때 최고위원회가 거의 20명 가까이 되죠. 최고위원회에서 공모해서 ‘돈 세상을 뒤엎어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병규 교수님도 슬로건이 마음에 드셨던 거잖아요.

김영규 그렇죠. 예. 아주 정말로 딱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당의 목적이란든지, 또한 분배중심의 정치적 목적이란든지, 봤을 때 딱 맞는 말이다. 현실을 정말로 참 잘 반영했다, 그렇게 봅니다.

임병규 그때 다니면서 그 구호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그런 건 따로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김영규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외치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정했지요. 허허.

임병규 그렇게 후보로 활동하신 다음에도 사회당 고문으로 5년 동안 활동하셨더라고요.

김영규 예 했습니다. 그 후에 2012년까지인가 했을 겁니다. 그때 했는데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으로 막 넘어가서, 여기 뭐 내하고 맞지도 않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지요. 그렇게 했고, 그냥 그만두면은 10년 가까이 사회당 같이했던 동지들이 섭섭할 테니까, 그냥 내가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던가 하는 것은 안하고 그저 내 이름만 올려나라 그래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노동당하고 통합하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진보신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사회당은 사라지고 노동당 당명도 바뀌었죠.

임병규 그 이후에는 그럼 정당 활동은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김영규 그렇죠. 다 마무리했죠. 그럼요. 2012년도에 내가 정년퇴임하면서 그때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제일 섭섭한 건 백

기완 선생이 제일 섭섭해요. 백기완 선생이 정말 섭섭한 사람
이야. 그 양반이 정치를, 정당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임병구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정당보다 민중 중심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백기완 선생님께서 정당은 가입하지 않으셨는지.

김영규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내가 백기완 선
생님 한 2년 가까이 모셨지요. 백선생이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북한도 같은 민족이다.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등을
지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선생은 북한을 배척해서는 안 되
겠다. 민족 국가의 입장을 견지하자는 쪽으로 굳어버렸지요.
그런데 정당을 만들자. 라는 입장이 대두되었지요. 여기에는
분명 당의 이념이 제기됩니다. 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로 해 가
지고는 되겠다. 라는게 통문연의 일반 분위기였습니다. 내한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키 포인트는 멀리까지는 나가지
마라 이런 식인데, 그래도 우리가 도전을 해서 싸워야죠, 어떻
게 합니까? 그랬더니만, 아 그래도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백기완 선생님하고는 내하
고 멀어져 버렸죠. 내가 찾아갈 시간도 이유도 없었으니까.

임병구 교수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카메라 괜찮아요. 아, 그냥 하시겠습니다.

임병구 정치 활동을 이렇게 마무리하셨고 그리고 정치활동 이후에 교
수님으로서 정년까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명
박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2008년에 내셨거든요. 이제는 글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내시게 된 그런 계기, 그 다음에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영규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허, 수구 보수 정권이죠.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 정당,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가 봐요. 책을 편 출판사 어디죠?

임병구 박종철 출판사입니다. 예.

김영규 맞습니다. 박종철 출판사 김태호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책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병구 인세도 많이 받으셨어요?

김영규 인세 안 받았죠. 그 쪽에서 돈도 필요하고 해서. 저 안 받았습
니다. 인하대 출판부도 보니까 내가 책을 낸 거 가운데 정치경
제책 책 있죠. 그거 잘 팔리는 가 봐요. 차라리 인하대에 내가
인세를 요구해야지! 근데 뭐 그대로 잊어먹기로 했습니다.

임병구 그럼 정년하시고 강화도에 지금 거처를 정하셨잖아요. 정년 이
후 왜 그렇게 강화도로 가시게 된 건지 또 정년까지 활동들에
대해서 혹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김영규 제가 강화도 들어간 게 2009년도 12월 1일이었습니다. 집을 직
접 지어 가지고...

임병구 정년 전에 이미 그러면 강화도로...

김영규 그렇죠. 정년 3년 전에 강화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금융
기관 돈 빌리고 하는 게 어려웠지만, 교수니까 쉽게 돈 빌려주
고 하니까요. 강화도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고 강화
도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평당 50만 원에 샀으니까,

그렇게 살 때가 인천에선 없잖습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오게 됐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조봉암 선생을 좋아했거든요. 조봉암 선생이 바로 강화도 사람이라서 평소엔 강화도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인천에 있으려다 결국 강화도로 가게 되었고, 우리 집사람은 들어오는 거 반대했죠.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강화도에 있어 보니까 강화도 주민들하고는 가까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치적 입장도 그렇고 경제적 처지는 비슷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저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화도 사람들하고 인연 맺을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하지만 내하고 이야기가 통할 게 있어야지. 그냥 서로 선물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건강 잘 지키면서 오래 살고 싶다 고게 제 생각입니다.

임병구 그래도 강화로 가시면서 지금 택호를 민해당이라고 이름 지어서 집 앞에다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 민해당 이름을 짓는 과정 그 다음, 뜻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죠.

김영규 민해당이 민중해방당입니다. 민중해방당, 예 글씨는 우리 딸내미가 쓴 글씨고요. 당은 집 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었죠.

임병구 선생님의 삶을 압축적으로 택호에다 넣어두신 거네요. 민해당. 김영규 예.

임병구 그리고 선생님이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책 중에서 학술적인 책 말고도, 말 같지 않은 세상의 말 같은 말, 이걸 보니까 그때 민중연합 동지들이 출판 기념회도 해주고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 책도 내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 게바라가 살아서 한국에 온다면, 이런 책들을 수필 집으로 내셨어요. 학술 서적 아닌 그런 책들을 내시게 된 이유 이런 건 어떤 계기였을까요?

김영규 체 게바라는 내가 해고당했을 때 시간이 있어 가지고 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쓰고, 그다음 우리 사회 문제점도 쓰고 그래 가지고 낸 거고요. 말 같지 않은 세상에 말 같은 말은, 그 당시 인하대 문과대에 평론가 교수가 지어준 건데 책명을 잘 지은 거 같애, 그 교수는 말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 같은 말 좀 하고 살자. 그래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구요. 그 책은 제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하고,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던, 독점지배의 사회가 겪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투쟁하고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지적한 점들이 많이 있고요.

임병구 그동안 활동을 굉장히 맹렬하게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김재규씨가 있습니다. 김재규씨가 우리 집안의 육촌 형님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대에서 갈라진 거죠. 저의 아버님 말씀은 김재규씨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랬는가 봐요. 우리

아버님이 어른이니까, 찾아뵈러 오고 그랬는가 봐요. 김재규 형님이 그 당시 일을 벌였을 때,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재규 형님은 쿠데타로 실패한 형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었지만 누구나 많이 애석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이 돌아가신 게 5월이었는데,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고향에서는 아직 돌아가신 줄 모르더라고요.

김재규 형님 집하고 다 같이 이웃에 살았어요. 그 당시 친척끼리 모여서 살았으니까. 그러다 이분들이 구미로 이사를 갔어요. 구미에서 박정희를 만난 거지요. 형님이 박정희를 만나 가시고 그때부터 둘이 같이 쪽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도 같이 가게 되고 그랬는데 그 양반 급진적인 측면이 있는데, 급진적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사고력은 괜찮은데 이 판단력 같은 것들은 좀 모자란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김재규와 같은 우국지사가 독재정치를 끝장낸 것은 칭찬할 일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내 인생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제가 살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 다 존경하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란 게 혼자서 못 삽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과 평화, 결국 우리가 모든 가정이든 모든 사회든 전쟁을 해서는 못 살지 않

습니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선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같은 값이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면 좋겠다, 북한처럼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 생활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가 할 짓이 아니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 같이 잘 살면 좋겠다고 보구요. 북한도 그런 점에서 이념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중국에 옛날 갔을 때, 그때 내가 사회과학연구소장 하면서 그때 연구위원들을 한 20명 구성해 가지고, 중국 여러 군데 갔었어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갔다 왔었고 중국의 교수들도 만나고, 그 때 내가 느끼기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인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했던 역사를 꼭 연구해 봐야 되겠다. 고 다짐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같이 더불어 이웃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임병규 긴 시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예, 수고했습니다.

임병규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



- 1940년 9월 11일 인천 출생 (현재 85세)
- 1986년 5.3 구속자가족협의회 활동 시작
- 1986년 인천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
- 1988년 인천민주청년회 고문

일 시 2024.9.25.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임병구

대 담 자 김명숙

김명숙 회장은 유년 시절, 6.25 전쟁통에 부친이 빨갱이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비극을 겪었다. 수녀가 되기를 꿈꾸었던 독실한 가톨릭 신앙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 왔다. 장남 이용주가 5.3 항쟁에 참가해 구속되고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족협의회를 결성해 항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뛰어들었다. 인천구속자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회장을 맡아 구속자들 면회, 가족 지원 활동, 구속자 처우 개선 활동을 기본으로 사회민주화 운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학생운동은 물론 노동 현장 투쟁을 지원하기도 했고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스스로 민주 투사의 길로 들어섰다. 가톨릭 정의 구현 활동에 헌신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데도 앞장섰다. 가족들 아픔에서 출발했지만, 사회 민주화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나타나는 실천가로 ‘모든 구속자들의 어머니’, ‘인천 민주화 운동가들의 어머니’로 살아오셨다.

임병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인천 구속자 가족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김명숙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서울에서 태어나셨죠?

김명숙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나시고요. 저는 저기 인천 송림동.

임병구 네. 그러면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먼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명숙 어렸을 때는 집이 부유하고 잘 살았었는데 6.25 나고 나서는
고생들이 많았죠. 6.25 나고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나
고, 공부도 중단되고 그때서부터 고생 시작이죠. 전쟁 때문에.

임병구 그때 다니셨던 학교 이름이?

김명숙 서림국민학교.

임병구 서림국민학교 다니셨고 국민학교 다니시다가 전쟁을 맞으셨네
요? 그 전쟁 당시 겪으셨던 아프셨던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명숙 학교, 저기 비행기가 그냥 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 갖고
선, 갑자기 푹푹한 애들은 가방을 들고 갔는데 나는 좀 어리숙
해서 가방도 버리고 맨발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언니
가 초등학교 나보다 5학년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동
생을 버리고 오냐고 그래서 또 가서 가방을 다시 찾아다 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갖고서, 학교를 미군들이 점령해
서 송림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나가면 우리가 2교대 들어
가서 공부 배우고, 거기서 구박받고 그러니까는 장의사가 있었
어요. 동부경찰서 자리 거기 청소 다 하고 와서 공부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그냥 중간에 아버지가 학비 대기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 큰 집이 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자라
다시피 하고, 그때서부터 전쟁 났을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
셨어요. 그 장례 치러줬는데 장례 치러준 양반, 아버지 친구분
이 이북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는 여기 한
국 군인들이 데려다가 빨갱이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억

울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임병구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셨던 외삼촌에 대한 말씀도 기억나시죠?

김명숙 외삼촌, 큰삼촌은 한국 군인이, 외삼촌 식구들은 6·25 때 인민군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공부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도 다 시작했어요. 안 가면은 인민군들이 다 식구들을 괴롭히니까. 우리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 삼촌, 큰삼촌은 전기회사에 그전에 영수증 해서 집집마다 그 영수증 돈 돌려주는 거 그걸 하셨거든요. 큰삼촌이, 막내 삼촌은 자꾸 빨갱이로 모니까는 군인 나가서서, 한국 군인 나가서 결핵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외삼촌은 그 자리에서 한국 군인들이 교장 선생으로 저기 공부시켰다고 그냥 총살당하신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8월 15일 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삼촌 산에 산소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 해요. 삼촌이 엄청 좋으신 분이었는데 딸 셋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외딸 하나 하시고, 부잣집 딸인데 그래서 숙대밭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정신 이상으로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도 그렇고 동생들도 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그래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한 많이, 아드님 이름 부르다 돌아가시고.

임병구 온 집안이 전쟁 때문에 비극을 겪으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 슬픔, 그걸 지금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명숙 그래서 뭐 고생이 말도 말도 못 하죠. 고생 시작이지. 아버지

도 인천에서 강인목재라고 거기서 책임자로, 똑똑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외갓집이 그렇게 되니까 덩달아 타락되셔서, 약주 잡숫고 집안이 제대로 직장생활도 안 하시고, 한 집이 그렇게 되니까 아주 축대밭이 되어버려갔고, 사는 게 가면 우리 어렸을 때도 친척들 다 잘 사는데 공부라도 시켜주면 되는데 완전히 식모 부리듯 부리고 돈도 안 줘. 그러다가 그래도 나이 먹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우리 집 양반이 나보다 8년 위인데, 이북 사람인데 피란 나오면 생활력 강하다고 미군 부대 다니면서 책임자였어요.

임병구 결혼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열 살 좀 넘어선가, 4.19를 겪으셨잖아요. 4.19 때 거리 행진을 하셨던 말씀을 지난번에 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김명숙 4.19 때, 차가 밀고 나오고, 근데 오빠들은 고대 연대 대학생이었는데요. 집에 오셔서 계시는데 나는 을지로 오빠네 집에 있었어요. 잠시. 근데 거기 그냥 피투성이고 여자고 남자고 이대 애들은 버스 타고 가니까 숙대 애들이 ‘이 년들아 나와서 싸움하라’고 돌로 던지고 그런 것도 4.19에 그 현장에서 다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용주, 5.3 때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 고대, 연대는 주안역으로 오고 인천대하고 인하대는 학익동 쪽으로 오고 그거 다 지켜봤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서, 두근두근해서요. 그 현장까지, 그래서 그때도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임병구 그럼 4.19 당시에 한 스무 살 넘으셨을 텐데, 그때 서울에서 직장생활 같은 걸 하셨어요?

김명숙 아니 오라버니네가 목제공장을 크게 하는데 아들만 넷인데, 올케가 일을 못해서 거기 가서 생활해 주고 조카들 길러주고 유치원 데리고 다니고, 거기 살림하느라고 을지로 6가에서 오빠네가 재목장 크게 하니까.

임병구 4.19 때,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외치던 거라든가 그런 것도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때 외쳤는지?

김명숙 근데 우리 육촌 오빠가 성대인데, 성대 회장이었었나 봐요. 근데 지프차를 타고, 그 군인들 지프차를 제끼고서는 막 그냥...; 그전엔 전차길이 있었거든요. 버스가 아니고, 전차길. 글로 그냥 달려가 갖고서 내가 이제 오빠한테, 오빠 그렇게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하니, 우리 목숨 내놓고 해야지 그럼 뭐 누구 목숨을 내놓게 할 거냐고 내 목숨만 아까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빠가 그러더니 여기 연대 고대 오빠는, 포대기 쓰고 너 거기가 어디라고. 어디 최류탄 냄새가 막 나잖아요. 어딜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죽으려고 가냐고 그냥 막 야단치시고, 고대 저기 연대 멧기는 오빠들은 날 막 꾸중을 하시고. 그래도 또 나가고 싶고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아주 수라장이 됐었어요.

임병구 다치거나 이런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당시에 보셨어요?

김명숙 시민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 저기 소식 들으니까, 글로 몰리지 그냥 여기다가 그때는 막 학생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지금 같이 그렇게 안 하고. 그때는 시민들이 막 둘러쌌어요 그 학생들 보호하느라고. 애네들 가운데 몰아서. 그렇게 하니 까는 심하게 못 하고서 주저앉은 거죠. 4.19 때도 아주 분명히

보고 또 5·3 때도 현장에서 보고.

임병구 5·3 때 얘기는 이따가 충분히 또 말씀하시고요. 수녀가 되려고 생각하셨던 건 언제였고 왜 수녀님이 되려고 결심하셨어요?

김명숙 왜냐하면 아버님이 명동성당 학교 졸업하셨거든요. 서울에서. 그랬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꼭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신앙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공부해서 고등학교 나와야지 수녀를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라도 되고 싶고, 그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맨날 그랬어요, 나 시집 안 가고 수녀님은 지식이 모자라니까, 스님, 거기 절에 가서 밥만 하고 식모살이해도 내가 절로 들어가겠다고. 시집가는 게 싫었었어요. 맨날 시집 안 간다고 그러다가 또 스물넷에 시집을 가긴 갔어도요.

임병구 그러면 가톨릭교회에 다니시게 된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였어요?

김명숙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 양반이 고아원에서 피란민들 시집왔어요. 황해도 신천 미군 부대도 다니시고 근데, 교회는 다니지 말고 다니려면 성당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임병구 결혼 이후예요?

김명숙 네.

김명숙 그래서 다니고 싶고, 다니고 싶다가, 우리 아버님은 또 왜 친할 아버지가 불교를 하시니까 마음은 있어도 안 하셨고, 니네들은 불교든 가톨릭이든 교회만 가지 않고 성당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셔서 그때서부터 성당의 교리 정식으로 받고, 또

우리 아들도 받고 우리 집 양반은 대세 받고, 딸도 받고 둘째는 아직 받는다고 교리 공부한다고 해서 아직 안 받고.

임병구 그럼 어릴 때는 아버님 때문에 성당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성당 생활을 하신 거네요.

김명숙 성당에도 자주 가시고 가실 때 대세 받고 가셨으니까는 믿음으로. 무슨 행사 때면 꼭 가시고. 아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성당을 좋아하셨는데, 미군 부대 다니고 고단하니까는 주일은 못 지켜도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는 자주 가셨어요. 저런 성심도원이라고, 수원에 성심기도원이 있는데 산속에, 거기도 자주 가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임병구 그럼 24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결혼 생활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김명숙 결혼은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착실하니까는, 아들 하나 낳고 어머니가 딸이 없어서요. 저를 그렇게 딸을 삼고 싶어서 원을 하셔서,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저렇게 날 딸을 삼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 양녀가 됐는데, 어머님이 마냥 그렇게 잘 해주시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 모양 모시고 그렇게 했어요.

임병구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더 예쁘게 봐주신 거네요.

김명숙 수양어머니. 시어머니는 이복서 우리 집 양반 두 살에 돌아가셔서 누나가 길렀대요, 누나가. 두 살에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복에 이제 재산이 많아서 여기 다 피란 나왔는데

그 누님은 안 나오시고, 이북 황해도 신천, 엄청 부자니까는 땅덩어리 지킨다고 안 나오셔서 여기 이제 아들 셋, 딸 둘 그렇게...

임병구 그럼 아까 말씀하신 수양어머니 그분이 중매를 서주신 거예요?

김명숙 그렇죠. 우리 집 양반 착해라 하니까는. 인물은 없어도 착실하고 건실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만날 또 우리 집 양반이 대문 앞에 와서 있는 거야. 결혼해야지, 안 하면 죽는 댕다나 어쨌다나. 우리 친정아버지가, 야 이거 집안 망신이지, 왜 바깥에 저렇게 밤새도록, 그래서 그냥 벼락 잔치 모양... 또 선거, 그때 유승원인가 선거운동을 이 양반이 하셔서요. 그 양반이 주례 서서 현대예식장이라고 그 앞에 그때 있었어요. 거기서 정식으로 해서 결혼하고 그러고서 이제...

임병구 송림동 현대극장 근처에 현대예식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김명숙 네.

임병구 지금 현대극장에서 가까운 자리인가요?

김명숙 예, 거기 바로 거기 있었죠.

임병구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서울에 가서 친척 집에 잠시 계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인천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거네요.

김명숙 아니, 결혼식하고 올라간 거죠. 결혼식하고. 우리 집 양반이 참전 군인으로 월남 돈 벌러도. 또 이제 미군 부대 사람들이 노름하고 그게 세고 빚들을 지고 이러니까는, 그전에 월남 가면 돈들 많이 벌고 그랬으니까. 또 그 클럽들이 다 월남을 갔

어요. 월남 가서 세 양반은 돌아가고 내 양반은 살아오셨는데, 와서도 또 그냥 영어를 우리 집 양반이 잘하셔서 책임자가 돼서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직장 생활하고. 미군 부대 책임자…

임병구 그전에 목재소를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명숙 그거는 우리 친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엄청 부자가. 고모네 누님의 아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그 제재소로 차려주셨어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누님네 아들을.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를 같이 도와줘야지 되는데 욕심이 이어서 우리 아버지를,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한 양반을, 그냥 노동 일만 시키고. 애관극장도 하고 제재소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 양반은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당신만 잘살고 돌아가고. 아버님은 그래도 그냥저냥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잘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임병구 월남에 파견 가셨다가 거기서 고엽제 피해를 당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기억나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명숙 그게 몸에 나쁜 건데 막 시원하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맞는 거예요. 그거. 이슬비 모양 오면 시원해 놓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우리 딸이 지금 시원치 않아요. 우리 딸이 54세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아버지가 오셔갖고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아기가 됐는데 그냥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 경미는 고엽제에 아버지 맞으셨다고 그러는데 재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썄 모르지 그랬더니, 재가 똥똥했는데 그냥…

임병구 고엽제 피해 후유증을 앓고 계시다는 거죠.

김명숙 그런 것 같다 그래요.

임병구 그러면 남편과 사별하신 다음에 이남 일녀를 키우신 거예요?

김명숙 이남, 아들 둘 딸 하나.

임병구 그러면 제일 큰아들이?

김명숙 용주요.

임병구 이용주.

김명숙 용주는 인하대, 경영문리과 나오고. 둘째도 대학까지 가르쳤어요.

임병구 그러면 이용주, 장남이잖아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혹시 기억 나시는 거 있으세요?어린 시절에 어떻게 컸고 얼마나 착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착했죠. 집안에서 다 칭찬하시고. 엄마 얘기라면 아주 하고 학교에서도 으뜸가고, 머리가 학교 전체에서 아이큐가 1등이었어요. 영광, 영광 나왔거든요. 용현초등학교에서 이제 갈라져갔고 영광으로. 엄마 눈물 나왔는데 슬펐는데 딴 엄마들은 데리러 왔는데 나만 혼자 걸어왔는데 슬펐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갑자기 누가 개네들을 부모한테 연락해서 보내야지 그랬다고 슬퍼서 울면서 와서 땅이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린 게, 1학년 때 슬펐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으면 갔는데 미안하구나 그러지 라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으로 자랐어요.

임병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김명숙 계속 성당에서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해서, 하여튼 뭐든지 다 열심히 해서. 그 성당에서 데모 가르쳤다고 자꾸 원망은 해도, 그것도 뭐 이 애만 데모해요?

임병구 아드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당도 열심히 다니셨고 세례명이 바

오로였어요?

김명숙 정식으로 견진까지 다 받았어요.

임병구 성당 생활도 열심히 하셨네요?

김명숙 그럼요.

임병구 어머님도 성당 활동 열심히 하시지요?

김명숙 아, 그날은 옷을 입으래요. 옷을 입고 있으래요. 그래서 옷을 입었더니, 이리 오시라고 손을 다정하게 날 붙잡고 기다리라고요 용주가. 그러더니 성당 마당에서 성모님 앞에다 세워놓고, 나 못 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5.3 때 데모하려고 애가 신발을 몰에다 적셔서 그 젖은 신발을 털어 신고 그러고서 그냥 갈라서 갖고서는 한 10년을 애도 감옥살이 했나?

임병구 그거는 대학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시는 건 있으세요?

김명숙 열심히 했죠 다, 저기 대현중학교 나오고 광성고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는 우등이었어요.

임병구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착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당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던 아드님이 대학 들어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김명숙 (용주가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그냥 시계도 아버지가 좋은 거라면 애를 다 밀어주고 그랬는데 시계도 그러더니 그것도 다 그냥 지네들이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거 팔아서 밥도 사 먹이고 그랬는지 뭐든지 주면 다 없어요. 애 손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글썽 감옥에서 나올 때 이제 졸업시키려고 80, 86만 원

인지 83만 원, 등록비 준 거 갖다가 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내가 학교 가고 선생님 애가 고생하고 나 졸업시킬 욕심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도로 주셨어요. 그거는 학교 돈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는 내 돈으로 드리고 싶었다고 그걸 교수님이 주셨어요.

임병구 어머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어려운 사람들과 많이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어머님하고 성품이 똑같이 닮으신 거네요.

김명숙 아버지도 그러세요. 아버지도.(웃음) 동기간이고 뭐 친구들 저기 하면 막 쌀도 한 가마씩 외상을 얻어서 그걸 돈으로 팔아 갖고 돈도 주고, 받을 게 될 받아요,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임병구 그렇게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어머님과 베풀기 좋아하는 아버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드님도 대학에 입학해서는 아마 그 정신 때문에 학생운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아셨어요?

김명숙 몰랐죠. 맨날 늦으니까요. 아버지가요, 한번 가자 그래갖고서 이제 도서관에서 시험공부 안 하고 그러고 도서관에 가봐도 애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운동하러 다닌 거 같아요, 학생운동. 그런 데 가면 애는 안 나타나고 공부하는 애들은 모여도, 운동하는 애들은 누군지 몰랐어.

임병구 아드님이 1983년에 인하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3에 참여하기까지 83년, 84년, 85년, 86년, 4년 동안 학교에 다니신 셈이에요. 그런데 학생 활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드님께서 대학 입학하시고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어머니는 잘 모르셨고 5.3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야 아시게 된 거예요.

김명숙 그때 그냥 오빠들 서울에서 그런 환경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냥 마음이 들먹들먹하고 집에 있기가 그래요. 그래서 주안역으로. 이쪽에선 고대 연대들이 오고 저쪽에서 학익동, 인천 애들은 저 학익동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신발을 한 짝을 잃어버려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그 신발 내 신발을, 잊어버린 신발 한 짝을 들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그냥 헤어져 갔고선, 하루 동부경찰서로, 어머니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바로…

임병구 송의동 성당에서, 성모상 앞에서, 아드님과 기도하고 헤어지신 게 5월 3일 날 아침이에요?

김명숙 그 정도 돼갖고 그날 낮에 조바심이 나서 낮에 거기를 나갔더니 또 만난 거죠.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도 석바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궁금증이 나니까 나왔는데 셋이 만난 거예요. 야 야 이 새끼야 니네 엄마가 등짐 지면서 너를 대학교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새끼야 딸 애들은 해도 너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죽으면은 엄마한테는 어떡하라고 그때 소리 하냐고 이리고 그때 헤어지고 서는 얼마 있으니까는 경찰들이 또 잡으러 오고 어찌고 그러더니, 동부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얻어맞아서 얼굴이 형편없죠. 뭐 그때 안 맞았다고 그래도 그냥 얼굴이 엉망진창이라…

임병구 당시에 5월 3일, 그러니까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연행당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잖아요? 아드님이.

김명숙 근데 그날 질로 데모 뜨고 모여서 크게 했잖아요. 크게, 그냥 서울 애들도 내려오고 아주 대단했었어요. 별걱 뒤집혔어요. 근데 애들 하나까는, 시민들도 애들 편에 서서 군인들이 함부로 하면 애들 다칠까 봐 막 막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임병구 그날 5월 3일 날, 어머니 신발을 아드님이 들고 만난 다음에 한참 동안 못 보셨죠? 그리고 나서 동부경찰서에서 면회를 하셨잖아요. 그럼 면회 당시에 매를 맞았던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에 아드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기억나세요?

김명숙 없는 셈 잡고 그냥 폭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디 상명이 뭐 애네들은 그냥 막 저한테 애는 그냥 자기가 다 뭐 뒤집어 썼나 봐요. 화염병도 안 던지고 내가 그래서 화염병도 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민정당 방화범으로 애가 찍혔잖아요. 그런데 너 화염병도 안 들고 그랬는데 웬 그러니까 애가 다 뒤집어 쓰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상명이 어머니는 욕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용주는 똑똑하게 얘기도 잘하는데, 내가 아 똑똑하게 이야기 잘해도 어머니 아들은 얘기 못해도 다 풀리고 우리 아들만 저렇게 안동, 인제, 강원도로 보낸다잖아요. 그랬더니 교도관들이 아유 어머니 용주는 그냥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용주도 쉬어야지 되니까 이제 안동인지 강원도로 발령이 났나 봐요. 용주가 이거 재판 끝나면 글로 갈 판인지, 어머니 빨리빨리 강원도 또 이제 교도관들도 애가 성질 있고 싸움 하면 또 거기서 얻어맞을까 봐. 어머니 강원도 줘요, 그러면서

차비를 주시더라고요. 용주 면회 가라고. 교도관 아저씨들이
가서 면회하고 오시라고, 계속…

임병구 그 당시에 민정당사 방화범으로 몰렸고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김명숙 빨갱이 간첩, 뭐 그러고 난리였죠. 성진이, 꼭 성진이하고 얘하
고 이제 같은 학교 아니에요? 인하대 김성진이. 그리고 이제
상명이도 저긴데 꼭 애네들은 빠지고 용주만 다 얹어매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서울에서 오셔갖고 용주는 틀렸
다. 아무래도 애 뒤집어쓴 것 같다. 언니 뒤집어쓰나 마나 거
기 가서 고생하니까 그냥 폭 있다가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
아. 내가 그래서 하도 고생하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밥 세 끼
는 주겠지, 언니 거기서 죽이겠어 그러고 서울 언니도 그냥 안
됐어서 애는 못 나오겠다. 이제 재판 끝나면 언니가. 우리 형부
가 지 에미가 등골 빠지게 등짐 찌서 대학교 공부시키는데 이
지랄 하고.

그때도 이제 언니네 아들하고 우리 용주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리고 수원대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했지, 아버
지 듣는데 우리 조카가.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했죠. 내
가 잘못하고 용주가 부럽다고 이래요. 그 재판 끝나고 나오면
서 그 조카 얘기가 내가 용주 보기 창피하고 용주가 부럽다 그
러면서 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새끼야 너도 데모한다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하는 게 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
데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부럽고 미안하다고.

임병구 당시 형사들이 아드님을 향해서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얘

기할 때, 그때 믿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때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김명숙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 새끼들아 우리가 피란민이고 빨갱이 싫어서 이북에선 다 재산도 버리고 나왔는데 어디서 빨갱이가, 어디 한 나라 한민족이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이 새끼들아. 내가 이북하고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또 애네들도 또 갈라놓냐고 막 그랬어요. 형사들한테. 이 나라가 빨리 합쳐서 통일을 할 생각하지 이렇게 어머들이 응, 등골 빠지게 어머들이 정성들여서 길러놓은 게 빨갱이면은 김일성만 좋겠다. 저절로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경찰들이 보면 날 보고 저 욕쟁이 엄마 온다고 숨더라고요. 날 보면 저 욕쟁이 온다고 그러고 숨고. 막 욕했어요 내가. 이 새끼들 빨갱이가 어딴어, 이 새끼들아 빨갱이가.

임병구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장면들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김명숙 생생하죠. 막 다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한 것도 다 자기가 했다는 걸. 딴 애들은 다 나왔잖아요. 애는 그냥 안동인가 글로 가서 10년 있었잖아요. 5년, 5년. 그렇게 눈에 보여요. 내가 무식한데도,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애네들은 풀어주고 내가 뒤집어쓰고 들어갈 판이구나.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고생하고 먹지 않고 다니니까. 아 정말 최류탄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데모만 그래서 내가 아이 하나님 이제 성당 다니니까 내 아들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느님이 죽이나 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투정 부리는 거 모냥.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냥 맨날 가슴이 두근 두근 두근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또 잡혀가는 것 같고 어디서 죽는 것 같고. 근데 감옥으로, 교도소로 가니까 그 증세가 가라앉더라고요.

임병구 재판 과정에서 아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다 뭐 이렇게 진술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김명숙 아주 뭐야, 이를 갈더라고요, 이를 갈아. 대통령이 없고 지네들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힘은 없어도 자네들이 데모하는 거래요. 이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젊어서 사는데 지네들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너 이 새끼야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나 리어카 하나 하고요, 구르마 가지면요, 채소 장사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재판장이 이 새끼야 뭐 먹고 살려니, 지가 그거 해서 먹고 살고 먹을 수 있대요. 그래 이놈의 나라 바로 잡아서 다음 세대가 이런 꼴을 안 보는 거. 아유, 아주 얘기도 잘하더라고요.

임병구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재판을 참관하시면서요.

김명숙 그때는 그래도 아들이 고생하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나쁘게는 안 하고 똑똑한 편에 나쁜 짓은 안 하고, 애가 똑똑한 편에 섰으니까요. 좀 믿음이 꽤 짙은 하죠. 근데 믿음은 가요. 니네들이 그래도 뭐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기꺼이 니네들이 가고 싶으면 해야지. 거기선 표현은 안 해도 내 마음에서 그게 웅크려지더라고 이렇게. 그거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지네들 뜻이 그런 거.

임병구 5.3항쟁 이후에 아드님이 구속 수감되셨다가 그 다음해 1989

년에 인천 민주청년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또 구속이 되
시거든요. 혹시 민주청년회 활동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김명숙 그럼요. 거기 사무실에 맨날 먹을 거 해다 주고 가 가서 있다
오고 그런 걸 그냥. 거기 저기 주안 제일시장 앞에 거기 2층,
근데 애들이 또 가서 그렇게 하니깐 맨날 먹을 것도 싸 들고
다니고 불러서 먹이고 그랬어요. 저기 서울 유가협도 그냥 뒤
져서 가져다 어머니들 대접하고.

임병구 민주청년회 활동했던 선배들이나 동료들 이름은 기억나세요?

김명숙 상욱이, 영원이 참 착해요. 거기 인하텐데 상욱이.

임병구 한상욱?

김명숙 예 참 착해요. 그 형이 거기 또 색시가 미숙인지, 한상욱이 그
형 처가 미숙인지, 그래 하여튼 다 착해요. 엄청 착해요.

김명숙 그리고 운동권에 애들은 뭐 많이 알았죠. 거기 사무실에 나가
서 많이 있고. 또 어머니들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는 와서 해주고 싶어서 가끔 같이 오셔서 도와도 주고.

김명숙 누구야 그 이름이 뱅뱅, 그 누나도 엄청 애썼어.

임병구 인하대 학보사 기자들하고 만나서 인터뷰 하셨던 건 혹시 기
억이 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그전에 기자분 그 양반이 많이 저거 하셨는데...

임병구 그 기자분은 한겨레 신문 김영환 기자, 그럼 김영환 기자하고
만나셨던 기억은...

김명숙 그 양반이 많이 저기 하시고 신문도 내주고 그러셨어요.

임병구 한겨레 신문에 기사로 나기도 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김명숙 그 양반이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고 싶어서 오신다고 이걸 다 알아야지 되니까 알려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양반이.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댄 어머니들도 알아갖고 어머니 같은 양반이 많이 나와야지, 어머니도 덜 고생하시고 애들이 많이 고생을 덜 하니까 알려야지 된다고. 그 얘기를 그 기자님이 많이 하셨어요.

임병구 제가 한 달 전에 인하대 김영규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김영규 교수님이 이용주, 국가보안법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험지를 들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생각은 나세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김명숙 그럼요. 그렇게 고마우시죠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는, 내가 홀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들이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개 한 마리를 잡아 갖고, (웃음) 산에 가서 잡수셔야, 왜 어머니들도 같이 잡숫지 개 한 마리, 그 전에는 이렇잖아요. 근데 못 잡숫더라고요. 이 양반이. 애들도 걸리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애들 영치금 넣어주지. 근데 한 반 그릇이나 잡숫까 말까 그러고. 그때가 마지막이지. 하여튼 애들이라면 발 벗고 나서 주시고. 근데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용주야 내가 죽기 전에 그 교수님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외삼촌이래나 인하대 총학생 재교가...

임병구 정재교요?

김명숙 엄마가 그 재교 아시죠? 그래서 거기 총학 갈 때 있냐 면회 끝

나면 거기 송림동 지선이 아니면 인하대 가면 개네들이 그렇게 잘해줘서. 그때만 해도 이런 데서는 싫어했죠. 빨갱이 간첩 이리니까 친척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면회 끝나면 가는 데가 인하대, 그렇지 않으면 지선이 그 저기 송림동 나눔의 집, 거기 거기 많이 갔고. 또 일꾼 교회에 있었어요. 저 화수동 거기 세 군데 그렇게 갔죠. 싫어하지 뭐, 그 신부님은 아주 싫어했어.

임병구 그렇게 해서 아드님이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면회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다른 가족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김명숙 만나고 애들이 형편없잖아요. 시골서 온 애들요. 피가 철철 나고 내복도 없고 맨발로 들어오고 자다가 무조건 내려와서. 그러면 또 그 교도관들이 수험번호 적어주고 이름도 적어줘요. 어머니 애네들이 지금 속옷 바람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 교도관 교도소 앞에 그 부인들이 그 교도관 부인들이 그걸 하시는데 내가 막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애들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요, 내복.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그 양반들이 무조건 주셔요. 외상. 안 그러면 영수증만, 신부님들이 그러면 이거 힘드니까 그전에 내가 벌어서 갚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월급 해서 주시면 거기다가 영수증 떼면 그렇게 해서 주고 뭐 아주 별거 다 해. 내가 한 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화성식당, 거기 교도소 앞에 식당도 있었는데 거기도 그 학익동 식당 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아우 용주 엄마 너무 힘드니까는 내가 외상 드릴 테니까는 신부님 영수증 이거 해갖고 내가 영수증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신부

님한테 해서 해야지 이거 쓰러진다고 큰일 난다고. 밤에 또 밤 일 나갔었거든요. 내가 그거 벌어서 갚느라고 그래갖고 몇 번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냥 심하게 어서…

임병구 어머니 한 50분 가량 말씀하셨는데 잠시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셔도 되겠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명숙 아니… 얘기할까요?

임병구 인천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만드시고 회장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시게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들려주세요.

김명숙 호인수 신부님이 주안역 그 뒤에 계실 때요. 성당, 글로 모였어요. 근데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회장직을. 아 근데 어머니들이 다 나만 찍은 거야 그랬는데 내가 짜고 하는 거 같아서 저기 했더니 나중에서야 다들 조금 하고 나오고 용주가 제일 많은 형을 갖고. 천상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천상 어머니가 마리아냐, 왜 마리아냐, 어머니가 본명 받을 때에 이런 거 하시라고 성모님도 예수님이 저기 하시는 거 그거하고 다를 바 없다고. 호인수,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시고 거기서 이제 거기 성당서부터 이제 회장직이 된 거예요. 어쩔 그렇게 표가 다 나한테로만 표를 줘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어머니들이 다들 나오면 용주는 제일 많이 가고 또 할 사람은 이제 동범이 어머니 아세요? 김동범…

임병구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명숙 그 성대인데 그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시고 사위도 선생님 딸도 선생님. 근데 어머니가 학교도 그만두시고 그때 아들 그러

고선 저기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한테 얘기하는 거 써서 보시는데 나는 글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슬슬 하는데 글은 더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이렇게 못 읽으시겠더라고요 떨어져. 근데 나는 나 안 본다고 그냥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때 소사 본당 거기 가 갖고서 그거 신부님이 좀 알리고 싶어서 날 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거 이런 거 대본 없이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또 형사들이 잡아갈까 봐 옷을 빨 건 옷을 입고 간 거를 이제 검은 옷으로 바꿔서 가방에다 넣고, 날 잡으려고 나 경찰들이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옷이 하나 까 어머니들이 포위를 해갖고 전철역까지 날 태워줬어요. 경찰들이 날 잡아가려고 우리 대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잠이 들어 있어 아니 언제 오셨죠?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오세요 주무셔서 내가 얼른 들어왔지. 그랬더니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가 이러면 밥줄이 끊어지는데 우리 아들도 대학교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어머니 우리 아들도 인하대 나왔는데 나 큰일, 나 어머니 보면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 형사들 아들이 인하대 나왔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 데모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임병구 구속자 가족협의회는 당시에 몇 분 정도나 모이셨던 걸로 기억 나세요?

김명숙 그때 많았어요. 좀 많았어요. 구속자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얘기만 하면은요. 어머니 아버지 다 나오셔서 내가 어머니 좀 모여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숫자가 모자

르면 초라하고 저놈들이 업신여기니까는 우리가 많아야, 그러면 어머니들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 또 친척들도 데리고 나오서. 어떤 집은 여섯 다섯 데리고 나와요. 진짜. 그렇게 그래서 모임 저기할 때 자꾸 우리가 몽치니까는 전경들도 떨어져 나가고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터치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임병구 당시 1986년에는 5.3 구속자 가족협의회로 시작을 하셨고 1986년 그해에 인천 구속자 가족협의회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5.3 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 모이셨고 그다음에는 그 당시에 워낙 구속자가 많았으니까 다른 구속자 가족들까지 많이 모이신 건데 혹시 그 과정에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죠? 그런 거 들려주시죠.

김명숙 인천대 아버님이 참 훌륭하셔서, 잘 생기시고 지식도 많으신데, 맨날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셔갖고 숨을 안 쉬셨는데 내가 막 엉엉 울었죠.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날 꼬집으시대요. 내가 피부리는 거니까는 혼자만 알고 있고 저 새끼들 하도 어머니들한테 구두발로 함부로 해서 내가 죽은 척하고 쇼 해요. 이 양반이 하도 이 새끼들이 심하게 하니까 그 아버님이 진짜 쇼 몇 번 부리니까 이 새끼들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막 뿌리고 지랄하고 그냥 흐트러뜨리더니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셔갖고 그때 진짜 그러고 나더니 병이 오셔서. 자꾸 쓰러지시는 병이 오셨어요.

임병구 당시에 사무실이 송의동에 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명숙 사무실이 승의동이 아니고 제일병원 앞에 저기, 거기에서 있었는데…

임병구 제일병원 앞이요? 그러면 제일시장 근처요?

김명숙 예 거지요

임병구 거기가 사무실이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댁에서도 모임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승의동이 그때 댁이셨죠?

김명숙 저기하면은 식사 대접 그런 걸 자꾸 돈으로 많이 하니까는 집에서 많이 하고, 저기 교도소 앞에 그 성당 다니는 자매가요 많이 밥값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저기하다시피 하고서 영수증만 해다가 드리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일일이 시골서 오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시장하셔요. 그러니까 면회하시고서는 그냥 가시면 또 차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강원도 어머니는 차에서 돌아가신 양반도 계셨어. 강원도 어머니. 그 양반도 열심히 했는데…

임병구 아까 한겨레 신문 김영환 기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992년 1월 6일, 승의동 302번지, 구속자 가족 협의회 사무실 당시 52세 김명숙 회장, 윤석양 어머니 양심선 언 후 탈영한 의경들, 옥중 결혼 후 출소한 박종민 부부, 대우 자동차 구속자 가족들 모여서 떡만두국 모임을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떡만두국 끓여서 대접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배고픈 시절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아마 새해 인사 겸 서로 간에 떡국을 드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들

려주세요.

김명숙 성당에 다니니까 자매들이 우리 저기 그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모이면 내가 이만 이만 해서 하면 와서 들 도와줘서 그렇게 같이들 식사 대접하고. 이 양반들도 그런 거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니까는 너무 놀라시는 거죠, 놀라시는 거지. 그렇게 자식들 감옥에 버리고 어머니들이 길로 해 갖고 다니는 그런 걸 저기하니까 놀라시는 거야. 아주 깜짝 놀라고. 그때 한번, 영등포 교도소장 기셨어요. 영등포. 근데 그 양반이 자꾸 우리를 초대를 하고 싶어 하셔서 갔어요. 거기 그 집에. 그랬더니 완전히 잔칫상을 해놓으시고,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우리 대접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도 또 유가협 어머님들 이 그거 음식 보니까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조금 먹고 빨리 이거 그 어머니 좀 갖다드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음식을 그냥 잔뜩해서 거기 유가협, 그전에 유가협이 바로 동대문에서 내리면 쭉르르르 올라가면 한식으로, 종철이 보상 나온 걸로 조선 기와집 사놓으셨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음식도 잘 해서 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으로 어디론가 가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는 끊어진 거지. 동대문 거기 있을 적에는 아주 나는 구가협은 안 가고 유가협을 많이 갔었어요. 거기 전태일 어머니가 거기 사셨어요. 그 집에서.

임병구 구속자 가족협의회가 구치소라든가 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님이 철망 친 담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거기 경비하던 분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

들도 떠오르거든요.

김명숙 사진도 찍어봤어요.

임병구 예,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명숙 그때는 난 내가 거기서 그렇게 넘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한참 인데요. 넘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앉으니까는 엄청 저기하게 됐어요. 내가…

임병구 높은 담이었습시다.

김명숙 이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딱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막 와서 슬펐지만 내가 그냥 아이고 미친 엄마지, 이게 성한 엄마가 아니구나. 내가 근데 또 미칠 수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이제 밤에 또 나와 갖고 나무 위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나무를 못 타요. 근데 나는 나무도 막 올라갔어요. 나무도. 거기서 막 애들 애들이 보초 서고 다 여기 사니까. 아무개야 그러면 이제 아무개 그러고 어머니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시끄럽다고 그러지도 않아. 거기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막 소리 질러주고 그래요. 우리 아유 어머니들 가슴 아프서, 우리도 할게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같이 도와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어머니 그러다가 어디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날 보셔서 진정 좀 하시고요. 이제 제발 좀 다치실까 봐 걱정이예요. 그래서 다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날은 추워지는데 애들은 여기다가 꼭꼭 묶어 놔죠. 용주는 독방이네, 독방에다가 개밥인지 뭐 준다고 난리들이 났는데, 묶어놓고 개밥을 준대 잤어요. 저기 애들은 안 하는데, 나온 애들이 막 가르

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빨리 풀어주라고, 내가 다들 그래갖고 또 그것도 그렇게 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애들이 고통, 이렇게 해서 그거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한번 그것도 풀르게 하고 아주…

임병구 당시에 교도소나 구치소 앞에 가면 전경들이 방패 들고 이렇게 가로막고 심지어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한테 발길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싸움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김명숙 6.25 때 우리 삼촌들 그런 일도 겪고 또 아버지도 억울하게 겪었고 그런 게 겹쳐서 내가 깨우쳐진 것 같아요. 이걸 있을 수도 없는 저기고 멀쩡한 사람, 지네들이 저기 하면 더 지체가 높으면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체 높다고 휘두르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내가 빨갱이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 빨갱이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빨갱이들도 내가 여기서 이 지랄을 하는데, 이복하고 평화 되기는 틀렸다고 내가 많이 그랬었어요. 여기도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등골 빠지게 공부시킨 걸 타이르고 좋은 길로 해야지, 이렇게 애들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임병구 당시 인천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전국의 교도소를 많이 다니셨는데 안동교도소에 다녀오신 것도 있고 부산에도 다녀오신 것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그중에서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누가 출소할 때 있었다든가, 그런 장면들이요.

김명숙 그때 부산을 갔는데 거기서 체육 선생님, 이제 성당에 갔어요. 밤에 어두워서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웬 젊은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를 딱, 나 손을 잡더니 우리 집에 가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강원도 체육 선생님이래요. 그러더니 막 목욕을, 물을 데우고, 그냥 미역국을 고기국 끓여놓고 밥을 하고, 이 양반이 성당 무슨 회장인가, 뭐 저기 행사가 있는 날인데 어머니 실컨 잡수세요. 실컨 잡수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밥 먹고 자고 그랬더니, 돈을 이웃에 어려운 사람 주려고 20만 원을 준비했대요. 2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자기네가 그때 성탄이 다가올 무렵이거든요. 그렇다고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가서 그러는 걸 나는 이제 용주는 안동으로 와야지 되고, 성진이는, 그래서 성진이한테로 다 넣어주고 용주는 그냥 돈 나는 게. 내가 야 형은 면회 올 사람도 없고 너도 저한테 형을 넣어주고, 아유 어머니 나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기서 밥 다 먹고 잘 오셨어요. 형이 아무도 없잖아요. 식구가 그렇게 그래갖고서는 그 형이 아주 그냥 형이 있긴 있는데 면회들도 안 오고 그냥 아주 버린 자식, 뭐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아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우리 각자예요. 각자. 또 이려고 성진이한테, 내가 아 내가 그때 부산 갔을 때 생각나네.

임병구 서울에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유가족협의회 또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당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실 때니까, 그때 서울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김명숙 거기도 올라가면은 그 일본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 지금은 할

머니지만 그때는 어머니셨어요. 그 양반들 진짜 억울하게 왜 그렇게 보상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바본지, 억울하잖아요. 그 거 빨리빨리 저기 해서 대통령을 잘 만나야지 되는 건데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그 양반만 보면 이게 또 치미는거야. 그 할머니들 보면.

임병구 그럼 위안부 수요 시위, 수요 집회 이런 데도 가셨던 거네요.

김명숙 갔죠. 종철이 아버지, 한열이 아버지도 그런데 다 같이, 인천에도 엄청 오셨어요. 한열이 엄마.

임병구 배은심 어머님이요?

김명숙 예. 전태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그냥 구속자 년들 싸움 질하고 그러는데 용주 엄마 보니까는 이제 다리 뺀고 죽어도 돼 자꾸 그러시더라구. 그래 아유 어머니 더 살으셔야죠. 맨 날 씹질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서울은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 돈 집어주는데 우리는 뭐 난 기껏해야 누구한테 국회의원은 이원복이라고, 저 만수동에. 그 양반이 한나라당인데도 일부러 그 애들 영치금 그런 거 넣고 싶어서 그런 거 당을 저기 하시지 말고 나는 뜻이 있어서 해주고 싶으니까는, 어머니 우리 한나라당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거기 그 이원복 그 양반도 엄청 도와줬어요. 이 저기 애들.

임병구 그 당시에 이원복 의원이 국회의원이 당시에 많이 도움을 주신 거네요.

김명숙 우리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막 그러셔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당을 떠나서 애네들을 잘 저기해야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 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고 그냥 오면은...

임병구 조금 전에 구가협, 민가협 어머니들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생겨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생각이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그 민석이 어머니가 일본에서 공부 많이 하고 유학, 일본 말도 잘하고 그 양반이 공부 많이 하신 양반이예요. 그래갖고서 남영역 아셔서 그 옆에다가 또 기와집을 조선 기와집 사놓고 했는데 그래도 글로 가요 누가, 일로 저기 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신철이 어머니 똥똥한 양반이 있어, 네 파가 세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천은요. 우리 인천은 이제 인하대를 중심으로 성신대는 여자들도 별로 안 오지만 인천대, 푹푹 뭉쳐서 우리는 엄청 사이가 좋아 집안 모냥 지내고 형제 모냥 지내지 싸움을 어떻게 해봐 싸움 안 해요. 거기는 그냥 만나면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지식도 많고 그러신데 그냥 넘어가지지 여기다 집을 하면 자꾸 갈라지지, 몇 갈래가 되냐고 말이야. 두 갈래서 또 세 갈래 되면 그러면 누가 다 해 먹냐고 막 그랬더니 그 양반이 집 팔고 정리를 하더라고. 그 민석이 어머니. 그 엄마 때문에 많이 저기 됐잖아. 그 어머니가 그냥 너무 똑똑해 갖고...

임병구 인천이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역할을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명숙 인천 저기들은 내가 말 한마디면은요, 어머니 오늘은 꼭 나와 주세요 그러면 아주 진짜 나오시고 아버님들도 아유 그러면 용주어머니,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너무 고마우시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으셨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지. 그 호인수 신부님도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저기 일꾼 교회 거기도 목사님, 화수동에 일꾼 교회 있어 그 양반도 아주 참...

임병구 그러면 구속자 가족협의회 활동하는데 가톨릭 신부님들이나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도움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꼭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명숙 다 대부분 좋으셔. 그리고 우리 박찬용 신부님은 막 이제 우리 본당에 계실 때에 날 나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톨릭 회관에 내가 600만 원 모금을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그 박찬용 신부님, 나 성당에 못 나오게 한 신부님(웃음)이, 그 600만 원을 나를 주 그걸 내가 영수증을 드렸더니 신부님이 막 울으셔요. 내가 용서한다고 말아야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고 형사들이 너무 괴롭혀서 내가 못 나오게 한 거야. 아유 아네요, 신부님 괜찮으셔요 그랬더니 거기서 만나 갖고 그 600만 원을. 그런데 그걸 타는 순간에 하나님이 통해서 이렇게 이 신부님이 그걸 보내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냥 마리아, 마리아, 부르시고. 성당 맨 뒤에 있다가 사람 안 보려고 해서 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상 갈 때 저라고 부르시고 나오지 말라니까 나온다고.

임병구 그때도 송의동 본당에 다니셨던 거예요?

김명숙 그럼요. 그래서 이 성당에 안 나오면 아주 큰 일 나는 줄 알고 성당이라도 의지를 하고 다녀야지 어떻게 해. 또 유흥업소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주방장, 올림포스 가서도 한 5년 있었고

그렇게 밤에 직장생활도 했어요. 직장생활 유흥업소 가서 음식하고 다. 올림포스 가셔도 한 5년 있었고.

임병구 당시 호인수 신부님은 말씀하셨는데, 호인수 신부님 외에도 도움을 주시는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성함도 기억나시죠?

김명숙 오용호 신부님, 저기 소사 그 신부님도 키도 크고 잘생기셔서 안경 쓰시고 그 양반은 일부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때 사십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거 애들이 하는데 이렇게 고생, 들으셨나 봐요. 자꾸 어머니들 그렇다고 그거 봉투에다 넣어 주셔서 애들 다 갖다 영치금 넣어주고, 교도관들도 애들 양말이고 내복이고 없으면 개네들 이름, 수인번호 다 적어 갖고 주셔요. 어머니 애네들 좀 신경 써주시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교도관 앞에 외상으로 주면은 그거 받았다가 영수증 해서 갖다 주면 신부님들이 다 결제해 주셨어요.

임병구 당시 가톨릭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도 사회활동을 했고 인천에서는 수요 사제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재정적 도움을 꽤 주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개인적인 지원도 받으셨지만 사제단에서도 아마 도와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그렇게 모금한 걸 어머니께서는 꼼꼼하게 장부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누구에게 얼마 영치금 넣어줬다 누구에게 담요 넣어줬다...

김명숙 수배자, 수배자, 참 돈으로 봉투에다 10만 원씩 넣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하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럼 그 구원이라고 있어요. 구원이 개는 복은 많아요.

임병구 강구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예예. 그 구원이네요. 그 돈을 내가 주려고 가방에다 넣으면 꼭 만나요. 거기서. 구원이, 그래갖고선 아버지가 간암 들어서서 이러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우리 집 양반도 간암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편찮으시니까 그거 얼마나 수배 생활하면서 아버지 걱정이 되겠어요. 자식이. 그래갖고 내가 용주한테 가끔 구원이 형은 복이 많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건네나 그러면 인하대 한 바퀴 돌면 형 꼭 만나서. 그래도 직접 주면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느님이 아르켜 주셔서 만나게 해준다...

임병구 학생들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당시 노동 현장에서 싸움하다가 수배되거나 구속되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나시죠.

김명숙 그 엄마들, 대우 엄마들. 허면 의지가 되니까는 오는 거예요. 나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어머니 어머니하고.

임병구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등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하는 싸움을 했을 때 그때 학생들 밥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기억나세요? 석바위에 남동생 분 집에 학생들 굉장히 많이 몰려가서 어머님 밥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김명숙 우리 남동생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갖고요 기르다시피 했어요. 누나가 둘에다가 내가 둘째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착한데 아주 각쟁이에요. 우리 언니는. 우리 여동생은 주변머리는 없는데 나는 뭐든지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네가 다 다 갖다줬지 그렇게 꾸중하셔도 집에 먹을 거나 뭐 있으면 다 주고

싶어서, 주고 그래야지 내가 편안해요. 어머니가 시루떡, 이전에는 고사떡, 빨간 팔 넣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가서 노인네들 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그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 이거 쉬니까는 잘 갔다 드렸다, 잘 갔다 드렸다.

임병구 인하대 뒤에서 잠깐 식당 일을 하셨어요. 그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서 공짜 밥도 먹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때 기억나시는 장면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김명숙 그때는 오동진이 아세요?

임병구 서울에서 노동운동 하던 선배요?

김명숙 오동진이가 그걸 맡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운동을 하면은 하지 니가 이거 애들 다 퍼 먹이면은 전세금도 날리고 다 날려. 그래 갖고서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용주 선배가. 그 사람은 운동권은 아닌데 여자가 착실해요. 그래갖고 거기 내가 돈 안 받고 나는 저녁 때 나가서 돈 벌고 낮에 점심 반찬 그런 거 다 준비해 주고 거기 도와줬던 거죠. 그래갖고 거기가 엄청 잘 됐어요. 그 식당이. 간판도 어머니 식당이라고, 주인이 간판을 아주 해 달았어. 어머니 식당으로. 그래갖고 아침 시간에 음식 그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점심 바쁠 때 가서 해 주고, 데모하면 또 데모하러 나오고. 그때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임병구 그때는 음식 솜씨도 좋으셨지만 워낙 손이 크셔서 육개장을 끓여오시면 들통으로 하나씩 끓여오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기억나시죠?

김명숙 아깝지도 않고 자꾸 주고만 싶은 걸, 그렇게 해갖고 서울까지 가져 갔어요. 다 이렇게 버무리고 물만 부어 서울 가서 끓이고 그런 게 아깝지가 않아 나는 잡숫고 먹이고 그러는 게, 그렇게 배고파하니까는. 인하대 애들도 단식하는데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긴 우리 옆집 아저씨가 승용차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루에다가, 밥을 시루에다가 그걸 찌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임병구 양이 많으니까요.

김명숙 그리고 신창현이 어머니가 명동 거기 만듯집 했거든요. 석바 위에서. 용주 친구 어머니네가 크게 분식집 했어요.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유 어머니 애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밥을 찌웠는데 육개장 좀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육개장 들 통해서 거기 넣고 애들이 그릇까지 쓰라고 그러더니, 맨날 이런 거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연락하라고. 신창현이 엄마도 착하거든요. 그러더니 그날 이렇게 힘든 거 하는 거 몰랐는데 그리고 불러서 좋은 거 사왔더라고요. 용주 엄마 나 남편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남편 없이 애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옷도리를 이거 입고 다니라고, 옷을 내가 그냥 뭐 모양만 그냥 아무거나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이쁜 브라우스 하나 사다가 주시고…

임병구 구속자들만 지원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교육 운동하시던 분들, 나중에는 참교육학부모회 활동도 같이 하셨던 걸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김명숙 그때 노미화 선생님이 저거 바자회를 하셨거든요. 바자회요. 그래서 음식을 내 음식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생선이 그전에 이런 생선이 나와서 그걸 으깨서 두부 야채 넣고서 튀기면 구이가 이만큼이 돼. 근데 노미화 선생님이 해놓으신 거는 아유 이거는 어머니 나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이것밖에 안 나왔어.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그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그전에는 뭐 가스불인가, 석유곤로 썼죠. 우리 집에 석유곤로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해서 가져갈 테니까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해. 그랬더니 이려고 있어. 나중에 어머니는 요술 손이라 물고기 뭐 해서 한 광주리 하신 그거 생각난대요. 이제 성경책에...

임병구 성경의 기적이 떠오르신다고요?

김명숙 나는 암만 해도 양이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똑같은 물량인데 어쩔 이렇게 많아요?

임병구 그리고 또 연세대 학생이 시위하다가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던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김명숙 병원에 가서 있었죠. 병원에. 그래서 그 어머니 어머니 하는데 어머니 아니야 이럴 수도 없잖아요. 지네 엄만 줄 알고. 내가 손을 꼭 잡고 엄마 왔어 왔어 자꾸 소리 들려주고.

임병구 그때도 모금해서 병원비도 지원해 주셨나요?

김명숙 그렇게 신부님들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돈 있는 엄마들은요 그럴 때는 써요. 어머니들도 애들 그렇게 힘들 때는 그래도...

임병구 사노맹 활동했던 윤태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억나시죠?

김명숙 윤태경?, 윤태경이 편지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임병구 혹시 윤탈태경은 어떻게 지원하셨는지도 기억나세요?

김명숙 자기는 어머니같이 이런 어머니를 처음 뵈서 제가 어머니 같았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한 번 꼭 찾아온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와줘, 말만 해도 고맙지.

임병구 당시 교도소에 있던 학생들이나 노동운동가들이 어머니께 감사 인사 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윤탈태경의 편지가 기억나시는 거죠

김명숙 대우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따랐죠. 대우...

임병구 네.

김명숙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고, 애들은 업고 걸리고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저기 근데 또 성당에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왜정 때 그 양반도 이렇게 뜻이 있는 양반이에요. 그 연안부두에 사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새벽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깨면 오셔요. 택시 타고 오시고 교도소도, 또 그렇게 그런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근데 그 양반 돌아가실 때 똥오줌 수발, 다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다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 우리 어려울 때 이 양반이 도와주셨는데 어떤 때는 형편 없이 해놓고 그러면 다 씻겨드리고 해서 놓고, 이렇게 그 양반도 엄청 애를 쓰셨는데.

임병구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그래도 있으세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실 때 그때 가서서 같이 환영해주시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추억 얘기 있으면 들려주시죠.

김명숙 그 양반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같았어요. 우리 친할아버지. 문익환 목사님 막내 아들이 참 목사님이에요. 인천대도 무슨 저기 하면 얘기하면 오셔서 인천대, 강론해 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애들이 인하대는 그래도 모이는데 인천대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다녀가시고는 아주 푹 푹 몽치고 애들이 그래도 저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통돼지 있잖아요. 통돼지를 이렇게 해 갖고서 돌려서 귀서 먹이고 내가 그거 끝날 때까지 거기 쭉그리고 애들 먹이는 게 좋아서 인천대요, 그런 것도 다 했어요. 그냥 애들 막걸리하고 통돼지 구워서 먹이니까는 애들이 얼마나 잘들 먹는지. 내가 엇저께도 용주한테, 야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랬더니. 나는 그거는 아주, 영화, 우리 애들이 이거 영화를 하면 좋겠네. 영화, 영화는 무슨 영화야 내가….

임병구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김지선 대표님, 이런 분들에 대한 기억도 갖고 계시죠? 그런 분들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김명숙 그 회장님은요 엄청 훌륭하셨어요. 그 지선이, 그 회장님이요. 우리 갈 때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거기 가요. 우리 가. 가면 어머니 어머니 아무 때나 오세요. 여기는 어머니들 좋아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그래 거기 많이 가고 엄청 또 챙기고요. 왜 우리 그 회장님이 엄청 챙기셨어요.

임병구 그리고 미처 다 말씀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옛날 같이 활동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김명숙 그때 애들이, 여학생들이 셋인데 석유 뿌리를 끼었었는지 어쨌

는지 아주 덴둥이가 돼서 중앙 중앙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만 내고서 거기를 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때 또 일이 자꾸 터지니까. 그러자 어머니들이 또 오셨으니까 데려갔는데 그냥 그 상처가 좀 어떤가 그게 지금도 남아요 상처가. 아물었나 상처는 안 됐나? 그거 아실걸요?

임병구 화재 사건이요?

김명숙 중앙병원에 애들 3명이 다 이렇게 덴둥이가 돼 갖고.

임병구 그동안에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서 옛날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 주시겠어요.

김명숙 나는 빨리 통일이 돼 갖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우리 아버님이 맨날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친정. 이북에는 엄청 자원이 많대요. 저기 금 그런 게 많대요, 땅 저기에 근데 그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데 그걸 원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정아버님 통일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꼽는 나라인데, 이놈 그때 김일성이놈이, 우리 아버님은 그냥 그 돼지 같은 놈이 통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더니 또 이승만이는 창녀 데려다 산다고 또 이승만이가 저기 외국 여자하고 살았잖아요. 또 그렇게 불만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나라 걱정을 많이 많이 하셨죠.

임병구 지금도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또 없으세요.

김명숙 개인들이 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갈 길에

서 편안하게 해주게끔 이렇게 하고 정치 싸움들 하지 않고, 감투 싸움들 하지 않고 후손들이 편안하게 하려면 정치인들이 잘하고 또 집안에서도 부모가 물론 자식을 어루만지고 하겠지만서도, 만약에 잘못해도 자식을 내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청소년들이 방랑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그런 게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냐하면 유흥업소에 내가 다녀서 웨이터들을 많이 길러냈거든요. 유흥업소 싸롱 이런 쪽에 내가 한 30년 다녔어요. 그런 직장은 노는 것 같아도 새벽 4시면 나오고 저녁 다섯 시면 들어가서 일하고, 웨이터 애들도 잘 하고 그러면 나쁘다고 그래도 잘 이렇게 하면 착해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뭐 소를 훔쳐 갖고 두 놈이다 소를 그냥 훔쳐 갖고 온 걸 해 갖고, 무슨 때면 돈 부지런히 모아 갖고 좀 부쳐드려 그러면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애네들이 집에도 못 갔는데 집에 왕래를 하고 그러는 때는 아주 좋고 그렇더라고요.

임병구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김명숙 어머니는 올해 우리 나이로 85살이세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아오신 삶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임병구 고맙습니다.

홍미영



- 1955년 9월 10일 서울 출생 (현재 69세)
- 1978년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 1984년 인천 만석동으로 이사. 큰물공부방 개소
- 1986년 십정동 해님공부방 개소
- 1991년 부평구의회 의원 당선(지방자치제 초대 구의원, 40명 중 여성 1인)
- 1995년 인천광역시 의원 당선(재임, 첫 여성 시의원)
- 2004년 국회의원(17대 비례, 인천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 2010년 부평구청장(재임)
- 2022년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박사
- 현재 한국여성정의당 사무총장

일 시 2024.10.23.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임병구
대 담 자 홍미영

홍미영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북민 출신 부모 아래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경기여고·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생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당시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교회를 통해 기독교 사회운동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간사로 빈민여성 실태를 조사하며 여성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여성평우회 간사로서 빈민 활동과 여성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대표적 빈민지역인 만석동으로 이주했고 공부방선생님으로 활동하며 철거 반대 투쟁을 펼쳤습니다. 만석동이 철거되면서 노동자 밀집주거지역인 십정동으로 옮겨 해남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로 운동 영역을 넓혀 나갔고 지역운동이 기반이 되어 부활된 지방자치제 첫 선거에서 부평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학교급식운동을 하며 시의원이 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도했고 부평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와 인천여성의전화를 창립해 여성운동이 인천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임병구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오후 3시입니다. 여전히 바쁜신 홍미영 선생님과 함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선생님은 여성 운동, 빈민 운동, 지역 생활 정치 그리고 의정 활동, 구청장, 다양한 역정을 거쳐오신 인천의 살아있는 여성 운동가십니다. 이제 첫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대학교에 입학하시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그 당시 소회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미영 제가 서울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물론 초등학교도 이리

저리 옹기고 다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두 분 다 내려 오셔서 어렵게 가정을 꾸리시다 보니 셋방살이하느라고 아현 동에도 살다 그랬는데 두 분의 열심히 사시는 목적은 자식들 만큼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자신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하셨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지막에 서울 남산초등학교를 보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예선 특A 였어요. 근데 물론 그 주변 남산 밑에 좀 어려운 사람도 살고 필동 이런 쪽엔 잘 사는 사람도 살았지만, 남산초등학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중에 저한테서 남는 거는 남산을 바라보면서 남산에 특히 고학년 때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안 타고, 남산 이렇게 바위를 타고 꼭 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친구들과 또는 혼자서 하고 그랬는데 근데 방공호가 많이 있었어요. 남산 으스스한 구석 구석마다 바위 구석마다, 그래서 방공호가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게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6.25 전쟁 끝난 직후에서의 아직 남아있는 상흔이라고 보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남산의 정기를 받았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정기가, 정신적인 정기뿐 아니라 그렇게 산을 타고 다녀서, 지금도 여러 어려운 중에도 건강한 게 그때 시절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추억 내지는 그때 나의 저항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었던 게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그때 과외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였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6학년 때 공부를 아주 그냥 바짝 시켜야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본다 해서 그랬는데

그때 과외를 한다는 것이 야, 이제 자유를 다 잃게 되고 무서운 과외 선생 밑에서 우리가 혼나야 되는구나 해서 그 동네 아이들끼리 과외하기로 했는데 과외하기 며칠 전에, 아마 직전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끼린 동네 애들끼리는 만나서 남산 그 입구에서 올라가는 이제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저 무서운 선생 밑에서 우리 그래야 된대, 그럴 때 내가 먼저 선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보이는 저 서울역 쪽 쫓아가면 철길 따라서 쫓아가면 부산에 가서 월남 갈 수가 있는 가는 배가 있을 거다, 이래서 우리가 그 당시의 어린이들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되는 이거를, 가장 당시의 자신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역 기차길을 그것도 뭐 표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차길만 쫓아가면 부산이 나오지 않겠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월남 가면 그때 월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쟁의 심란한 과정을 주기 전 단계여서 마치 월남 가기만 하면 뭔가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한 특혜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막 선전되고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4명하고 나 하나 하고 같이 철길을 따라서 아침 한 10시에 만나서 오후 4시까지 쫓아서 철길을 따라갔거든요. 배도 고프고 옆에 남자애가 찡징대서 ‘야, 울지 마.’ 이라고 오히려 내가 달래가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서울역 해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길이 빙빙 돌아서 다시 우리가 떠났던 그 지점에 오는 길을 잘못 들어온 거야. 그래서 부모들하고 과외 선생한테 붙잡혀서 혼나고 그리고 6학년올 겨우 하여튼 공부해가면서 중학교 시

험 봤던 건데 그게 저한테는 길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콩나물에 물 주면 잘 자란다고 그랬던 애가 왜 이러냐 그러지만 어려서부터 뭔가 나를 막 조여오는 그런 거를 또 혼자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 게 있던 게 아닌가. 그때 가장 하여튼 청소년 시절에 모든 그 당시의 어린이들이 겪는 또 한편의 단편을 그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랬던 과정을 하나님이 보우하사 어디 납치되거나, 어디 버려지지 않고, 그렇게 경기여중고를 무사히 다니고 거기선 그야말로 공부만 하면서 부모님이 이북 출신의 자수성가하시는 그런 노력을 발휘하셔서 무사히 대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동네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유명했다기보다 동네의 중고등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예수교 장로회 교회여서 신앙 생활하고 잘 훈련시키고 우리 또 청소년들은 교육 일정에 놀이터 삼아서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옥한흠 전도사였고 그 뒤에는 사랑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옥한흠이라고 하는 성함이 독특하니까 성경 외우고 그 성경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론 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 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훈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 옥한흠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어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데 또 그것이 개인의 영혼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에 따라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의 기독교와 청소년기에 기독교가 달라서 그렇지 배

이스는 기본은 거기서 훈련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무사히 고등학교 시절을 잘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임병구 집안 분위기가 꽤 유복하셔서 피아노도 그때 집에 있었고, 또 자가용으로 부모님이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유복한 분이셨는데, 다음에 학교에 가셨을 때 학생운동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미영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우리 연배 또는 조금 아래까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자신의 뿌리가 완전히 없고, 홀몸으로 가진 것도 없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지독하게 애를 쓰신 덕분에 후세대인 저희들한테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자수성가한 그거로 피아노와 자가용과 이런 것들을. 사실 경기여중고에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위가 박근영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딸이 다니고 학교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좋거나 뭐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저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 회현동 그 동네도 물론 저 어려운 사람도 더러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한편에 이렇게 집단으로는 단독주택에서 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다 이렇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리고 또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걸로만 살면 다 그냥 그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우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교에 거의 절반 학생이 대학교를 가서 만났으니 그렇게 대학교에서 학내 분위기에서는 내가 충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죠. 근데 거기서 세월이라는 씨클에 선배가 데리고 가면서 그 씨클에서 첫 번째 봉사활동이 소위 말하면 봉사활동이 중랑천 뚝방 동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겨울 어린이 학교 뭐 이런 거 또는 아이들의 겨울 방학 숙제 지도 뭐 이런 거를 하러 가서 거기서 내가 세상은 내가 살던 세상에서 봤고, 알고 했던 거 그 이상이다 하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게 바로 중랑천 뚝방 동네, 그 밑에 가면은 청계천 뚝방 동네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거기 가서 보니 엄마 아버지들은 막노동이건 근처 작은 공장 가서 일하고 그 추운 겨울에 방에 온기도 별로 없는 그런 냉골 방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없는, 여건도 굉장히 초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거 보고 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사회학과를 선택을 했지만, 사회학과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세상에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누구는 어떤 직업으로 뭐 무슨 어떤 식의 사회적 구조에 의한 이런 거를 안 가르쳐주는, 어쩔 추상적으로 가르쳐줬다고 보면 제가 다닌 그 씨클에서는 제3 세계 경제론이라든가 또 우리의 한국 사회에 남북 분단으로 또는 우리의 그 군사적인 어떤 비중이 너무 높으면서 또는 반공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선배들이 지도하면서 또는 우리 씨클의 지도교수가 이효재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또 한편으로 경험적인 부분은 대학교 1, 2학년

때. 내 전공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선배들, 씨클에서의 지도교수, 분위기, 또 현장학습 이런 게 제가 제대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 뭐 E.H.카의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지식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딸 딸을 대학 보낸 뒤에는 뭐 자랑스럽게 다음에 또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계속하든지 대학원으로, 아니면 또 어느 잘 사는 집에 결혼을 하길 바랐는데 하는 거 보면 수상한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애가 저 농촌 활동 간다고 할 때 보면은 얼굴이 새카매 가지고 아주 뼈쩍 말라서 오고 겨울에는 또 공장 활동한다고 갈 때, 부모한테 물론 공장활동 한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부모님이 바라는 여성상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신경정신과도 끌려가고, 아버지한테 생전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안 맞았던 머리채를 잡힌다든가, 뺨을 맞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부모가 갖는 아픔, 고통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세상이 내가 너무 많이 봤고 또 그걸 모른 채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현장 활동하면서 많이 깨우치게 됐죠

임병구 이대에 들어가셔서 학생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있지만 그 외 또 교회 생활하신 기록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보수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수교 장로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기독교 장로회 성남교회 다니신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럼 기장으로 옮기시게 된 이유, 당시 기장은 또 예장과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데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흥미영 그것도 제 인생에서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74년도 입학하고 75년도에는 유신 정권의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 긴급조치 이러면서 굉장히 엄혹했어요. 많은 선배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많은 고초를 당하는 거에 거의 학내는 또 위수령 이래 가지고 교문을 닫고 막 이랬을 때였는데 그래서 학내에 학생운동이 교회에 그나마 울타리로 옮겨가게 됐고 몇 개의 교회들이 문을 열어주고 품어주는, 그게 우리 중구에 있는 제일교회 우리 박형규 목사님 제일교회라든가 향린교회, 새문안교회, 그런데 마침 제가 선택해서 같이 가게 된 교회가 서울역 앞에 있는 성남교회예요. 기장교회 중에서는 좀 온건하기는 했는데 그때 대학생부에 이해찬이라든가 장상환 선배(나중에 경제학과 교수됨)라든가 좀 기라성 같은 분들이 감옥 갔다가 긴급조치 투옥됐다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 교회 공간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게 마침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남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의원님이 감옥 갔다 나와서 눈빛이 형형하고 굉장히 아는 것도 많지만 또 한편에 그렇게 우리 사회에 몸으로 던져서 희생하고 고생하셨던, 지식은 엄청 많은 그런 분이 우리 대학생부의 공부를 좀 지도해 주는 그리고 거기에 황주석 씨라고 YMCA 주민운동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 이런 쪽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 같이 한 게 KSCF였어요. KSCF의 당시에 서경석 목사님이 단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그 시절

과 다른,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하여튼 KSCF도 그런 현장 활동에 청계천 빈민 지역을 간다든가 거기서 허병섭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서 빈민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김사라 선생님도 거기서 만났나? 뭐 하여튼 KSCF가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기독교 그야말로 사회운동에 그래서 우리가 종로5가 기독교관에서 기도회 열고 투쟁하고 할 때는 거기서 다 모였죠. 그래서 제 믿음이 전환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정치 또는 민주화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에 밀리고 밀려서 거의 마지막이 교회로 밖에는 갈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대가 감리교였고 이대가 또 당시에는 상당히 해방신학의 이론적인 그것들을 잘 설파해 주는, 제가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은 안 다녔어도 우리 이대의 감리교 신학이 갖는 제 사고에서의 한쪽만 보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지평을 많이 열어줬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일 거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부분에 내 역할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네 교회 가면 황인성 씨라든가 당시에 거기도 감옥 갔다가 나오신 선배들, 정말 훌륭하시고, 또 문화팀이 또 제일교회 쪽에선 또 많고 사실 제일교회와 우리 성남교회는 그리 멀지도 않고 선배들끼리는 또 아주 잘 알고 그래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동지들끼리의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떤 측면은 힘들어

도 참 좋은 추억, 또 우리를 다져가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임병구 나중에 인천에서 만나시게 되는 박종렬 목사님이나 윤인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못 만나시고 인천에 와서 만나신 거네요. 그리고 학생 운동하시다가 집안에서 아까 머리채도 잡히시고 이런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따님이 다 이대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유독 혼자서만 학생운동을 하신 거죠.

홍미영 예, 그랬죠.

임병구 그래서 뭐 보니까 까만 야전잠바 몰래 입고 다니시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집안에서 에피소드나 또 아픈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홍미영 우리 동생 들은 다 예술을, 예능계 쪽이었어요. 하나는 가야금을 이대에서 했고 하나는 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분야로 저와 같이 이런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 그리고 또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진 착한 딸들이고 예능계 쪽이어서 또 그쪽 감수성이 있었고 저는 어쨌거나 이대에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선택돼서 씨클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쪽으로 조금 더 여성으로서 대학교 나오면 갈 수 있는 보통의 그런 꿈들보다는 다른 교육과 공부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익히면서 제가 그야말로 지식인의 역할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할 때, 이런 내 외형적인 거, 제가 사춘기를 참 착하게 겪었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가 그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부모님 말씀대로 양장점 가서 옷도 맞춰 입고 이쁘게 학교를 가는 것처럼 나오고, 가방 안에서 말한 대로 군복

을, 시커먼 거 물들인 거를 입고 신발도 다 운동화로 갈아신고서 우리 사회에 내가 지식인 역할은 야들야들한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랬던 건데 부모님한테 아무리 걸로 그렇게 말 잘 듣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씨클의 책임자로서 또는 그 당시에 선배들한테 배우고 후배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4월 달에 매년 우리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같이 이 사회에, 독재 정권에 항거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터트려야 되는 시점이 저한테 주어지고 책임져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그때 그 일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 단상에 올라가서 외쳐야 되는 시점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인물이 뿌려지는 시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 한 천 명 가까이가 대학 채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천 명 가까운 학생들한테 유인물이 뿌려지는 시점과 내가 올라가서 단상에서 외치는 게 좀 어긋나면서 결국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거의 일주일은 면회도 절대 안 되고 결국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선배들이 그 문제의 책임으로 하고저는 미수에 그친 걸로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의 충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또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막 숙직실에서 얼굴에다 수건 씌우고 물 이렇게 붓고 이런 것들은 다 당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딸 옷을 바꿔 입히라고 경찰에 있던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옷에서 핏물이 이렇게 빨간 옷이니까. 물에 배서 나왔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 빨래할 때 난리가, 충격이 돼서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미안하기

도 하고 뒤에 부모님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삶을 약간 보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심장 증세 오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동생들이 있는데, 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언니가 또 데모하러 갔나 보다, 언니 좀 잡아오라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도 그 언니가 대학생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서 시위하는 거기에 대한 엄마의 불안과 그런 고통을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한테 그런 마음의 깊은 한과 고통을 줬구나. 근데 당시에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또, 당신이 월남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네들은 더 보호해서 무슨 정권에 반대하고 뭐 반공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게 아마 이북 출신 부모로서는 더 큰 충격이었던 거 같아요. 거기다 제일 첫 자식을 통해서 당신이 남한 사회에서의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것이 경찰서 끌려갔다가, 저는 경찰서에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한편의 가족사로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 의해서 아픈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임병구 그니까 쉽지 않으신 과정이셨잖아요. 부모님의 생각도 아셨을 거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겪으셨는데 또 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보니까 학생회장을 맡게 되신 건 또 어떤 경위로 그 어려운 역할을 맡았습니까?

홍미영 우리 '새얼'이 그 뒤부터는 이름도 바꿨는데 왜냐하면, 새얼이 일종의 이대 안에서는 불온 씨클썸 되는 거죠. 고은광순 씨가

했었던, 저보다 후배지만 거기에 씨클 이름이나 우리 새얼 씨클 이름은 이미 이름 때문에 갖는 탄압의 정도가 학내나 경찰에서 찍힐 만큼의 그리고 여대가 사실은 학생운동 쪽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이대, 서울여대 특히 이대에서는 씨클을 이대 새얼 중심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좀 선배들이 탄탄하게 시키고 또 다른 남학생 중심인 다른 대학에 아주 투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씨클들하고 연합해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미팅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고 방학 동안에 해변가를 가거나 겨울에 스키를 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학년까지 6번의 그 방학과 휴가에, 휴일에, 봄철에, 가을철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간에 몰랐던 한국 사회를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지식인으로 한국사에 대한 어떤 역할을 이런 걸 공부하고 아주 끊임없이 가르쳤던 데가 그래서 사실 제 선배로는 최영희, 우리 인재근, 이미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저희 씨클 선배, 아주 무섭게 가르쳤죠. 그리고 겨울에는 구로동 공장에 가서 또 여름에는 아주 오지에 가서 우리 농촌 문제 뭐 우리 농업, 겨울에 달동네 지역에 가서 빈민 주거지역에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미팅도 못 가보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못 해봤지만, 한편으론 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잘 다져줬다. 그렇게 다져진 부분이 제가 그 뒤에 끊임없이 정치 활동을 길게 해도 아직도 민주화운동 이런 활동하시는 선배들 또는 지금도 적은 보수로 감내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겸손할 수 있고 또 한편, 아직도 내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

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때 우리가 주민운동 그 당시 KSCF 때, 서울 알린스키라든가 주민조직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내가 감히 다 인천의 달동네에서 공부방 실무자로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에 젊은 시절의 교육은 제대로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당연한 결과물이 3학년 때 회장을 맡으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 선배들 분신도 하고 노동 현장에서 다치고 또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당하고 저는 그 선배들에 비해 선배들이 그렇게 저렇게 투신, 현장 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흥미영 그리고 정말 데모하다가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당연히 그건 내가 그렇게 회장으로서는 앞장서서 뭘 하고 그리고 감내해야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4월에 이대 채플에서의 사건이 미수가 되고 그걸로 선배가 유인물을 뿌렸다는 걸로 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서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1년 이상 감옥 간 선배에게 빚을 갚는 게 어떤 측면에서 제가 빈민 운동을 치열하게 끝까지 해야 하는 게 됐죠. 선배가 지금 유인태 의원 부인이 된 뒤 우리 이해경 선배라든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진균, 오성숙 선배라든지 하여튼 그 선배들, 그 고초를 당하고 또 한번도 저한테 그런 어긋남 때문에 뭐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게 어떤 측면에선 저한테는 계속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았죠.

임병구 오성숙 선배님이 나중에 참교육 학부모회 활동하시는 분이신가요?

흥미영 예, 맞아요. 당시에 언론 무슨 시민의 뭐 그런 거 신문 같은 것

도 만드시고 암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임병구 채플 시위 미수에 대한 말씀도 계속하셨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후에 빈민 운동, 여성 운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거네요. 졸업을 하시게 된 과정 그다음에 졸업 전에 또 결혼하시고 결혼하면서 여성평우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미영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경찰에 가서 한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하여튼 감금돼서 고생 좀 하고 나왔을 때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저를 어떤 식으로든지 애가 몸담고 있던 불온한 학생 집단하고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부모님 충격도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을 선택해서 이 집안에서 해방되자고, 당시에 우리 새얼이라고 하는 순 여성 선배들이 있어도 여성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라든가, 결혼으로 여성이 오히려 묶일 수 있다는 건 요만큼도 안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 우리 보수적인 중산층, 이북에서 내려와서 가정을 꾸리신 부모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혼해서, 네가 내 말 안 듣고 독립하려면 결혼해서 나가라 그런 조건을 내걸었으니까. 그때 다만 결혼할 수 있는 상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막 엄한 사람 붙여다 결혼시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당시에 학생 운동, 사회 운동, 감옥 갔다 온 선배 중에서 저하고 빨리 결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에서 졸업하기 전날 우리가 월요일 날 졸업식을 하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미리 결혼하면

은 또 졸업이 안 되잖아요. 결혼한 학생은 졸업으로 그냥 퇴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찍 결혼하게 된 건 부모님은 모르셨겠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빨리 부모님을 벗어나서 그간에 내가 실천을 정말 못했고 해야만 되는 부분을 그걸 결혼 이후의 삶에서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이르게 하게 됐는데 근데 한국 사회의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전에는 한 가정의 부모가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면 결혼하니까 시부모까지 합쳐서, 또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후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또 부여되는 게 또 다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여성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학내에 좋은 대학교 이려고 해도 취업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 방식이 애는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낳고 빨리 가자 그랬다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80년에 우리가 80년 5월 되기 전에 막 서울역에서 모이고 79년에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우리가 민주화의 그거를 제대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학생에서부터 사회 운동까지 그 시절에 저는 결혼을 78년도 2월에 결혼하고 79년도 2월에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업고 서울역으로 시청 앞으로 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애 업는 때가 아주 세련되고 앞으로도 메고 뒤로도 메고 뛰어도 괜찮고 그 당시엔 포대기로 했잖아요. 근데 포대기를 잘 해보지도 않은 이 엄마가 시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뛰고 하면 애는 밑으로 빠지고 우리 친구들은 막 날아다니고 우리 선배들은 앞장서고 이런 거 보면서 아우 난 정말 이거 빨리 해방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 업고, 이게 쉽지 않구나, 많이 힘들었죠. 그 시절의 여

성 문제를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대학 때는 여성 문제에 대한 기껏해야 시몬 드 보부아르라든가 시몬느 베이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의 여성 문제 제기 같은 거는 그렇게 내가 미리 대비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면 시몬 드 보부아르의 상황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리고 시택에선 시택대로 또 기대치가 여전히 있어서 애 낳고 나니 뭐 더 정말 묶이는 육아의 부분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 문제는 그 시기에 가장 아무리 날고 기고 뛰는 엘리트 여성이고 그 여성 운동, 여성으로서 지식인 역할을 다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구나 했던 거를 느꼈던 시절이죠.

임병구 당시에 학생 운동하던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으로 많이 옮겨 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럼 노동운동보다는 여성 빈민운동을 하면 좋겠다 판단하신 거네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홍미영 그러니까 내 조건이 달라지니 전에는 그런 계급 운동, 노동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형시키고 한국 사회 주체를 노동자의 어떤 사고를 주체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진행하던 운동의 방식이었고 통로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내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중에 여성평우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전신이 지금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란 이름은 같아도 내용이 달라요. 아까 기독교 학생 운동이 학내가 묶이면서 그리로 갔듯이 여성 운동의 경우도 여성단체의 모태가 되는 데를 찾아서 간 게 이미경 선배든

뭐든 그 당시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데가 그런 틀거리가 돼서 당시 독일에서 에버트 재단에서 그 연구비를 받아서 현장 활동도 하고 이론 작업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구로 지역 여성들이 어떻게 그것도 기혼 여성이 육아와 또 한편의 직업 활동을 하는가? 하는 프로젝트를 받게 됐어요. 정말 구로동에 가서 엄마들한테 “공장 여기서 다니시죠? 애는 어떻게 키우죠?” 이려고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이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이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실질적인 동력이자 밑바탕의 그분들인데 사회적인 대접은 가장 착취적으로, 비정규적이고, 월급도 굉장히 월급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적은 임금을 받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도 사회가 하나도 안 하고 그 여성들 개인한테 떠넘기니까 그 아이들을 밥 먹고 거기에 또 집안의 남편이 다치거나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돌봐주지 못하면, 그런데 주거지는 아까 내가 대학생 때 봤던 그런 똑방 동네, 구로동 똑방 동네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임금을 조금 더 준다는 큰 공장에 못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 밥해서 아침 맥이고 부지런히 뛰어갔다가 점심때 어린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자기는 점심밥 안 먹고 집에 와서 애들 점심밥 차려주고 또 가는 그런 곳의 작은 공장은 임금이 가장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통비도 아끼려면 주로 뛰어서 다니는 그렇게 부지런히 그 아이들 육아와 또 이 가사와 또 한편의 생활비 요만큼이라도 벌어야 애들 무슨 반찬값이든 병원비든 마련하니까 제가 거기서 6개월 조사를 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한데 그

걸 일일이 요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사람들은 거의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거고, 그것도 김치도 담아야지, 내일 애 도시락도 싸야 하지, 내일 아침에 애들 밥 먹고 새벽 날 나가는 남편 반찬도 해놔야지 이런 중에 부인한테 뭘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조사는 결국은 실천 활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이 조사만 한다면,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6개월 프로젝트 후에 생각한 게 그게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방, 이 아이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남편 때문에 남편과 뭐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니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저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하고 배워서 이런 식으로 안 살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아들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건 딸이건 그저 그냥 내 아이들만큼은, 그 사람한테 희망인 아이들. 이 여성들한테 그 얘기 할 때 제일 빛나거나 제일 이 공감이가는 건 자식 얘기할 때예요. 남편 얘기건 시댁 얘기건 친정 얘기건 소용없어. 우리 애가, 우리 애만큼은, 우리에게 대해서 다 공감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우선 내가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또 아주 어린 애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예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마치 애는 좀 커

진 듯하고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에 공장도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한테서는 더 학교생활이 충격적이고 더 격차가 되는. 그래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 구로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고, 그때 여성평우회가 마침 이렇게 창립이 돼 가지고. 주부 한 살림은 주부생활협동조합, 노동 쪽은 여성 노동운동, 문화계 쪽은 여성 문화,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빈민 쪽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빈민 지역을 제가 평우회에 제안한 거죠. 내가 그때 유권자연맹 때 이런 조사 결과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주체적으로 생각이 돼야 할 그 대상은 바로 가난한 일하는 엄마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계급 모순이건 기본 모순이건 간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역사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 역시 독일에서, 그걸 한국 후원으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이만큼 받아서 실천하게 된 게 인천 만석동인 거고, 그 와중에 제가 이 빈민 지역을 선택하게 된 건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평우회 만들기 전이에요.

홍미영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지금 사당동 방배동이면 지금도 잘 살지만 그때도 판사, 검사, 어떤 주식회사 대표, 교수 이런 사람들 사는 데가 사당동인데 거기 여성들한테 일종의 지역 여성 아카데미 이런 거를 했어요. 그때 우리 한명숙 선생님이 총괄하시고 나는 가서 서포트 하는데 거기 보면서 그야말로 학력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과 경제 수준으로도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또 그 뒤로도 친정집이 엄청 잘

사는데, 거기서 있는 여성들이 소위 말하면 한국사회 여성들의 어떤 허상, 그렇게 평범하게 주부로 헌신하면 우리 애도 다 잘 살고 뭐 이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다 갖고 우리도 결혼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 여성들이 나이 오십이 되니 또 심정적으로도 빈 등지 증후군이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거를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이 많이 배웠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 학력이 굉장히 높은 여성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문화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여자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남편 자식 뒷바라지하는 걸로 하다 보니 그 여성들한테 굉장한 응어리로 남고 그걸 대신 투사한 게 학부모 치맛바람 비슷하게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은 또 엄마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문 탁 닫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해 이런 식이고 남편을 그렇게 승진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남편은 점점 승진해서 사회적으로 바빠지니까 그러면서 그 50대의 주부들이 평평 우는 거예요. 마지막 한 7강 8강쯤 넘어가면 주부 운동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고 나간 것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그 파트였는데 난 그 자체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그때가 구로 여성을 보고 난 뒤에 이걸 보면서 이런 여성들하고 좀 잘 사는 여성, 많이 배운 여성 뭐 이려고 하는 그런 주부 운동은 필요한데 그건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더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저렇게 교육으로 오라 해서 할 사람들은 아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도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공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우리 어떤 여성

들이 그 지역 안에다가 그런 아이들과 그런 여성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게 그리고 이미 아무리 내가 우리 부모가 원하는 중산층 여성의 삶을 살더라도 한 20년 되면 저렇게 올 텐데 저런 환상을 진작에 버리게 되고 더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다지게 되는 게 뭐 정말 돌이켜 보면 어떻게 그 시기에 다 저한테는 판단을 이 결국은 인천 만석동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게 아닌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임병구 네, 저도 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가슴이 찡하네요. 근데 그전까지는 인천하고는 특별한 연은 없었던 건가요?

홍미영 맞아요.

임병구 근데 당시 빈민 운동도 서울에서 각지에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인천의 만석동을 오시게 되는 건 또 어떻게 인연이 연결되신 거죠?

홍미영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면서 소름이 또 한편에 막 감회가 확 밀려오는데 저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부모 밑에서 컸다고 하지만 인천하고는 인연이 전혀 없었어요. 인천에서 제물포고등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데인지는 서울에서 그만큼 살았어도 제자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인일여고가, 인천여고가 100년 된 저희 경기여고만큼은 못해도 그만큼의 인천에 대한 참 무지한, 물론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운동 하시는 선배들이 도시산선 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등포 도시산선, 인천 도시

산선 할 때 그게 그렇게 지역 단위의 느낌보다는 다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또는 경제적 문제를 계급 운동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걸로 알았던 건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그리고 KSCF에서의 빈민 활동도 청계천 하월곡동, 난곡, 봉천동 이런 데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성평우회에서 그래, 홍미영이 그러면 빈민 여성 프로젝트 해봐, 공부방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지역 운동을 통한 여성 빈민 여성들의 주체적 활동을 끌어내는 거 해봐, 아이들을 거기서 돌보면서, 서울 지역의 하월곡동에는 우리 이미 교회 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난곡 쪽 가면은 천주교 쪽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면 YWCA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이미 각 빈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지역에서는 이미 특정한 그룹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굳이 꼭 서울에서 또 해야 하나 그랬는데 인천에 우리 평우회 회원 중에서 인천 만석동의 약국을 하는 회원이 있었어요. 이선옥이라고 남편도 노동운동 하고 근데 그 이선옥이가 “언니, 인천에 만석동에 내가 약국을 하는데 거기 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서울 도심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빈민촌이나 뭐 뚝방 동네에 있는 빈민촌하고 거기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 근데 아무도 와 보지를 않는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전철을 타고 그냥 하 인천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만석동, 북성동이. 서울과 연결된 전철의 끝자락이지, 인천 안에서의 빈민 지역이란 사고는 미처 못 했던 거죠. 더구나 선옥이가 만석동에 약국을 하지만 평우회 회원으로서 인천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

은 별로 안 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선옥이랑 같이 만석동에 왔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서울에는 시멘트 집을 겨우겨우 꼭대기, 저 아주 그냥 산꼭대기 위에 지었든가 또는 뚝방을 쪽 따라서 판자촌은 있어도 여기 와보니까 만석동은 말하자면 루핑집이에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 못 하겠지만, 루핑은 천막에다가 기름을 입힌 걸 루핑이라고 해요. 그 루핑집이 왜 생겼냐면 6.25 전쟁 때 바로 황해도 이런 분들이 배 타고 급하니까 그냥 도착한 데가 인천 만석동 갯벌이에요. 만석부두 갯벌이 그 갯벌이 물 쪽 빠져나갔을 때 그 갯벌 위에다 천막을 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래 걸리겠냐 그 전쟁 끝나면 제일 빨리 또 갈 수 있는 데가 이 갯벌에다가 천막 치고 그게 분단 50년 60년 7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려왔을 때가 1980년대였으니까 이미 그분들이 거기서 아직도 못 떠난 피난민들 그야말로 피난민들의 주거지가 루핑집이에요. 그 루핑을 왜 입혔냐, 그나마 조금이라도 비 안 들이치고, 비가 이렇게 새지 않고 방수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추운 겨울에 보온 효과가 있는 건데 대신에 그건 아주 주거 생활로는 시멘트집보다 더 취약한 거고, 화재가 한 번 났다 하면 그냥 불이 확 그냥 타버리는 아주 가연성 열악한 주거지인 데다가 거기를 뚝바다라고 불렀는데 뚝바다는 저기 중랑천 구로동 이런 뚝방 동네는 홍수가 나면 뚝이 그리로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도 여기는 하루에 한 번씩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들어오면은 뚝이 거기 이렇게 침범침범하다가 쪽 빠지니까. 화장실은 그래도 뚝방 동네는 뚝

떠요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똥을 피야 돼요. 근데 여기 쪽 방 동네 똥바다는 똥 풀 이유가 별로 없어. 물이 하루 종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똥바다 앞에 화장실이 쪽 있고 그 앞 루핑집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한이 맺혀서 고향을 바라보고 금방 갈려고 아무것도 못 들고 내려와서 천막 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 나가서 동죽도 캐오기도 하고 겨울에 굴 따기도 하고 또 마침 그 주변에 젊은이들이 아주 꿈으로 생각하는 동일 방식이 있고 또 남자들 경우엔 썬피니처나 대성목재가 있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목재공장, 방직공장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북민들과 이농해서 그나마 어디든 먹고살 수 있는 일터와 주거지가 멀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인천 만석동 43번지인 거예요. 그 옆이 기차길 옆 화수동 있는 그쪽 동네도 있지만 저는 만석동 43번지 만석부두 앞에 가게 된, 아카사키촌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가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껏 이곳에서는 어느 단체든, 봉사든, 복지의 혜택이든, 아무 데도 들어와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평우회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여력이더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인천 만석동을 이선옥, 더구나 거기에는 우리 이선옥 씨가 약국을 하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때 저희 집이 서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 망우리였어요. 망우리에서 청량리까지 나와서 청량리에서 1호선 전철을 타면 종점이 하인천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만석동에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서울 가서 하루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아예 애들을 다 끌고 보따리 지고 내려오게 된 거죠.

임병구 그때 따님 두 분을 이미 키우고 계실 때잖아요. 그럼 따님들이 어려서, 함께 주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셨어야 하는데.

홍미영 아이,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이 그때 5살, 3살, 뭐 6살, 4살 요 정도 때였는데 그때 동안에 외가와 친가의 다 맡이었어요, 우리가, 애들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랑을 듬뿍 받고 이 사회에서 일정한 아이 또래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건 엄마와 같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거에 굳이 애네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뭐 만약에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우리 아이들만 큼은 그런 조건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충격이거나 그런 것에 고민이 됐을 텐데 저는 큰 고민을 안 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사회에 또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아이들과 좋은 사람들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공동체니까 그러고 했는데 우리 애가 하여튼 작은애가 삼 일을 울었어요. 막내가, 새미가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서는 만석동에서부터 십정동까지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일기에도 보면 화장실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다, 만석동이 그야말로 바위 옆에 이렇게 거의 지어진 식의 그런 데서는 봄 되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시멘트로 지어진 십정동 화장실에서는 쥐가 나를 쳐다본다, 화장실에서 쥐 눈이 귀엽긴 한데 무섭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공부방이라는 울타리 안

에서 거기서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잘 컸다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행이지만 애들은 하여튼 어렸을 때 특히 작은애가 좀 충격이어서 우리 저기 부모님도 가족도 왔다 갔는 지 울고 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임병구 자녀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첫째인가요? 첫째, 보미인가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잘 키우라고 했다는 그 일화도 있던데 그런 때 막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홍미영 어우, 눈물 났죠. 제가 만석동에 큰물 공부방 개소한 지 한 1년 정도, 나름대로 나는 만석동의 공부방에 많은 책들과 또 거기 와서 자원봉사는 할 수 있는 서울의 뽄뽄한 청년들과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고, 우리 애는 또 그중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니까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칭찬들을 해서 걱정 않고 만석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애가 입학하러 갈 때만 학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챙겼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애가 신발을 한쪽에는 운동화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뭘 안 가져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야말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니, 애가 영 그 수업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막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집중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거기 동네에서 뭐 공부방 아이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당신 애나 잘 보라구 그래서 정말 뭐 부모들한테는 애, 거기 저 서울에 너는 강남으로 안 가고 어떻게 도곡동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인천 만석동 가냐 그럴 때 막 자신 있게 우리 애는 여기서 잘 키울 거라고 그랬는데 1학

년 때 그 얘기를 하니깐 너무 충격이 돼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명순 선배가 사당동 거기서 공부방 비슷한 그런 어린이 집, 이런 교회 하고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명순 언니는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비슷한 그래서 그 언니를 찾아간 거야. 저희 씨클 선배이기도 하고 언니, 내가 여기 가서 이려고 하는데 담임이 불러서 그 얘기를 한다고, 언니가 많이 위로도 해줬는데 언니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래, 선생님 촌지 좀 갖다주라, 하하, 아….

임병구 하하. 근데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홍미영 예. 정말 선생님들 아무리 그걸 가치적으로 얘기하고 그렇다고 내가 내 새끼만 돌보면서 거기서 애 학교 보내려고 하면 내가 여걸 왜 왔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한테는 다른 엄마들이 돌보는 만큼의 신경 써줄 수 없는 거고, 그냥 다행히 만석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옮겼어요, 심정동으로. 그런데 심정동에서는 그런 선생은 안 만나서 1학년 때 하여튼 내가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을 때가 그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의원 나갈 때 애가 중학교 막 입학하는 시점이었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럴 때 중학교 가는 우리 사춘기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정치 활동이나 뭐 사회활동 이런 거에서 애들을 방기시키지 말자, 두 번을 고민했던 시점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과연 내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가 그랬던 거에 그리고 첫 번째 아주 그냥 충격은 그때였어요. 만석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네 아이나 잘 키워라 그러면서 불렀

을 때.

임병구 큰물 공부방 만석동에 개소하시고 공부방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과의 활동을 펼치셨는데 어린이들과 주민들과 했던 활동 중에서 생각나시는 것들을 좀 들려주시죠.

홍미영 예, 그 당시에는 하여튼 만석동에 이런 무슨 여성단체에서 와서 젊은, 그때는 제가 30대 뭐 이랬으니까, 29살에 인천에 내려왔으니까요. 29살에 애 업고 하나는 견계 하고 3살짜리는 등에 업고 뭐 4살, 5살짜리는 하인천역에서 그러니까 아주 명절 때는 어쨌든 서울 가야 되잖아요. 그 애 데리고 명절 때 특히나 짐도 이렇게 들고 하인천역에서 애는 졸러가지고 거의 반 끌려서 오고, 등에 있는 애는 뭐 또 자꾸 밑으로 빠지면서 칭얼대고 그리고 만석동에서 살았던 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새삼 떠오르는데 그래도 만석동이 내가 일해야 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정말 막 힘든 곳이 아니라, 서울에 있던 우리 시택에, 친정에 잘 사는 어떤 공간보다도 가야 하는, 애들 데리고 힘겹게 하여튼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면은 일일이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랬을 때 주로 공장 다니는. 집에 있는 경우는 부모가 회사에서의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굴 따는 엄마들 경우에 있어서나 조개 캐는 엄마들 경우에 있어서도 또 같이 조개 캐면서 집안의 뭐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내가 지금 십정동을 가자고 서울을 다시 안 돌아가고 가기로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 작은 사건이지만 서울에서 한명숙 총리도 엄마들 모아놓고 강연 또 우리 한명숙

총리나 유명한 지은희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 더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여성들에 대한 애정도 많고 이러니까 또 홍미영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고 그리고 엄마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면 엄마들이 반은 알아듣고 반도 못 알아듣고 힘들어해요. 그랬는데 화수동 도시산선의 민들레 어린이집의 원장인 유효순 선생님과 거기에 어머니 회장을 모시고 우리 엄마들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뭐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잘 얘기가 통하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 사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알아도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야말로 프로그램은 어디다 내놔도 못지않은 서울에서 평우회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셔왔지만 그 분들한테 아, 이 친구 엄마들이 자기 주체 의식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과거와, 다짐하는 내 기대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하고 비슷하지만 반걸음 앞에서 뭔가를 다르게 하고 그걸 실천했을 때 이걸 견어내고 뭐 그래서 우리끼리 이 공부방을, 놀이방을 어떻게 운영해서 요만큼 통장에 없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또 해봤더니,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저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이 현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를 만석동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건 후배들이건, 미영아,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애 데리고 그러고 사냐고, 소위 말하면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나한테 주신 축복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거를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가

철거되는 거를 어차피 나는 루핑집이 그런 불량 주거지역으로 남으면 안 된다고 보니까 철거가 돼서 나갈 때는 이렇게 배운 거를 다른 빈민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빈민 주부들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한 무슨 즐거움 그런 것보다 내가 오히려 빈민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축복을 받는 어디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나길모 주교님이 천주교 답동 성당의 제일, 난 천주교와 깊이 관련은 없지만, 그분이 와서 거기서 일주일을 현장 체험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외국인이고 그랬는데 제가 살던 집은 시멘트 벽돌집도 제대로 아닌, 그것도 또 이렇게 올라가면 2층 비슷하게 이렇게 단칸방이 아래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위층에서 있게 되고 화장실은 아까 말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판자 화장실인데 다리가 또 굉장히 기신데, 식사는 또 아래 내려오셔서 방이라고 코딱지만한 방에서 소반 이렇게 놓고 그러고서는 계시다 가셨는데, 제가 그분 어려운 줄 모르고 너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그냥 모셨던 거, 그냥 거주하시도록 했는데 거기서 그분도 많은 걸 당신이 기독교 천주교의 수장으로 봐야 할 현장을 제대로 보셨기도 했지만,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미사도 거기서 해주고 이런 게 저한테는 내가 그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분도 오고 그분이 또 우리 한국 사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축도도 해주고 다 일일이 격려와 위로를 해줬던 게 그러는 거고, 거기 넓은 공터가 있어서 우리가 가을

잔치 하면 또 평우회 와서 장구도 쳐주고 아이들이랑 공부방 하면서 거기 자유 공원이 있잖아요. 자유 공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 근처 내려가서는 아벨 서점에서 헌책방 가서 책도 보게 하고 이랬던 것들이 짧은 기간 한 3년 될 거예요.

흥미영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한테도 누구랑 같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됐을 거고, 주민들한테는 이 철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다가 강제 철거 당하면 또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그럴 수 있는 곳에서 공부방이라는 게 일종의 터전이 돼서 거기서 철거가 된다는 시청에서 공지가 내려오면서부터는 매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의 철거 문제를 잘 알아서 뛰어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철거가 된다는 소문이 되니까 일 다닌 사람도 불안해하고 공부하러 오는 애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어제 밤새 여기 철거되면 어디 가냐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서 뭐 마음이 불안해요, 그니까 이 철거라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또 한편의 자기 주거지를, 자기의 일터와 생계에 그 삶의 터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 흔드는 강도는 지진 중간 강도의, 정말 보잘것없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를 살라고 해도 안 살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 다음의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여길 떠난다는 건 대성목재 갈 수 있는 또는 거기 동쪽 캐러 갈 수 있는 또 겨울에 굴 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계의 터전과 그리고 우리 애가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나마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 내가 아프면 김치래도 담아주

고 저쪽 할머니가 아프면 나라도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철거 문제가 머릿속에서 예전에 알았던 한국에서의 주거철거 문제의 본질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애들이 공부방 와서 하는 얘거나 우리가 밤에 가서 엄마들하고 얘기할 때 나누는 상담의 질이 그래서 같이 다 모여서 공부방이 없었으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공부방이라 그래봐야 요거의 6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 앉아서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떠날 수는 없지 않냐 그랬을 때 마침 우리 제정구 선생님이 보금자리에 있고 또 근처에 우리 도시산선화수동의 우리 김정택 목사님이 있었고, 또 한편에 인천의 사회 운동하는 단체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좀 배울 수 있고 찾아가서 의논드릴 수 있는 그게 되면서 그분들한테 앞에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들을 뒤에서 얘기하면서 시청 앞에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고 시장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버티고 어디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결정되는 최종 부분은 여기서 다 의논해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얘기 되면서 참 의외로 그렇게 조직적인 시위를 하는 게 한 번도 이런 사람한테 훈련된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절박한 자신들의 문제니까 그렇게 평소에 서로 싸우기도 잘하더니, 그렇게 가서 저도 그 시위하러 가면 현장에서 시위하는 분들 옆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저는 이제껏 철거 투쟁 싸움 중에선 제일 잘 얻어낸 순환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 있잖

아요. 그리고 순환 재개발은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기에 있는 루핑집, 시멘트집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해결 수 있는 최대한 장기 저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재개발들은 거의 들어갈 때 돈을 더 내야 되고 들어가서 관리도 힘들어서 결국 다 쫓겨 나오지만 순환 재개발의 경우는 다 못 들어가서 그렇지, 300세대 중에 적어도 150세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동을 했지만, 순환 재개발로 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인천시가 그걸 내놓진 않았죠. 그런 협상을 나름대로 했고 그것이 우리 공부방에서, 인천 도시산선과 우리 철거 싸움에서는 가장 잘, 그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제정구 선생님의 도움과 인천의 노동, 사회 운동 그룹 쪽에서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보는 건데 제가 거기서 또 한 그 결과와 다르게 한 가지 이분들의 삶에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인수 엄마가 철거 대책 회의를 하면요, 거기 있는 동네 아저씨들 보다 말빨이 제일 세요. 그리고 제일 리더십이, 가만히 말발만 센 게 아니라 실천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생활도 아주 야무지게 잘해서 동네 엄마들이 인수 엄마라고 하면 그냥 다 믿어요. 워낙에 셈도 빠르고 말빨 세고 리더십 있고 또 나눠주기도 잘하고 그 엄마가 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사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만났어요. 왜 안 하시냐, 거기 충분히 인수 엄마가 하시면 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려고 했는데 왜 못하시냐는 속내 얘기

는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50대였는데 한글 모르고 사는 거는 눈치껏 다 살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서 사인해야 하고 가서 조문을 읽어봐야 하는데 까막눈으로 어떻게 조문을 협상서를 읽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석동 3년을 살면서 내가 잘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철거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에 알았던 부분이 이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 자식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도 잘 모르고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한테는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막 그래서 제가 십정동 와서는 한글반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도 그 엄마와 한글 하는 몇 그거를 한 명의 엄마랑 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박노해 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도 밤 9시 아무도 다 안 보는 골목길에 밤늦게 가서 3시에 앉아서, 한 9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읽고 하는데 줄러 가지고 한글 공부 얼마 못 했지만, 그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그러면서도 이 한글 모르는 것 말고는 완전 100점인 그래서 정말 이런 여성들이 좀 제대로 대접받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아니겠는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만석동 철거되면 떠난다, 서울로 간다 하는 게 이 모든 저희 가족과 다 합의된 애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딱 다른 지역에 가서 1년만 그리고 만석동이 가진 보수성, 반공의 막 그래서 아무리 의식화하려

고 해도 안 되는 나이 많으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그런 거가 아닌 동네를 찾은 게 십정동. 주안 5공단의 배후지이면서 철거돼서 이미 우리 사회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있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주민들을, 여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기 십정동이 여론 조사 아니면 이렇게 실태 조사 뭐 이렇게 지역 조사해 보면서 그래서 그리 가서 반대하는 가족들 뭐 식구들한테 내가 십정동 와서 딱 1년만 한다 그랬는데 1년 하기로 한 게 30년이 넘어서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임병구 십정동 공부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만석동에 이대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후배들이 많이 와서 지원 활동도 했고 또 그분들 중에 지역의 리더들하고 이렇게 잘 결합한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생각나는 인물들이나 아까 인수 어머니 빼놓고 또 지역의 리더 중, 활동하셨던 분 중에 인상에 남는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고 십정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예, 정말 십정동에서는 지금도 일기장 비슷한 게 있지만 이렇게 오늘 누구네 집에 갔다, 영만이네를 갔는데 가족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알린스키의 주민조직론에 의한 훈련일지처럼 써서 거의 300세대 중에 150세대 정도는 다 손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신뢰를 쌓는 과정의 자료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 작업을 혼자 할 수는 없죠. 이게 팀워크가 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 현장 투신을 그나마도 아주 결단한 식구들이 하는 건데, 노동 현장으론 많이 투

신하는데 빈민 지역 현장으로 투신하는 게 그리고 지역 운동은 굉장히 템포가 좀 느려요. 철거 오면 확 불이 붙는 거는 있어도 템포가 느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혼 여성이 와서는 그런 절실함이 또 잘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대 애들이 아니라 평우회 애들의 여러 젊은 청년들이 왔는데 자원봉사 이외에는 거의 제 역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정동 갈 때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실무자를 안 하고 인천에서 이런 활동에 같이 공감을 하는 인천 사람, 인천 여성들을 찾자 해서 십정동 갔을 때 그런 게 아무리 나처럼 전철 타고 서울에서 전철 타면 인천이 전철의 끝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지역 운동에 그게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과 몇 개월 살다가 간 친구도 있고 1년 살다가 이럴 때도 그러면 오늘은 저긴 공부방 아이들 중에 누구누구 엄마 아버지네 방문하고 모여서 쪽 일지를 쓰는 중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 괜찮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정성으로 그 사람들이 좀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있었죠. 몇 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일상 활동에서의 부분과 철거할 때 부분이 달라요. 그니까 지역 운동에서는 그림 사람들을 여러 괜찮은 사람들, 품성과 인성과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말한 대로 기록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 되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확실하게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도 거기서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철거되고 떠나고 난 뒤에는 거의 관계 맺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또 새 지역 가

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한 남자 경우는 지금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여러 가지로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이 썬퍼니처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때 손가락을 찔렸던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공부방에 많이 와 있고 우리랑 친해지면서 뭐 치자면은 썬퍼니처 들어왔을 때 그 친구가 한 20대였다면 지금은 애들 장가보내고 이럴 때니까 그리고 그 친구 통해서 동네 분들 조금 얘기 듣고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한테는 당시에 또 이동수 씨(썬퍼니처 가구 생산직)가 만났던 어린 그보다 어린 청년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 시절에 공부방이 동네 안에서 그런 좋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들을 전해줄 때는 그나마 보람이 있죠.

임병구 십정동 해님 공부방으로 옮기셔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후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영 예, 만석동에서 배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저한테 가르쳐주시고, 또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여론 지역 조사해서 선택한 곳이 십정동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끼풀을 벗자고 생각했어요. 만석동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 홍 선생 이려고 찾아오는데 홍 선생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도 색안경으로 나도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선 정말 그 사람들과 객관적인 현장에서의 문제나 이런 걸 다 들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십정동은 홍 선생이 아니라 동네에 아줌마로서 들어가니까, 보미 엄마. 거기 동네에서는 보미 엄마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공부방

은 인천에서 여성 활동을 했던 다른 후배가 공부방 선생, 놀이방 선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역할 분담을. 그리고 십정동, 만석동에서 나랑 같이 끝까지 철거 싸움 할 때까지 있었던 여성 평우회 후배는 왜 달동네에서 보면 우유 배달 뭐 이런 것들이 또 여성들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십정동 들어갈 때는 소위 말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인천 서울과 분리된 별도의 인천 사람들끼리의 지역 운동 차원으로 들어가기로 새로 구성해서 들어간 거죠. 저는 보미 엄마로 십정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시험지 아줌마라고 그 당시 아이템폴 이런 시험지를 돌리는 그게 지역 운동의 중요한 잘 파악할 수 있는 일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너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나는 그 동네 보면 제일 잘 돌아다니면서 동네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시험지 아줌마를 하자 그래서 제가 백운역 앞에 있는 아이템폴 지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동네 사는데 그거 좀 돌리면서 벌이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아줌마가 보더니, 거기 지사 하시는 분이 뭐 이런 일 안 해도 될 분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하시는 분이 적어도 6개월은 그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네가 꼭 십정동 그 지역을 한다 그러면 6개월을 기다려라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려서 시험지 돌리는 배달 아줌마를 해서, 그게 열우물 가난한 달동네 십정초등학교 앞까지 그게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1년 좀 넘게 했어요. 그 동네 전에는 공부방 선생으로 여성단체 실무자로 들어가서 파악했던 것보다 이렇게 특히 내가 그 역할을 맡으면서 골목길

어디에 시험지 배달을 주면 거기는 그 엄마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문간방에 남편이 지금 뭐 아파서 누워 있고 애는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고 요 골목 들어가면은 반지하에 누가 살고 할머니가 애 혼자 키우고 이런 공부방 선생으로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의 상황을, 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대화도 공부방 선생이면은,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생활인으로 또는 그런 동네 엄마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아줌마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임병구 당시 그러면 학습지 아줌마라고 불리신 거죠?

홍미영 그렇죠. 학습지 아줌마. 그러면 어느 집에 가보면은 거기는 엄마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미싱질하는 고런 데도 있고 그러면 걸터앉아서 물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은 목걸이 꿰는 부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뭐 하기도 하고 동네, 그러다 보면 어느 통장 집이 슈퍼가 이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지역 사정을 참 잘 알게 됐고 그러면서 놀이방과 공부방을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주안공단 배후지로서 그래서 놀이방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열 개의 우물이라고 김미례 감독이 찍은 영화에서 제가 그때 놀이방 초창기에 우리 새미가 1회 졸업생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이방이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불리지만 그 당시에는 놀이방 말기는 엄마건 나중엔 놀이방 선생이건 일정하게 지원하고 그랬는데 탁아소는 이북에서나 하는 아주 좀 불순한 그런 식의 것이었는데 그런 놀이방이라는 이름의 공간은 어쨌든 쪼끄맏지만 일 다녀야 하

는 엄마들이 맡기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엄마들이 주로 집에서 부업을 많이 했어요. 공단 배후지니까 그 공단 밑에 또 하청 주고 하청 밑에 또 그 공장에서는 한 5명 직원 데리고 나머지는 다 동네에다 일감을 뿌리고 근데 엄마들이 애들 끼고서 전자 조립하고 이러기가 어린 애들이 기어다니고 밟고 다니고 이러니까 놀이방에 또 맡기기도 하고 그 동네 안에서는 젊은 엄마들과 그런 공부방, 엄마 활동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중에 보미 엄마가 잘 처음에 관여 해주고 끌어줬었고 그러다가 공부방 선생들이건 놀이방 선생님 교체되면서 보미 엄마가 공부방 선생도 한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방 선생을 같이 하면서 엄마들 자모회에서 유효순 씨가 화수동 어린이집 할 때 민들레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님 공부방운영위원회를 한다 그럴 때는 잼도 만들어서 판다, 헌 옷도 이렇게 모아서 판다, 동네잔치도 한다, 이런 것들이 만석동보다는 훨씬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된 거죠. 그때가 마침 또 지역 지방자치제 되기 전에 87년 민주화운동 끝나고 나서 국민운동본부 생기고 국민운동본부가 지역을 거점으로 뭘 한다 그랬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단오제한다, 이러면은 인사련도 오고 교회 청년들도 오고 동네 안에서 마을 청년들도 같이 조직해서 이래서 십정동 활동은 해님 놀이 공부방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또는 뭐 지역문제에 이렇게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됐던 게 그나마 만석동보다 거기서 배웠던 것에 대한 내 자각이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팀워크가

인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병구 자연스럽게 공부방이 중심이 돼서 지역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시 같이 활동하셨던 신소영 선생님이나 곽은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지역 활동에 관한 얘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영 그러니까 만석동을 안 거쳤으면 십정동처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만석동이 있었기 때문에 십정동이 지역 운동이 활발하게 된 부분인데 십정동에서는 한, 두 단계로 나뉘요. 처음에 아주 초창기에 겨우 놀이방, 공부방 마련하면서 학습지 배달과 이런 걸 했던. 그래서 지역에 대한 현안과 현황을 파악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초창기를 하면 두 번째 단계가 곽은주나 저기 우리 신소영 씨나 여성 운동단체인 민우회에서 이쪽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 건데 만석동보다는, 훨씬 더 그쪽에서의 활동보다는 여기가 민우회도 평우회 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여성 운동의 차원에서 달라지기도 했고 여기도 십정동에서 활동도 달라져서 들어와서 애들 공부방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활동을 같이 모색하게 된 거죠. 아까 말한 지신밧기, 또는 애들 침 뱃기 부업을 반대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작은 이슈지만 계속 문제 삼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에 또 그 둘이 전에 만석동에서는 이게 서울권으로 생각하면서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활동가들은 여기가 자기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인천 중심의 이곳에서의 자기 역할과, 활동의 미래를

보는 것들이 그래서 부모들과 지역 주민들하고의 밀착도가 아주 높아졌고 거기서 작은 월세방 살면서 어울리는 것들이 굉장히 지역 안에서의 짧은 5년이라고 하는, 그게 86년도부터 91년도 내가 구의원 나가기 전까지 그 기반이 된 부분이 됐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은 그 기간보다도 더 짧았지만 그래서 91년도 이후에는 구의원으로 저를 진출시키게 된 그리고 지역사회 공부방이 기본이 돼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방자치체를 통한 주민운동으로 가는 계기가 됐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기반은 불과 5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같이 협력을 한 건데 고마운 건 하여튼 그 2, 3명 또 서강대에서 온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법무사로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한 친구도 인천에서 공부방 여기 인하대를 다니다가 여기서 공부방 자원 봉사자로 하면서 계속 관계하고 지금까지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보다 하여튼 여기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네트워크가 됐던 부분은 열우물 진료소라고 인천의 의료생협하고 바로 연결되는 일신동에 지금 평화의료생협으로 그리고 지금 인천 안에서 뭐 여러 의료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초창기의 지역진료 활동을 열우물 진료소라고 우리 심장동에서 해님 공부방하고 같이 했던 거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때 폼지락폼지락 별로 그렇게 막 큰일을 한 것 같진 않는데 그걸 다 인천 안에서 이렇게 같이 열기설기 씨줄 날줄 엮으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아마 그게 함께 성장해서 지금에서 각 분야에서들 그 경험과 그때의 관계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인천의 중추적인 민주화의 어떤 역할도 자기 분야

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십정동 특히 5년 안쪽에 있었던 거고, 그 십정동 집, 해님 공부방이 지금은 다 헐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한 20년 이상 그렇게 남아있는 집을 얻을 때 기억이에요. 정말 이렇게 셋방살이로 공부방을 하는데 애들이 밝고 시끄러우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얻으러 다니는데 내 집도 못 마련했지만, 이 공부방에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그때도 독일에서 좀 후원금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가는데 정말 달동네 안에 애들 모아놓아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집이 나타난 거예요. 가보니까 마루도 가운데 널찍하게 있고 웬만한 정말 그 동네 안에서는 이런 집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혹시나 하룻밤 사이에 계약 하러 가기 전에 누가 와서 할까 마음을 줄이고 계약을 다음 날 했어요.

홍미영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여성민우회하고 얘기도 해야 하고 돈 후원 받을 거랑 그래서 마음 줄이면서 다 끝냈어요. 계약을 끝냈어요. 그러고서 문 열고 나오는데 바로 앞집에 그 깃발 올리고 만신이 있는 집은 깃발을 올리잖아요. 그 집 할머니가 “그 집 뭐 할 거야?” 그러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나오니까 “여기서 애기들 공부방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거 하면 잘 되겠네.” 그 집이 그전에 누가 자살을 했던 집인 거야. 그 집은 일반 집으로는 잘 나갈 수 없는 집인데 애들이 와서 있으면 괜찮겠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림방 철거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그 집을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그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이

제가 나중에 구청장 됐을 때 동네는 자꾸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주공에서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원래 주거지는 딴 데 있지만 그 공부방에서 한 석 달을 살았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 집을 사는데 약간은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낮에는 막 그러고 하긴 하지만 밤에 혼자서 주공, 나중에 사장이 손 들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짓는 공사한다고 그러곤 했지만, 어쨌든 그 집을 제가 마련했을 때 이 동네에서 안 떠나고 우리 애들 공부방, 애들 놀이방, 애들 여기서 데리고 있을 수 있겠다. 했던 그게 내 집 마련한 것보다 더 좋았고 그게 그 지역 운동에 정말 또 중요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운동을 대부분 놀이방,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교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갖는 시설의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물이 조금 담길 수도 있고 많이 담길 수도 있고 그릇이 어떤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듯이 그건 시설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놀이방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크건 작건 간에 그 그릇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죠. 하여튼 30년을 우리 공부방에서 거기서 바로 구의원도 탄생한 거고, 거기서 시의원도 탄생한 거고. 제가 나중에 구청장 돼서 그 동네들 집 무너지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제가 버티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 우리 엄마, 할머니들, 놀이방 할머니들, 노래 배우는 데도 되기도 하고 또 엄마들의 운영위원회 회의 장소 되기도 하고 또 복강경 수술이라고 그 당시

에 지금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동네 엄마들 기저귀 널린 집 찾아가서 애 못 낳게 복강경 수술하면 산부인과에서 5만 원을 받은 그것 때문에 달동네 여자들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고 밤새 하혈하고 그 뒤에 유착 증세 생겨서 또 수술하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복강경 수술 다시 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거기서 토론회하고 정말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밖에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민우회에서 받아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때 이걸 잘 찍어봤으면은 생생하니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주민들과 어떻게까지 같이 일해볼 수 있는가, 이런 걸 했는데 하다못해 공중전화 설치를 하자고 서명운동도 했어요. 근데 공중전화라는 게 세를 들어 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셋방살이는 주인집에 자기네 전화가 있는데, 남편이 오늘 분명히 잔업 없이 오겠다고 했는데, 잔업 안 하는 날인데 안 들어온다든가 또는 무슨 우리 애가 지금 급하게 아파 가지고 남편한테 연락을 하건 뭘 해야 하는데 주인집 전화 빌려 쓰기가 영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동네 공중전화를 찾아가는데 동네 공중전화가 늘 가보면은 고장이고 줄서 있고 우산 쓰고 애 업고 그리고 쫓아 내려가서 전화 걸라고 보면 ‘고장’ 이래 가지고 줄이 덜렁덜렁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명을 했어요.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사는 데는 공중전화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절실한 데서 왜 맨날 공중전화는 고장이 나고 없냐 그래서 서명운동을 우리

가 통신사에, 전화국에 서명 운동을 했는데 서명을 하자고 하는 필요해, 막 이러는 엄마들이 정작 서명을 하자니까 평생에 이런 데다 이름을 안 써봐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엄마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젊고 웬만한 교양도 있어 보이는 엄마인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서명한다고 하고, 공중전화 하나 놓자고 하는데, 서명하고 난 뒤에 그게 공중전화가 생기니까 야, 이거 되는구나! 이게 바로 실천. 저희들이 해보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성장이죠. 그런 게 아마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 될 때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서 투표를 찍고 그런 경험들이 아주 작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주체 의식을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체 의식은 서명이 필요한 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우리 서명하자 그래서 그거를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써도 되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졌을 때, 그랬을 때, 자신감과 이 주체 의식이 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느끼는 보람이 있고 또 주민들도 같이 성장하는 거였고 햇님 공부방은 지금 무려 30년이 넘었잖아요. 거길 철거하고 철거된 비용으로 지금 그 근처에 작은 데로 옮겨갔지만 아직도 그 맥을 선생과 운영위원들과 엄마들과 공부방 자문까지 포함해서 그게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일종의 졸업생 엄마들끼리 자수정이라고 하는 모임에 나도 끼어있는데, 그거는 바로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너는 뭐 혜택을 받고 너는 뭐, 이렇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같이 얘기 나누고 격려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는, 미

미하지만. 한 사람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받으면서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 애들이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 적응을 잘했다가 아니라, 비행 청소년을 막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방 선생이 되고 그 아이들 중엔 지금 우리 강헌구 가수도 있잖아요. 가수도 나오고 가수가 작곡하면서 우리 심정동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조금씩 이어서 나가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저는 늘 그 엄마들한테, 주민들한테 미안해요.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그들에게 큰 역할도 못 했는데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랬는데 자수정 엄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엄마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보미 엄마 어땠냐고 그랬더니, 보미 엄마 물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새벽에 우리는 다 물 받아서 아침에 밥하고 있는데, 보미 엄마가 밤새 물을 못 받아서, 그때 잠들어 버려 가지고 밥을 꾸러 왔다고, 급하니까 쌀 씻어서 어찌고 밥할 물도 모자라니까 아예 밥을 꾸러 왔어. 애들 도시락 밥을 꾸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밥 꾸러 갔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갔었다고 그런데 그 엄마 하는 말이 대신에 저는 더 큰 걸 받았어요. 뭘 받았냐니까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의 집살이를,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그 뒤에는 미싱 공장에서 하다가 남편 만나서 막 정신없이 사는 것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걸 몰랐는데 보미 엄마 만나서 꿈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나는 그래서 더 큰 걸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 저도 그 엄마가 그때 얘기하는 걸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꿈이라는 거를, 날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저하고, 또 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됐구나.

임병구 십정동에 가실 때만 해도 가족들하고는 1년만 더 활동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미영 그러니까요?

임병구 거기서 그런 성취와 보람을 느끼셨어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로 연결이 되고 지역에서 여성 운동을 또 펼치셨잖아요. 그래서 구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지역과 함께 한 여성 운동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미영 그런데 우리가 단오제건 지신밟기 행사건 동네에 아까 말한 부업을 통한 나눔, 운영비를 모아서 책 읽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공중전화 설치 또 복강경 반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엄마들과 실무자들과 주변의 단체들과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드디어 91년도에 3월에 구의원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정권에서의 꿈수처럼 던져진 게 됐지만 우리는 그걸 의논을 했어요. 이게 지방자치제 공부를 해봤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방 자치를 잘 운영하는 데는 주민들의 자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주인이 돼서 하는 거, 이거 제도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건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누가 후보로 나가겠는가 그런 거에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쪽 사람, 샘터교회, 소성교회, 국민운동본부 인천 누구, 저, 우리 공부방 선생 다 모여 앉았는데 결국은 누가 후보로 나가는데에 대해서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얘기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돌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좀 빠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와서 저한테 수건돌리기 하듯이 해서 저한테 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의 현장에서의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 엄마들이 이번에 누구 후보 나온다는데, 지방 자치, 지방선거 나온다는데 그걸 예전에 통일 주체 대의원 이런 거랑 다르게 어저께 뽑아서 하는 건데 저 통장이 나간다는데 그 통장은 그때 우리 동네에다 수도 놔준다고 그러고 5만 원 받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 수도 값으로 3만 원만 쓰고 2만 원은 지가 먹었다고 하는 통장에, 또는 동네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의 그 집 아들이 나간다는데, 저도 동네 엄마나 동네 아저씨 중에서 괜찮은 분이 나가면 제일 좋고, 가서 얘기해 보면 아유, 우리 집은 형편이 지금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결국은 어차피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공부방 선생으로 동네 일을 보면서 구청을 드나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후보라고 얘기하는 게 동네 일을 푸는데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의 조직을 한번 활성화하고 점검해 보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간 5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체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선거는 일종의 우리의 생활 문제를 공표해 줄 수 있는 홍보의 장이기도 하고 이럴 때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을 활

성화 할 계기도 되고 그리고 저런 통장님보다야 흥 선생이 나
아, 부동산 그 집 아들보다는 한번 해봐, 내가 저기 뭐야 운동
원들 반찬은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엄마들끼리 책임질게, 우
리 애기 아빠가 공장에 가서 얘기하면은 꼭 다 소문날 거야,
이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조금 더 지역 운동에 도움
이 되겠다 해서 3월 21일로 저는 기억해요. 그때 구의원 딱 하
나예요. 그때는 공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쟁자는 건
축업자. 아주 돈 많이 버는 건축업자. 또 아까 말한 통장 출
신. 또 한 사람은 무슨 부동산. 그리고 또 누구는 아주 오랫동안
안 동네에서 있었던 전파사. 이래서 후보가 나가지 한 5명이었
는데. 2명을 뽑는 건데 1등 못할 거고 2등 아니고, 그래도 5년
밖에 거기서 공부방 안 하고 구의원 범위는 한 3만이 넘는 쪽
에 지역 통이고 우리는 거기 안에서 단 1~2개 통의 공부방 선
생이 될 얼마나 그러겠어, 그랬는데 딱 유세를, 그때는 십정초
등학교에 올라가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세 할 때 가
장 내가 도움이 됐던 건 학습지 배달하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슈퍼 지나 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고요. 거기 공원이 꼭 필요하죠. 이쪽 열우물 동네 쪽
돌아보니까 거기는 노인정이 그렇게 오래대세요. 생활에서, 골
목에서 봤던 것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소문이 다음날 그 여자
뚝뚝하네, 그 여자 동네 일 잘 보네, 차 타고 확확 다니는 조
사장보다는 좀 낫네, 이래서 우리 운동원으로 뛰어주신 분들
이 정말 이번에 지역 운동했던 후보가 잘 돼야되겠다, 꼭은주
는 밤을 새웠고요. 저기 인쇄물 만드느라고 밤을 새웠고 또 우

리 신 선생은 공부방 애들 다 데리고 연설할 때 엄마들하고 으쌰으쌰 해주고 각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우리 이충현 씨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있고 김성태 우리 한의사 사무총장 경우는 운동원들 나가기 전에 일렬로 딱 줄을 세워요. 옷차림 짹 보고서는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까지 그러니까 조 사장네가 하는 운동원들은 일당 10만 원을 주고 짹 뿌리니까 어떤 분은 고무신 신고 와서 쪽 아무 데나 쪽쪽 꿸고 어떤 분들은 아저씨들 그냥 대충 그러고선 해버리고 가는 거랑 여기서는 이 운동원들은 우리 엄마들이 책임지고 정말 밥은 맛있게 했거든요. 밥반찬 맛있게 해서 그거 우리 공부방 밥 한 그릇 잘 먹여서 점심때 내보내면 저녁때 얼른 와서 밥 먹고 싶은 생각에 얼마나 잘하는지, 1등 당선을 했잖아요. 그게 내가 1등 당선이 아니라 그동안 5년 동안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제 작은 동네지만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 거기 유권자들 다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 사람이 작은 동네에서 한 걸로 봐서 뭐 별 이상한 소문도 다 들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자신들의 그 경험담이 나가고 또 그걸 이번 선거에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잘 동네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500만 원으로 선거를 1등 했고 2등 당선자 조 사장은 1억을 썼대요. 그러고선 그 돈을 못 갚아서 굉장히 그 뒤에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500만 원 쓰고도 남아서 나중에 우리 운동원들한테 좋은 우산을 사서 나눠주고도 우산도 남았어요.

그야말로 빈민 지역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노동운동과 달리 뭔가 여기는 지역 차원이었는데 이 지역 운동을 통해서 지방 자치가 민주화로 가는, 정치 민주화, 특히 이 지역사회 민주화의, 풀뿌리 민주화의 아주 중요한 제도의 진입으로 그래서 지역 운동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많은 지역에서 그런 걸 통한 선거의 참여도 만들어낸 게 되고 인천 안에서는 제대로 인천 지역 운동 사회 운동권 안에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도 된 거로 보는데 또 한편의 국민운동본부가, 또 한편의 지역주민회라고 하는 빈민 지역의 공부방이던 이런 데가 모여져서 하는 조직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볼까, 이랬으면 이게 우리 공유의 부분이 아닌데 만석동 끝나고 십정동에서의 선택과 십정동에서의 이런 활동이 인천 사회 운동과 같이 맞물려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충원되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더 자극되기도 하고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고 그래서 선거 때는 또 집중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천 빈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결성 부분에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의원을 그렇게 잘 된 게 그런 과정에 한편에서는 그 단계의 최종 그런 것을 했다. 나한테는 또 개인 그 지역 안에서 5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뭐야? 이런 이슈, 운동 가지고 계속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이려고 했었다가 지방자치제가 하나의 그런 기폭제 역할도 했어요.

임병구 인천 하면 노동 운동 그렇습니다, 계급 운동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했던 시절인데 빈민 그다음에 또 지역 운동 그다음에 생활 정치 이렇게 삶을 일궈 오셨어요. 근데 여성 운동에 대

한 말씀을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여성민우회라든가 여성의 전화라든가. 초창기부터 만드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여성들의 아픈 삶들을 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겠습니다.

홍미영 여성 운동 들어가기 전에 이 지방자치제 선거의 첫번째 정치권 진입인데 이 정치권에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뒤에 30년을 제가 정치 운동을 한 편인데 늘 내가 프랑켄슈타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운동권에서 정치권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밀어주는 건 같이 밀어주는데 들어가서는 혼자 꺾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판의 생리가 따로 있어요. 말로는 새판 짜기 한다는데 들어가면은 새판이 안 돼. 거기서 잘못되면 왕따 당해 또 밀려나요. 그럼 내가 표현하기를 버스의 발판에서 매달려 가는 의정 활동을 했죠. 그런 정치 생활을 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서 내가 발판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어쨌거나 그걸 붙들고서도 잘못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날 당선된 날 아침에 동네 할아버지가 한문을 가르치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 7시쯤에 문을 두들겼다는 거죠. 다들 그 전날 당선 발표 보고 늦게까지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아침 7시부터 누가 문을 두들기니 그 달동네 집은 현관 열면 바로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막 현관 두들기면 바로 그냥 아이고 이견 뭐야 아침부터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문밖에 한문을 동네에서 가르치는, 거기서 푼돈으로 엄마들이 천원, 이천 원 주는 돈으로,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동네 다니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는 공부방 선생이고 여기는 한문 가르치는 선생

님, 이 정도만 알았는데 그분이 봉투 하나를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꺼내서 줄 때도 의아했어요. 이 봉투가 뭘까?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아침, 새벽에 3월 20일 그즈음에 봉투를 꺼내시는데 이제부터 구청 다니면서 일하고 동네 일 보려면 얼마나 또 수고가 많겠냐고 교통비라도 쓰라고 만 원짜리 3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 가고 그 뒤에 일절 나한테 무슨 다른 민원을 내거나 무슨 생색을 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기 때문에 크게 멀지도 않아요. 공부방에서도 바로 계단 내려오면 그런데 일절 그런 게 없으신 분인데 저는 그게 3만 원짜리 무게가 그때도 굉장히 정말 경이로운 거였는데 날이 갈수록 그게 점점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구의원 끝날 때도, 다음번에 시의원 나갈 때도,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거나 구청장 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무게가 점점 더 커져서 내가 아직 이분이 준 3만 원에 대한 값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이거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서 지금은 제 안에서 정말 값지 못한 제가 그동안 빛이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빛 중의 하나는 그분이 주신 3만 원이고 그분이 서울에서 3만 원 가지고 내려왔으면 내가 이런 느낌 별로 없죠. 동네 안에서 우리가 왜 생활 정치를 하고, 우리가 왜 그분들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가는 그분이 동네 안에서 그렇게 자신이 동네 엄마들한테서 받은 그 돈을 모아서 준 3만 원이라는 게 의미가 다시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하고 싶고, 이 정치 운동을 힘들게 하면서도 계속 그 중심을 잡는 부분이기도 하

고 그런 중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여성 운동에 관한 부분이 전에 동네 안에서도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복강경 수술도 당시에도 나왔던 것도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여성들의 조직을 해서 무슨 운영도 해보고 부업 이런 것 경제활동도 해보고 다 여성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문제 삼아서 해야겠다 하는 거는 구의회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40명 중에 여자가 저 하나였어요. 성희롱적이고 무슨 비하적이고 이런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조금 더 여성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주민 편의적이고 또 한편에 여성들이 돌보는 그런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또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들 경우는, 요즘엔 여성이 더 많아지고 여성들도 많이 상급직 가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여성들의 조금 더 정치적 연대들 또는 좀 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은 그런대로 활발한데 인천은 특히 노동 쪽과 정치 사회 운동 말고는 여성 쪽은 늘 부차적인 경로 취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 중에 여노회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여노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 노동 쪽 그게 튼튼하게 있었지만 그 외에 생활 여성 정치, 이 생활 여성 쪽에 하는 걸로 인천여성민우회 쪽이라든가 또는 여성 폭력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전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의 전화는 얼마 전에도 30주년. 시작부터 했던 게 그 여성 운동을 같이 했던 멤버들이 박인혜 씨라든가 우리 김

성미경씨라든가 이렇게 몇 분들이 푹푹 잘 그것들을 꾸려가
 는 지혜와 경험을 잘 살려서 지금은 또 다르게 인정받는 인천
 전체의 성평등 도시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여성
 민우회 인천지부는 그것도 90년대 말하고 2000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인천에서는 민우회의 위상이 생활 주부 운동이 중앙에
 서나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쉽지는 않은 게 인천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민우회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 후배들
 이 열심히 꾸려가고는 있는데, 저는 그 단체들이 그렇게 개별
 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인천여성연대란 이름으로 여노회, 민
 우회, 여성의 전화 이렇게 한 5개 단체가 공동의 이름으로 재
 작년쯤인가요? 부평역에 화장실에서 여성을 어떤 남자가 폭행
 을 해서 심각하게 다친 때라든지 또는 성폭행에 그런 거라든
 지 이럴 때는 다 같이 그리고 특히나 그때 부평역에서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여성연대 차원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화
 장실마다 호출기를 단다든가 이런 것도 활발히 일어났었죠.
 여성의 인권 문제 또 폭력의 문제 또는 일반 주부들도 같이 참
 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선거 때, 국회의원 총선 때 60명의 여성 후보가
 전국에서 나왔지만 이 300만의 도시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은
 서인부대가 서울, 인천해서 서인이라고 정치적으로 인천을 서
 울 다음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대구도 여성 국회의원 있
 고 부산은 더 있고 그런데 인천은 지금 완전히 그냥 계속 없는
 거 아니에요. 대전도 겨우 백만이 넘는 도시에서 여성 국회의
 원이 둘이나 나왔는데 구청장 이후에 여성 구청장도 있고 여

성 국회의원도 들이나 나왔는데 인천은 여성 정치 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의 그야말로 서인부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서인부대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띄우면서 그리고 인천에서 여성 아마 유권자들이 더 지금은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투표율이 더 높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특히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든가 또 국제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어찌구 얘기하는 것 치면 굉장히 이 젠더에 관련해서는 후진적이지 않을까? 인천의 젠더 관련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숙제로 미진한 부분으로 또 해야 할 과제로 그리고 같이 이후에 후배들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구 근데 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문제를 많이 상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가정폭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하셨던 활동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홍미영 가정폭력은 우리가 17대 국회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비례로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여성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호주제도 폐지되고 그리고 성매매도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가정폭력도 주로 가정이라는 보수적인 중심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그전까지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좀 때리는, 그 아버지나 뭐 가부장이 그렇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기에 순응. 웬만하면 그런 가족 중심적인 거였는데 17대 국회에서부터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많이 법안에 되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런 비

슷한 사건들이 좀 났고요. 또 저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장을 실제로 맡았어요. 그때가 시의원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상담소가 생기니까 물밑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법안이든 정책이든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것들이 됐는데 지금 여성의 전화가 이름을 바꾸면서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또 여성 그런 거에 여성의 전화 프로그램에 적극 제가 응원했던 건 다문화 여성들을,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 주고 같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었는데 인천 여성의 전화가 당시에 그 역할을, 울랄라 그걸로 해서 전국의 어느 단체보다도 그런 쪽 활동이 많았고 저도 그것을 많이 응원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이 또 한편에서는 요즘에 교제 폭력의 경우라든가 또는 뭐 뱃페이크라든가 또는 문지 마 신당 역에서의 그런 거라든가 젊은 여성들이 혐오의 대상이 그래서 머리만 짧으면 넌 여성의 정체성이 없는 뭐 해서 맞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즘엔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학교 안에서까지는 충분히 평등하거나 아니면 여성, 여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우월하기까지도 하는데 거길 벗어나기만 하면 그 틀을,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갑자기 이 여성에 대한 혐오. 일자리를 마치 막 빼앗고 더 남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또 표 작업도 하고 굉장히 IT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대상화 되고 성적 대상화 되는 것이 예전에는 무슨 성매매 여성의 텍사스촌, 여기는 미아리 같으면은 무슨 아메리카 타운 이런 걸로 되는데 이제는 그런 여성이, 이 성적 대상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여성 인권에 관한, 여성 폭력에 관한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서 우리의 젊은 여성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인천의 경우도 거기서는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이 그간에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 보호 부분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 더 다른 양상으로, 더 법이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 하는 걸로 여성 운동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임병구 여성 운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정치 활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인터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는 과정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도 좋고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도 좋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홍미영 예, 늘 현장에서 바로 이 시각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 무엇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많이 풍족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저는 파이에 먼저 많은 부분을 먹었으면 또 많은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혼자서 할 수는 없고 함께 해야 하는데 사실 빈민 지역 운동이 외로웠고 인천에서 하는 건 더 외로웠어요. 그

래서 아까 인천 만석동 경험하면서 축복이라고 얘기는 했어도 인천 만석동 3년이 참 외로웠다, 서울에서 인천은 멀고 서울의 여성평우회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동지에서는 또 너무 멀고 인천 안에서는 이게 서울에서 내려온 조직, 사람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인천에서는 잘 안 받아지고 마지막에 철거 싸움 하면서 모아진 거고, 인천이 짠물이긴 짠물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해불양수라고 다 들어와서 엮어진다고 하지만 또 내가 느끼기에는 다 그 안에서도 또 정치관에 끼리끼리와 다른 또 여기도 또 끼리끼리가 있어서 또 제고 출신, 인고 출신, 어느 여고 출신 이런 게 나는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오늘 민주화운동 하는 대열에 섰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1년만, 1년만 해서 길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지역 운동은 거기서 함께 그리고 같이했던 사람과의 확실한 동지애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의 훌륭한 부분보다 더 낫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애정과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깊은 연대감에서 저는 어쨌건 여기가 어디 가서든 인천이라는 게 내 고향이고 그러는데 아쉬운 부분은 아직도 아까도 말로는 서인부대 얘기하면서 실제로 쟤 더 부분도 쫓기고 다문화를 품는 부분도 별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너 그 자리 갔어, 왜 나는 못 갔어, 이러면서 분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에 선배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가장 인천에서 뚝뚝한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키워준 정치인들이 자기반성을 제대로 못하

고 자각을 못 하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중에 혹시 나는 안 끼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다 보니 제가 맨날 앞장서서 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과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앞장을 안 서더라도 우리 후배 선배들이 앞장서고 내가 뒤에서 적극 밀어주면서 이제껏 못했고 미안했고 이랬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 이 선배가 인천 심정동에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역할을 맡기고 또 한편으로 또 당신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이 좀 더 자양분 될 수 있으면, 그걸 전수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뒤늦게라도 인천의 이 정치와 여성과 주민운동 그리고 가장 달동네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서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임병구 선생님이 저렇게 바라보면서 얘기에 주니까 시간이 긴 줄도 모르고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임병구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건 한국 사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학력, 최고의 경력을 갖고도 곳곳까지 달동네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쫓겨난 느낌을 다시 한번 받거든요. 여러 유혹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중앙 정치권의 유혹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천의 심정동 사람으로 이렇게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겨오고 견뎌 오실 수 있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홍미영 예, 그거는 선배와 후배가 늘 리부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좋게 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서 역사를 공부하듯이 저희 시대에 정말 우리 지금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평등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죽고 말도 못한 고문을 당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 또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조봉암 선생님이 저는 오늘 조봉암 선생님 말씀 놓쳤는데 부평 출신이잖아요. 강화해서 출생하셔서 부평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을 되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나가는, 그래서 인천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조봉암 선생님.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게 항일 독립운동이고 그 뒤에 여러 진보적인 정치 운동을 하셨던 건데 그런 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저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달동네에선 늘 그 현장에 있으면요, 저분은 우리 애랑 같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 집에서 엄마하고 애 아빠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달동네 철거되기 전까지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아들도 일 다니다가 허리가 아파 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분은 우리 사회의 지금 발전은, 우리 사회에 누리는 부분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절절하게 그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정말로 제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살았다. 사실 혼자 있으니까 누가 서울에 있는 여성평우회가, 내 실무자가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늘 저는 저 엄마는 오늘 아침에 벌써 일어나서 다 밥도 챙기고 걸

레를 행주같이 깨끗이 하는데 이려고 비교해 보면 나는 그들에 비해서 머리 지식 있다는 것 말고는 게으르고 또 피부리고 또 어떻게 유혹에 빠지려고 들고 그래서 나한테는 늘 민중이 선생님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늘 이 누구보다도 좋은 훈육 교사이신 거예요. 정말 달동네 안 살았으면 머리에 그 지식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운이 좋아서, 정치인이었다면 어깨 이렇게 높아졌을 텐데 지금도 그 엄마들 만나면 정말 열심히 자식 키우고 또 뭘 해도 이 나이가 육십이, 칠십이 될 때까지 미싱이라도 하나 더 박을라 그러고 아빠는 지금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데도 어디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닮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꼭 엘리트 뭐 요런 데서, 자기 안에서 보이는 것만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고 그런 걸 놓치지 않는 사람 저는 꼭 후배들이 현장을 놓치지 말고 그게 다 크게 보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달동네 십정동 만석동 그 한 계통에서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그 한 계통의 우물을, 그렇지만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같이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뭐 얼마나 지식이 뭐가 있어요. 난 가계부도 안 쓰는 사람인데 몇천억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건 거기서 그런 부분을 볼 줄 알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또 제 선배들한테서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변절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변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병구 우리가 3시에 시작한 인터뷰가 이제 6시가 됐습니다.

홍미영 예.

임병구 3시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후배들에게 주실 말씀 남겨주신, 옛날의 공부방 선생님이 지금 인천의 선생님이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미영 감사합니다.

윤인중



- 생명평화기독교연대 대표
- 인천 민주진보교육감을 위한 교육자치시민모임 활동
-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활동
-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 시민대책위원회
- 기독교장로회 총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 인천지역 총선 야권단일화 운동 전개
- 2010~2022 생명평화 정치 기독교 총선(대선)행동
- 2024년 현재 인천평화교회 담임목사

일 시 2024.11.20

장 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터뷰어 임병구

대 담 자 윤인중

주요 약력

- 1959년 1월 17일 부산 출생 (현재 66세)
- 1978년 3월 1일 한신대 신학과 입학
- 1981년 11월 4일 반파쇼투쟁 기독교학우 선언,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수감
- 1983년 5월 만기출소
- 1984년 직업훈련원에서 용접 기능사 2급 자격 취득
- 1984년 8월 한신대 졸업
- 1984년 12월~ 86년 8월 공장 생활
- 1987년 10월 해인교회 노동야학 (탈춤, 기타, 노동법)
- 1988년 인천에서 새벽교회 개척 목회 (전도사)
- 1991년 목사 안수,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 소속
- 1991년 송림동 인천대 축대 붕괴 사건 피해 대책위원회 활동
신립섬유 대책위, 계산동 724번지 주거대책위,
지방선거 야권단일화 운동 전개
- 1997년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활동
(노동위원장, 정책위원장, 집행위원장, 공동대표 역임)
- 2002년 새벽교회 사임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 2006년 인천평화교회 개척
계양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계양산 소나무 위 농성 시위 (155일)

윤인중 목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 기독교장로회 성남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펼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현장에 투신해 공장 생활을 하다가 해인교회를 거쳐 새벽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시작했다. 인천민중교회연합을 조직해 활동했고 기독교 목회자들과 목회자정의평화 운동에 앞장섰고 평신도들과 함께하는 노동선교문화원에 참여했다.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해 목상동 소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 농성을 전개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인천평화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재개하면서 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를 만들어 환경선교를 펼쳤다. 생명평화기독연대를 조직해 기독교 신앙과 사회 운동이 조화하도록 앞장섰고, 정치 격변기마다 민주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야권연대 활동에 주력했다.

임병구 오늘은 2024년 11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윤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윤인중 네, 반갑습니다.

임병구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인중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 부산에서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죠. 돼지를 많이 키웠었던 것 같아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가세가 기울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

웁니다. 금호동 산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소년 시절, 돈 걱정이 많았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계를 많이, 계주 노릇을 했는데 이 계 오야 노릇을 하다가 파산을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서 막 소란 피우고 행패하는 것이 4학년 때, 5학년 때, 빗잔치 한다고.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빗잔치를 합니다. 테레비, 풍금 뭐 테레비 나갈 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그것 가져가신 분들도 억울하겠지만, 음 그래서 금호동 산 동네에서 좀 더 산꼭대기로 올라오면 응봉동 시민 시영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 시영아파트는 이제 중학교 무렵인데 6학년 때 파산을 하고 한 6년 정도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난 중에는 가장 지독한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일 창피했던 게 점심시간에 수제비를 가끔 싸주는데 이게 점심 도시락 열면 거의 떡이 돼 있어. 일단은 배고픔도 문제였지만 그걸 펼치는 게 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된 그런,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서 기억나는 거는 사업 실패와 빗잔치 그리고 시영아파트 올라가서 산 거.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다락방에서 혼자 있었는데, 라디오는 있었어요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를 들은 게 굉장히 유일하게.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기억나는 것 10살서부터 한 16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좀 암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고, 또 아버지가 부지런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렵긴 했는데 좀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돈다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요일에도 다녔으니까.

고1 때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막 잠이 쏟아지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몸이 좀 붓는 느낌이, 억지로 억지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내 얼굴 보더니, 너 빨리 집에 가서 병원 좀 가봐야겠다 그러더라고. 급성 신장염이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74년도 한 5월쯤이었는데.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개월 정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년 지나니 그래도 수업 일수를 맞춰줘 갖고. 한 두 달 정도 급성 신장염으로 앓은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내 소년 시절에 완전한 전환기를 이룬 사건이야 우리 집이 그때 시영아파트 지하 2층에, 지하 2층이라는 게 뭐냐면, 지하 1층 2층은 양성화된 아파트가 아니야. 어떻게 시영아파트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지하를 만들어 갖고 그 지하 1층과 2층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등기도 안 나오고 그냥 수도는 들어왔던 그런 지하 2층에 방 2개짜리 7평 8평짜린데 화장실도 없고 다 공용 공동화장실 거기에 한 방을 우리가 쓰고, 한 방을 그걸 세웠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끔 눈물 나죠. 왜냐하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누이 둘, 나 막내 여동생 7명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몸도 아프고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학교 2개월 만에 휴학을 해서 아는 친구도 없었는데 한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응, 아 니가 아프다고 그러고 우리 집하고 가까워서 한번 선생님한테 자기가 주소 알아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찾아온 게 나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약간 쟁피하기도 했

고 워낙 뭐 못사는 꼴 보여주고 내 또 몸도 아팠고. 학교로 다시 가서 그 친구를 쫓라 쫓라 따라다녔는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나하곤 다르게 아주 활동적이기도 했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좀 이렇게 당시에는 좀 뭐랄까 모자도 삐뚜루 쓰고 이렇게 다니는 크게 논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도 안 하다가 말도 많아지고 큰 변화였어요. 그 친구가 나의 어떤 면에서 좀 숨어 지내던 한 소년을 밖으로 끌어낸 친구라고 생각해. 그게 하나 변화고 결정적인 거는 우리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더 아프기도 하고 잘 만나질 못했는데, 이유가 서로 교회를 다르게 다닌 거죠. 하루는 4명이 모여서 교회를 합치자, 한 친구가 서울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우리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녀서 그럼 도회지로 나가자, 금호동을 벗어나자 해서 서울역으로 진출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그러니까 뭐 우연이지만 서울 성남교회라는 아주 의미 있는 교회를 만났고 거길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이 뭔가 변화가 오겠다는 느낌을 확 받은 거야. 왜냐면, 내가 다니던 교회는 풍금을 갖고 쳤던 좀 쪼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성남교회는 나는 베르사유 궁전을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내가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온 것 같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와 뭐 파이프 오르간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오르간 있는, 풍금이 아니라, 그 성가할 때 성가 지휘자가 나운영 선생님이라고 연세대 음악과, 찬송가 많이 만들고 또 찬불가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줬던 그리고 나운영 선생님의 지휘하는 성가대,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창피한 게 뭐 우리 교인들

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목사님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성가대 그 아름다운 성가대 모습은 굉장히 기억나네요.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축구하고 아주 단순했어요. 교회는 재밌어서 계속 나왔어요.

임병구 두 번째 질문이 성남교회 신앙생활이 삶에 끼친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시절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윤인중**: 아 성남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이 내 인생에 첫 번째 탄생이었다면, 내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자궁의 역할을 한, 산동네 금호동은… 컨츄리였죠 컨츄리였다면 성남교회는 그 이전의 일상적 어떤 생각이나 패턴을 완전히 바꿔줬죠. 신학이 좀 달랐고 자유롭고, 음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모든 성도들이 뭐 어느 교회나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아프구 나서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짓눌렸고 좀 움츠렸던 생활이 좀 활기차게 변화했어요. 그때 나에게 힘이 된 게 기타였어. 기타를 한 6개월간 거의 뭐 전념을 해갖고 교회 내에서는 중고등부에서는 나보다 아주 잘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꽤나 잘 치는 그래서 기타를 치니까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기타를 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나는 내가 굉장히 음치라는, 그래서 남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웠다가 기타를 치고 나니까 그런 음치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고 노래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으쓱하게 되는, 뭐 그래서 성남교회가 사실은 뭐 중고등부 시절에 한신대 그 신학

생들이 전도사로 와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76년도 음 76년돈가 봐요. 내가 3학년 때인데 이영재라는 선생님 그 이영재 선생님 형이 지금 뉴라이트의 사상적 대부인 이영훈, 이영재 선생님이 데모를 하다가 감방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데모다 감방이다 이것까지는 사실 몰랐고, 아 우리 선생님이 잡혀갔단 얘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인상이 나한테 좋았어요. 나의 평생 형이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이영재라는 선생이 감옥 갔다는 것을 내가 고3 때 만나면서, 아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꿀지는 몰랐지요. 대학 진학을 실패했어요 77년도 1월 달에. 1~2차 모두 떨어지고. 그리고 78년도에 대학 입시를 봤는데 1차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3수를 하면 군대에 끌려가게 돼 있어. 뒤죽박죽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내가 77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재수를 하고서 대학 1차로 떨어지니까 막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재수 기간에 뭐 교회 대학 청년회 열심히 다녔긴 했는데 한신대 황성규 교수라는 분이 청년부를 지도하고 황성규 교수가 지도 목사였는데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우리 학교 안 올래?' 그거 한마디였어요. 내 인생의 장점이자 가장 단점입니다. 황 교수님이 나에게 '우리 학교 안 올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것이 확 그냥 사라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어.

임병구 그럼 그전까지는 신학에 대한 생각은?

윤인중 신학을 한 번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게 느닷없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그 문제

는 해결해야 돼요.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의 느닷없는 부름이라고 내가 고백은 하지마는 뭐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수 없는 요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에 이영재가 작용을 했던 것 같애,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었고 멋진 선생님이 데모도 하고 감옥도 가는 이런 모습이 나한테는 큰 힘이 됐던 거죠.

임병구 그럼 그 선생, 이영재 선생님이 한신대학을 다니셨던 거예요.

윤인중 그럼요 목사고. 고등학교 때도 기억나는 여러 뭐 저기 동화책 빼고 딱 한 책이 장준하였어요. 장준하 선생 일대기, 돌베개라는 작품을 읽고 그 당시에 잘 몰랐지만 장준하 선생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고 위대한 분이다. 신앙이 굉장히 깊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영재 선생님이 데모하고 갔죠, 시험은 떨어지고 완전히 디프레스 돼 있는데, 한신대 교수가 학교 오라 그래서 내가 갔죠. 그래갖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특히 우리 아버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정치외교과 계속 지망했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기대가 있었는데, 아버님 처음 우시더라고. 그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구, 막 안 된다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한 얘기에 집안이 화평해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장염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던 아주 가난했을 때지, 가난했을 때 어머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애를 살려 주면 목회자로, 이거 하나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했었나 봐요. 살려만 달라고 그럼 목회자로 하겠다. 나는 그 얘기를 신학교 간 다음에 사태가 나고 나서 어머님이 나한테 침 고백해, 내가 이제 고백하는데. 아버님

이 인제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마지못해 허락했고, 느닷 없이, 신학교를 들어간 거야. 학교를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한신과 현실의 한신은 엄청난 차이였어요. 어떤 차이였냐면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어서 더 좋아하겠지만, 내가 들어갈 때 한신은 완전히 그 박정희 독재의 폭격을 맞은 학교였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들어왔고 난 그냥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 그냥 살벌한 거야. 한신대 그 당시에 1학년에 50명, 전교생 200명인 학교, 대학원까지 합해도 250명이 채 안되는 조그마한 수유리 동산에 있는데 아주 그냥 살벌해 분위기가,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76년도에, 내가 들어간 게 78년도 한신 들어갔는데 76년도에 한신대 간첩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선배들이 짐승같이 울 정도로, 친구의 고문 받으면서 짐승같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서로 아파했던 간첩단 사건까지 난 거예요. 아니 신학생을 간첩으로 몰았으니까. 거기에 제일교포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근데 또 김현철이 성남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엮어갖고. 그러고 나서 뉴스에도 한신대학교는, 이걸 아주 용공 이렇게 몰았던 학교로, 그러니까 학생 내부 또한 프락치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작은 학교, 학교가 편안한 대학이 아니고, 험악했어요. 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선배들이 거의 깡패 같은 눈초리야 이게 그냥 편안한 눈초리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 쪽으로 오면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신학교는 뭐 더 살벌해서 적응 못 했죠. 적응 못하고, 준

비가 안 된 신학 생활이었었죠. 혼돈이 있었지만은 학교 강의가 이제 성남교회에서 한번 열렸던 눈이 한신의 신학을 만나니까 확 펼쳐지는 거야. 이게 정말 새로운 세계가 넓구나. 아 이런 정도만. 그러면서 대학부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생활은 그렇게 재미없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야학도 하고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사회과학 학습 이렇게 쪽 해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2학년 말에 편집장이 돼요. 한신대학보 수습 기자로 일했는데 보통은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때, 편집장을 교체하는데, 3학년이 말인데 편집장, 전임 편집장이 아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편집장을 맡는데 그때가 80년도야 80년도 11월인데 그러니까 9월에 맡아갔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 광주항쟁 이후의 계엄 상황이었잖아요. 서울시청에 들어가면은 아주 거의 나치 분위기야. 서울시청 1층에 군인들이 대위에서 중령급 군인들이 짝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신문 방송 대학신문 잡지 쪽 가서 옛날에는 인쇄 들어가기 전에 지형 뜬 게 있다고 그 대장을 먼저 인쇄 안 걸고 이렇게 저걸로 해서 먹지로 해서 갖다주는 거야 타블로이드판을. 그럼 개네들이 그냥 빨간 사인펜으로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얘기가 좀 막 가는데, 2학년 때 학보사 하면서, 박정희가 죽고 그런 혼란 속에서 전두환 들어서고 그때 80년 3학년 때 인제 광주를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미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회에서 수유리 축제를 하는데 김대중 선생님이 오늘 강연을, 김대중이 그때 연금에서 풀려나갔고 아마 동국대에서 먼저 강연을 하고 한신

대에서 두 번째 강의인데 나는 그 당시 학보사 편집장이니까 굉장히 특혜를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무실 요만한 교무실 있어요. 거기에 안병무, 문동환 쪽 해갖고 DJ 모시고 얘기하는데 나는 출입이 됐지.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DJ라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학교 그때 유리창이 한 3분의 1이 파손됐을 정도야. 왜냐하면 학교가 작아요. 예배실이 300명이 앉으면 저기 하는데 1500 정도가 예배실에 들어왔고 거기 한 1~2만 정도는 온 것 같아요. 한신대 수유리가 사람이 난 그렇게 많은 걸 그 당시 처음 봤으니까 엄청나더라구. 그리고 외신들도 뭐 그 당시에 엄청났죠. 한신대. 나중에 보니까 워낙 이 DJ하고 한신대 교수님들하고 신뢰와 교분이 굉장히 깊은 거야. 인제 5월 달에 서울의 봄 사태에 참가하게 되고 뭐 그 당시 또 한신대는 그냥 그런 일부였는데 광주가 나잡아요. 근데 제가 학보사 편집장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아까 학교 1~2학년 생활이 좋지 않아서 보컬 그룹을 하나 만들죠. 나중에 아주 유명하게 된 목사죠. 장빈이라는 친구가 “야 우리 보컬 만들자. 대학 가요제 나가자”고 그래갖고, 나도 기타를 치니까 보컬을 만들었는데, 그다음 우리가 한 기 지나면 2학년 보컬을 하는데 거기에 유동훈이라는 친구가 보컬로 들어와요. 근데 유동훈이가 광주 도청에서 죽죠. 그래서 보면 저기 ‘택시 아저씨’의 꼭 그 패러디는 아닌데 거기 류준열이가 나왔던 역이 있어요. 기타도 치고 뭐 교련복 입고. 그러니까 유동훈이 아 그건 어쨌든 우리가 저기 보컬 바로 전 다음 기 후배 아니까 동훈이의 죽음이 있었죠. 사실 나한테 멀어요 그거는.

근데 후배의 죽음, 도청에서 죽고, 그 죽음의 이야기가 너무 기
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컸고 근데도 나는 그 당시까지
는 학교에서는 솔직히 학생운동에 직접 뛰어들진 않았어요.

윤인중 신문 발행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한 학생이 나하고 같은 연배
인데, 같은 학년인데 연배는 좀 위인 한, 그 친구 운동권 학생
이었죠. 그 당시에 “인중아 이 편지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야. 그 편지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존경하는 교수
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는데, 이 학생한테 데모하러 학교 다닐
라면 학교 다니지 마라고. 내가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아. 아
니 한신, 나는 데모를 안 하지만 난 데모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한신대 신학과 교수가 학생한테 넌 좋지 않으
니까 학교 그만두라고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준 거야. 내가 굉
강히 양심에 찢리더라고.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 선생님이 가장 강
조한 게 뭐냐면, 난 그 선생님의 논리에 내가 설득을 당했었거
든. 너희는 사관학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장교가 돼
서 싸워라. 데모는 졸업해서 해라. 학교 때는 사관생도로서 신
학생으로서 공부해라 자기는 그런 입장인데 나는 아 그 입장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럴 듯했어.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감
동적인 교수가 친구한테 그랬다고 한 거 보면서. 그 친구 또
왜 나한테 보여줬는지 몰라. 그게 내게 찢림이 되었어.

근데 아까 이영재는 나하고 운명적인 사람이긴 한데… 81년도
11월 달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YWCA 사건이 나
요. 명동 YWCA 위장 결혼 사건이 나. 이영재가 선배죠. “야

인중아 저기 우리 친구 결혼하는데 너 밥 먹으러 와라” 그러더라고. 간 거야. 나는 명동에 명동을 딱 갔더니 전경들이 그냥 명동 YMCA, YWCA 올라가는 한국은행에서 인제 올라가는 길이 있어. 거기에 그냥 가득 찬 거야. 어우 공포감이 짝 왔지. 그런 건 그렇게 많이 보던 풍경 아니니까. 근데 위에서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그 당시는 명동에 차가 안 다녔는데 민주주의 뭐 독재 타도하면서 계엄 해제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차도와 인도를 구별하는 게, 쇠사슬로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요새 같지 않고 쇠사슬인데 내 발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막 그러더니 쪽 빠져서 한국은행 쪽으로 그 시위대가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집에 와서 굉장히 울었어요. 아 내가 이게 그 당시 표현을 그 당시에 그냥 표현하면 난 사내도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울었어. 아 이거 참 췌피하더라고. 할 거면 할 거고 마음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몸이 안 떨어지는 거야. 몸은 얼었어 쫓아갔고. 근데 한 YWCA 사건 나고 나서 며칠 후에 거기서 수배당한 우리 동료들이 있었거든. 한신대 친구들이 또 아까 그 쫓겨날 뻔한 사람도 그렇고 다 운동권들을 다 알고 갔으니까. 친구가 수배 중이니까 전화가 온 거야. 호성이 그 친구가 호성이라는데 호성이의 친구인데 잠깐 좀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호성이라는 소리에 딱 나왔더니 형사 넷이 날 잡으러 왔더라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잠깐 경찰서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인

사는 드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처음으로 세단 그 당시에는 세단이라는 차에 4명이, 내가 가운데 앉아서 끌려가는데 이게 왜 잡아가는지 내가 YWCA 사건 간 건 간 거지만 아 그걸 알고 왔나 하고 그러면서 쪽 가는데 내가 원효로에서 살 때인데, 머리 숙이라고 해서, 인제 머리를 쪽 숙이고 끌려가는데 이 원효로에서 성남교회를 지나면 남산으로 올라오거든. 이게 남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차가. 허 그래서 이젠 나 죽었다 인제 막 했는데, 그건 아니고 남산을 돌아서 중부서에 들어가. 중부서를 가려면 서울 중부서라고 하면 남산으로 들어가니까. 성남교회가 남산 부근에 있었으니까 나 죽었구나 했는데 내려오니까 중부서더라고. 그러니까 중부서에 딱 들어갔더니, 유치장으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유치장 문은 열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박수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 박수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난 왜 잡혀온 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에 그때 백기완 선생님, 그리고 주역들이 다 온 거야. 그리고 한신대생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운동권이 온 줄 알았나 봐. 근데 아 이게 딱 들어 왔어 그러니까 인제 저쪽에도 있구 뭐 한 서너 방인데 막 가득가득 찼어. 어른들도. 나는 근데 보기도, 이 사태가 싫은 거야. 앉아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나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얘기조차 나누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인제 참 어떻게 하나. 밤을 꼬박 새는데, 중부서 유치장이 영락교회 바로 밑이에요. 그것도 인제 처음 알았지. 영락교회 바로 밑이 중부서인데 새벽기도 새벽종이 울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내

가 결단한다. 운동하겠다. 내가 거기서 결단하는 거야. 그래 내가 왜 잡혀 오는지도 모르고 나는 집에 와서 울었던 말이야. 사실은 뭐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죠 나는 '아 그래 하나님 또 부르시는구나.'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래 너네 원하는 운동하겠다. 결단했죠. 학교에서는 나를 알 거 아니에요. 재는 운동을 안 하는 애라고. 그리고 이게 채피한 얘기지만은 한신 학생 동향이 세 파로 나뉘어졌어. 저쪽에서 분류를 할 때. 운동권, 도서관학과, 날라리파, 나하고 장빈이는 다 날라리라고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어 먹혔나 봐. 아 그리고 내가 몰라, 아무것도. 나는 가서 왜 왔냐고 그래서 영재 형이 빵, 점심 먹으러 와라 해서 왔다. 그리고 뭐 못 들어가고 나는 갔다 집에. 그 이유뿐이 없으니깐 이상하다.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그 비밀을 알았지. 내가 왜 가야 됐는지. 정호성이란 친구 놈이 잡힌 거야. 고문을 많이 당한 거야. 많이 매를 맞았어. 하나만 불라 그랬더니, 애가 나를 분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불었냐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그리고. 니가 간 건 자기가 불어서 갔대는 거야. 그래서 아 난 그것도 좋아 왜냐하면, 이해가 가잖아. 오죽 맞았으면 뭐 그랬겠어 내가 뭐. 근데 더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불면 안 데려갈 줄 알았더니, 아니 아니 나도 그 말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10년이 되게 10년 뒤에 내가 왜 잡혀갔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운동권이 된 거야. 아마 그 영락 중부서 유치장이지만은 영락교회 새벽 기도에 만난 이후에 내가 운동을 10년 전까지는 거의 너무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요렇게 제가 운동

에 들어온 계기가 그렇게 돼서 이제 4학년 때 데모를 하게 되죠. 4학년 때 데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얘기니까 꼭 해야 되는데 있어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가두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예배실 안에서 저기 옥내 집회였거든.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으로 했을 때 대부분 그거는 지금으로 보면 다 성립이 안 되는 법이야. 근데 당연히 데모하면 잡혀가는 줄 알았고 1년 6개월 이제 성동구 치소에서 6개월 살고 안양교도소에서 1년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때 이제 창피한 얘기지만 운동 시간이 30분 주어져요 나중에 안양에서는, 인제 좀 징역이 풀려서는. 1시간 2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거 뭐 못하고 30분 운동하는 거 빼놓고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 300페이지에 사회과학 책 100페이지, 이게 하루 일과야. 그리고 편지 하나 쓰는 거. 편지 하나 쓰는 데 한 1시간 가요 1시간 이상 가. 아유 뭐 그리고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 독방을 가져본 게 내 감방이고 혼자 사니까 아주 좋더라고. 거기서 안양 갔더니 안양 교도소를 들어가 이제 넘어갔는데 박관현,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전남대 복학생이면서 시위를 이끌었죠. 전남대 그 분이 금식으로 자기 운명을 거기 안양 교도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에 마음이 좀 아팠고 그 때 정동년이라고 바로 밑에, 인제 나는 위층에 살았고 상에 살았고 그 정동년 선배가 하에 살아서 광

주와 디제이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정동년 선배한테, 그래도 광주항쟁의 지도부를 거기서 만났던 적이 있고 그때 내가 교회를, 감옥에서 결정한 게 두 가지, 하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내 인생에서 이제 교회는 끝이라고 결정을 했고, 나가면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한다. 요 두 가지 결론을 내가 감옥에서 했던 거고, 뭐 나한테 감옥은 아주 뭐 충분한 좋은 공간이었죠. 지금 좋은 공간이라 하면 안 되지 잡혀가는 건데 그 당시에 그냥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83년도 5월 달에 만기 출소해 갖고, 음 그때부터 뭐 이제 친구들 선배들 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공장을 들어가는지, 직업훈련을 다녀라 그래서 현대 직업 현대 산업 그제 2호선이 다니는 길에 있는 저긴데 대림인지 현대직업훈련이니까.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뭘 하는 데냐면 사우디 노동자, 사우디 노동자들이 기능을 빨리 습득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데예요. 워낙은 기능 자체가 거기서 용접 뭐 이제 몇 가지 기술들을 짧은 시간에 배워서 해외 나가는 노동자들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용접 기능을 배우고 84년도 11월 달에 부천으로 내려와요. 그제 인천에 내려오게 돼 올해가 인천 내려온 지 딱 40년 됐는데 부천에서부터 마찌코바를 계속 다니죠. 마찌코바한 5~6군데를. 내가 어쨌든 감옥을 갔다 나와서 이게 내 이름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들 뭐 사촌 동생들 이름으로. 어쨌든 좀 용접 기술을 늘리느라고 몇 군데, 한 5군데 정도 마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어 한신보일러라는 데를 들어가요 작전동에 있는 한신보일러.

86년도 구나 그게 84년 12월부터 공장을 생활해서 86년도 한
신 보일러를 다니는데 제가 관련돼 있던 데서 좀 조직 사건이
나갔고 공장 잠깐 나왔다가, 주안에 있는 저 삼익, 옛날에 삼
익 악기, 영창 악기 뒤편으로도 마찌코바 정도, 아주 소기업들
이 좀 있어요. 영창 악기 뒤에 이은주 집 가는, 거기에 있는 공
장을 다니는데, 내가 노동 일을 제일 많이 해본 건 철야 5개하
고 잔업을 한 13개를 한 것 같아요. 1달에 그랬더니, 내 인생에
서 월급은 그때 최고 많이 탔어 26만 원인가 수표를 2장을 주
고 6만 원 받는데 내가 그 당시 시급 6천 받았었나, 시급 6천
원 대였었나, 보통 한 15만 원 잔업하면 한 18만 원 받는데 그
렇게도 다녔는데 1년 6개월 다니면서 공장 생활하면서, 나는
저기 노동운동가로서는 영 실력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 친
구들이나 후배들은 벌써 소모임도 만들고 저기 파업도 한, 아
니 파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크 정도는 일으켜
서 뭐 하는데 나는 소모임 하나 못 만들고 이렇게 이게 그리
구 그냥 뭐 노동 일 하는 것도 벅차갓고 적응을 잘 못하는 거
같애. 그러면서 잠시 좀 그리고 그때 변혁 논쟁이, 굉장히 이
제 노동운동 내에서도 심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핑계도
덜 겹, 근데 사실은 현장이 잘 안 맞아서 내가 현장 체질이 아
닌데 인정하긴 싫어서 도망갈까 하다가 인천을 떠나선 안 된
다는 생각하고, 갈 데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공장에 안 들어
가면 우리 친구들이 와 갓고 이것도 아주 저기 왜 안 다니는지
이게 또 자아비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 귀찮고 그것도 그
래서 그때 해인교회라는 민중교회가 있죠. 내가 교회를 안 다

니기로 했는데 거기 사찰 집사로 내가 들어가. 왜냐면, 거처가 노동운동하는 동료들로부터 떨어져 갖고 나 혼자 좀, 어 내 인생을 좀 정리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인에 사찰로 들어가는 거지. 민중교회 초기예요. 이재천 목사는 가고 목회를 할 땐데 친구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잖아. 교회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서준목이 내가 청년부 때 기독교 저기, 기장청년회에 내가 성서 연구 반장이었는데 거기서 공부했던 친구야 친하기도 했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친구 불러갖고 탈출, 또 한 친구 불러서 노동법하고 나는 이제 기타 교실을 하고 그래서 뭐 신나게 했죠. 그 당시인데 86년에서 87년 넘어가는 때잖아요.

윤인중 그때 같으면 투쟁은 크게 안 드러났는데 노동운동 인노협이나 전노협이 굉장히 좀 상승기로 들어갈 전체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움직일 때야. 그리고 그게 인천 5.3 투쟁 그 다음에 권인숙 성 고문 사건, 그 시기잖아. 그 당시 86년 겨울에 이리 후레아 패션인가 하는 공장에서 뚜렷한 투쟁이 하나 있고 거의 노동운동 없었던 아주 보이지 않게 죽 암울했던 때인데 87년 1월 달에 박종철이 고문당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86년과 87년을 내가 이제 해인에서 노동 활동을 보면서, 야 이게 김지하 씨를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봄에 터져 나올 함성을 믿지 못하는 자기를 죽음이라 부르자' 그러니까 1974년 1월이란 시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민중들의 투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근데 그 밑에 지각에서는 짹 하고 있는 걸. 87년은 굉장히 어두웠어. 86년, 87년 1월 박종철 죽고 3월부터

고문 철폐 관련 투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87년 3월부터 87년 9월까지 10월까지 6~7월 대투쟁 아니 6~7월 민주화 투쟁,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꼭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있었던 거야. 87년에 그때는 하루 한 3시간씩 자는 게 전부였을 거야. 그냥 뭐 잠이라는 게 있어서 밤에는 저기 유인물 뿌리러 다니고 낮에는 이제 데모하러 다니고 고개 아주 그냥 고런 경험을 쭉 겪으면서 아 내가 노동운동가로서는 안 되겠다. 목회, 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로 했는데 ‘민중교회’ 나는 민중교회 운동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면 민중교회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민중교회를 만나서 다시 교회로 나온 사람이 된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 민중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인교회 하고 새벽 교회, 민중교회를 계속하고 노동상담소를 하게 됩니다. 이은주는 아마 새벽교회 시절에 저쪽 잔당들 하고 후배들이어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새벽 교회하고 10년 했는데 91년도 하나 중요하네요. 민중교회 활동으로 들어가면 ...

임병구 91년도에 가시기 전에, 전도사 생활도 하셨잖아요.

윤인중 그러니까. 새벽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91년도에 안수 받았어요.

임병구 그럼 전도사로 새벽 개척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목사 안수를 새벽 교회에서 받으신 거죠.

윤인중 내가 재밌는 게 우리 아들이 5.18에 태어났잖아. 내가 그래서 5.18에 태어난 것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게 11월 13일이야 전태일이.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위아래로 나를 운

동권으로 만들라고 아예 걱정들을 했다 했는데 우리 사실 새벽이 태어날 때는 이제 5.17에 태어날지 5.18, 5.19 이 셋 중에 하나 태어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분명한 날짜는 그 원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5.17에는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려면 5.18에 태어나라 했더니 다행히 5.18에 태어났어. 새벽 교회 할 때는 이미 인제 한참 운동을 할 테니까. 노동운동에서 나는 솔직한 개인 얘기를 한다면, 노동 운동에서 못 한 죄책감과 한을 막 민중교회에서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래서 약간 패배 의식도 있었거든. 아 이게. 교회가 역시 나한테 맞는다는 것까지 했고, 그렇게 하는데 91년도 우리 새벽 교회가 대헌공전, 옛날에는 대헌공전이었어요. 지금 재능대학교, 거기 앞에 있었거든 송림동. 근데 이진 목사가 저기 추석에 여기 지금 인천대 축대 매물로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대피했다는데 좀 위문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진, 나, 정한식이 그때 인제 선인재단 축대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셋이 만나니까 뭐 이제 완전히 신이 났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진 목사가 한참 NCC인 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고, 나하고 한식이 좀 알아가면서 친구가 됐을 땐데 선인재단 사건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대책위 중에서는 제일 잘한 게 선인재단 축대 사건인데 그건 아픈 사건이지만은. 사실 교회가 한 일 중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진 목사 역할에 대해선 굉장히 평가를 해줘야 되고. 전교조에서는 그걸 선인재단 축대 사건을 사실은 너무 평가를 안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인

천대 민주화 투쟁에도 사실 선인재단 축대 사건에서 많이 축적
이 된 거라고. 그 연계성, 전교조에서 써 줘야 돼 사실은. 왜냐
하면 형제들 선업 인업 선인재단 형제들이 인천에서 얼마만큼
인심을 잃었는가를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찰 하
면 아직은 90년대 만해도 그런데, 그 경찰의 고위직 간부가 은
근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도 이걸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23명인가, 내가 정확하
게 인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홍수로 밀려 죽었는데 그 대책 과정에서 많은 꼴을 봤지. 보상
금이 몇 억이 나오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있는 게 한 명이라도
밖에 나갔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편해. 가족들 없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누가 1순위가 되느냐. 그래서 인제 한편에선 뭐 우
리가 할 일을 하고, 그 문제까지 우리가 대처하건... 근데 선인
재단대책위는 굉장히 보상도, 그분들한테 작겠지만, 우리가 보
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했는데 대책 끝나고 한 명도 인사 안 했
어요. 근데 동시에 그 당시 계산동 724번지 싸움에서, 제가 이
두 가지 대책위를 하면서 아주 큰 뭐랄까, 영감을 받았어. 724
대책위는 어떻게 보면 724 번지는 있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요
새로 말하면 폐지 수집장이야. 옛날에 뭐 그냥 냥마 모으는 데
였을지 몰라. 거기에 그냥 그 폐지로 만든 집에서 살던 사람
들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문화 예술회관이 들어온다고 계
양 저기 그 자리야 지금 계양문화회관이 들어오겠다는 자리
에 옛날에는 그게 냥마주이었는데 거의 몇 가구가 살고 있었
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야. 권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

람들이 이제 손을 벌려서 그게 인제 박원주가, 이게 한참 빈민
 하기 전에 주민조직하던, 하여튼 박원주 씨가 해서 724번지에
 도 우리 셋이 몰려다닌 거야. 이진하고 선임 때문에 몰려다녀
 서 계산동 문제도 어떻게 되어 연수구에 있는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들을 얻게 됐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그분들 우리
 를 초청을 했어요. 그쪽 아 인제 그래도 임대아파트 괜찮았어
 요. 근데 9평 짜리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분들한테는 호
 텔급이야. 근데 식탁을 차렸는데 뭐 그냥 돼지고기도 굽고 했
 는데, 푸집하기도 하고 정성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때문에 사실 작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느껴져. 근
 데 그게 지금까지 대책위 들어와서는 그 대접을 받은 건 계양
 산 724번지 뿐이 없어 근데 감동이에요. 그런 따뜻한 마음씨
 도 있어 거기 724번 하고 셋이, 뭐 이진이 대장, 나 하구 정한
 식이 인제 옛날 말로 따까리 해서 셋이 그랬는데 92년도가 DJ
 가 저거 단식해 갖고 지방자치제 부활시켜서 야권단일화하는
 데 지금은 인천이 진보 개혁 도시로 변했지마는, 그 당시 90년
 동안쯤에는 보수 압도의 시기였어요. 야권 단일화 운동, 그 당
 시가 왜 그렇게 됐냐면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이렇게 나뉘어
 져 있을 때, 그리고 민중당이 있었을 때 그래서 92년도에 야권
 단일화 운동하는데, 그때는 뭐 이진 목사가 대장이고 우리는
 인제 쫓병으로 같이 해서 그 장면들 봤죠. 그러니까 92년부터
 제가 2012년까지 야권 단일화 운동에는 계속, 인천 지역 야권
 단일화로 참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일정 주도적인 역할도 하
 고 했던 거 하나 기억나구요. 친구 셋이서 약속을 했어요. 정

한식 목사는 예장 합동목사조 정한식 목사는 인천연합, 인천연합에서 일을 해라. 한 사람이 왜냐면, 다들 교회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니깐. 그리고 김영철 목사는 시민연대 그 시민연대가 97년부터인가 만들기 시작해 하고 나는 기독교 쪽 일을 그래서 제가 한 야권 단일화 운동에는 개별적으로 들어갔지만 지역사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때는 없어요. 집회 참석 정도 했는데 김영철 목사가 캐나다 유학 가니까 내가 시민연대 뭉치지 않게 된 거지. 김영철 목사가 먼저 전임 노동위원장이었어. 그래서 김영철 목사가 했을 때가 거기 저기 비료 만드는 회사인가 폭발 사고 난데가. 진흥정밀인가 폭발 난 사건 큰 사건을 저기 김영철 목사가 해결하고 나갔고 내가 이제 97년에 들어갔는데 교회 쪽 활동만 할 때하고, 시민연대를 만나서는 저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좀 날개를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그래서 시민연대 활동을 98년, 97년, 98년일지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시민연대 자체는 97년에 만들어졌는데 나는 아마 98년부터 열심히 했을 거예요. 98년서부터 2010년 정도까지 그러니깐 12년 정도는, 제 표현으로 하면 시민연대 계단 4층인데 시민연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뛰어 올라갔지. 그래서 시민연대의 10년이었고.

임병구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그전에 이제 지역의 여러 사안들 중에서 뭐 신립섬유 사안이라든가 ...

윤인중 신립섬유는 빼 주세요. 그 목사하고 관련돼 갖고,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사안 중에서 기억나는 건 어쨌든 시민연대 하면서 경동산업 문제 해결하는데 일정하게 좀 역할. 노동

자 기업으로서 경동산업이 뭐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동산업이 본 위치를 찾고 시민 활동도 지원하고.

임병구 네 지금 키친아트로 지역에 공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윤인중 키친아트죠. 제가 2000년 무렵에 신생 단체인 오늘 여기는 안 썼는데, 민족사랑 청년 노동자회인가. 거기가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인천 지구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민족사랑 청년회 때는 내가 결합 안 했는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하면서 고 중앙에서 홍근수 목사님이 열심히 일할 때거든. 그 평통사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천 회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평통사를 만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단체 중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깊은 향이 나는 단체, 평통사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거의 마지막 남은 빨치산 같은데, 작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헌신적인 조직이에요. 그런데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좀 너무 일을 많이 맡았어. 민주노동당 그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말하면 너무 많아갖고 시민연대 하면서 너무 많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약간 무리다, 교회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었죠. 정신없이 살았는데 2002년도인가 이라크 파병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노무현 때. 노무현 2001년 이라크 파병 문제가 쟁점화된 게 아주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고 어간이에요. 저기 노무현 집권시기니까. 그래서 이라크 파병 이 문제를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생각으로는 ‘파병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을 해서 평화 기독교 평화 운동을 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평통사 활동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라
 고 할 수 있고 어 평통사보다는 좀 더 좀 대중적으로 평통사
 가 훨씬 선도적인 조직이라면 기독교 쪽에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데를 좀, 특히 반전평화 운동을 하는 데를 모색해야 되겠
 다 그 길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백영민 목사한테
 했더니. 그 백영민 목사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대표도 하고 환
 경운동. 그러지 말고 환경운동과 평화 운동을 같이하는 기독
 교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생명평화기독연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생명평화기독연대 활동을 한 것이 또 기억이 나네요. 그
 것이 다 사실 계양산은 시민 대책위도 있지만 생평기독연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시민연대에만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생명평화기독연대를 함으로써 사실 계양산
 나무 위 시위 올라가는 가장 큰 동인도 된 거죠.

임병구 그 시민연대 처음에 노동위원장으로 시작하셔서 정책위원장
 ...

윤인중 집행위원장

임병구 공동대표

윤인중 그렇게 했죠. 그게 한 12년?

임병구 계속 맡아서 시민연대에 계속 헌신하셨잖아요. 시민연대 활동
 에 대한 소회를 좀 더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
 제 계양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중 나는 시민연대, 근데 당시의 시민연대는 지금의 시민연대하고
 는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시민연대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닌데, 제가 일할 때 시민연대가 사실은 시민연대로서 좀 빛날 수 있는 호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 정당들이 아직은 힘이 없었던 때 그리고 진보정당이 미성숙한 이 조건에서 시민단체에 부여된 역할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시민연대에 은근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연대 달라. 근데 그 조건은 확실히 달라졌는데 시민연대 제가 할 때는, 여성, 환경 그리고 종교 카톨릭 쪽하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 복지 뭐 이래서 한참 많았을 때가 33,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걸 한 30여 개의 지역의 제 단체들이 각자 고유한 일을 하는데 연대체를 만든 거, 그리고 그걸 유지해 왔던 점에서 인cheon 민주화, 인천시민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는 시민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민연대가 인천시민들의 한 구심점, 특히 인천이 정주의식이 좀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출신은 별로 없고 다 저처럼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많아진, 그래서 인천에 대한 정체성이 늘 다중적일 수밖에 없는데, 뭐 다중적인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인천 나름대로의 도시로서 도시 공동체로 해서 좀 특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데서 시민연대가 그 일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

각을 좀 하구요. 저는 근데 연대 운동의 가장 폐해라는 게 약간 주인 없는 운동으로,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체 중 단체들은 개별단체들은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여민회는 여민회, 여노회는 여노회, 나름 단체 저기 있는데, 연대체에서 일해 본 사람들의 가장 아쉬운 점은 연대체 주인이 사실 있기가 힘들잖아요. 협력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런데 이 연대운동 네트워크 운동이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까하는데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고 그런 점에서는 지역에서 운동했던 선배들이나 좀 시민운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시민연대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협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너무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제가 얘기했듯이 시민연대 4층을 한 번도 걸어 올라간 적이 없이 뛰어 올라와요. 그게 시민연대는 이 표현이 좋을지 몰라도, 제 아마 인생의 가장 가장 활동적일 때 제 애인이었죠. 아주 막 시민연대가 켈... 이 얘기 교회에서 들으면 특히 인천평화교회에서 들으면... 그랬어요.

임병구 근데 잠시 쉬었다가 ...

윤인중 나 이거 너무 준비를... 계양산은 제가 참여하게 된 게 그것도 우연이에요. 저의 인생에서 우연히 좀 있는데, 이진권이라는 새봄교회 목사가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계양산 한번 돌아 봅시다 그러더라고. 처음으로 나는 계양산 가면 처음부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만 갔더니, 진권이 돌레길이 있습니다, 돌레길 한번 도시죠, 돌레길을 처음 이진권하고 그 계양산 다녔으면서도 돌레길 도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임병구 당시엔 둘레길이라고 하는 길이 없을 때잖아요.

윤인중 없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아직 정식화된 둘레길은 아닌데. 그냥 지금 말하면 그런. 야 여기가 어떻게 지리산 깊은 곳에 들어온 그 자락이 인천에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계양산 둘레길 저기 뒤쪽 북사면 쪽으로 갔더니 개울이 흐르더라고. 나산에서 개울이 흐르는 것도 계양산에서 처음 본 거야. 계양산 앞쪽은 개울이 없거든. 계양산 그 뒷길을 이진권 통해서 만났는데 시민연대 회의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양산 대책위가 있더라고. 그 당시 시민연대하고 관계없이 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해서 녹색연합 카톨릭환경연대 그쪽 중심의 대책위가 있었어. 그래 내가 조강희를 불렀지. 그래 내가 참여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곳을 지켜야 된다. 인천에서 그런 생각했는데 퍼뜨려서 나 좀 꺼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대책위에 들어갔어요. 이미 대책위가 출발한 다음에 나는 준비 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저하고 김일회 신부가 공동대표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회의 중에 계양산 이거 지켜야 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자. 나하고 김일회 신부가 단식으로 들어가면 길이를 오래 못하니까,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가 시청 앞에서 농성하자는 결의를 갖고 시청 앞에서 텐트를 쳤어요.

임병구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윤인중 그런거죠. 사실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던 거예요. 농성을 한 지 2주 됐나 1달 됐나. 나무 위 시위가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나하고 김일회는 공동 대표잖아. 우리도 몰랐어. 그래서 인제

약간 서운했지. 아니 글구 공동대표 둘이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공시위가 뜬 거야.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씩은 가자 그래서 나, 김 신부하고 1주일에 1번씩 보름이(인천녹색연합 활동가 신정은)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보름이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측은해. 젊은 아가씨가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대책위 갔는데 나는 그렇게만 활동을 했는데 대책위 들어보니까 보름이 어머니 아버지가 운다는 거잖아. 울지 그럼 처녀가.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기가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당시 걱정이 되는 게, 야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 여성을 여성 활동가 젊은 여성 활동가를 볼모로 해서 운동권이 나무 위 시위를 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당한다. 그리고 울고 있는 부모님 취재했다 그러면, 우리 거의 뭐 이게 인륜도 없는 저버린 운동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은이를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정은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임병구 근데 신정은 활동가가 나무 위에 ...

윤인중 45일 있었어

임병구 56일이라고 기록을, 56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던데

윤인중 55일인가 56일 있었어

임병구 56일째 내려온 겁니다. 그 55일이

윤인중 어 56일째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56일이 맞겠다. 나하고 하루 접치니까

임병구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윤인중 그 이면은, 그 선배들이 정은이한테 너 올라가서 일주일만 있

으면 끝난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꼬셨대는 거야. 아 그리고 문제는 올라가서 내가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은이는 암벽 등반 씨클에 들어가 있던 애였어. 암벽 등반을 할 줄 아는 애였어. 나무를 혼자 타고 내려올 줄 알았어 정은이는. 정은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정은이가 나를 불쌍해야 될 대상이었지 사실은. 그래서 내려오게 됐는데 약간 대책위 내부에서 저기 이견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니까 쉬 접자 그리고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가자는 의견과 대중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 나무 위 거점이 사라지면 그게 더 힘들다 나무 위 힘들더라도 하자. 근데 나는 나무 위 농성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도 올라갈 테니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위 시위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항상 핀치히터가 되게 사고가 생긴 거야. 나무 위 시위가 죽 오다가 그리구 정은이가 올라갔을 때는 엄청난 플래시를 좀 받았어요. 내가 올라가니까 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한 마당이 끝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무 위 시위 사진 중에 여러분들 보면 정은이 사진만 멋진 사진 있지 나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취재를 하러 온 데가 거의 없어. 그게 참 근데 내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어 이거는 내가 기록을 위해서 내가 남겨야 돼요. 3가지 조건을 걸었어 첫째, 이건 정말이야. 내가 올라가는데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원칙을 내가 아 첫 번째 원칙은 대책위하고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나 혼자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전제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날 안심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독단적 이유로 뭘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내가 대책위와 합의 없이 행동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내려오라는 결정을 내 의사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 대책위가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단 한 조건, 내려올 때는 내 동의를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1년은 내가 한다. 1년은 내가 죽더라도 한다. 근데 1년 이상을 하면 나한테도 내려올 권리를 주라. 여기에 대해서 이거 현실적인 안이야. 내가 왜 이 약속을 얘기하면 대체 기간 3개월, 2개월이 되니까 지치는 거야. 윤인중 성격도 급하고 저 오래 못 있는다라고 판단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잘 버티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안 올라가 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 지경을 맞봤다는 데. 무슨 내가 숲속에 정말 뷰, 뭐라 그럴까 펜션이야 어 그게 텐트여서 그렇지 내가 있었던 거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숲 펜션이야. 암튼 내가 깜짝 놀란 건 내려왔을 때 여기가 어딘가라는,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오히려 밑 동네잖아. 근데 위에서 보던 숲하고 내려오니까 동서남북을 구별 못 해. 순간적으로 야 그래서 고 시점의 차이가 위에서 보는 것하고 밑에서 보는 거 엄청 차이가 나. 어려운 건 뭐였었냐면 내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게 제일 어렵고, 첫날 들어가서 별별 떨었어. 보름이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질 못하니까 내가 밑을 못 봐, 보니까 아유 못 보겠어. 이렇게 개는 뭐 난간에다가 로프를 딱 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나는 바닥에 거의 엎드려 뭐 꿀렁거려. 그러니까 보름이가 아유 못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보자. 하여튼 내려가라. 일단 내

러가고 한 하루 정도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구요. 누웠는데 바람이요 늘 불니다 밖에는.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해서 바람이 부는 줄 몰라서 그렇지 늘 불어. 그럼 저쪽 숲부터 소리가 들려와. 그러면 우리가 강도가 느껴져. 밤에 약간 바람 부는 날이면, 이게 왜냐하면 대나무 위에다 베니아관을 엮었기 때문에 거의 출렁거려. 근데 대나무가 또 삐걱거려요. 막 삐걱삐걱 이게 어우 그래서 떨어질래나. 저 아무리 편하게 마음먹고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하지. 근데 거기는 5시면 깜깜해지거든.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래 랜턴 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참 있는데, 야 보름이가 여기서 50일 살다 간 곳이다, 내가 또 기도할 때 그랬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왔던 놈이 매일 먼저 떨어져 죽을 걸 염려하는 얘기. 그래서 했다가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딱 정리가. 투쟁은 투쟁이고 사실 투쟁할 게 없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밥 먹고 나면 내가 할 게 없어 애들이 와서 유치원이 들어오면 애들하고 얘기하면 되고, 수녀님 들어오면 수녀님들 오면 되고, 나한테 돌 던진 놈 오면 뭐 하여튼 웬만큼 피하다가 한 번은 내가 욱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한 명이 지원을 나왔거든. 그때 참여연대 경호인가, 하여튼 옛날 활동가가 있어. 저기 옛날 참여자치 연대 할 때 인규 밑에서 일했던 친구가 당번이었어. 그 친구가 혼자 있고 난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린 쪽 그냥 텐트에서 있지 할 얘기도 없어. 사실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산지기가 와서 우리가 쳐놓은 플래카드를 자르니까 얘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왜 플래카드

를 함부로 떠나 하니까, 낫을 들고 애를 쫓아다닌 거야. 막 애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죽이겠다고. 나는 위에 있지 그리고 나 지금 웃기는 장면이야. 나는 나무 위의 시위를 보고 있는데 말리던 활동가를 이놈이 쫓아오면서 위협을 하는 거야. 내가 개새끼 뭐 하지 마라고 막 그냥 소리 질러 내가. 그때 이제 폰에서 형사들한테 전화를 했지 이거 빨리 와라고. 미영이가 달려 막 그냥 나 혼비백산, 막, 애는 막 위협당해서 개가 아마 한 2~3, 한 1주일간 개 경끼 앓았을 거야. 어휴. 그냥 막 나는 뭐 내려갈 수도 난 뭐 내가 뛰어내려야 했는데 그 펴 용기는 없고 어우 너무 위급.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계양산에 굉장히 위기 상황, 그 친구 만나면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아까 세 조건에서 뭐냐면 2개월 정도 되니까 눈치들이 이제 고만하고 내려오지. 야 이게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근데 내가 영민이도 와서 형, 이제 고만하지 그리고 그 친구두 내가 그때 솔직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어 정말. 왜냐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왔던 목사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단 말이야. 아침에 1시간 내가 밖에 나가면 또 기도 안 해 할 시간이 없어 술 먹어야지 언제 기도하고 앉아있냐. 거기는 내가 아침이슬, 아침 햇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 노을 기도, 내 이름이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세 시간의 계양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빛 물든 기도, 내가 세 타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없으니까 CBS FM 배미향이 있어. 아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미향의 목소리 들으면서 그게 전

부인데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애들이 힘든가 봐. 빨래하기도. 맨 처음에는 밥이 올라오는데 진수성찬이야. 진수성찬인 게 큰 게 아니야. 내가 속으로 ‘야 니 아버지한테 니 부모한테도 이렇게 안 했겠다’. 그냥 막 밤 들어가고 대추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고. 막 이거 글썽 거의 내가 저승길 이게 젓밥이지 이게 보통 밥이 아니야. 한 달 되니까 이제 포장 저게 올라오는 거야. 순댓국도 올라오고 인제 포장 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내 인제 벌써 싸인이 오니까, 이게 인제 있기가 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다. 1년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애들도 그 약속을 좀 못하는데 애들은 못 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계속 나한테 내려와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더 있다가는 솔직히 말해 잘난 척하는 걸로 내가 비취질까 봐, 거기 있기가 힘들어졌어. 내가 힘들어. 백영민 내 허리가 아픈 것 때문에 내려오라, 아니라고 나는 허리가 늘 아프다고 그게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올라가서 와서 허리 아픈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그랬었어요.

윤인중 거기 일했던 친구들도 열심히 했고 환경단체들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그다음에 시민 단체들 아마 한 몸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재미는 있었어요. 피곤했을 거야 거기 오는 게. 그러나 그래도 제 단체들이, 시민단체들, 정당, 노동단체, 그 수녀님들 내가 이제 1주일에 1번씩 미사 와줬어요. 거기서 제 일 기쁠 때가 유치원 애들 올 때하고, 수녀님 올 때 와서 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아름다웠죠. 거기에서 우리 임병구 선생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회심을 해갖고

교회를 다시 오게 된 거. 나하고 선후배 지간은 잘 안 하나까 계양산 시위할 때가 개척 1년 차예요. 인천 평화교회 그러니까 나 교회한테 너무 미안해 얘기를 못 꺼내줬더라고. 교회는 하여튼간 뭐 그냥 내가 조인영 목사한테, 친구한테 내가 저기 올라가니까 니가 좀 목회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니 올라간 동안 자기가 해주겠다고 친구가 그랬어. 우리 교인들 우리한테 그랬더니 교인이 5~6명이었을 때 누군가가 또 아유 뭐 계양산 가서 예배 드리죠 그래갖고 계양산 나무 위에서 시위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거기 한 저기 손님이 임병구 집사가 가족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있을 때까지만 다니겠습니다. 딱 그래서 그러라 그랬지 뭐. 나야 좋지. 그러다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2006년도 만나서 이렇게 다녔는데, 투쟁으로도 의미가 있고 잘 했구요. 노현기 공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환경단체들이 꽤 열심히 했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속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인생이 또 바뀐 게 이 계양산 대책위와 관련 있어요. 계양산 대책위가 빛이 없어. 빛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교회 쪽에서 온 현금이, 그거 책도 다 교회 쪽에서 팔아줬거든. 한 4천만 원 정도가 현금이 들어 왔었어. 그냥 그건 나는 나하고 관계없이 처리를 했지마는 그러니까 교회 쪽에선 내가 빛을 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했지.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게요. 왜냐면 지역 운동이었잖아 그리고 내가 지역에서만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서울 안 나오고 민중교회 운동이나 운동권으로만 나갔

지 교회 쪽은 안 나갔는데 내 얘기가 한 벌써 5개월째 되니까 교회 쪽으로 쪽 퍼졌고 독일교회하고 일본교회 쪽에서도 이제 메시지도 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교회 쪽에선 내가 좀 더 있었어야 돼. 이게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인제 한국 교회 소재가 됐는데 나 내려왔더니 이해학 목사가 딱 그러더라고. 내가 이해학 목사한테 인사하러 갔었거든 내려와서. 야 너 왜 내려왔니 나한테 정말 내가 이, 아까 얘기한 걸 할 수도 없고. 야 그러니까 선배라곤 딱 믿을 놈이 없다는 생각. 아니 내려오고 싶어서 안 내려왔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 이해학 목사한테 그런 거야. 싸움도 한 건데 왜 내려갈수록 이 그런 게 있거든. 목사들은 종교인들이 한번 싸움에 들어갈 때는 자존심이 있는 거야. 끝날 때 죽든지 끝내든지 이래야 자존심이 살지 중간에 내려온 건 사실은 약간 좀 구기는 얘기야. 이걸 이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해학 목사 첫 번에 그러니까 내가 야 고생했다 이 얘길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 아니다. 내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나는 그 부담이 굉장히 있었던 거야. 빚 현금을 많이 만들어놔서 서울 쪽에서 나한테 일 내가 맞는 게 생태공동체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놔서 그래서 했고. 내려와서 딱 보니까 2006년 7년이잖아. 대운하가 이제 한참 난리를 칠 때예요. 아 계양산 하나만 더 합시다. 계양산에서는 나는 환경운동 쪽에서도 생각하고 시민운동에서 생각할 게 당시 계양산 싸움이 송영길 인천 시장과 안상수 그 시장 경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됐어요. 계양산을 골프장으로 개

발하자는 측과 이거를 시민의 숲으로 그냥 지켜야 된다는 게 단순한 이슈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 굉장히 중요했고, 이게 정책이란 거는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이 풀리 시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계양산 대책위가 시민운동 유연성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하구도 지역의 어떤 정책 선거로서 굉장히 잘 치르면서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성과가 났던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환경운동에서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환경 운동 자체로서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나고, 기장 내에 그 당시 두 가지 공동체가 있었어요.

임병구 그 기장 생태 공동체 얘기로 넘어가시기 전에 ‘솔숲에서 띄운 편지’ 일기를 또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때 소나무 세 그루를 묶어서 그 위에서 155일간 생활하셨잖아요. 소나무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서 늘직이, 묵직이,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영성적인 감성 같은 걸 그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조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인중 계양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건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면 등산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텐트 도와주러 온 친구 두 명이 있어. 그럼 그 친구는 안에서 라디오 뭐 라디오 듣지 뭐 하고. 나는 나대로 하는데 그냥 비가 쪽 오는데 나무들이 보통 소나무들이 한 25미터에서 30미터 정도 쪽 오는데 비가 오면 나무들이 젖어. 그럼 나무들 색깔이 밤색이 아니라 검은색처럼 짙아. 비에 젖은 나무들은 밤색이 없어. 쪽 젖는데 수도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

습 같은 정경으로 나한테. 그냥 그 숲이 어느 순간에 온 거야. 굉장히, 나한테 감격적인 그 순간이었어요. 야 놀라운 거는 소나무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거기 다람쥐들도 있고 동물들이 움직이는 건, 짹 사라지는데 비 오는 데 의연히 그 비를 맞고 있는 나무 같은데 근데 말이 없어. 말없이 비를 맞는 나무에서 내 인생하고 전혀 다른, (웃음) 거기서 내가 나무들에 대한 존경을 했는데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 중의 하나가 태양의 위대성에 대한, 태양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연관돼 있는가를 못 느끼고 사는 불행한 세대야.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없어. 아침에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현대인들이 확인을 안 해. 옛날 사람들은 다 확인해야 돼. 내 계양산에 있을 때는 해가 떴냐 안 떴냐가 나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해가 한 8시쯤 뜨는데, 내가 있는 데에 뜰려면 9시야, 햇빛이 들어와 그전까지는 어둠이야. 근데 햇빛이 들어오는 겨울하고 햇빛이 없는 겨울은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근데 밝기가 그래서 나는 옛날 사람들이 책을 봤다는 데 도저히 못 읽어요. 이 형광등 밑에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햇빛 아래서 책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아. 근데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졸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누군가가 표영삼 선생님의 동학 이야기라는 두 권의 책을 올려줬어요. 이현주 선생이 올려줬는지, 이현주 목사님이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진 모르겠는데 그 동학 이야기를 꼭 듣는데, 내가 야 간다가 20세기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세계적으

로 알려졌는데, 사실 간디 이전에 조선의 해월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죠. 다만 조선의 해월과 간디의 차이라면 해월과 간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성자와 일본, 이 캄패 일본의 식민지였던 해월, 근데 해월 선생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인인 게 두 가지로 하면 하나는 천어고, 천어 하늘의 언어, 하늘의 목소리, 하늘의 메시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천어는 심어다’라는 그 깨달음이, 이 기독교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외적인 계시에 의해야 하는데, 해월의 깨달음은 그 천어를 들으려면 내 마음속 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올려 나오는 마음에서 올려 나온 소리가 천어다라는, 거꾸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을 참 잘 다스리는 어 천어를 들을 수가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와서 해월한테 물어요. 왜냐면 동학 포교가 불법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잠행하면서도 우리가 포교를 더 해야 될까가 굉장히 동학의 난제였는데, 아 해월의 그 세 가지 포교법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포교법 그 중에서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그리구 설득력 있는 포교법이다. 첫째, 우직해라 둘째, 눌직해라 셋째, 묵직해라 요게 아 묵중해라 예요. 사실은 정확한 언어는 오직 어리석게 좀 보지만 끈고 강직해라, 어눌하지만 강직해라. 그리고 말없이 무겁게 있어라 묵중해라. 이 세 가지 포교법 포교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 저쪽 퀘이커들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퀘이커들의 포교법은 뭐냐면 우리는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이렇게 나가서 많이 하잖아. 근데 퀘이커 쪽에서 킴 앤 씨, ‘와서

보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에게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그게 우리에서는 해월은 이미 우직, 눌직, 묵중, 했더니
내가 나를 버티고 있던 세 소나무가 우직하고 소나무하고 잘
어울려서 야 정말 그리고 나를 말없이 지켜주니까 탁 우직, 묵
직 그러니까 묵중인데 내가 직으로, 우리 돌림자를 직으로 한
세 그루 해서 요번에 계승사업회에서, 아니 저기 인천 센터에
서 저기 거기다가 이름 달아. 아 여기가 아닌가 계양산 어디
서 했나, 장정구하고 했구나 녹색연합이었구나, 그 이름표 달
았어요. 우직이, 눌직이, 묵직이, 이름표 달아주고 왔는데 고거
였고. 지금 기후온난화, 올 겨울도 지금 뭐 삼한사온이 깨지고
십한십온 뭐 칠한칠온 하여튼 간 기후에 굉장한 변화가 온다
생각하는데, 아 참 답답하네 이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문
제를 이게 한번 모두가 관심을 써야되는데, 전쟁 놀이 이 윤석
열 개판 치는 놀이를 해서 지금 현실에 우리가 갇히게 되잖아
요. 이게 제가 사실 우리가 지구 생태계 자체가 지속 가능한가
를 물어도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남은 세계인데도 내적
으로 분명히 사회적 양극화 문제 있고 전쟁 문제 있고 또 사람
들의 성장 욕구에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계양산에는 좀 고
런 시간 짧지만 그래서 보름이 하고 나하고 합하면 210일이나
있었어요. 보름이가 56일 내가 155일 있었거든 210일 있어서.
거기서 책을 하나, 나무 위에 여자란 책을 누가 올려줬어요.

임병구 예, 나무 위의 여자.

윤인중 그랬더니, 그 친구는 560일 있었더라고. 그 친구 나무 위에서

시위를 한 친구네 몇 미터 상공에서 했냐면 65미터, 그 나무가 거기에는 루나야. 왜냐하면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거든 스페인어로. 왜냐하면 그 친구도 처음 나는 우직이 눌직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루나에서 표기했던 건가. 내가 루나를 먼저 보고 그 친구 버터플라이 힐, 줄리아 버터블라이 힐, 줄리아 힐이었어 개 이름은. 근데 나무위 시위를 통해서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개 태풍이 치면 거기는 날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텐트에서는 있질 못해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텐트 안에서 태풍이 칠 때 날라 다니면서 자기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어 근데 그 친구 책을 읽으면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그 친구가 훨씬 개념이 맞아요. 삼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서 삼나무숲이 100프로가 있었는데 98프로가 없어졌어. 2프론데 2프로도 엄청난 크기예요. 그거 저기 넓이가 우리 뭐 그냥 몇 그루 계양산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저기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엄청 큰데 거기서 2프로 남은 삼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성지와 같은 느낌, 아 내가 지금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느낌을 그 친구가 그때 받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진권이 통해서 그 길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진권이하고 걸음이 없었으면. 내가 왜냐하면 계양산 대책에서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했을 텐데 그 길을 걷고 나서 내가 사실 내가 나중에 끼워달라 그랬던 거거든. 끼워서 이렇게까지 온 거죠.

임병구 그럼 이제 계양산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하셨던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생태운동본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윤인중 그 기장, 내려와서 딱 봤더니 이명박 대운하가 그때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또 경인 운하까지 문제가 돼갔고. 그래서 계양산할 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아서 4대강에 뛰어들었는데 그때가 왜였냐면 종교인들이, 내가 어디 소백산 어딘데 이현주 목사랑 몇 그 어른들이 종교인들 4대 종단의 어른들이 걷기를 하는 모임을 했는데 이현주 목사가 사실은 내가 계양 산 있을 때 너무 자주 오셨거든. 한 달에 한 2~3번씩 오서 갖고 책도 많이 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한테 좀 고런 속에서 아 운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교단에다가 내가 이제 계양산 내려와서 그래도 봉사는 내가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기독교 내에 운하 반대하는 데 좀 봉사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가 했더니 교단 쪽에서 아이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대책위 만들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상설 조직을 총회예대 만들자는 거야. 생태공동체 그 당시 기장에서는 평화공동체 운동본부하고 어 개척교회운동본부하고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생태공동체를 합시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이제 생태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중심이 제가 자연스럽게 지역을 떠나게 된 일이고, 이거는 하역튼 지역을 떠난 다른 이유지만 야권단일화 운동의 높은 성과와 또 거기서 좀 한계도 느끼고 해서 아 인천에서는 이제 내가 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교단에서 또 도움도 필요했고 그래서 올라갔던 게 생태운동체 본부인데 계양산 하 고의 사고에서는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좀 생태공 동체 운동을 하면서 달랐던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 면 변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 변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50년, 100년, 왜냐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견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친미 반 공 교회로 전락할 거예요. 축 자체가 변한 한국 교회, 왜냐면 한국 개신교가 지금 저는 가장 철박서니 없는 지금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 하면서 기독교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그 당시 네덜란드가 식민지였을 때 기독교가 훨씬 지금보다 많았겠죠.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2 프로 얼마 안 돼 요 소수파가 되는 거야. 이전의 한 뭐 15프로 이렇게 가면 쪽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거의 식민지 짓하는 거거든. 그러 면 일제 때는 왜 한국 개신교가 긍정적이고 70년대까지 할 수 있냐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당사에서 우 리 사회에서는 가장 힘센 놈이었어. 미국이 저쪽에 있지만 우 리하곤 관계가 없고 아시아권에선 일본이 제일 힘 는데 일본 이 무시 못한 상대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깐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이 미국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놈은 욱 해도 미국은 우군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긍정적 인 역할인데 적어도 해방 이후는 미국이 인제 일본을 대신해

서 미국의 중심인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는 강요되긴 했지만은 그건 강요된 거지 자발적인 친일과는 몇 프로 안돼요. 근데 지금은 자발적 친미파가 한 내가 보면 70~80프로 되는 거 같애. 이젠 내면화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젠 미국의 포로가 돼 있다 반공의 포로, 친미의 포로가 되어있는 기독교가 지금 그런 짓을.

카톨릭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탄압을 받고 컸어요. 카톨릭은 300년 동안 탄압을 받고 조선조부터 온 거야. 이게 일본하고 미국과 함께 관계없이 카톨릭은 이 조선과 맞대결에서 싸우기도 했고 또 저기 문화적 타협하면서 한국화된 천주교로 해서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게 한국 기독교 중에 천주교가 있다는 게 지금은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를 욕해서 천주교 교체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개신교 다니다 천주교 가는 사람 많은 게 나는 이거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 그래서 천주교는 더 늘어나고 개신교는 쪼그라들어야 돼요. 아주 쪼그라 들어야 돼. 근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개신교 목사여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를 사실 자연 그러니까 환경운동으로서도 내가 생태계를 들어갔지만은 나는 한국 교회에서 환경생태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킨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유조선 사태 났을 때 유조선 기름 제일 많이 거두러 간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 데이터를 내가 본 거야.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고. 어 만약에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굉장히 낮춰서 다른 운동 못 하

게 오히려 전광훈 같은 집회 못 가게 하고, 우리 민주화운동에 안 와도 되는데 나는 교회가 크게 무리할 수 없는 환경 생태 운동 그걸 기장이 브랜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예요. 우리 기장이 소수 교단이잖아. 개별 교회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역할을 기장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인중은 몰라도 돼. 기장의 목사들 이름 아는, 정의구현사제단 이름 아는 사람이 어딴어.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름인 거야. 기장을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기장하면 사람들 어 기장하고 한신하면 정의구현사제단이구나. 저 개신교에 이걸 들어야 기장도 살고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게. 한국 교회가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된 놈하고 반공 토론을 해서 한국 교회 변화 못 시켜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엄청 많고 요번에도 광화문 집회하는데 연사들이 다 부흥사 목사들이라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아니야. 다수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우파들이 모였는데 찬송가 부르고 이스라엘기 들고 미국기 들고 이렇게 지금 판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생태공동체에서 하나는 교회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게 한국교회에서 적은, 나는 진보교회들이 이 대중적인 교회 운동을 하는. 지금은 어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낮은 수준으로 해야 되잖아. 그게 되지 않을까? 정치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늙었어. 거기 가서 해보니까 다 좋은데 형 너무 고리타분하다 입 열면 얘기 많이 하고, 결정을 뚝 던져 지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인제 그만됐지.

임병구 그럼 이번엔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규명 대책위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윤인중 아이 노골적으로 하고 싶는데 노골적으로 할, 정말 장준하는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 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만약에 한 권의 책 의미 있는 책, 뭐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다 빼놓고 장준하를 돌베개로 만난 거야. 그리고 신앙인이니까. 그 돌베개 알잖아. 야곱의 돌베개. 찬송가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거 생각나. 뭐 거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그 러브스토리도. 장준하 선생은 인품, 인격과 신앙에 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한국의 기독교인. 장준하 하면서 세 사람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장준하, 운동주, 문익환 세 친구라는. 한국 기독교가, 20세기 한국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내놓은 세 모델, 근데 그중에서도 장준하가 압권이었죠. 문익환 목사가 학자에서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건 장준하의 죽음입니다. 장준하 선생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월남전 우리가 채명신 장군 있잖아요. 채명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나에게 유일한 대통령은 장준하다. 채명신이 박정희와 더불어 5.16도 하고 나중엔 견제를 받아서 월남전의 영웅이 되지만 박정희한테 굉장히 미움도 받고 해서 한직에 있는데, 채명신 장군도 굉장히 장준하 선생을 존경했죠. 근데 인품과 신앙에서 했고 그분은 하나 독특한 건 지독한 보수주의에서 지독한 진보주의자로 서서히 변한, 인생 자체가 장준하 선생이 김구 비서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활동해요. 임정에서 귀국한 후에 근데 김구 선생님이 북으로 간 다음에 비서직 그만두니

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조선신학교로 들어온 거야. 그럴 만큼 사실은 김구보다도 훨씬 이제 보수지. 아니 저 그러면 반공이 분명히 있었어요. 장준하에게서 반공은 보수가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쪽 오면서 사상계하고 나중에 정치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 되면서 모든 통일은 선이다. 어 이 말을 우리한테 남긴 거죠. 지독한 반공주의자 장준하 나왔는데 인격과 정 말 삶이 일치된 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돌베개의 영역인데 의문사 얘기를 뭐 그게 74년도인가 75년도에 있었던 일어서 내가 어릴 때 들은 일어서 잘 모르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사상계를 사는 게, 굉장히 좀, 과외를 하면 애들 과외를 해서 돈 벌면 사상계 창비 그다음에 사상계 다음이 창비였어요. 어 그때 세대니까 장준하한테 빚진 심정이 있었고, 또 한신 또 대선배기도 하고 제가 찾아갔죠. 내가 정세일 선배가 먼저 정세일 장로님이 연결돼 있어갔고. 왜냐면 그 장준하 선생 큰 아들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 내가 일하고 싶다고 거기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을 거기서 했는데 저한테는 영광이었는데.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도 한 6~7년 하다가 대책위 종료시키고 그러면서 장준하는 아직 시대가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부채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후배이기도 해서 들어갔습니다.

임병구 장준하 의문사 규명 활동에 대해선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인중 특별히 없어요. 뭐 장 선생님 제자들도 너무 많고 보안사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거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진정으로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계사의 역사책에서 쓴들 그걸 할라고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처럼, 장준하는 이미 부활했죠. 역사적으로 다만 죄진 놈들이 반성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장준하를 누가 가둘 수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장준하 선생님이 뭐 얘기해서 제일 안타까운 그런 거야. 장준하 선생님이 섬마을에 가서 가르치던 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김희숙 여사님이 그 선생님인데 섬마을 선생님과 그 학생이 결혼해서 인제 사는데, 예이분이 학병을 인제 자원하고 간 거 아니에요. 왜 자원한지도 다 알잖아요. 왜냐면 탈영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님 그 점에서 머리가 좋아. 독립군으로 가면은 집안 모두가 폐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학병으로 가. 그런데 학병에서 탈출했다는 결론은 일본군이 자존심이 있어서 학병 탈출 확인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학병 탈출자는 가족들을 저기 못하는 거야. 헌병이 오는 거야. 일부러 헌병이나 검찰들이 장준하 선생님 와 그러면 이 김희숙 여사가 알면서도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군에 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형사들도 사실은 혹시나 여기 왔을까 하고 감시를 왔는데 어유 그걸 잘 있다고 노골적으로 탄압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를 깨야 되니까. 야 장준하 선생님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을 지킬라고 학병을 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영을 해서 구만리 장정을 걸어간 거지. 그런 뚝심 우직 그거 우직함이죠. 재야 대통령이라는 게 쉽게 안 나와요. 아 그건 내가 그건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성인의 수준입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임병구 정치, 그러니까 연대 활동도 인천에서도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는 대선 정치행동 활동 등 정치 격변기마다 활동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윤인중 아 그거는 정말 그 저로선 삼총사 이진 정한식 윤인중 어릴 때 30살 때, 30살 되기 전에 92년도에 그러니까 30살 조금 지났구나.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고 몰려다니면서 아주 그리고 재미있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은 아주 새로운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기독교 운동은 기독교 사회운동은 좀 더 기독교 사회운동 시민운동도 그렇게 됐으면 더 막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중적이고 평화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주의 이 세 가지가 제 모든 운동론의 요체 핵심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세 가지 기둥이라 하면 대중적인 가장 대중적인 거 그리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해 민주주의 혁명은 중요하다 예 그리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거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정당이 선거는 권력을 합법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갖는 기회지만은 저는 교회의 입장에서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선거를 교회나 시민단체가 놓치면 나는 그건 내가 옳다는 건 아니고, 내 입장은 나는 대중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하여튼 전문적인 평화적인 운동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이거든. 그리고 그 점에서 제가 교회를 설득 많이 했죠. 근데 거의 뭐 어디 가서나 그런 얘긴데, 제가 이제 고만둔 과정, 그걸 어느 후배가 나

를 보더니 아 형 또 정치하러 왔구나 그러더라고 농담이었지. 그 친구가 뭐 진담으로 그런 건 아닌데 내 거기서 오만 정이다 떨어졌어 인제 고만해야 될 때다. 그런 인상은 내가 싫어하는데 나는 그래서 10년도 12년을 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이 되는 때 밤을 일부러 더 꼴딱 새고 내가 이거 맞아요. 내가 요번 끝나고는 그만둔다 뭐 모든 걸 내가 은퇴한다 이제 현역에서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근데 마무리는 좋아. 내 솔직한 저기 저기 뭐야 이제 마무리인데 기독교 정치 행동을 그래도 12년 동안 해서 마무리해서 잘 하고 하는데 처참하게 마무리되고. 이 지금 윤석열 한 동안 거의 저는 약간 분노가 쌓인 거의 정말 답답해.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나 교회 사람들한테 밖에서 한국 교회는 용병 이제는 이거 특수부대라고 봐야 돼요. 그냥 종교 집단으로 보서는 곤란합니다. 어 한국 교회 전광훈 목사.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수의 삼총사가 있었는데 우리 문익환 정도면 한경직 목사예요 거기에. 그다음이 조용기예요. 여러 분들이 아는. 전광훈이에요. 세 사람 다 본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격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경직은 겉으로는 점잖아. 누가 봐도 목사 같애. 근데 지금 전광훈이 이름이 뻥스 목사잖아요. 이게 이게 목사의 그게 원효 아니 그러니까 원효 스님같이 중생의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 세속의 깊은 곳에 오물을 치우면서 부활하고 극락정도를 이룬 그 뻥스가 아니잖아요. 이 뻥스는 응 이제 이렇게 된 판에서 아까 좀 했는데 저는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교회 역할

이고 다른 사람들을 안 믿을 때 저는 한국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국 개신교 굉장히 욱먹지마는 한국 사회에 그래도 빛을 하나 쬐다 라고 나는 한국에서 그게 인정되길 바래요. 한국이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할 텐데 아 그건 제가 보기도 사실이에요. 저는 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학도 그렇고 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에 특히 한국 개신교가 서양에서 가져온 것 중에 교육 의료 지금 교육으로도 사실 교회만큼이나 이제는 권력화돼 있지 그러나 교육과 의료가 들어온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계 종교계 의료계는 다 보수화됐죠. 그러나 교육과 의료 이런 빛을 쬐고 서구적 사고가 가능하게 했다는 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데 개신교가 빨리 동쪽으로 변화해야지. 그래서 저는 동학 동방 동학 하면 또 이상하겠구나 동방 기독교 동쪽 기독교를, 한국의 지금 주류 기독교는 서쪽 기독교라고 봐야 돼요.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라면 이제는 한국이란 자궁에서 태어나는 기독교가 필요해요. 한국 이러한 자궁에서 예수가 다시 저기 태어날 필요가 있다.

임병구 근데 이번에는 평화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셨고 특히 인천에서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대중적으로 펼쳐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윤인중 사실 그것도 저희 작품은 아니고 박성준 선생님 한명숙 전 총리, 박성준 선생님이 생각을 해 놓은 거고, 사실 그걸 먼저 한 거는 사진작가 이시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 오래 했고. 한 거는 이 한강 하구가 인천에 있

고 또 인천에서도 대중적 동원력을 우리가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한강하구 평화의 배인데 인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운동은 이걸 인천시에서부터 빨리 시각을 교정해서, 계양산 지키기 운동이 지역적 사안이라면 한강하구 평화의 배 사업은 인천 지역 인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 사업으로 평화운동의 사업으로 발전해야 돼요. 계양산은 국제화되기 힘들어요. 계양산은 인천 사람만 알면 돼. 근데 평화의 배는 소재가 인천 경기지 인천 경기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계 한강하구 평화의 배 사업을 굉장히 평화의 관점에서 생태계 관점에서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요새 거기서 큰 무당 ...

임병구 김금화 만신

윤인중 김금화 선생님, 난 김금화 선생님 내가 무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김금화 선생님이 우리 첫 번째 하구에 나가서, 그 거기서 죽어간 국방군들 국방 우리 군인들과 인민군들 사람들을 불러놓고 울고 하는 장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 아 내가 나는 목회자인데 그 정도 능력이 없는데 아 이 분이 그니까 종교적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동화해서 막 눈물을 ping ping 흘리고 막 하는데 연기가 아니야. 김고은이 '파묘'에서 연기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김고은의 연기는 이게 연기지 어떤 면에서 연기인데 영혼이 있는 연기 정돈데 이걸 정말 진실한 어머니와 누이의 몸짓이에요. 사제의 몸짓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죽은 자들 전쟁 한강 하구 문제를 특히 중국과 일

본 이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 동아시아에 미국이 있었던 거 얼마 안 돼요. 20세기예요. 19세기 이제 말하면 미국이 그렇게 저기 동아시아 중요하냐, 그리고 미국이 나갈 시기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중국 북한 우리 일본 대만이 이 동아시아가 세계 인구적으로도 엄청 많은, 거기다가 인도까지 켜면 세계 4분의 3 정도 돼요. 우리가 인도에서 일본까지가. 그러면 우리는 미국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인도까지의 이 나라들 사이에 평화 문제, 그 핵심으로서, 의제로서 하여튼간 생각인데 그게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도 됐고 평화의 사업을 만난 건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죠. 거기서 열심히 했고 아이들 참여시킨 것도 좋았고. 저 마지막 이제 정리인데 내가 얘기가 안 된 세 가지, 제 운동에서 해서 보람 있었던 운동 그냥 하나는 풀빵 나눔이라는 단체 만든 거, 단체는 아니고 전태일 그 제의 운동하기 전 전태일 열사의 불꽃 같은 죽음도 중요한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거고, 그리고 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전태일 열사 죽음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들 형제들 마음 너무 상해요. 전태일의 가장 위대한 점은 교통비를 아껴서 미아리에서 청계천까지 걸어가면서 풀빵을 사고 시다들한테 나눠줬던 마음 그 사람이 불꽃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내가 그 풀빵 나눔 운동은 나는 사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데서 좀 크게. 좀 그건 노동자 자체 운동 이게 지역에서 일어날 운동이 아니에요. 전태일 기념사업회 가져가든지 하여튼 그 운동은 난 전태일이 풀빵 나눔 자기

의 차비를 학교 가서 풀빵 나눔하는 것을 그 자세가 노동운동에서 사라지면은 사실 영혼은 없어질 거다 더 이상 사람 감동 못 시킨다. 전태일에게는 불꽃 같은 마지막 삶도 있지만 늘 일상적인 그런 나눔 그래도 풀빵 나눔 운동에 참여했던 것 굉장히 저 기억나고, 인천시 교육감 일파만파 운동본부 그 이름은 임병구가,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많이 싸웠어요. 임병구하고도 나는 시민연대나 시민 저기 사회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았었는데 나는 시민운동이 교육감 운동을 정당에 뺏기면 안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뭐 이제 교육감 되려면 다 정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딜레마인데 그냥 바램은 가까우냐 마느냐는 나중 얘기고 민주교육감 진보교육감을 시민들의 손으로 만드는 운동 그리고 그를 위한 일상적인 준비들 동네 단위에서부터,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를 꿈꾸는 교육되는 데서 교육감 선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을 하던 초창기부터 뛰어들던 게 굉장히 좀 의미 있고,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나는 평통사에서 배운 또 하나는 무기 장난감을 화분으로 바꿔주는 운동을 평통사가 꽤 오래 했어요. 그런 거 일상 속에서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평화운동 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저기 나이가 인제 이렇게 됐네,

임병구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 오셨고 그걸 오늘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 겸해서, 활동을 다 마무리 하신 건 아니지만, 마무리 하시면서, 제주에 가서 1년 동안 제주살이를 하셨어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생각

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걸 통해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깨달음이랄까요? 그런 걸로 마무리 말씀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인중 제주살이는 축복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1년 살고 왔는데 그때는 약간 좀 상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대신 치르고 제가 사실은 저로서는 나름대로 기독교 쪽에 집행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전투에서 졌는데 정 말 감도 안 되는 놈한테 졌다는 이 자존감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너무도 많은 참상들을 보면서 아 정말 화가 내 안으로 분노가 인제 막 차오는데 이거 좀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다 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하루에 만 6천 보, 만 5천 보, 만 6천 보 쪽 걸었어. 그래서 제주 살이에서는 제주에 있는 지명인데 '사려니숲'이라고 있어요. 나는 사려니 숲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 이 말이 사려니가 무슨 뜻인지는 그때 정확하게 몰랐어. 보긴 봤었는데 기억났는데. 성스러운 숲이야. 나는 성스러운 건 좀 그러고 영험한 숲일 수도 있으니까 신비한 숲 성스러운 숲 영험한 숲이에요. 근데 내가 제주도 말하자 계양산에서 그 숲의, 그 숲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 같은 거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없잖아. 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래서 나무들이 제일 좋은 건 군말이 없어요. 뒷말도. 군말과 뒷말이 있는 건 사람뿐이 없어. 근데 그 침묵 그래서 이현주 목사가 침묵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면 그건 침묵이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얘기한다는데. 그 말씀 예 근데 그

걸 제일 잘하는 게 숲이야 제주보다도 숲이에요. 제주숲 바닷길 쇠소각 있는 데서, 바다 쇠소각이 바로 바다옆인데 약간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뭐 다 보이는 거죠. 그 파도를 이 바위가 맞는데 정말 세차게 몇 시간을 치는 것. 비는요 쭉. 나 근데 카페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감동이야. 암말 안해. 나는 그거 한 10분의 1만 맞았으면 난리 났을 거야. 뭐 근데 오히려 그 나무와 바위 같은 거, 파도치는 세상 속에 살잖아. 우리가 지금두 근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모닝 애프터’야. 아침에 눈뜨면 참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주제가 ‘모닝 애프터’거든. 아침에 그냥 환한 스트레스의 그날이 올 텐데 문제는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좀 나무 갖고 돌 같다고 봐요. 우리 시민단체들 후배들이 근데 그걸 말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에휴 우리 후배들, 후배들도 근데 뭐 어려워도 가야지 뭐 어떻게 또 그 길에서 저는 얻는, 깊은 인생으로써도 운동에서 얼마큼 했냐보다는 좀 큰 일을 못했어도 의미 있는 인생의 한 행로였다. 나한테는, 나한테 유일한 길이죠.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회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유일한 길이야. 근데 의미있었다 생각하고. 근데 후배들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새 현재로서 현재로서 내가 했으면, 나는 올레길에 안내자가 될까 그래. 그래서 인생의 후배들 지쳐서 또 뭐 재미로 오든지 하는데 하여튼 고런 역할들을 좀 하고 싶어요. 현장 역할은 내 임무는 아니고.

임병구 예 지금까지 세 시간 가량 살아오신 삶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끼신 많은 깨달음들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혹시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오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중 요새 나이 들어서 걷는, 걸으면 걸을수록 걷다가 잠깐 멈춰요. 왜 멈추냐 하면 옛날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순간순간 가끔 생각해. 그냥 확 올라오면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의미가 살았다 얘기는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괴롭게 했던 당사자,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 죄책 고백이라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좀 잘했던 일보다는 서투르고 모잘랐던 일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부끄러운 일들, 아주 진짜 차마, 이거 팍팍 생각날 때마다 걷기가 힘들어. 많이 하여튼 실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를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기적’이란 오래된 영화있어요. 그 수녀가 운명의 수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수녀가 그 성당을 떠났을 때 그 마을에 가뭄이야. 인생의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날 번개가 치고 그냥 그 마을에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야 내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 기적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나한테 들리는 천어는 이제 나가서 이제 움직이지 말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다 하는 게 요새 내가 듣는 소린데 아직도 하나님한테 그랬죠. 윤석열만 끝내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임병구 예 깊은 신앙의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구 고맙습니다.

2024 내가 살아온 이야기

초판 발행 / 2024년 12월 30일

펴낸이 / 오경중

펴낸곳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IT 타워 701호

tel. 032)862-5353 / fax. 032)862-5352

e-mail. idph@hanmail.net

디자인 / 도서출판 다인아트 032)431-0268

인 쇄 / 한컴프린팅

제 본 / 대한제책

ISBN 979-11-968967-6-8 (03300)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하며 운동할 때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앞에서 총구를 들이대는 계엄군들과 젊은 시위대 사이에 뛰어든 70대 시민이 외칩니다. “우리는 많이 살았으니 너희는 뒤로 가라!”,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우리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새로운 민주주의는 너희가 다시 쫓겨우라는 당부로 해석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2024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 흘려 저항하고 인생의 짧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쳐 힘들게 성장시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 서문 중에서



비매품